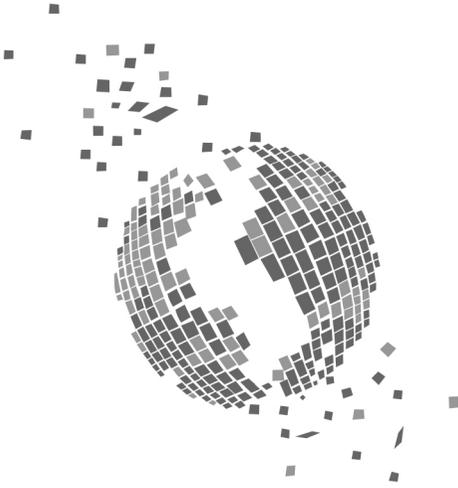




북한의 시장화와 사회적 모빌리티: 공간구조·도시정치·계층변화

홍민



북한의 시장화와 사회적 모빌리티: 공간구조·도시정치·계층변화

홍민

통일한국의 내일,
우리에게는 오늘입니다

북한의 시장화와 사회적 모빌리티: 공간구조·도시정치계층변화

(김정은 체제의 변화와 지속성 평가와 전망 KINU 연구총서 15-02)

인 쇄 2015년 12월
발 행 2015년 12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최진욱
편 집 인 북한연구실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02-2023-8000
(팩시밀리) 02-2023-8297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호정씨엔피(02-2277-4718)
인 쇄 처 두일디자인(02-2285-0936)

ISBN 978-89-8479-821-2 94340
978-89-8479-815-1 (세트) 94340
도시 체계, 도시 정치 경제학, 북한 사회
331.47-KDC6 / 307.76-DDC23 CIP2016001145
가 격 13,000원

© 통일연구원, 2015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02-734-6818), 사무실(02-394-0337)

북한의 시장화와 사회적 모빌리티: 공간구조·도시정치·계층변화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차례 • 요약 xiii

I 서론 1

- 1. 연구목적 3
- 2. 연구내용 및 방법 6

II 북한의 도시체계: 위계와 네트워크 17

- 1. 북한 도시의 순위체계 19
- 2. 도시체계와 시장 네트워크 41
- 3. 평성·순천·청진의 도시적 특성 55

III 시장화와 도시 공간구조의 변화 69

- 1. 도시구조 기본 패턴과 시장의 유형 71
- 2. 도시시장의 공간적 분포와 입지 80
- 3. 도시시장 발달의 경제지리 129



IV 시장화와 도시정치의 전개 양상 153

- 1. 시장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형성과 구도 155
- 2. 도시 공간구조의 변화와 건설시장 184
- 3. 도시 건설시장의 동학과 도시정치 274
- 4. 사회계층의 공간적 분화와 위계화 300

V 결론 315

- 참고문헌 323
- 최근 발간자료 안내 331



표 차례

〈표 Ⅰ-1〉 면접 대상자 인적 사항	15
〈표 Ⅱ-1〉 북한의 도시 등급 기준과 해당 도시	23
〈표 Ⅱ-2〉 도시의 위상에 영향을 주는 환경 변수들	25
〈표 Ⅱ-3〉 북한 도시의 형성 역사	29
〈표 Ⅱ-4〉 북한 도시의 순위체계 변화: 1925~2008년	32
〈표 Ⅱ-5〉 북한의 주요 도시인구와 인구증가율: 1980~2008년	34
〈표 Ⅱ-6〉 도시와 농촌의 인구 및 인구증가율: 1953~2008년	36
〈표 Ⅱ-7〉 청진·순천·평성의 인구수 및 도시/농촌별, 성별 인구	39
〈표 Ⅱ-8〉 북한 주요 도시의 도매시장	48
〈표 Ⅲ-1〉 청진시 구역별 시장	110



그림 차례

〈그림 II-1〉 산수 스케일에서 본 북한 도시 순위	21
〈그림 II-2〉 로그 스케일에서 본 북한 도시 순위	21
〈그림 II-3〉 북한의 도시와 농촌의 연평균 인구증가율: 1953~2008년 ...	37
〈그림 II-4〉 청진시의 시장 네트워크	58
〈그림 II-5〉 순천시의 시장 네트워크	63
〈그림 II-6〉 평성시의 시장 네트워크	66
〈그림 III-1〉 평성시 주요 시장의 위치와 분포	81
〈그림 III-2〉 순천시 주요 시장의 위치와 분포	99
〈그림 III-3〉 청진시 주요 시장의 위치와 분포	111
〈그림 IV-1〉 평성시 시가지와 건설 활성화 지역	185
〈그림 IV-2〉 평성 지역 1: 평성동·은덕동·두무동 일대	189
〈그림 IV-3〉 평성 지역 2: 중덕동·역전동·은정동·옥전동 일대	193
〈그림 IV-4〉 평성 지역 3: 양지동·옥전동·냉천동 일대	213
〈그림 IV-5〉 평성 지역 4: 도보안국 기동타격대 일대	216
〈그림 IV-6〉 평성 지역 5: 오리동·문화동 일대	218
〈그림 IV-7〉 평성 지역 6: 주례동 고개 일대	221
〈그림 IV-8〉 평성 지역 7: 삼화동 권총공장 일대	227
〈그림 IV-9〉 평성 지역 8: 평성상표인쇄공장	229
〈그림 IV-10〉 순천시 시가지와 건설 활성화 지역 표시	231
〈그림 IV-11〉 순천 지역 1: 순천역 앞 중심가와 순천시장 일대	237
〈그림 IV-12〉 순천 지역 2: 연포동·봉화동 일대	245
〈그림 IV-13〉 순천 지역 3: 강포동 및 자전거 마을 일대	251



〈그림 IV-14〉 청진시 시가지와 건설 활성화 지역	257
〈그림 IV-15〉 청진 지역 1: 포항구역 일대	259
〈그림 IV-16〉 청진 지역 2: 수남시장 일대	265
〈그림 IV-17〉 청진 지역 3: 포항구역 북부 일대	268
〈그림 IV-18〉 청진 지역 4: 나남구역 일대	271
〈그림 IV-19〉 국가와 시장의 상호구성과 시장세력	299
〈그림 IV-20〉 평성시 도시 건설이 활발한 지역: 도당-시장-역전 삼각축	304
〈그림 IV-21〉 순천시 도시 건설이 활발한 지역: 시장-시당-외국인숙소	305
〈그림 IV-22〉 청진시 도시 건설이 활발한 지역: 도당-시장-나남구역	305
〈그림 IV-23〉 도시구조의 공간적 차원 - 거주 모자이크	307



사진 차례

〈사진 Ⅱ- 1〉 평양시 낙랑구역 통일시장	49
〈사진 Ⅱ- 2〉 평양시 중구역 중구시장	50
〈사진 Ⅱ- 3〉 평성시 옥전시장	50
〈사진 Ⅱ- 4〉 원산시 갈마시장	51
〈사진 Ⅱ- 5〉 청진시 수남시장	51
〈사진 Ⅱ- 6〉 사리원시 구천시장	52
〈사진 Ⅱ- 7〉 해주시 산성시장	52
〈사진 Ⅱ- 8〉 신의주시 채하시장	53
〈사진 Ⅱ- 9〉 함흥시 삼일시장	53
〈사진 Ⅲ- 1〉 평성시 하차시장의 철거와 도보안국 기동타격대 입지	84
〈사진 Ⅲ- 2〉 평성시 하차시장 폐쇄와 옥전시장으로 이전 과정	87
〈사진 Ⅲ- 3〉 평성시 역전시장의 모습	90
〈사진 Ⅲ- 4〉 평성시 주례시장의 모습	93
〈사진 Ⅲ- 5〉 평성시 오리시장의 모습	95
〈사진 Ⅲ- 6〉 평성시 은정시장의 모습	96
〈사진 Ⅲ- 7〉 평성시 두무시장의 모습	97
〈사진 Ⅲ- 8〉 순천시장의 변화 모습	101
〈사진 Ⅲ- 9〉 순천시 강포시장의 변화	104
〈사진 Ⅲ-10〉 순천시 연포시장의 변화	106
〈사진 Ⅲ-11〉 순천시 대동강변의 모래시장 형성 모습	107
〈사진 Ⅲ-12〉 순천시멘트연합기업소 부근 시멘트 시장	109
〈사진 Ⅲ-13〉 청진시 수남구역	112



〈사진 Ⅲ-14〉 청진시 수남시장	113
〈사진 Ⅲ-15〉 청진시 포항구역	115
〈사진 Ⅲ-16〉 청진시 포항구역의 시장들	117
〈사진 Ⅲ-17〉 청진시 청암구역	119
〈사진 Ⅲ-18〉 청진시 청암구역의 시장들	120
〈사진 Ⅲ-19〉 청진시 송평구역	123
〈사진 Ⅲ-20〉 청진시 송평구역의 시장들	124
〈사진 Ⅲ-21〉 청진시 나남구역	126
〈사진 Ⅲ-22〉 청진시 나남구역 시장들	127
〈사진 Ⅳ- 1〉 평성시 도당아파트 거리 일대 모습	190
〈사진 Ⅳ- 2〉 평성시 시당위원회 앞 청년공원 건설 과정	195
〈사진 Ⅳ- 3〉 평성시 학생소년궁전 변화 모습	198
〈사진 Ⅳ- 4〉 오리동 방면 문덕군으로 가는 길 도립열사묘지 이전	200
〈사진 Ⅳ- 5〉 평성의 환전상 거리 신규 아파트 건설 변화	202
〈사진 Ⅳ- 6〉 종덕동 부근 공원 터 변화 모습	203
〈사진 Ⅳ- 7〉 평성 경기장 일대의 모습	206
〈사진 Ⅳ- 8〉 평성시 역전시장	209
〈사진 Ⅳ- 9〉 평성의과대학 부근 변화 모습	211
〈사진 Ⅳ-10〉 옥전시장 부근 아파트 건설로 인한 변화 모습	214
〈사진 Ⅳ-11〉 평성시 주례동 고개 부근 새로운 아파트 건설 모습	222
〈사진 Ⅳ-12〉 9·18 군수공장 변화 모습	225
〈사진 Ⅳ-13〉 삼화동 권총공장 부근 신규 아파트 건설 모습	228

〈사진 IV-14〉 순천시멘트연합기업소 모습	234
〈사진 IV-15〉 순천시장 인근에 새롭게 들어선 아파트 모습	238
〈사진 IV-16〉 순천시장 서쪽 대동강타일공장 분공장 부근 신규 아파트 건설	240
〈사진 IV-17〉 이수복단과대학 부근 새로운 아파트 건설	243
〈사진 IV-18〉 연포역 부근 단층주택 신규 건설	246
〈사진 IV-19〉 외국인 숙소 인근 지역 변화	248
〈사진 IV-20〉 강포시장 일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 모습	252
〈사진 IV-21〉 강포동 일대 건설하고 있는 유흥시설	253
〈사진 IV-22〉 순천시멘트연합기업소 인근 일대에 조성된 시멘트 시장 마을	254
〈사진 IV-23〉 순천시 용봉동 저지대 일대 모습	255
〈사진 IV-24〉 청진제강소 해체·철거와 재개발 모습	260
〈사진 IV-25〉 청진시 동상구역 일대 변화된 모습	262
〈사진 IV-26〉 수남시장 일대 변화 모습	266
〈사진 IV-27〉 남향시장 인근 주택단지 모습	269
〈사진 IV-28〉 나남탄광연합기업소 부근 재개발 모습	272
〈사진 IV-29〉 나남구역 나북시장 주변 대규모 주택단지 및 아파트 건설	273

요 약

본 연구는 북한의 시장화를 ‘도시’라는 구체적 공간을 통해 분석하고 있다. 시장화는 공간상의 물리적 변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사회적 계층의 분화 역시 수반하는 ‘사회-공간적 과정’이다. 이 연구는 북한의 평성시, 순천시, 청진시 등 3개 도시에서 진행되어 온 시장화를 구체적인 공간적 맥락 속에서 파악하고 있다. 시장화가 도시의 공간구조, 도시정치의 양상, 사회계층의 공간적 분화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주목하고 있다. 도시라는 구체적인 지리적·사회적 공간 속에서 시장화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를 파악함으로써, 1990년대 이후 진행된 북한의 시장화가 사회변동의 차원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미시적이고 입체적으로 해석하고자 했다.

주제어: 시장화, 도시정치, 공간구조, 사회적 모빌리티

Abstract

The Marketization and Social Mobility in North Korea: Spatial Structure·Urban Politics·Social Stratum

Hong, Min

This study analyzes marketization in North Korea through “cities,” a specific space. Marketization is a “social-spatial process” that encompasses physical changes of space as well as social stratification. This study identifies marketization ongoing in three cities (Phyongsong, Suncheon, and Chongjin) in the specific spatial context. It focuses on how marketization affects the urban spatial structure, trend in urban politics, spatial stratification of social class, etc. The study aims to multidimensionally and microscopically interpret what significance the marketization in North Korea - beginning from the 1990s - has, by identifying how marketization progressed in the specific geographical and social space known as city.

Keywords: Marketization, Urban Politics, Spatial Structure, Social Mobility



I. 서론



1. 연구목적

1990년대 경제난 이후 20여 년이 넘는 기간 진행된 북한의 시장화(marketization)는 북한사회에 다양한 양태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런 변화에 대한 이해는 북한체제의 내구력과 변화의 방향을 파악하고 대북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시장화는 공간적 차원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공간상의 변화를 수반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인구의 이동 및 유동, 시장(marketplace) 공간의 형성과 확산, 도시 공간구조와 경관의 변화, 가족 경제생활 공간의 변화, 소득에 따른 주거의 공간적 분화, 사회적 연결망과 정보유통의 공간적 확대, 사적 노동 공간의 다양화, 주거 양식과 선호의 변화 등 사회지리학적 차원의 변화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 북한연구에서는 지리적이고 물리적인 차원의 변화가 어떻게 사회 변화와 연동이 되어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 극히 미약했다. 다시 말해 북한주민들이 실제로 발을 딛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공간에 기초하여 사회 변화를 보는 공간적 상상력과 구체성이 미약했다고 할 수 있다.¹ 1990년대 이후 활발하게 진행되어 온 북한의 시장화는 기

¹ 물론 성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도시계획의 관점에서 사회주의 도시와 북한 도시를 분석한 김원, 『사회주의 도시계획』(서울: 보성각, 2004); 대한토목학회 엮음, 『북한의 도시 및 지역개발』(서울: 보성각, 2009) 등을 들 수 있다. 이 밖에 1990년대 경제난 이후 정치사회 변화의 차원에서 북한 도시 주민의 실태를 다루고 있는 최완규, 『북한 도시의 형성과 발전』(파주: 한울아카데미, 2004); 최완규, 『북한도시의 위기와 변화』(파주: 한울아카데미, 2006); 최완규, 『북한 ‘도시정치’의 발전과 체제 변화-2000년대 청진, 신의주, 혜산』(파주: 한울아카데미, 2007); 이우영, 『북한 도시주민의 사적 영역 연구』(파주: 한울아카데미, 2008) 등의 연구들을 들 수 있다. 이외에 주목할 만한 연구로 임동우의 『평양 그리고 평양 이후: 평양 도시 공간에 대한 또 다른 시각』(파주: 효형출판, 2011); 임동우·라파엘 루나, 『북한 도시 읽기』(서울: 담디, 2014)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본격적으로 도시계획, 개발전략, 공간구조 등 다양한 도시연구의 관점에서 북한 도시를 분석한 연구물로 주목할 만한 연구이다. 이 밖에 역사적 관점에서 북한의 도시사(urban history)를 고찰한 연구로, 고유환·홍

본적으로 공간적 현상에 해당한다. 장마당이 생기고 사람들이 시장을 드나들고 도시 사이를 오가며 물건을 파는 초보적인 시장 활동조차 지리적 공간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다. 이제 시장화가 가져온 북한사회의 변화를 공간의 리얼리티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1990년대 이후 지난 2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진행된 북한의 시장화는 정치권력이 시장과 친화적으로 결합하는 과정이자 도시들 사이의 관계와 도시 내부 공간이 시장 활동을 통해 변화하는 과정이었다. 북한에서 시장과 정치권력이 결합한 부의 창출과정은 계층의 분화와 위계를 강화하는 과정이었고, 계층의 분화는 도시 공간을 계층 위계에 따라 분할하고 경계 짓는 과정이기도 했다. 시장화는 곧 시장을 둘러싼 도시정치가 펼쳐지는 과정이면서 주민들 사이에 새로운 경제적 욕구를 낳는 과정으로서 시장문화가 창출되는 과정이기도 했다.

이러한 변화를 입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북한사회 연구는 미시적 차원에서 공간적인 구체성에 입각해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사실 한 사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시에 대한 이해는 매우 핵심적인 작업이다. 그 사회의 경제와 문화, 그리고 정치 시스템이 고스란히 투영된 것이 도시이자 도시의 구축환경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도시를 읽는다는 것은 한 사회를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다.²

민 외, 『사회주의 도시와 북한: 도시사연구방법론』 (파주: 한울아카데미, 2013); 고유환·홍민 외, 『함흥과 평성: 공간·일상·정치 도시사』 (파주: 한울아카데미, 2014); 고유환·박희진, 『북한도시 함흥·평성 자료해제집』 (서울: 선인, 2013); 고유환·박희진, 『북한도시 함흥·평성 자료해제집2』 (서울: 선인, 2014) 등이 있다. 한편 북한의 아파트 건설 시장의 메커니즘을 ‘도시정치(urban politics)’의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로, 홍민, “북한의 아파트 건설시장과 도시정치,” 『KDI 북한경제리뷰』, 8월호 (2014)가 있다.

² 임동우·라파엘 루나, 『북한 도시 읽기』, p. 15.

이 연구는 북한의 시장화를 ‘도시’라는 공간의 물리적 변화와 사회적 계층 분화라는 ‘사회-공간적 과정’으로 보고 이를 구체적인 공간적·사회적 맥락 속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특히 시장화가 지리적 공간구조의 변화, 도시정치의 변화, 사회계층의 공간적 분화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주목했다. 사회와 공간의 상호관계에서 시장화가 갖는 힘과 역동성을 ‘사회적 모빌리티(social mobility)’의 차원에서 입체적으로 보고자 했다. 도시라는 구체적인 삶의 현상이 시장화 속에서 어떻게 공간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시장과 공간이 어우러져 어떻게 사회적 역동성을 만들어내는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시장화를 도시라는 공간 내의 물리적 구조, 정치적 관계, 계층 구조라는 세 가지 차원을 통해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북한의 3개 도시 — 평성, 순천, 청진 — 를 연구대상으로 정하고, 이들 도시에서 진행된 시장화가 공간구조, 도시정치, 계층분화 차원에서 어떠한 사회적 변화를 가져왔는가를 살펴봄으로써 북한사회의 변화 수준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첫째, 1990년대 이후 진행된 북한의 시장화가 사회변동의 차원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입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북한체제의 안정성을 파악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북한의 시장화에 대한 논의를 경제적 차원뿐만 아니라 도시정치, 지리적 공간, 일상문화 등의 차원에서 보다 입체적으로 조명함으로써 학술 쟁점을 활성화하고 다변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공간구조의 변화라는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북한체제를 분석함으로써 북한사회의 변화를 보다 미시적이고 실재적인 차원에서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시장화가 각 도시들이 갖는 도시성(urbanity, urbanism)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도시 간 차이점과 공통점은 무엇인지 살펴봄으

로써 북한 시장화와 계층화의 특성을 보다 구체적인 공간 속에서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위의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규명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의 시장화가 물리적 공간구조를 어떻게 변화시켜 왔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크게 시장화가 도시 간 의존체제로서 ‘도시체계’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가를 도시 간 시장교환과 물자 교류, 시장동선 등을 통해 확인하고, 또한 시장화가 도시 내 물리적 구성으로서 ‘도시구조’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북한의 시장화에 따른 공간구조의 변화가 도시시장의 공간적 분포와 입지를 통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도시 내부의 시장 입지와 분포를 살펴보고 각 시장이 갖는 기능적 특성과 분화 양상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북한에서 시장의 발달이 갖는 도시지리학적 특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셋째, 주택건설을 둘러싼 도시정치(urban politics)가 시장화 속에서 어떻게 전개되어 왔으며 공간을 어떻게 변화시켜 왔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시장화는 중앙집권적인 경제운영, 공공서비스, 생산 및 노동양식 등의 변화와 맞물려 있으며, 이를 둘러싼 도시 내 다양한 이해 당사자 사이의 정치적 과정을 수반한다. 시장화에 따른 상품·기술·정보 등과 관련한 생산양식 및 유통양식의 변화가 도시정치의 양상을 어떻게 변화시켰으며, 국가와 시장의 관계 양태는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나. 연구대상 도시: 평성·순천·청진

본 연구는 크게 네 가지 차원을 고려하여 연구대상 도시를 평성시(평안남도), 순천시(평안남도), 청진시(함경북도)로 선정하였다. 선정 기준은 인구 규모, 시장화 및 산업 수준, 도시형성 배경, 도시체계에서의 위상 등을 고려하였다. 우선 평성, 순천, 청진이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 지리적·사회적 공간 범위에서 적절한 인구 규모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2008년 인구센서스 기준으로 청진이 66만 명(3위), 순천이 약 29만 명(10위), 평성이 약 28만 명(11위)으로 북한 전체 도시 중 중상위권에 드는 도시들이라고 할 수 있다. 약 320만 명의 인수로 압도적인 우위를 가진 평양과 60만 명대 규모의 함흥과 청진을 제외하면 나머지 24개의 북한 도시들은 10만~40만 명의 인구 규모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평성과 순천은 인구수에서 중간 규모의 도시로 정치경제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입지를 분석할 수 있는 요소를 골고루 갖추고 있다. 청진의 경우 두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구 규모는 크지만 대도시와 중간 규모 도시의 특성을 함께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 도시의 대표성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해 선정하였다.

둘째로 세 도시는 도시형성 배경이 서로 매우 다르다는 점에서 도시형성 역사가 시장화와 어떤 상호 영향관계를 갖는가를 분석하는 데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청진은 청일전쟁, 러일전쟁 등 일본의 대륙침략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침략과 수탈을 위한 전초기지로 개발되었고, 해방 이후 이런 초기 조건 위에 공업기지로 육성된 도시라는 점에서 경로의 존성이 강한 도시이다. 반면 순천과 평성은 각각 1983년, 1969년에 시로 승격되면서 도시로서의 위상을 갖게 된 신생 도시이다. 특히 순천과 평성은 평양의 위성도시로 개발되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I

II

III

IV

V

그 산업적 기반과 행정적 위상은 매우 다른 토대에서 출발하였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갖는다. 본 연구는 이 세 도시가 갖는 도시형성 배경의 차이가 1990년대 이후 나타난 시장화 양상에 어떠한 차이를 낳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도시와 시장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셋째로 이 세 도시는 1990년대 이후 본격화된 북한의 시장화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된 대표적인 도시이다. 주지하고 있듯이, 1990년대 북한의 식량난은 도시기근의 성격을 갖고 있었으며,³ 북한의 시장화는 곧 도시시장의 형성과 확산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평성과 청진은 북한 최대의 도매시장이 입지하고 있으며 전국적인 시장 위계와 네트워크의 정점에 있는 도시이다. 순천은 위의 두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장의 위상이 높지는 않지만 신의주와 평성-평양-남포-사리원-해주 등을 잇는 북한 도시시장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연결 도시 역할을 하고 있다. 사실상 이 세 도시는 북한 시장화의 역사와 메커니즘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유의미한 분석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세 도시는 시장을 매개로 하는 도시체계(urban system) — 도시들 사이의 관계 —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거점 도시들이라고 할 수 있다. 청진은 북·중 접경도시(혜산, 회령, 나선)와 동부 해안 도시들(나진, 김책, 함흥, 원산)을 연결하는 동부축 시장 네트워크의 중요 거점 도시이며, 순천과 평성 역시 북·중 접경도시(신의주, 만포, 강계)와 서부 도시들(개천, 평성, 평양, 남포, 사리원, 해주)을 연결

³-북한의 식량난이 가졌던 도시기근적 성격에 관한 논의로는 다음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Andrew S. Natsios, *The Great North Korean Famine* (Washington, D.C.: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Press, 2001); 이석, 『1994~2000년 북한 기근: 발생, 충격 그리고 특징』 (서울: 통일연구원, 2004) 참조.

하는 서부축 시장 네트워크의 중요 거점이자 소비도시로서 위상을 갖고 있다. 이 세 도시는 상품, 화폐, 자원, 에너지, 정보, 인간 등의 교환 흐름과 전국적인 시장 네트워크 및 위계에서 상층에 위치한 도시라는 점에서 시장화에 따른 모빌리티를 분석하는 데 중요한 연구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다. 주요 연구내용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시장화를 도시 공간의 변화와 사회적 계층 분화라는 이중의 운동으로서 ‘사회-공간적 과정’으로 보고 이를 구체적인 공간적·사회적 맥락 속에서 파악하는 데 있다. 도시연구의 차원에서 본다면, 평성, 순천, 청진의 도시성(urbanity, urbanism)을 규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시성을 규명하는 연구는 크게 도시의 현상적 문제를 실태적으로 파악하는 연구, 도시 공간의 형성과 변화라는 생태학적 설명을 하는 연구, 사회경제적 관계가 도시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해석하는 연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도시의 실태적 측면, 생태학적 측면, 구조적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는 시장화가 이 세 도시의 도시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의 관점에서 도시 공간의 생태적 특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경제적 관계가 도시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① 공간구조의 변화

시장화가 어떤 형태로 도시체계(도시 간 의존체계)와 도시구조(도시 내 물리적 구성)에 변화를 가져왔는가를 구체적인 인공위성 사진자료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I

II

III

IV

V

② 도시정치의 전개

생산, 유통, 소비, (주택)건설을 둘러싼 도시정치가 국가기관과 시장의 결합을 통해 어떻게 물리적 공간을 변화시키고 계층적 위계와 연동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③ 계층화의 공간질서

시장의 소비 및 문화적 공간으로서의 의미, 시장의 기능적 분화가 계층화와 어떻게 연동되어 있으며, 시장을 따라 이동하는 인간·상품·사물·기술·정보 등이 주민들의 공간적 정체성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라. 연구의 주요 개념

(1) 사회적 모빌리티(social mobility)

모빌리티(mobility)는 한국어로 번역하면 ‘이동성’이라는 번역 정도가 있지만, 사회과학에서 최근 논의되고 통용되는 원뜻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부득이 원어 그대로 ‘모빌리티’를 사용하고자 한다. 주류 사회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사회적 모빌리티’는 주로 지위계층의 수직적 이동을 뜻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정태적인 구조나 질서로서의 계층 이동보다는 사회적 경계들 사이를 관통해 움직이는 다양한 네트워크와 흐름, 인간과 사물, 기술과 제도 등이 상호 결합하고 교차하며 만들어내는 행위성(agency), 물리적 이동이 사회적 상향 또는 하향 이동과 연계되는 방식, 물리적 이동이나 도시의 물리적 변화를 둘러싼 권력관계, 사람들의 거주 감각(sense of dwelling)과 이동 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 정보, 기술, 이미지, 위험 등의 모빌

리티, 거주 및 이동 양식을 통해 계급, 젠더, 인종, 국가성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한 것 등 매우 다양한 의미로 확장·심화되며 전유되고 있다.⁴

특히 사회적 모빌리티에서 ‘모빌리티’ 개념은 존 어리(John Urry)와 같은 일군의 학자들이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ctor-Network Theory: ANT)⁵의 주요 핵심 주장을 적극 수용하며 일종의 사회과학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는 주장으로 최근 제기되고 있다.⁶ 모빌리티 개념은 정태적이고 고정적이며 추상적인 주로 비공간적 ‘사회구조’를 대상으로 분석해 온 기존 사회과학을 지양하고, ‘사회적인 것(the social)’을 인간(human)과 비인간(non-human)의 결합(networking)을 통해 끊임없이 행위성이 생성되거나 사라지는 유동적이고 역동적인 과정으로 파악하고자 한다.⁷

본 연구에서 개념화하는 사회적 모빌리티는 북한의 시장화가 단순히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한 주민들의 아래로부터의 자구적 시장 거래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시장화가 이질적으로 보이는 인간과 비인간(제도, 기술, 과학, 정보, 상품, 인공물, 장치 등)들의 다양한 네트워킹을 통해 일정한 ‘수행성(performativity)’ — 공식·비공식의 규범과 행동 양식 — 을 획득해 온 과정이며,⁸ 물리적 이동성, 공간구조 변화, 사회

4. 존 어리, 윤여일 역, 『사회를 넘어서는 사회학: 이동과 하이브리드로 사유하는 열린 사회학』 (서울: 휴머니스트, 2012) 참조.

5.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을 북한과 분단 문제에서 적용한 논의로는, 동국대학교 분단/탈분단연구센터 엮음, 『분단의 행위자-네트워크와 수행성』 (파주: 한울아카데미, 2015) 참조.

6. 존 어리, 강현수 외 역, 『모빌리티』 (파주: 아카넷, 2014) 참조.

7. 홍민, “행위자-연결망 이론과 분단 연구: 분단 번역의 정치와 ‘일상으로의 전환,’” 『동향과 전망』, 83호 (2011), pp. 54~56.

8. 시장을 ANT의 ‘수행성’ 차원에서 분석하는 연구로는, Michel Callon et al., eds., *Market Devices* (New Jersey: Wiley Blackwell, 2007)을 비롯하여 여러 학자들에

적 이동성이 연계된 ‘사회-공간적 과정’이라는 차원에서 사용하고자 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도시를 수행성의 차원에서 개념화하여 도시를 고정된 실재와 정체성으로 보지 않고 힘의 관계와 수행의 연속 속에서 볼 것을 제안하는 ‘수행적 도시’론을 참조하고자 한다.⁹

(2) 공간구조(도시체계, 도시구조)

도시체계(urban system)는 한 국가 또는 지역에 입지한 다수의 도시를 대상으로 이들 간의 상호관계를 보는 방식(도시 간 인구학적이며 공간적인 관계, 도시 간 상호의존성과 연계, 도시화 수준이나 사회적 관계 등)이며, 도시구조(urban structure)는 일반적으로 특정 도시 내부의 물리적 구성의 특징을 뜻한다. 다시 말해 도시체계는 다수의 도시를 대상으로 도시 간 관계를 상호작용, 상호의존, 종속 등의 개념을 통해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반면 도시구조는 도시 내부의 공간 현상을 설명하는 방법이다. 도시 내부에서 볼 수 있는 여러 종류의 기능 지역은 도시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 공간으로 등질적 구조와 기능적 구조로 관계를 맺고 있다. 등질적 구조는 토지 이용의 공간적 분화에 따른 구성요소의 배열 상태가 동일한 속성을 지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고, 기능적 구조는 각 부분 공간 상호 간에 기능적 연계를 고려하여 설명한다.¹⁰

의해 제출되고 있다. ANT를 도시연구에 적용한 연구로는, Ignacio Farias and Thomas Bender, eds., *Urban Assemblages: How Actor-Network Theory Changes Urban Studies* (Abingdon: Routledge, 2010)을 참조.

⁹ 홍민, “역사적 다양체로서 사회주의 도시의 이해,” 고유환·홍민 외 엮음, 『사회주의 도시와 북한: 도시사연구방법론』, pp. 23~48.

¹⁰ 안재섭, “도시리지학의 주요 연구방법과 북한 도시,” 고유환·홍민 외 엮음, 『사회주의 도시와 북한: 도시사연구방법론』, p. 100.

(3) 도시정치(urban politics)

도시정치(urban politics) 이론은 도시를 구성하는 정치적 과정에 대한 논의이다. 1960년대 중반 마르크스주의 사회이론가들이 도시의 정치적 과정을 이해하려는 이론적 시도가 도시정치 이론의 맹아적 역할을 했으나, 본격적인 논의는 1980년대 후반부터 이루어졌다. 이들 도시정치 이론들은 대부분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고도화된 사회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¹¹ 사회주의체제 역시 다양한 형태로 도시정치가 이루어지는 공간이지만, 미시적인 관찰과 자료를 확보하는 데 제약이 있어 논의가 크게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¹²

본 연구에서는 기존 사회주의 도시연구와 도시정치 관련 논의와 개념을 원용하여 북한에 적용하고자 한다. 우선 주택과 같은 공공의 소비 수단과 관련한 공급문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도시 내외 세력 간의 정치적 과정으로서의 도시정치이다. 둘째, 도시 내 주요한 생산 시스템과 사회의 결합을 ‘구조화된 결합’으로 보고 이런 구조화된 결합으로부터 기득권을 행사해 온 세력이 이를 유지하기 위해 펼치는 정치로서 도시정치이다. 셋째, 도시의 특정한 산업적 기반을 통해 이익과 성장을 누려온 세력들이 이를 지속하기 위해 ‘성장연합’을 형성하는 차원에서

¹¹ 도시정치의 이론적 궤적과 쟁점, 다학제적 접근에 대한 논의로는, Kevin Ward and David Imbroscio, “Urban Politics: An Interdisciplinary Dialogue,”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vol. 35, no. 4 (2011), pp. 853~871; Gordon Macleod and Martin Jones, “Renewing Urban Politics,” *Urban Studies*, vol. 48, no. 12 (2011), pp. 2443~2472 참조.

¹² 다양한 측면에서 사회주의 도시를 조명한 연구로는 다음 두 권의 연구물이 대표적이다. R. A. French and F. E. Ian Hamilton, *The Socialist City: Spatial Structure and Urban Policy* (New York: John Wiley & Son, 1979); Gregory Andrusz, Michael Harloe, and Ivan Szelenyi, eds., *Cities After Socialism: Urban and Regional Change and Conflict in Post-Socialism Societies* (Oxford: Blackwell, 1996)

보는 도시정치이다.¹³

마. 연구방법

문헌조사와 데이터보다는 실질적인 방문과 물리적인 접촉을 통하여 효과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도시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북한 연구에서 깊이나 지속성이 미진했던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는 현장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우회적 방법을 활용했다.

우선 도시연구 관련 다학제적 연구를 모색하고자 했다. 도시지리학, 도시사회학, 도시인류학, 도시사, 일상생활연구 등 다양한 전공분과의 도시 관련 이론, 접근방법, 개념들을 동원하여 1990년대 이후 시장화에 따른 도시 공간구조의 변화, 도시정치의 양상, 계층변화의 양상 등을 분석하고자 했다.

둘째, 공간자료 및 공간분석 기법을 활용하고자 했다. 3개의 도시(평성, 순천, 청진)를 선정하여, 국토지리정보원의 북한지도, 도시 관련 사진, 북한에서 발간된 지도 등을 활용하였다. 특히 인공위성 이미지의 경우 구글 어스(Google Earth)의 이미지를 활용하였다. 구글 어스를 통해 3개 도시의 2004~2015년 사이에 촬영된 이미지를 비교하여 공간구조의 변화를 관측하고자 했다. 이렇게 관측된 내용은 최대한 그래픽으로 단순화해 표현하고자 했다.

셋째, 북한의 도시 및 지역 관련 문헌자료를 활용하였다. 북한에서 간행된 신문자료, 문헌자료, 도형자료들 속에 있는 도시 관련 자료들을 참고하였다. 특히 북한의 전국 전화번호부, 도시 전화번호부 등을 통해

¹³ 도시정치 관련 이론적 논의와 북한 적용에 관해서는 'IV장 3절 도시 건설시장의 동학과 도시정치'를 참고.

도시 내 기관·기업소의 위치와 역할, 현황 등을 북한이탈주민 심층면접을 통해 실증적으로 교차 확인하고자 했다.

넷째, 북한이탈주민과의 면담을 활용했다. 평성, 순천, 청진 출신 북한이탈주민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들이 살고 경험했던 지역에 대한 구술을 채록하고 재구성했다. 문헌자료나 시각자료로는 파악할 수 없는 도시의 실태를 구술자료를 통해 보완했다. 평성(5명), 순천(4명), 청진(2명) 등 3개 도시 11명, 그리고 순천과 유사한 도시를 비교하기 위해 유사한 인구규모의 단천시 출신 1명을 포함 총 12명의 북한이탈주민과 15회에 걸쳐 면담을 진행하였다.

표 1-1 면접 대상자 인적 사항

코드	성별	연령대	지역	직업	탈북연도	면접일시
사례 1	남	50대	순천	지배인	2010	2015.7.10.
사례 2	남	40대	청진	의사	2012	2015.7.13.
사례 3	남	60대	평성	기사장	2010	2015.7.14.
사례 4	여	30대	순천	군인	2010	2015.7.15.
사례 5	남	50대	단천	수의사	2006	2015.7.15.
사례 6	남	30대	청진	채벌공	2001	2015.7.16. 2015.7.26.
사례 7	여	20대	평성	학생	2010	2015.7.23.
사례 8	남	50대	순천	상업	2011	2015.7.23. 2015.7.29.
사례 9	여	40대	순천	자재지도원	2010	2015.7.24. 2015.8.28.
사례 10	남	20대	평성	학생	2011	2015.7.30.
사례 11	여	50대	평성	연구원	2011	2015.8.7.
사례 12	남	50대	평성	축산업	2011	2015.8.11.

I
II
III
IV
V



Ⅱ. 북한의 도시체계: 위계와 네트워크



1. 북한 도시의 순위체계

가. 도시 순위체계와 종주도시성

평성, 순천, 청진이라는 3개 도시에 대한 공간적 이해를 위해서는 북한 도시 전체에 대한 위상학(topology)¹⁴적 분석이 필요하다. 도시지리학(urban geography)에서는 이를 보통 도시체계(urban system) 연구라고 한다. 도시체계를 제안한 브라이언 베리(Brian J. L. Berry)는 도시체계를 상호의존적인 도시들의 집합체로 정의한 바 있다.¹⁵ 한 국가 또는 지역에 입지한 다수의 도시를 대상으로 이들 간의 상호관계를 위계적(hierarch)으로 보는 방식이다.¹⁶ 다시 말해 한 국가의 도시 분포를 살펴보면, 공간적으로 하나의 내재된 질서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질서를 도시체계라고 본다. 도시체계는 기능과 규모, 물리적 속성을 달리하는 다수의 개별 도시가 상호 긴밀한 연관성을 유지하면서 형성시킨 공간적인 체계인 것이다. 단순화하면 일정 지역에서 발견할 수 있는 도시의 수와 개별 도시의 규모에서 규칙성을 규명하는 것이다.

도시체계를 분석하는 대표적인 분류방법에는 국가 종주도시체계(primacy city system)와 순위-규모체계(rank-size rule system)가 있다. 보통 도시의 층위(위상, 규모, 순위)는 일반적으로 해당 도시의

14. 위상학은 공간(도시)을 컨테이너 박스를 치고 고립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들의 위치관계, 공간들이 상호 속성을 교환하는 상호의존적 또는 상호구성적 관계 차원에서 인식하는 연구방법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수테판 권철, 이기홍 역, 『토폴로지』(서울: 예코리브르, 2010) 참조.

15. Ron J. Johnston et al., eds., *The Dictionary of Human Geography* (Oxford: Blackwell, 2000), p. 882.

16. 안재섭, “도시지리학의 주요 연구방법과 도시사,” (동국대 북한도시사연구팀 북한도시사세미나 발표문, 2012.7.25.), p. 2.

I
II
III
IV
V

인구 규모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 한 국가 내 도시들의 인구 규모별 분포 분석을 통해 해당 국가의 도시체계가 갖는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다. 우선 종주도시체계는 인구 규모가 가장 큰 도시가 두 번째로 큰 도시에 비해 두 배 이상의 인구를 가질 때, 이를 종주도시(primate city)라고 명명한다.¹⁷ 한 국가가 종주도시를 가진다는 것은 그만큼 정치, 경제, 문화의 힘이 국토 일부분에 집중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종주 도시는 지역들이 불균등하게 발전했음을 나타내는 지표로 해석된다.

두 번째 분류방법으로 순위-규모체계가 있다. 상위 두 도시만을 대상으로 보는 종주도시체계에 반해 ‘순위-규모체계’는 모든 도시를 고려하기에 포괄적인 분석을 한다. ‘순위-규모체계’의 법칙은 한 국가의 n번째로 큰 도시는 가장 큰 도시의 인구를 n으로 나눈 수만큼의 인구를 가진다는 것이다. 즉 두 번째로 큰 도시의 인구는 가장 큰 도시의 인구의 1/2이며, 세 번째로 큰 도시의 인구수는 가장 큰 도시의 인구의 1/3이 된다는 것이다. 국민 다수가 도시에 거주하고 경제적으로 발전된 나라에서 순위-규모법칙이 보다 잘 성립된다고 본다.¹⁸ 도식적으로 말해 고도로 도시화된 선진국일수록 순위-규모법칙을, 그리고 도시화 초기의 후진국일수록 종주도시법칙을 따른다고 보았다.¹⁹

이 두 도시체계 분류법을 참고하면, 북한의 경우 ‘종주도시성’을 강

17-Mark Jefferson, "The Law of the Primate City," *Geographical Review*, vol. 29 (1939), pp. 226~2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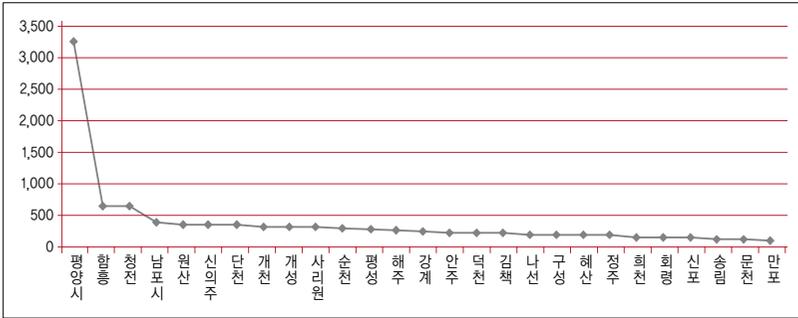
18-George K. Zipf, *Human Behavior and the Principle of Least Effort: An Introduction to Human Ecology* (Massachusetts: Addison-Wesley, 1949) 참조.

19-그러나 종주도시체계나 순위-규모체계만으로 분류하기 힘든 사례들이 존재한다. 도시규모 분포는 보다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 장시간에 걸쳐 형성되기 때문이다. 그 변수들로는 도시화의 역사, 자원의 분포, 영토의 크기 등이 있다. 가령 도시화의 역사가 긴 중국은 순위-규모법칙, 역사가 짧은 오스트레일리아는 종주도시법칙으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국토에 산재된 자원을 바탕으로 새롭게 성장하는 브라질은 순위-규모체계인 반면, 경제선진국이나 작은 영토를 가진 덴마크는 종주도시체계를 가진다.

하게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인구 325만 명의 절대적인 종주성을 가진 평양, 80만~300만 명 사이의 중규모 도시가 없이 30만~70만 명대(7개), 20만 명대(7개), 10만 명대(10개) 등이 고르게 존재한다. 인구로만 본다면 행정구역상 시(市)는 아니지만 10만 명대의 인구를 가진 농촌 군(郡)도 다수 존재한다. 거의 의도적으로 인구를 분산시키고 이동을 억제한 결과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 그림 II-1 산수 스케일에서 본 북한 도시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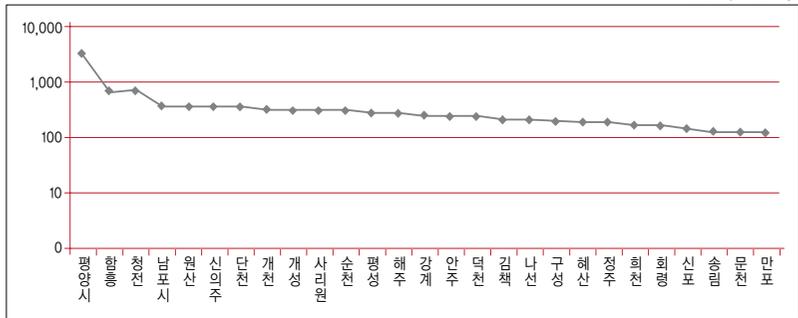
(단위: 천 명)



출처: 필자 작성.

● 그림 II-2 로그 스케일에서 본 북한 도시 순위

(단위: 천 명)



출처: 필자 작성.

- I
- II
- III
- IV
- V

북한 도시체계에서 나타나는 종주도시성(urban primate)의 원인과 배경은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하다. 우선 사회주의 도시사상에 입각하여 대도시의 밀집과 평면적 확장을 지양하고 중소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원칙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차원에서 대도시의 성장을 억제한 측면이다. 둘째, 도시들의 인구 규모를 일정 수준으로 억제하여 인구에 대한 통치의 수월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다. 셋째, 경제적 측면에서 중앙의 부담을 덜기 위해 자급자족적인 도시를 만들고자 일정 규모로 인구수를 억제한 측면이다. 넷째, 한국전쟁 경험에 기초해 군사적인 차원에서 특정 도시들로 인구가 밀집되지 않고 분산되도록 한 측면이다.²⁰ 마지막으로 평양시에 절대적 우위를 둔 체제 운영방식 또한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나. 북한의 도시 분류 기준과 환경변수

북한 도시들 사이에 존재하는 일정한 질서로서 도시체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에서 제시하는 도시 분류 기준과 도시 등급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표 II-1>은 북한이 구분한 도시 등급이다. 북한은 일반적인 도시연구에서 도시 분류 기준을 삼는 인구 규모에 따라 역시 도시를 분류하고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북한은 시급 도시가 아닌 군 소재지와 노동자구 역시 도시 등급상의 분류대상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행정구역상의 시(市)뿐만 아니라 군(郡)이나 노동자구도 도시의 일종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이다.

²⁰ 김필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생산력 배치에 관한 탁월한 리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 pp. 16~64.

표 II-1 북한의 도시 등급 기준과 해당 도시

도시 등급	인구 규모	도시 형태	비고	해당 도시
1	100만 명 이상	특대도시	수도	평양
2	50만~100만 명		도 소재지	함흥, 청진
3	20만~50만 명	큰 도시	도 소재지, 시급도시	남포, 원산, 신의주, 단천, 개천, 개성, 사리원, 순천, 평성, 해주, 강계, 안주, 덕천, 김책
4	10만~20만 명	중도시	도 소재지, 시급도시	나선, 구성, 혜산, 정주, 희천, 회령, 신포, 송림, 문천, 만포
5	5만~10만 명		시급도시 또는 군 소재지	
6	1만~5만 명	작은 도시	군 소재지	
7	1만 명 이하		노동자구	

참고: 조현숙, “중소도시의 계획적 형성은 도시어로 인구집중을 막기 위한 합리적인 도시형성방식,” 『경제연구』, 1호 (2004), p. 37.

북한의 도시 분류 기준을 살펴보면, ① 도시의 기본구성 인구수와 전망 인구수, ② 도시의 정치·행정·경제적 및 문화 교양적 사명, ③ 도시경제의 축을 이루는 주된 산업시설의 생산능력, ④ 도시의 자연지리적 조건과 자연부원 및 역사적 특징 등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도시 분류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해당 도시의 정치, 경제, 문화적 특성과 주민수, 산업시설의 생산능력이다”라고 밝히고 있다.²¹

이처럼 북한에서는 행정구역상에서 ‘시’로 분류되는 것만을 도시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인구 규모에서 1만 명 전후의 인구 규모와 일정한 경제적 단위로서의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 ‘도시’로 취급하고 있다는

²¹ 조현숙, “중소도시의 계획적 형성은 도시어로 인구집중을 막기 위한 합리적인 도시형성방식,” 『경제연구』, 1호 (2004), p. 37.

점이다. 이것은 행정구역상의 ‘시’와 인구 규모상의 ‘도시’가 개념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기준에서 본다면, 북한은 도시의 다면성을 인정하고 인구통계적, 물리적, 경제적 정의를 종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북한의 도시 분류가 예외적인 분류법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지리학에서 도시는 촌락과 구분되어 정의된다. ① 다수의 인구가 비교적 좁은 구역(area)에 밀집하여 거주하고, ② 비농업 인구의 비중이 높으며, ③ 주변 지역에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중심지가 존재하는 경우를 보통 도시로 정의한다.²² 한편으로 도시는 법·행정적인 도시(city)와 학술적인 의미의 도시(the urban place)로 구분되기도 한다. 이처럼 인구수와 인구밀도, 비농업 비율, 시가지 연속성 정도, 재화와 서비스 공급 등으로 도시를 규정하나 그 기준은 사실 무척 다양하다.²³

위와 같은 북한의 도시 분류 기준에 기초하여 북한 도시의 위상을 결정하는 변수들을 정리해 보면 <표 II-2>와 같다.

22. 전종한 외, 『인문지리학의 시선』 (서울: 논형, 2008), pp. 330~331.

23. 인구 밀도가 낮은 북유럽 국가들은 인구 수백 명 이상만 되어도 도시로 규정하는 반면, 인구 밀도가 높은 한국이나 일본 등에서는 인구가 2만 명 이상일 것을 요구한다. 한국의 도시 규정은 읍(邑)이 인구 2만 명 이상, 2·3차 산업 인구 비중 40% 이상이고, 시(市)는 인구 5만 명 이상, 2·3차 산업 인구 비중 50% 이상이다.

표 II-2 도시의 위상에 영향을 주는 환경 변수들

구 분	환경 변수
인구학적 환경	• 도시 주민수
지리적 환경	• 지대 (산간지대·중간지대·평야지대) - 해안지대, 내륙지대 - 북부지대, 남부지대, 동부지대, 서부지대 - 인접 도시와의 접근성, 교통의 연결성
산업적 환경	• 주요 중앙 공장·기업소 입지 • 주요 에너지 자원 보유 및 전력생산 능력 • 면적 (토지자원 보유 수준)
정치적 환경	• 평양 및 최고지도자와의 정치적 관계 • 혁명사적지, 현지도사적지 등 혁명 역사 유적지 • 군부대 주둔 및 군사시설 입지 여부 • 군수공장 입지 여부
기타	• 교육기관 입지 수준

출처: 홍민, “북한연구에서 ‘공간’이해와 도시사의 가능성,” 고유환·홍민 외 엮음, 『사회주의 도시와 북한: 도시사연구방법론』, p. 115.

북한에서 도시의 위상에 영향을 주는 환경변수들은 크게 네 가지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학적인 측면에서 도시를 구성하는 주민의 수다. 페르낭 브로델(Fernand Braudel)의 유명한 통찰처럼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그 인구가 차지하는 공간과 그 인구가 누리는 부(富)와의 관계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마련이다.²⁴ 그런 측면에서 도시의 인구수 및 인구밀도는 그 도시가 지니고 있는 사회적 긴장의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이자 경제적 삶을 이해하는 기초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한국전쟁 이후 본격적으로 사회주의 경제건설

²⁴ 페르낭 브로델, 주경철 역,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I-1 - 일상생활의 구조 上』 (서울: 까치, 1995), p. 25.

I
II
III
IV
V

및 산업화를 진행하면서 경제적·정치적 차원에서 인구유동을 통제하고 도시별로 일정한 수준 이하로 인구 규모를 억제하는 인구 관리를 해 온 측면이 있다. 따라서 북한 각 도시의 인구수는 도시화와 자율적인 인구이동의 결과가 아니라 일정 부분 북한 당국의 정치적·경제적 관리와 정책에 의한 통제된 결과라는 것이다. 이것은 현재 북한 도시의 인구수를 통해 각 도시에 대한 북한 당국의 정치적·경제적 관심도와 정책적 관점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북한에서 각 도시의 지리적 조건은 도시의 공간적 규모와 인구수, 경제적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각 도시들 사이에 형성되는 도시 간 위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령 산간, 중간, 평야 등 도시의 지형적 고도와 경사도, 그리고 해안 또는 내륙지대 등과 같은 도시의 수평적 위치, 북부·남부·동부·서부와 같은 도시의 위치 등이 도시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조건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다. 이런 지리적 조건들은 도시 내부의 도시화 지역 확장의 가능성, 도시 주력 산업의 성격, 평양 및 주변 도시와의 정치경제적 관계 수준 등에 영향을 미쳐왔다. 이런 지리적 조건은 주변 도시와의 관계와 교통의 연결성 등 도시들 사이의 위계에도 영향을 미친다.²⁵

셋째, 도시의 산업적 기반도 도시의 위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도시 내부에 위치한 공장·기업소의 입지, 주요 에너지 자원의 보유 및 전력 생산 능력, 가용 토지자원의 보유 수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런 산업적 기반은 역사적인 관성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해방 이전의 전통적인 도시 특성, 일제 강점기의 개발 전략, 북한의 산

²⁵ 지대적 조건에 따른 산업과 경제활동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북한의 대표적인 간행물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김익성 외, 『조선지리전서: 공업지리』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89), pp. 290~313 참조.

업화 과정에서 이루어진 산업 배치 및 국토개발 정책 등이 도시의 산업적 환경과 위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산업적 기반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에도 각 도시의 생존전략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령 평성시의 경우 산업적 기반이 없었던 것이 오히려 ‘시장’을 통한 생존을 심화시키면서 부를 축적하는 동기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

마지막으로 지배집단이 도시를 바라보는 정치적 관점도 도시의 위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정치적 관점은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하나는 어떤 도시가 경제적 가치나 산업적 기반이 크고 중요해 중앙에서 해당 도시에 대해 관심이 큰 경우이다. 산업적으로 중요할수록 정치적인 관심도도 높아지고 민감해 질 수 있다. 그 중요도로 인해 해당 도시의 당 책임비서나 인민위원장, 중요 공장·기업소의 지배인 등이 그 경력을 통해 중앙 정치무대로 진입한다거나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이유로 교체되거나 책벌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다른 하나는 김일성, 김정일의 권력정치 경험에서 나온 특정 지방에 대한 반감이나 배제가 낳은 도시의 정치적 환경이다. 가령 ‘함경도제일주의’에 대한 경계를 강조했던 김일성의 경우 함경도 출신의 중앙 정치무대 등용을 최대한 배제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또한 자원 배분에서 특정 지방에 대해 차별을 하는 경우인데, 가령 1995년 식량난으로 유엔에 구호를 요청하였고 구호식량을 실은 배가 북한으로 들어갈 때 동해로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함흥, 청진, 원산 등지에서 대규모 아사자가 발생한 사실 등은 특정 지방에 대한 차별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 도시가 정치적으로 갖는 상징성의 측면이다. 가령 김일성 및 그 일가와 관련된 혁명사적지가 있는 경

I
II
III
IV
V

우 그 도시는 일정한 상징성을 갖게 된다. 가령 회령시는 ‘김정숙의 도시’로 상징성을 갖는다. 이 밖에 도시에 군사시설이 입지한 경우, 국경 지대나 연선 지역의 도시는 도시의 개방성과 산업 기반 구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 도시화 과정과 도시체계의 변화

도시화(urbanization)란 도시적 특성이 나타나고 강화되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보통 도시화의 객관적 지표는 도시화율이라고 일컬어지는 총인구 대비 도시에 사는 인구의 비율을 통해 측정되며, 도시 인구의 증가율이 전체 인구의 증가율보다 클 때 도시화 과정에 진입했다고 본다.

도시화는 기존의 공간질서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첫째, 도시화는 도시가 보다 많은 사람, 자본 그리고 기술을 가지게 됨으로써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힘의 공간적 집중(concentration)을 낳는다. 둘째, 그러한 힘의 집중은 도시의 영향력이 미치는 지리적 영역을 넓힌다. 도시 세력권의 확대는 교통·통신기술의 발달로 더욱 용이해지는데, 기존에 따로 떨어져 독립적으로 있던 장소들이 서로 연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이 도시망(urban network)을 통해 수렴되고 전파됨으로써 장소 간의 위계가 생기고 강화될 수 있다.²⁶

²⁶ 최병두, 『인문지리학 개론』 (파주: 한울, 2008), p. 216.

표 II-3 북한 도시의 형성 역사

시기	도시체계 특성	도시 승격	행정구역	지대
1910~1945년	식민지 도시체계	평양 진남포 원산 청진 신의주 함흥(1930) 개성(1930) 라진(1936~1949) 해주(1938) 성진(1943)	평안남도 (남포시) 강원도 소재지 함경북도 소재지 평안북도 소재지 함경남도 소재지 황해북도 황해남도 소재지 함경북도 (김책시)	내륙 서해안 동해안 동해안 내륙접경 동해안 내륙 동해안 서해안 동해안
1945~1967년	내륙도시의 발전	나남(1945~1960) 사리원(1947) 송림(1947) 흥남(1945~1960) 강계(1949) 혜산(1954) 신포(1960) 만포(1967) 희천(1967) 구성(1967) 라진(1967)	함경북도 소재지 황해북도 소재지 황해북도 함경남도 자강도 소재지 양강도 소재지 함경남도 자강도 자강도 평안북도 (지금 나선)	동해안 내륙 서해안 동해안 내륙접경 내륙접경 동해안 내륙접경 내륙 내륙 동해안
1969~1990년	수도권의 발전	평성(1969) 태안(1978~1983) 태천(1982) 순천(1983) 덕천(1986) 안주(1987) 개천(1990)	평안남도 소재지 평안남도 (남포시) 함경남도 평안남도 평안남도 평안남도 평안남도	내륙 서해안 내륙 내륙 내륙 내륙
1991~2001년	주변부 도시의 탄생	문천(1991) 희령(1991) 정주(1994) 흥남(2001~2005)	강원도 함경북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내륙 내륙접경 내륙 동해안

출처: Rainer Dormels, *North Korea's Cities: Industrial Facilities, Internal Structures and Typification* (Paju: Jimoondang, 2014), pp. 17~20.

I
II
III
IV
V

북한의 도시화율은 2008년 인구센서스 결과 60.6%로 추정된다.²⁷ 북한 도시화 과정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내륙에 위치한 지역을 도시로 승격시키고 개발하고자 한 점이다. 해방 이전 북한 지역 도시들은 일본 제국주의의 대륙진출을 위한 거점 기지로서의 성격이 강했으며, 따라서 주로 동서해안을 축으로 성장하였다. ‘청진’은 그러한 도시 중 하나이다. 그러나 해방과 전쟁 이후 자력적인 경제발전을 목표로 내륙 지향적 발전정책(inward-looking development policy)을 채택하였고 해안도시 이외에 내륙도시를 개발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평성, 순천, 구성, 희천, 만포, 강계, 혜산 등이 도시로 성장하였다.²⁸ 물론 내륙 지향의 정책을 추진했다고 해서 전통적인 동서 해안축의 도시 개발에 무관심했다는 뜻은 아니다. 그만큼 과거 관심 영역에서 벗어나 있던 내륙을 ‘도시’라는 틀 속에서 개발하는 전략을 채택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평성’과 ‘순천’은 내륙 개발을 위한 거점 도시로 개발된 측면이 있고, 신생 도시라는 측면에서 도시 형성과 발전 역사가 짧은 도시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이러한 내륙 지향적 도시 육성전략에 따라 일부 도시가 인구 규모에서 급속하게 성장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북한에서 도시의 성장이 도시 자체의 인구증가나 도시로의 자연스러운 인구 유입보다는 정부의 전략적 또는 행정적 방침에 따라서 강력한 정부개입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²⁹

가령 단천시와 순천시는 1980년대 초까지 기록으로는 크게 부각되

27. 김두섭 외, 『북한 인구와 인구센서스』 (대전: 통계청, 2011), p. 167.

28. 위의 책, p. 177. 1949년과 1954년에 자강도와 양강도를 신설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볼 수 있다. 한편 해안지역의 도시로는 함경남도에 단천과 신포가 새롭게 건설되었다.

29. 위의 책, p. 179.

지 않았으나 1980년대 중반 이후 인구 규모로 10위권 안의 도시로 갑자기 등장하였다. 순천시는 1983년 시로 승격된 신생 도시로 순천비날론연합기업소, 순천시멘트연합기업소, 순천탄광연합기업소 등이 들어서면서 인구 유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10위권 안에 진입하게 되었다. 개천시 역시 1990년도에 시로 승격된 신생 도시이다. 북한의 대표적인 무연탄 생산기지로 6개의 탄광이 있어 대규모 노동력이 꾸준히 유입되었다. 또한 개천시에는 제14호 관리소, 제18호 관리소(북창군 소재였다가 2007~2008년 개천으로 축소 이전) 등 정치범수용소가 입지하고 있다.³⁰ 관리소에 수용된 인구가 도시 거주 인구로 등록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정치범수용소의 통폐합 과정에서 기존 수용소 인원이 증가하면서 정치적 이유에 의해 인구가 증가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³¹ 단천시 역시 1982년 시로 승격된 도시로 검덕광산을 비롯하여 마그네사이트와 같은 세계적인 비철금속 광물의 산지로 인구유입이 급속하게 이루어진 도시이다. 도시의 급성장 현상은 덕천, 안주, 그리고 양강도의 혜산과 자강도의 강계, 만포, 희천의 일부 내륙도시에도 해당한다.³²

³⁰ 통일연구원, 『2015 북한인권백서』 (서울: 통일연구원, 2015), p. 103.

³¹ 1990년 초만 해도 11호부터 25호까지 일련번호를 달고 북한 북부 등을 중심으로 12군데 정치범수용소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아시아감시위원회(Asia Watch)와 미네소타변호사 국제인권위원회 등 국제사회의 여론과 중국이 개혁·개방됨으로 인한 외부로의 노출 우려, 그리고 전쟁 발발과 같은 유사시 정치범들을 중심으로 제2전선을 형성할지 모른다는 우려로 국경지대에 집중됐던 일부 수용소는 모두 폐쇄하고 현재는 다섯 군데로 통폐합하였다. 이 통폐합 과정에서 개천으로 수용 인원이 증가한 결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³² 김두섭 외, 『북한 인구와 인구센서스』, p. 179.

표 II-4 북한 도시의 순위체계 변화: 1925~2008년

순위	1944년	1967년	1972년	1982년	1986년	1991년	1993년	2008년	인구수 (2008년 현재) 단위: 천 명
1	평양	평양	평양	평양	평양	평양	평양	평양	3,225
2	청진	함흥	함흥	청진	남포	함흥	남포	함흥	669
3	신의주	원산	청진	함흥	함흥	남포	함흥	청진	667
4	원산	청진	개성	남포	청진	청진	청진	남포	367
5	함흥	신의주	신의주	원산	순천	순천	개성	원산	363
6	해주	강계	남포	개성	개성	개성	신의주	신의주	359
7	진남포	개성	원산	신의주	단천	단천	원산	단천	346
8	개성	남포	해주	평성	원산	신의주	평성	개천	320
9	성진	해주	김책	해주	신의주	김책	사리원	개성 사리원	308
10	나진	김책	강계	사리원	사리원	원산	해주	순천	297
11	-	사리원	사리원	강계	해주 김책	사리원	강계	평성	284
12	-	혜산	평성	신포 구성	강계 평성	강계 평성	혜산	해주	273
13	-	송림	구성	강계 혜산	-	-	-	강계	252

주: 성진시는 한국전쟁 때 전사한 김책을 추모한다는 의미에서, 그의 출생지인 성진을 김책시로 개명.

출처: 김두섭 외, 『북한 인구와 인구센서스』, p. 178.

셋째,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전통적인 도시에서의 도시 규모 확대와 꾸준한 인구 성장이 관찰된다. 평양, 함흥, 원산, 사리원 등 전통적인 대도시들의 인구증가율은 여타 도시들보다 비교적 높게 나타난다. 특히 1986~1987년의 기간 동안 평양과 함흥의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각각 12.9%와 7.7%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평양과 함흥의

이런 급격한 인구 증가는 국내 인구이동의 결과가 아니라, 주변의 농촌 지역을 도시에 편입하는 이른바 ‘도시경계의 확장’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 대도시들은 직할시에서 특급시로, 혹은 특급시에서 일반시로 지위가 변경되었고, 당초의 주변 군이 분리되면서 인구 규모가 줄어드는 등 변화를 겪었다.³³

넷째, 북한은 평양의 압도적 인구 우위와 나머지 도시들의 인구 규모의 평균화가 특징이다. 종주도시 평양의 압도적 우위에 기초하여 여타 도시의 대도시로의 성장이 상당 부분 억제된 측면이 있다. <표 II-5>에서 보듯 2008년 인구센서스 결과 현재 북한 27개 도시 중에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도시는 평양시뿐이다. 함흥시와 청진시는 인구 50만~60만 명대의 규모이고, 남포시, 원산시, 신의주시, 단천시, 개천시, 개성시, 사리원시 등 7개 도시가 30만 명대, 그리고 순천시, 평성시, 해주시, 강계시, 안주시, 덕천시, 김책시 등 7개 도시가 20만 명대, 나머지 11개의 도시는 모두 인구가 10만 명대의 규모이다.

³³ 위의 책, p. 181. 평양시의 경우 주변 군을 편입시키면서 꾸준히 면적과 인구수를 늘려 왔다. 그러다 2010년 원래 평양시에 속해 있던 강남군, 중화군, 상원군, 승호구역 등을 황해북도로 편입시키며 축소를 단행한 바 있다. 함흥시의 경우에도 인근에 있는 흥남 지역을 시로 분리하거나 다시 편입시키는 등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인구수의 차이가 발생해 왔다.

I
II
III
IV
V

표 II-5 북한의 주요 도시인구와 인구증가율: 1980~2008년

도시	인구천 명						연평균 인구증가율(%)					
	1980년	1982년	1986년	1987년	1993년	2008년	1980~1982년	1982~1986년	1986~1987년	1987~1993년	1993~2008년	1993~2008년
평양	1,842	1,907	2,071	2,355	2,741	3,255	1.7	2.1	1.29	2.5	1.2	1.6
함흥	594	613	649	701	710	669	3.2	1.4	7.7	0.2	-0.4	-0.2
청진	509	531	514	520	582	668	2.1	0.8	1.2	1.9	0.9	1.2
남포	-	-	363	370	731	367	-	-	1.9	11.4	-4.7	0.0
원산	233	242	265	274	300	363	01.9	2.3	3.3	1.5	1.3	1.4
신의주	271	276	286	289	326	359	0.9	0.9	1.0	2.0	0.7	1.0
단천	-	259	283	284	-	346	-	2.2	0.4	-	-	0.9
개천	-	-	-	-	-	320	-	-	-	-	-	-
개성	108	112	119	120	334	308	1.8	1.5	0.8	17.1	-0.5	4.5
사리원	174	187	216	221	254	308	3.6	3.6	2.3	2.3	1.3	1.6
순천	-	-	340	356	-	297	-	-	4.6	-	-	-0.9
평성	199	212	234	239	273	285	3.2	2.5	2.1	2.2	0.3	0.8
해주	182	184	191	168	229	274	0.6	0.9	2.1	5.2	1.2	2.4
강계	194	198	208	211	223	252	1.0	1.2	1.4	1.0	0.8	0.9
안주	-	-	-	186	-	240	-	-	-	-	-	1.2
덕천	-	-	215	217	-	237	-	-	0.9	-	-	0.4
김책	168	172	178	179	-	207	1.2	0.9	0.6	-	-	0.7
나선	86	86	87	89	-	197	0.0	0.3	2.3	-	-	3.8
구성	154	160	176	177	-	197	1.9	2.4	0.6	-	-	0.5
혜산	150	152	160	164	178	193	0.7	1.3	2.5	1.4	0.5	0.8
정주	-	-	-	-	-	190	-	-	-	-	-	-
희천	149	121	159	163	-	168	0.7	1.3	2.5	-	-	0.2
회령	-	-	-	-	-	153	-	-	-	-	-	-
신포	146	148	156	158	-	153	0.7	1.3	1.3	-	-	-0.2
송림	103	104	107	108	-	129	0.5	0.7	0.9	-	-	0.9
문천	-	-	-	-	-	123	-	-	-	-	-	-
만포	85	89	93	93	-	117	2.3	1.1	0.0	-	-	1.1
총계	5,347	5,783	7,070	7,669	12,501	14,155	3.9	5.0	8.1	8.1	0.8	3.0

주: 도시인구에는 도시 지역 내의 농업인구가 포함되었다.

자료: Eberstadt and Banister(1992a: 22-23); 중앙통계국(1994, 2009)

출처: 김두섭 외, 『북한인구와 인구센서스』, p. 180에서 인용.

다섯째, 평양시 주변 위성도시의 급속한 성장과 압도적 우위가 특징적이다. 평양시 인근에 위치한 남포시, 순천시, 평성시, 송림시 등이 위성도시로 1980년대 이후 급속하게 성장해 왔다. 소위 평양 대도시권, 수도권 인구가 증가 추세에 있는데, 평양과 인근 네 개 위성도시의 인구를 합하면 433만 명에 달하며 전체 도시인구의 40.6%를 차지한다.³⁴ 특히 평양에 대한 출입이 자유롭지 않은 관계로 위성도시들을 통한 우회 또는 대체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위성도시는 평양보다는 비교적 자유롭게 유동이 가능하고 1990년대 이후 시장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다양한 상품 유통에서 접근성이 뛰어나며, 평양과 같은 대규모 소비도시를 끼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고 할 수 있다.

여섯째, 전체적으로 볼 때 도시 편중 현상이 심하지 않다는 점이 특징이다.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수도권 지역 인구 증가, 1980년대 이후 신생 도시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평양을 비롯하여 함흥, 청진 등 북한 10대 도시의 인구를 다 합하여도 북한 전체 인구의 30%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즉 기타 20여 개 도시와 농촌 지역에 나머지 70%에 해당하는 인구가 분포하고 있다는 사실은 북한의 도시 편중 현상이 심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양과 나머지 도시만을 비교하면 평양으로의 집중이 부각되지만, 평양을 제외한 나머지 북한 지역에서 도시 편중 현상은 크다고 볼 수 없다.³⁵

³⁴- 위의 책, p. 182.

³⁵- 임동우·라파엘 루나, 『북한 도시 읽기』, p. 16.

표 II-6 도시와 농촌의 인구 및 인구증가율: 1953~2008년

연도	인구(천 명)			도시인구 비율(%)	도시/농촌별 인구증가율(%)		
	도시	농촌	전체		도시인구	농촌인구	총인구
1953	1,503	6,988	8,491	17.70	-	-	-
1956	2,174	6,645	9,359	23.23	12.30	-1.68	3.24
1960	4,380	6,409	10,789	40.60	17.51	-0.90	3.55
1965	5,894	6,514	12,408	47.50	5.94	0.33	2.80
1970	7,924	6,695	14,619	54.20	5.92	0.55	3.28
1975	9,064	6,922	15,986	56.70	2.69	0.67	1.79
1980	9,843	7,455	17,298	56.90	1.65	1.48	1.58
1982	10,362	7,412	17,774	58.30	2.57	-0.29	1.36
1985	11,087	7,705	18,792	59.00	2.25	1.29	1.86
1986	11,265	7,795	19,060	59.10	1.59	1.16	1.42
1987	11,530	7,816	19,346	59.60	2.33	0.27	1.49
1993	12,501	8,021	20,522	60.92	1.35	0.43	0.98
2008	14,155	9,194	23,349	60.62	0.88	0.84	0.93

주: 1) 군 병력을 포함하는 집체생활단위의 '불특정' 인구는 이 표에서 제외되었다. 1987년 까지의 자료는 북한의 등록인구통계조사의 결과이고, 1993년과 2008년은 인구센서스 결과를 정리하였다.

2) 이 표에서 도시인구는 행정구역상의 시부인구가 아니라, 시부 경계 안에서 비농업 부문의 인구를 의미하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즉 시부에 거주하면서 농업부문에 종사하는 인구는 농촌인구로 분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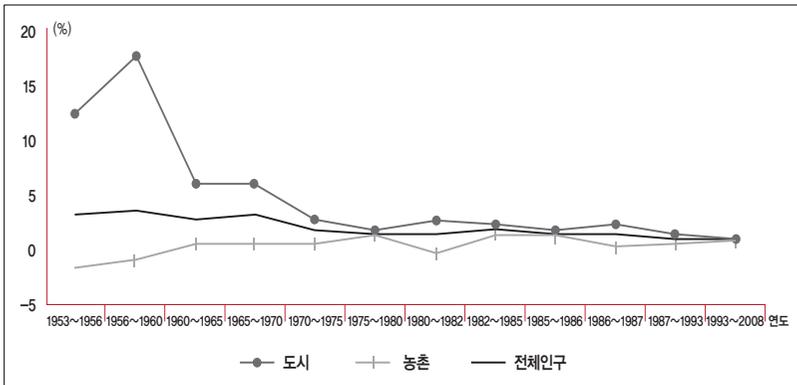
3) 도시/농촌별 인구증가율은 1987년까지는 연말기준으로 계산하고, 1993년 센서스는 1993년 12월 31일, 2008년 센서스는 2008년 10월 1일을 기준시점으로 증가율을 계산하였다.

자료: Eberstadt and Banister(1992a), 중앙통계국(1993, 2009).

출처: 김두섭 외, 『북한 인구와 인구센서스』, p. 167.

일곱째, 북한의 실제 도시화율이 생각보다 높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북한에서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는 60.62%로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 1,200달러를 고려해보면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 왜냐하면 약 91% 도시인구 비율을 가진 한국이나 일본처럼 대부분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도시인구 비율과 경제성장이 비례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우 역시 30%에 불과하던 도시인구 비율이 2013년 들어 53%를 넘어섰다. 1인당 국민소득 수준이 중국의 1/5 수준에 불과한 북한이 더 높은 도시인구 비율을 가진 것이 의문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의 도시에선 대부분 농촌 지역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도시에서 실제 도시화된 지역은 일부이고 상당 부분이 농촌 지역에 해당한다. 이는 실제 도시인구 비율보다 행정구역상의 도시인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³⁶

● 그림 II-3 북한의 도시와 농촌의 연평균 인구증가율: 1953~2008년



출처: 김두섭 외, 『북한 인구조사와 인구센서스』, p. 168.

³⁶ 위의 책, p. 15.

그런 측면에서 북한의 ‘도시’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의하는 도시와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다. 북한에서는 하나의 도시가 자생적 구조를 갖추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여기서 말하는 자생적 구조는 도시 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 소비를 충족시키는 일종의 ‘자기충족적’ 도시로 볼 수 있다.³⁷ 북한은 모든 도시가 자족적이어야 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시·군 단위의 생산·유통·소비 체계를 유도하였다.³⁸ 이 때 생산 영역이란 제조업 등의 공업 지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생산도 함께 포함하는 개념이다. 북한의 도시는 언제나 도시 영역과 농촌 영역이 공존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결국 어떠한 규모의 도시 영역, 농촌 영역이든지 간에 언제나 도시 영역은 농촌 기능을 포함하고, 농촌 영역은 도시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³⁹ 다음 <표 II-7>을 보면,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는 평성시, 순천시, 청진시의 경우에도 농촌 지역이 함께 도시 행정구역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7-고성호, “북한의 도시화 과정과 특징,” 『통일문제연구』, 8권 1호 (1996), p. 144.

38-김필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생산력 배치에 관한 탁월한 리론』, pp. 16~24.

39-임동우·라파엘 루나, 『북한 도시 읽기』, pp. 199~200.

표 II-7 청진·순천·평성의 인구수 및 도시/농촌별, 성별 인구

(단위: 명)

도 시/구역 /군별		2008년								
		모든 지역			도시			농촌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청 진 시	신암구역	64,924	30,616	34,308	64,924	30,616	34,308	-	-	-
	청암구역	136,659	64,533	72,126	114,910	54,234	60,676	21,749	10,299	11,450
	포항구역	104,007	49,727	54,280	104,007	49,727	54,280	-	-	-
	수남구역	82,765	38,752	44,013	82,765	38,752	44,013	-	-	-
	송평구역	146,973	70,030	76,943	25,174	59,713	65,461	21,799	10,317	11,482
	나남구역	112,343	54,444	57,899	107,799	52,263	55,536	4,544	2,181	2,363
	부운구역	20,258	9,797	10,461	15,313	7,436	7,877	4,945	2,361	2,584
평성시	284,386	138,687	145,699	236,583	115,817	120,766	47,803	23,870	24,933	
순천시	297,317	141,806	155,511	250,738	119,727	131,011	46,579	22,079	24,500	

출처: 국가통계포털 북한통계. <http://kosis.kr/bukhan/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 (검색일: 2015.10.15.).

마지막으로 도시의 인구와 밀도, 면적 등뿐만 아니라 도시화 비율, 농촌 비율, 산악지형 비율 등을 고려해 도시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청진의 경우 인구 66만 명 중 약 92%인 61만 명이 도시화된 영역에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이 면적은 전체 청진 면적의 약 4%에 불과하다. 청진은 도시화가 쉽지 않은 산악지형을 제외하고도 농촌 지역 면적이 약 54% 가량 되며, 이는 다시 말하면 청진은 현재 면적의 10배가 넘는 수평 확장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된다.⁴⁰ 마찬가지로 순천시의 경우에도 넓은 평야지대를 끼고 있어 도시의 수평적 확장이 가능하다. 반면 평성시의 경우 마찬가지로 농촌 지역을 일부 끼고 있으

⁴⁰- 위의 책, p. 16.

나 산악지형의 계곡이 평지를 따라 길게 형성된 도시구조상 수평적 확장보다는 수직적 인구밀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런 확장의 제약요소가 있다. 북한 전체에 농업 지역 면적이 작아 도시를 농촌 지역으로 확장할 경우 농업 경작지가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결국 이런 확장이 가능하려면 곡물의 공급이 대외 무역을 통해 충당될 때 가능하다. 앞으로 주목해 보아야 하는 부분은 도시의 시장화가 도시 외부로부터의 곡물 공급을 안정화시키면서 도시 확장의 가능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존의 북한 도시는 도시 간 상호의존적인 네트워크보다는 지역자립이라는 고립성에 기초하여 도시 위계가 성립돼 왔다. 북한은 도시 간 인구가동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을 통해 평양 중심의 종주도시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도시 인구 억제를 통한 종주도시체계의 유지에 인구의 유입을 통해 인구학적 측면에서 노동력을 확보하고, 생산력을 증대하고, 소비를 확대하는 것을 통해 도시 규모의 확장과 도시 성장을 꾀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북한이 인구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화가 미치는 영향이다. 시장의 물자, 화폐, 정보의 거래가 중하위 도시들을 통해 연결되면서 기존 인구 규모상의 도시 순위에는 변화가 거의 없는 가운데 시장 네트워크상의 위상에 따라 도시의 중요도가 재구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2. 도시체계와 시장 네트워크

가. 주요 도시시장의 성장

시장화에 따른 상품, 자원, 화폐, 인간, 기술, 아이디어의 유통은 그것이 수렴되고 결절(node)되는 도시들을 중심으로 위계를 형성한다. 이런 중심성과 위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전국적인 위치와 역할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중에서 유통의 역할에서 전국적인 영향력을 가진 도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국적인 규모의 시장은 크게 점(상업교환 지점), 선(유통 동선), 면(상업권역)의 공간적 분포를 통해 파악해 볼 수 있다. 전국적인 시장은 주변 인근 지역이 특정 시장(교환지점)으로 상품, 자원, 화폐, 사람이 모이고 유통 동선을 따라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중심적 역할을 하는 시장을 의미한다. 이런 도시시장을 중심으로 한 점-선-면의 연결은 시장을 통한 경제생활의 동질화 과정을 의미하기도 한다.

북한은 2003년 봄부터 각 도시에 있던 기존의 농민시장에 벽을 쌓고 매대를 설치하며, 지붕을 덮는 등 종합시장 증·개축 작업을 진행하였다. 과거 농민시장은 평양에 구역별로 1개, 시단위에 3~5개, 군 단위에 2~3개 개설되어 전국적으로 400~600여 개 있었던 것으로 추산된 바 있다. 종합시장이 개설되고 공식화되면서 2003년부터 시장 통제를 시작한 2007년 말까지 시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대략 종합시장 300~350개가 운영 중인 것으로 추산되었다.⁴¹ 종합시장에서 합법적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은 수천 명에서 수만 명에 달

⁴¹ 한기범, “북한 정책결정과정의 조직행태와 관료정치: 경제개혁 확대 및 후퇴를 중심으로(2000~2009),”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2009), p. 141.

하는 것⁴²은 물론, 시장 입구나 인근 아파트 골목 등 이른바 ‘메뚜기 시장’, ‘골목장’ 등을 포함하면 수십 만 명에 이르며, 주민들의 생필품에 대한 시장 의존도는 80%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3~2007년 사이 평성 종합시장에는 하루 10여만 명이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⁴³

북한이 시장을 장려 또는 묵인하다가 다시 적극적인 통제로 돌아선 것은 2007년 10월부터였다. 2007년 10월부터 불법·무질서 거래 통제, 2008년 10월부터 개장일·판매품목 통제가 추진된 데 이어, 2009년 6월부터 시장공간 자체에 대해 물리적 축소가 진행된 바 있다. 사회주의 경제생활의 보조 공간으로서 주민들의 생활편리를 도모한다는 명분으로 장려한 시장이 오히려 ‘괴물’처럼 커져 국영유통망을 잠식하고, 특히 ‘비사회주의 현상’의 서식장으로 자리 잡았다는 판단에 따라 통제를 시작한 것이다.⁴⁴ 그러나 2009년 화폐교환 조치의 실패로 시장에 대한 통제는 다시 느슨한 허용으로 돌아섰고 김정은 정권 들어서 현재까지 적극적인 허용 정책을 펼치고 있다.

2003년 종합시장을 합법화한 이후, 2015년 현재 북한에서 당국의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공식 시장은 406개에 달하는 것으로

42. “시장에 나와 장사를 하겠다는 주민들은 많고 판매자리(매대)는 제한되어 있으므로 2~3일에 한 번 교대하면서 자리를 차지하고 장사를 하므로 시장을 리용하여 합법적으로 장사하는 주민이 수만여명에 달한다.” 군중강연자료, “시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인민의 리익을 침해하는 비사회주의적인 행위를 하지 말자” (2007.10.), 『산케이신문』, 2007.11.13; 매대수는 시, 군, 구역의 인구수와 면적으로 고려하여 시장마다 대략 600~2,000석 규모였다. 한기범, “북한 정책결정과정의 조직행태와 관료정치: 경제개혁 확대 및 후퇴를 중심으로(2000~2009),” p. 141 재인용.

43. 김정일이 ‘본보기 시장’으로 꾸리라고 지시한 평양 통일거리 시장에 대해 한 신문은 “현재 통일거리시장을 찾는 시민은 하루 10만~15만 명이다”라고 소개한 바 있다. 『조선신보』, 2004.9.7. 통일거리시장보다 규모가 큰 것으로 추측되었던 평성 종합시장의 경우, 최소한 비슷하거나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44. 한기범, “북한 정책결정과정의 조직행태와 관료정치: 경제개혁 확대 및 후퇴를 중심으로(2000~2009),” p. 207.

나타났다.⁴⁵ 북한의 공식 시장은 건물이 있으며 도(道)인민보안국 또는 시(군)인민위원회 상업과(부)의 관리 아래 북한주민이 자릿세를 내고 합법적으로 장사할 수 있는 곳을 뜻한다. 이보다 앞서 2010년 위성사진 분석 당시 2009년 시장 통폐합 이후 확인된 공식 시장 200여 개 및 2003~2007년 사이 북한이탈주민 증언 등을 통해 추정된 300~350개를 고려하면, 5년간 최대 약 1.5배에서 2배 가량 늘어난 것이다. 실제로 최근 위성사진에서 황해북도 사리원과 나선시 경제무역지대에 새로 생긴 시장을 포함해 강원도와 평안도 등에도 새로운 공식 시장이 확인됨으로써 북한 당국이 시장의 확장, 건설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 공식적으로 허용되는 시장이 꾸준히 확장하거나 새로 건설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14년과 2015년에도 평안남도 안주시의 남흥시장, 강원도 원산시의 갈마시장, 세길시장을 비롯해 평안북도 대관군, 함경남도 개천시 등에도 새 시장이 들어선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북한의 시장 및 장마당 규모가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⁴⁶

그런데 시장 전체 수를 세는 데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시장’과 ‘장마당’의 존재를 구별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시장’은 북한 당국이 건물 아래 상행위를 허가한 공식 장소이고, ‘장마당’은 골목이나 길거리 등에서 이루어지는 ‘떼뚜기 장사’, ‘골목장’

⁴⁵. 이 수치는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한미연구소의 커티스 멜빈 연구원이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이다. “북한, 합법적 공식 시장 406개…비공식 장마당도 많아,” 『자유아시아 방송』, 2015.10.25.

⁴⁶. Benjamin Katzeff Siberstein, “Growth and Geography of Markets in North Korea: New Evidence from Satellite Imagery,” (US-KOREA Institute at SAIS, October 2015).

등 비합법적인 곳을 의미한다.⁴⁷ 따라서 위성사진에서 확인된 공식 시장의 건물만 406개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거리나 골목에 형성된 비공식 장마당, 최근에 번성하고 있는 개인집을 창고나 가게로 이용한 장사까지 포함하면 실제적인 ‘시장’의 기능을 하는 장소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위성사진을 주의 깊게 보면, 울타리와 지붕을 치고 공식적으로 허용된 시장 근처로 그 일대의 골목마다 수많은 인파가 밀집한 간이매대들의 존재가 확인된다.⁴⁸

이 밖에 물건을 날라 시장에 넘겨주는 ‘뽕튀기꾼’ 또는 ‘달리기꾼’, 이들을 아파트 뒷골목의 ‘별이빠스’와 연결해 주는 ‘몰이꾼’, 무역회사와 짜고 수입상품을 통째로 들여와 파는 ‘차관 장사꾼’, 이들을 매대와 연결해주거나 흥정을 대행하는 ‘거간꾼’과 ‘데꺼’, 시장 앞 살림집을 이용해 통제품을 파는 ‘살림집 밀매꾼’, 시장 앞 아파트 단지 내에 기성양복을 전문으로 만들어 파는 ‘옷촌’, 가방을 만들어 파는 ‘가방촌’, 신발을 만들어 파는 ‘신발촌’, 밀주나 담배를 만들어 파는 ‘술촌’, ‘담배촌’이 형성돼 현재까지 성업 중이다.⁴⁹ 이 밖에 최근에는 보다 진화하여 직접 매대를 차리거나 나가서 팔지 않고 단골을 상대로 개인 살림집에서 규모 있게 거래하는 개인기업 형태도 만연하고 있다. 또한 집이나 물건을 보관해 주는 ‘창고업’, 창고로 자신의 살림집을 임대

47. 합법과 비합법에 따라 ‘시장’과 ‘장마당’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북한이탈주민 면담을 통해서도 제기되었다. 한편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한미연구소의 커티스 뮐빈 연구원 역시 ‘시장’을 당국이 건물 아래 상행위를 허가한 공식 장소로, ‘장마당’을 골목이나 길거리 등 비합법적인 곳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분할 것을 제기하고 있다. “북, 합법적 공식 시장 406개,” 『자유아시아방송』, 2015.10.24.

48. 본 연구에서는 도시의 공간구조를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합법적으로 개설된 ‘시장’과 비합법적이지만 사실상 묵인되며 운영되고 있는 ‘장마당’을 구분하여 설명하지만, 다른 장에서 ‘시장’이라고 할 때는 이 둘을 통칭하는 것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49. 한기범, “북한 정책결정과정의 조직행태와 관료정치: 경제개혁 확대 및 후퇴를 중심으로(2000~2009),” p. 148.

하는 ‘임대업’, 차판장사나 거간꾼을 흥정 및 숙박 장소를 제공하는 ‘숙박업’, 이들을 거래 장소로 안내하고 수고비를 받는 사람, 철도 역이나 버스터미널에서 시장으로 물건을 날라주는 ‘손수레꾼’, 건설이나 물건 나르는 잡부를 알선하는 ‘가대기’, 공터에서 머리를 잘라주는 이발업, 골목에서 자전거를 수리해 주는 자전거수리업 등 이제 시장은 단순히 매대에서 장사하는 것을 넘어 다양한 양태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시장은 공식 시장과 비공식 장마당과 같은 물리적 공간상의 ‘장터(marketplace)’의 확대와 더불어 각종 형태의 시장 행위를 통해 시장의 공간을 고정된 장소에서 개인 주택, 골목, 창고, 공터, 사람-사람, 사람-시장을 연결하는 이동 동선, 특정 품목만을 파는 ‘○○촌’과 같은 거주 지역단위,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등의 형태로 진화·확장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시장은 단순히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한 사고파는 행위 이상으로 하나의 ‘도시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다. 그것은 도시 내외부가 시장 활동에 적합하게 상호 연결된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주민의 생계 수단으로 자리 잡은 시장과 장마당이 규모나 거리, 정책과 상관없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 활발한 경제활동의 중심이 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북한에서 시장의 숫자와 지리적 분포는 시장에 의존하여 사는 주민들의 경제생활을 공간적으로 드러내는 지표이다. 또한 시장은 지역별 식량조달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로서도 의미가 있다.⁵⁰

⁵⁰ 북한의 지역별 비공식 경제활동 빈도가 지역별 식량생산 격차와 깊은 연관이 있음을 보여주는 논의로는 이석, “현 단계 북한경제의 특징과 설명 가설들,” 『KDI 북한경제 리뷰』, 1월호 (2009), pp. 19~20 참조.

가령 ‘고난의 행군’ 시기의 식량난은 노동자들이 주로 거주하는 동부 도시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도시기근’의 양태를 보였다. 그러나 2007~2009년 지역별 식량난은 주요 곡창지대인 평안남도, 황해남·북도 등의 서부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농촌기근’의 양태를 보인 바 있다. 시장 활동이 활발한 도시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시장 활동의 제약이 많은 농촌 지역에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시장이 도시를 중심으로 시스템화(systematization) 되어 지역적 구조로 안정화 되어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시장 활동의 제약이 많은 농촌 지역은 시장에 의한 생계 안정화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뜻이다.

곡창지대는 장사유통이 안 되잖아요. 뭐 나올 게 없잖아. 쌀밖에 없죠, 아무 것도 없어. 그러니까 야단이지. 그게 뭐 군량미다 해서 다 바치고 나게 되면, 나머지가 얼마 안 돼. 이제처럼 평성을 보게 되면 뭐 곡창지대 아니잖아, 곡창지대 아닌데, 이게 장사로 유통 많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밥 먹는 거야, 그런데 곡창지대인데도 뭐이랄까, 강냉이밥도 못 먹고 굶어 죽더라고. 장사유통이 안 되니까. 그런데 평성이나 순천은 막 잘 되잖아요. 그니까 거기 사람은 굶어 죽을 때 이 사람들은 이밥을 먹더라고(사례 10 구술 녹취록, 2015 S04).

정리하면 북한의 시장은 2000년대 들어 도시시장을 중심으로 진화해 왔다. 현재 북한에 있는 27개의 도시들은 도시 내 여러 개의 공식 시장 및 비공식적 장마당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은 물론 각 도시의 중심 시장을 축으로 중소규모의 시장 및 장마당, 골목장 등이 상호 유통망을 구축하고 있다. 이런 유통망에는 다양한 형태의 시장 행위를 하는 사람들로 채워져 있으며 그 형태가 계속 다양화되면서 진화하고 있다. 또한 각 도시의 중심 시장은 상호 상품과 화폐, 사람과 정보 등이 모이는 수준과 규모에 따라 위계화되어 상호의존적인 체계로 네트워크

크화되어 왔다. 그런 측면에서 시장은 이제 북한에서 도시의 물리적 공간 안에 다양한 형태와 활동을 통해 시스템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전국 시장 네트워크와 도시체계

북한에서 주요하게 시장교환이 일어나는 지점들을 파악해 보면 거의 정확하게 주요 중대형 도시를 중심으로 대규모 교환지점들이 생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교환지점이란 주요 대형 도매 시장을 통해 주변 시·군에 있는 중소규모의 하위 시장에 물자를 공급하는 곳을 뜻한다. 이들 전국적인 도매시장이 입지하고 있는 중대형 도시는 대체로 도(道) 소재지와 일치한다. 평양시를 비롯하여 평안남도의 평성시, 평안북도의 신의주시, 황해남도의 해주시, 황해북도의 사리원시, 함경남도 함흥시, 함경북도 청진시, 강원도 원산시, 양강도 혜산시 등 주요 도매시장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도시들은 모두 행정구역상 도 소재지 시에 해당한다. 거주 인구로는 인구 320만 명의 평양시와 인구 19만 명의 혜산시를 제외하면 모두 인구 25만~67만 명 사이의 중대형 도시라고 할 수 있다.

I

II

III

IV

V

표 11-8 북한 주요 도시의 도매시장

시장 명칭	위치 및 개설시기	특징 및 규모
평양시 통일거리시장	평양 낙랑구역 (2003년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보기 시장’으로 개설, 북한의 대표적 시장 • 규모: 길이 107m, 너비 62m, 건물면적 2,100평, 매대 동수 37개(매대, 1,400여개), 주차장 150~200대, 1일 방문인원 1만~2만 명
평양시 중앙시장	평양 중구역 (200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양 제2의 종합시장 • 규모: 길이 85m, 너비 47m, 건물면적 1,000여 평(동형 단일건물)
평성시 옥전시장	평안남도 평성시 옥전동 (2010년 하차장 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선, 신의주, 원산 등지의 물류가 집결하는 북한 최대의 도매시장 • 하차동에 있던 하차장이 옥전동으로 이전 • 규모: 길이 205m, 너비 75m, 매대 동수 50~60개, 유동인구 1일 5만~10만 명
원산시 갈마시장	강원도 원산시 갈마동 (200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시 최대의 도매시장 • 건물면적: 길이 183m, 최대 너비 141m, 건물면적 3,800여 평, 100동 건물
청진시 수남시장	함경북도 청진시 수남구역 (200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자, 자금 유통이 원활하여 상인들이 선호 • 규모: 길이 197m, 너비 82m, 부지면적 4,000여 평 • 2007.12. 관리소장과 도간부들 결탁, 장세 횡령 • 2008.3. 시장통제에 대해 1만여 주민 항의실
사리원시 구천시장	황해북도 사리원 구천동 (200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3.3 급격히 확대. 곡물, 식료, 의류 대량유통 • 규모: 길이 325m, 너비 213m, 건물면적 1,500여 평
해주시 산성시장	황해남도 해주시 산성동 (200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모: 최대 길이 185m, 최대 너비 176m, 건물면적 2,000여 평
신의주시 시장 (구 채하시장)	평안북도 신의주시 (201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로 수입상품이 도매로 거래 • 규모: 길이 178m, 너비 62m, 건물면적 1,000여 평
함흥시 삼일시장	함경남도 함흥시 삼일동 (200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모: 최대 길이 184m, 최대 너비 80m

주: 한기범, “북한 정책결정과정의 조직행태와 관료정치: 경제개혁 확대 및 후퇴를 중심으로(2000~2009),” pp. 146~147을 참조하고 구글 어스 및 북한이탈주민 면담을 통해 재구성.

이들 도매시장은 북한 전체 상품 물동량과 화폐 순환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점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중대형 도시의 도매시장은 도시 곳곳의 소매지점과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 대형 도매시장들은 유통망을 통해 중국이나 국내 전역에서 생산된 상품과 화폐를 빨아들이는 한편, 빨아들인 상품과 화폐를 도시 내부의 소매지점과 다른 도시로 보내는 펌프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사진 II-1 평양시 낙랑구역 통일시장



평양시 낙랑구역, 2003년 개설 (2015.7.16. 촬영)
출처: 구글 어스, <earth.google.com>.

- I
- II
- III
- IV
- 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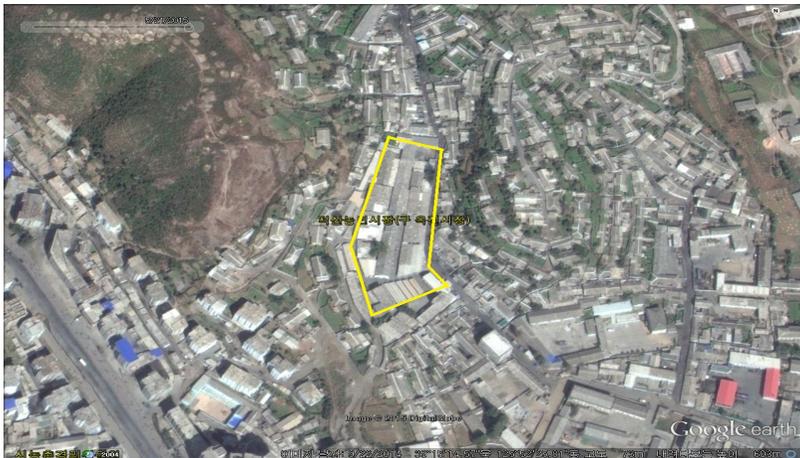
○ 사진 II-2 평양시 중구역 중구시장



평양시 중구역, 2004년 개설 (2015.5.15. 촬영)

출처: 구글 어스, <earth.google.com>.

○ 사진 II-3 평성시 옥전시장



평양시 옥전동, 2010년 하차장 이전 (2015.5.21. 촬영)

출처: 구글 어스, <earth.google.com>.

○ 사진 II-4 원산시 갈마시장



원산시 갈마동 (2015.5.13. 촬영)

출처: 구글 어스, <earth.google.com>.

○ 사진 II-5 청진시 수남시장



청진시 수남구역, 2004년 개설 (2005.9.21. 촬영)

출처: 구글 어스, <earth.google.com>.

I
II
III
IV
V

○ 사진 II-6 사리원시 구천시장



사리원시 구천동, 2004년 개설 (2014.10.27. 촬영)

출처: 구글 어스, <earth.google.com>.

○ 사진 II-7 해주시 산성시장



해주시 산성동, 2004년 개설 (2014.1.12. 촬영)

출처: 구글 어스, <earth.google.com>.

○ 사진 II-8 신의주시 채하시장



신의주시 구 채하시장 2012년 이전 (2015.9.3. 촬영)

출처: 구글 어스, <earth.google.com>.

○ 사진 II-9 함흥시 삼일시장



함흥시 삼일동, 2004년 개설 (2015.7.14. 촬영)

출처: 구글 어스, <earth.google.com>.

I
II
III
IV
V

평양, 함흥, 청진, 원산, 신의주, 사리원, 평성, 해주, 강계, 혜산 등 주요 도매시장이 입지한 도시들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지역 인구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이다. 인구수가 많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상품의 수요가 많고 소비가 활발하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인구의 밀집은 곧 상품과 화폐를 끌어당기고 흡수하는 원동력이자 상품의 규모와 흐름 속도를 좌우하는 중요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전통적인 북한의 공업지구와 중첩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경우 대도시를 중심으로 공업지구가 발달해 왔다고 볼 수 있으며, 역으로 공업지구 육성을 통해 대규모 인구가 유입되면서 대도시화가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공업지구가 입지한 도시의 특성은 배급에 의존하는 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들 도시의 임금과 배급 의존적인 노동자들이 ‘고난의 행군’을 겪으며 굶주림을 경험했다는 점이다. 또한 노동 이외에 특별한 생존 수단을 갖고 있지 못했다는 점에서 ‘시장’을 통한 생존전략에 일찍 눈을 떴다고도 볼 수 있다. 이들 도시의 주민들은 시장을 통한 소득으로 경제생활을 영위하면서 이 도시의 소비 인구로도 기능하고 있다.

셋째, 철도 및 도로와 같은 교통망의 전통적인 요충지라는 점이다. 공업지구의 특성상 주요 대형 공장·기업소가 입지해 있고 여기에 필요한 자재의 공급을 위한 교통이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다는 점, 다른 도시와 연결하는 교통의 ‘결절점(node)’ 역할을 해 왔다는 점이다. 이런 도시 내·외부를 연결하는 교통망의 상대적인 발달은 시장 네트워크로 활용되면서 상품, 화폐, 정보, 기술, 사람의 이동에서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북한이탈주민 면접에서 대부분이 자신이 거주했던 도시의 시장을 언급할 때 이 교통망의 편리성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은 도시시장의 발달에 교통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반증한다.

정리해 보면, 현재 북한에서 주요 도매시장이 입지한 대규모 시장교환의 지점은 도 소재지로서 행정구역상의 중심 도시이면서 전통적으로 공업지구가 발달하여 인구가 상대적으로 밀집한 지역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거주 인구수가 많은 중대형 도시이면서 공업지구가 입지하고 있어 노동자 계층이 많아 상품의 수요와 소비 인구가 어느 정도 뒷받침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교통이 상대적으로 발달한 결절점에 위치해 있어 도매시장으로서의 물동량 흐름에서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 시장교환의 주요 거점이 되는 시장은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인구나 그들이 거주하는 도시라는 두 축을 통해 작동하고 있으며, 사실상 도시 자체가 하나의 시장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평성·순천·청진의 도시적 특성

가. 함경북도 청진시

(북한 최대의 중공업도시에서 시장도시로의 변화)

청진시는 2008년 인구센서스 당시 약 67만 명의 인구를 보유한 함경북도의 도 소재지이다. 북한 27개 도시 중 인구 규모에서 세 번째에 해당하는 도시이다. 청진시는 해방 이후 북한 최대의 함흥시와 함께 중공업 도시라는 위상을 독보적으로 누려왔다. 또한 바다를 끼고 있어 수산기지가 발달했으며, 다수의 중요 군수공장 및 군사시설, 군부대가 입지하여 군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도시이다. 1990년대 이후 경제난을 겪으며 대부분의 공장이 조업을 중단하면서 최대 중공업 도시라는 과거의 영광이 퇴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진시는 아직까지 북한



의 대표적인 공업도시로서의 위상을 지니고 있다.

청진시가 북한의 대표적 중공업도시이자 제3의 도시로서 위상을 갖게 된 데에는 역사적으로 일제 강점기의 도시 개발 전략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 북한의 도시역사를 살펴보면, 많은 도시들이 일제 강점기 대륙침략 및 수탈체제와 밀접하게 연관된 도시형성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청진 역시 이런 도시형성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청진시는 1차 청일전쟁(1894~1895년) 이전에는 약 100여 채의 집이 있는 작은 어촌에 불과했다. 일본은 러일전쟁(1904~1905년)을 수행하며 병력과 군수물자의 출입항으로 청진을 개발하였다.⁵¹ 또한 일본은 대륙 침략을 위해 청진에서 회령까지 90km에 이르는 청회선을 1906년 건설하였다. 청진시는 북한 북부지역 및 만주지역의 산림에서 생산되는 목재와 자원을 운반하기 위한 항구였으며 해산물 운송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한 일제는 현재 청진의 일부인 나남구역을 1907년 군사기지화했다.⁵²

1930년대에 들어서는 배후지의 무산철산(茂山鐵山)의 개발과 더불어 1940년대에는 제강소, 제철소를 비롯하여 방직, 기계, 유지, 통조림 등의 각종 공장이 건설되어 중공업 도시로서 위상을 갖추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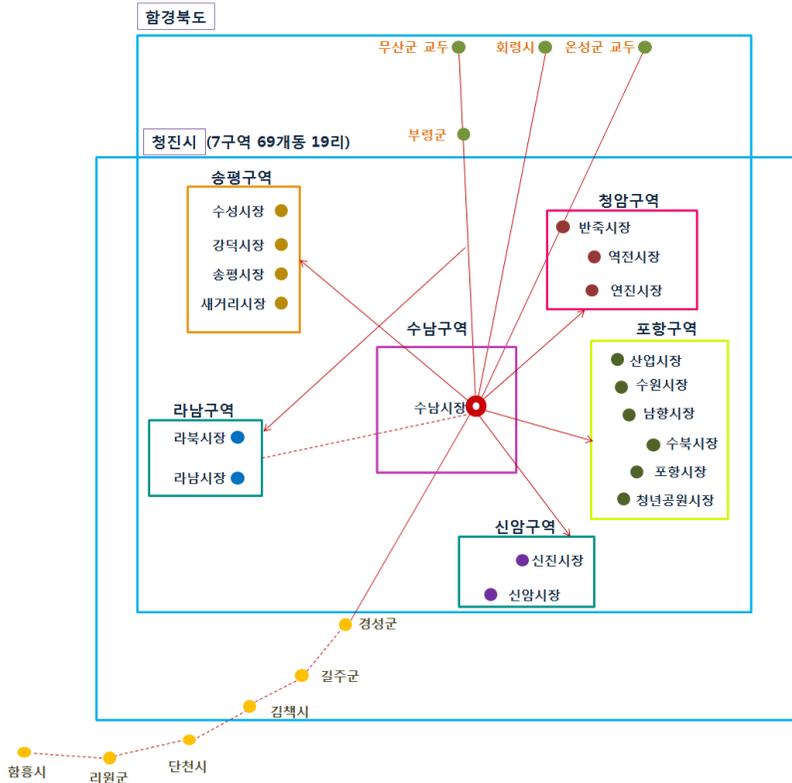
⁵¹ 청진은 1910년대부터 만주 쪽 콩과 공업원료를 한데 모아 일본 쪽에 실어 나르는 무역항으로 발전하면서 1930년대 인구 20만에 달하는 조선 굴지의 항구 도시가 된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인공 계획 도시의 원조는 청진과 지척인 수성평야 남쪽의 군사 도시 나남이라고 할 수 있다. 1900년을 전후해 30가구도 채 안 되는 작은 촌락이었던 이곳을 러일전쟁을 계기로 일본군은 대륙 진출의 보루인 군사행정 도시로 키웠다. 남쪽의 진해가 일본 해군이 만든 인공 도시라면 북쪽의 나남은 일본 육군이 조선의 거점으로 만든 인공 도시였다. 이곳에 만주 관동군과 함께 대륙 진출의 첨병을 자임하던 조선 주둔군 19사단이 주둔했고 사단 본부도 자리 잡았다. 국내 최초의 근대방사형 계획 도시로 육성된 나남은 용산과 더불어 조선 내 일본 육군 무력의 핵심 거점이었던 셈이다. 1940년대 초 행정구역 개편으로 청진에 편입되면서 나남의 독자적인 도시 발전사는 끝난다. 노형석, 『한국 근대사의 풍경』 (서울: 생각의 나무, 2005), pp. 147~152.

⁵² 윤정섭, 『도시계획사 개론』 (서울: 문우당, 1987), pp. 127~128.

이런 일제 강점기에 진행된 도시 형성의 초기조건으로 인해 해방 이후에도 북한은 청진시를 최대의 중공업 도시로 육성하는 전략을 채택하였다. 이런 육성 전략에 따라 청진시에는 김책제철연합기업소를 필두로 철강업과 금속공업이 발달했다. 그 외에 청진제강소, 제2금속건설연합기업소 등 제철, 제강으로 유명한 도시로 발달했다. 북한은 청진시를 일명 ‘북방의 대야금기지’라고 명명하고 있으며, 그만큼 김책제철연합기업소는 철 생산량에서 아직까지 독보적인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⁵³ 그 외 나남탄광기계공장, 청진조선소, 청진철도공장, 청진화학섬유공장, 나남제약공장, 청진고무공장, 청진스레트공장 등이 있다. 또한 부윤구역에는 니켈광산이 있고 송평구역에는 시설 용량 15kW의 청진 화력발전소가 입지하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이래의 경제난 때문에 청진제강소를 비롯하여 많은 공장·기업소들이 조업을 중단하거나 용도변경 혹은 해체 및 철거 중에 있다.

⁵³ 김익성 외, 『조선지리지전서: 공업지리』, pp. 310~311.

● 그림 11-4 청진시의 시장 네트워크



출처: 필자가 북한이탈주민 면담 내용을 통해 그래픽으로 재구성.

청진시는 산악지형에 둘러싸여 수성평야를 제외하면 이렇다 할 농토를 보유하고 있지 못한 데다 인구의 대부분이 배급에 의존하는 공장·기업소 노동자로 구성되어 있어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겪으며 대규모 아사를 경험한 아픈 상처를 지니고 있다.

청진시는 과거에 가졌던 중공업 도시로서의 면모가 위축된 반면 1990년대 이후 시장의 변성으로 인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현재 청

진시에는 공식적인 시장만 18개에 이를 만큼 다른 도시에 비해 그 수와 비중에서 압도적인 시장의 위상을 자랑하고 있다. 또한 수남구역에 위치한 수남시장은 전국적인 유통망을 가진 도매시장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북·중 접경도시(혜산, 회령, 온성)와 동해안 도시축(나선-김책-함흥-원산)을 연결하는 북한 내 시장 네트워크에서 중요 거점 도시의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과 북한을 연결하는 대외 시장 네트워크상에서도 중요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 일본의 대북경제 제재가 있기 전인 2000년대 중반까지는 일본과 중국을 연결하는 중계무역기지로써 명성을 날린 바 있다. 이렇게 시장이 번성하면서 청진시는 경제난의 여파로 퇴색해 가던 중공업 도시에서 시장을 통해 새롭게 도시의 역동성을 만들어 내고 있다.

나. 평안남도 순천시

(지하자원과 시멘트 시장으로 생존해 가는 도시)

인구 29만 7천 명(2008년 인구센서스)의 순천시는 북한 전체 도시 중 인구 규모로는 10위에 해당하는 도시이다. 북한 27개 도시 중 중상위권 인구 규모를 지니고 있다. 순천시는 1983년이 되어서야 시로 승격된 도시로, 사실 역사는 매우 짧다고 할 수 있다. 한국전쟁 이전까지 농촌이었던 순천 지역은 전쟁 후 공업도시로 새롭게 형성된 신생 도시 중 하나이다. 해방 이후 북한은 자원 수탈과 대륙침략 목적으로 동서해안을 따라 도시를 개발한 일제의 왜곡된 도시 개발전략을 수정하는 차원에서 내륙도시 성장전략을 취한 바 있다. 순천은 이런 내륙도시 성장전략 차원에서 새롭게 도시로서의 위상을 갖게 되었다.

순천시가 공업도시의 성격을 갖게 된 것은 시로 승격되기 이전인 1958년부터라고 볼 수 있다. 이 시기는 북한에서 천리마 운동이 한참

I
II
III
IV
V

이던 때로 사회주의경제건설에 필요한 자원이 절실하던 때였다. 특히 무연탄 매장지, 석회석 매장지로 북한 당국의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들 자원을 활용한 대규모 공장·기업소를 건설하고 인구를 이주시키면서 공업도시로 급속하게 성장한 도시이다. 순천시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전까지 석탄(신창·영대·천성·청년·직동광산), 시멘트(순천시멘트연합기업소), 비날론(순천비날론연합기업소), 화력발전소(12화력연합기업소), 석회질소비료공장, 프락또르공장, 순천제약공장 등이 입지하여 공업기반이 상대적으로 다른 도시에 비해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공업도시의 위상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 공장에 필요한 인력을 대규모로 배치하면서 급속하게 인구 유입이 이루어져 인구 구성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도시에 속했다.

특히 순천시의 중요성은 평양시에 필요한 전력을 생산하는 동평양 화력발전소에 석탄(무연탄)을 공급하는 공급원이라는 점에서 크다. 평양시 전력 공급을 받고 있는 화력발전소에 석탄을 대는 곳은 평안남도의 순천시, 개천시, 덕천시 3곳이 주요하다. 이 중 순천시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평양시와는 경제적 교환관계의 측면에서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바로 이점에서 평양시와의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순천시는 평성시와 더불어 평양의 위성도시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이 두 도시는 평양과 관계를 맺는 방식과 도시 생존전략의 차원에서 보면 차이가 있다. 평성시가 평양의 인구를 분산시키고 행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 평안남도의 도 소재지로 기능하는 행정·교육도시라면, 순천시는 평양에 필요한 에너지와 건설 자재를 공급하는 평양의 산업적 배후지로서 자원 공급도시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이다.

이런 차이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순천과 평성의 생존전략에도 영향을 미쳐 왔다고 볼 수 있다. 산업적 기반이 없는 평성시가 ‘시장’을 통해 물자와 화폐의 유통 중심도시로 생존을 모색해 왔다면, 순천시는 자신이 가진 자원을 시장에 공급하는 자원 의존적 생존을 해왔다는 점이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도시 형성 배경, 산업적 기반, 평양이라는 도시와의 관계 측면에서 이 두 도시가 갖는 차이는 1990년대 이후 ‘시장화’의 수준과 내용에도 ‘차이’를 만들어 낸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순천은 상대적으로 넓은 평지를 확보하고 있어 평성에 비해 도시화 지역이 넓게 분포한다. 평야가 발달했다는 점에서 원래 농업에 적당한 지대적 특성을 갖고 있다.⁵⁴ 황해도의 재령벌, 평안남도 숙천벌, 그리고 순천벌을 북한의 3대 평야로 부를 만큼 순천시는 넓은 평야지대를 가지고 있다. 이런 지대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풍부한 석회석을 이용할 수 있는 시멘트 공장은 물론 1989년 대규모 비날론 공장단지를 순천에 건설함으로써 순천은 공업도시로 빠르게 변모하게 되었다. 사실상 순천시를 대표하는 순천시멘트연합기업소와 순천비날론연합기업소를 통해 도시의 성격이 변화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경작지가 부족한 북한의 입장에서 농업 경작지에 대규모 공장 건설을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전체 면적에서 도시화 지역보다는 농업 지역의 면적이 큰 도시이다.

종합화학공장인 순천비날론연합기업소는 건설 당시 연간 비날론 10만 톤, 카바이트 100만 톤, 메탄올 25만 톤, 질소비료 90만 톤, 염화비닐 25만 톤, 가성소다 25만 톤, 탄산소다 40만 톤, 단백질 사료 30만

⁵⁴ 순천시의 도시화 지역은 전체에서 13.9%, 농업 지역은 69.5%, 산지는 16.6%를 차지하고 있다. 임동우·라파엘 루나, 『북한 도시 읽기』, p. 376.

톤 등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함흥시에 있는 ‘2·8비날론연합기업소’와 함께 북한의 양대 비날론 공장으로 명성을 떨쳐 왔다. 김일성의 직접 지시에 의해 건설된 만큼 그 위세와 규모가 컸고 순천비날론연합기업소의 지배인은 순천시 당 책임비서 이상의 권한을 가지는 것은 물론 이후 내각의 고위 직책을 맡을 만큼 위상이 높았다. 북한의 현 내각 총리인 박봉주가 순천비날론연합기업소의 지배인 이력을 가진 데서도 그 위상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사실상 가동을 멈춘 이후, 현재는 버려져 폐허가 되어 옥수수 밭으로 쓰이고 있으며 사실상 해체와 철거의 과정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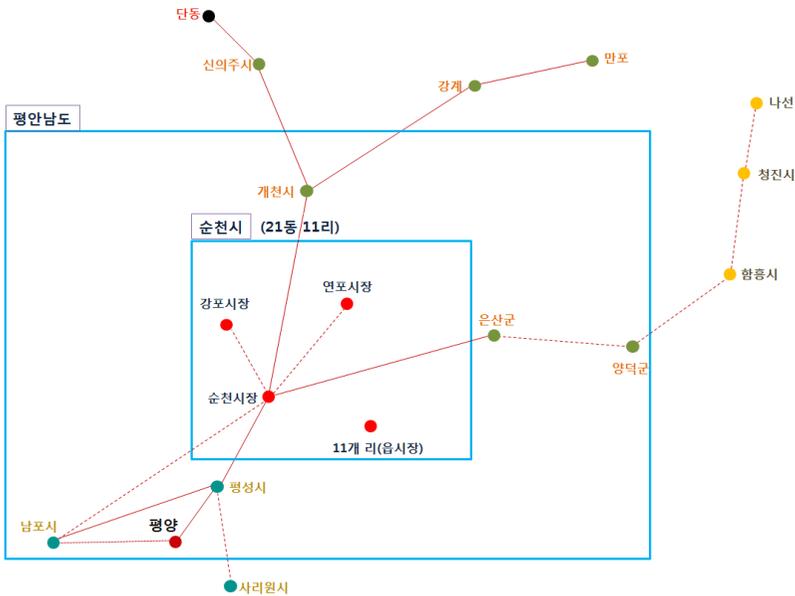
이 밖에 시멘트의 생산은 이 도시의 위상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평양시 ‘상원시멘트연합기업소’, 해주시 ‘2·8시멘트연합기업소’와 더불어 순천시멘트연합기업소는 북한의 3대 시멘트 공장 중 하나이다. 이 중에서 순천시멘트연합기업소는 북한 최대의 시멘트 공장으로 연 300만 톤을 생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⁵⁵ 이곳에서 생산되는 시멘트는 품질이 우수하여 ‘금강’이라는 상표로 외국에 수출하기도 했다. 2008년부터 시작되었던 평양의 10만 세대 주택건설 사업 등 평양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건설에 필요한 시멘트는 순천시멘트연합기업소와 상원시멘트연합기업소를 통해 공급되고 있다.⁵⁶ 한편 1990년대 이후 순천시의 시멘트는 시장으로 대량 유통되면서 순천시에 있는 권력기관, 공장·기업소, 주민들의 시장 활동에 중요한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55. 북한의 3대 시멘트 공장의 연간 생산량은 순천시멘트연합기업소 300만 톤, 황해북도 봉산군 ‘2·8시멘트연합기업소’ 160만 톤, 평양시 ‘상원시멘트연합기업소’ 200만 톤 등으로 알려져 있다.

56. “북상원시멘트 생산량 동결, 시멘트난 심화,” 『동아일보』, 2011.1.12.

북한의 대표적인 자원기지이자 공업도시였던 순천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겪으며 기존의 공업도시로서의 위상이 많은 부분 위축되었다. 1990년대 이후 순천시는 인접해 있는 평성시, 평양시와 시장 네트워크를 통해 연계되면서 하나의 시장 권역을 형성하고 있다. 순천시는 평라선(평양~나진), 만포선(만포~순천), 평덕선(평양~구장) 열차가 삼각지대이자 평성~평양~성천~숙천~개천~안주~북창 등을 도로로 연결하는 위치에 있어 북한 전체 시장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평성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장의 역동성은 떨어지지만 평성시 및 평양시와 시장을 통해 공생하는 방식으로 생존하고 있다.

● 그림 II-5 순천시의 시장 네트워크



출처: 필자가 북한이탈주민 면담을 통해 그래픽으로 재구성.

- I
- II
- III
- IV
- V

한편 화학 및 제약공업이 발달한 대표적 도시였던 순천시는 2000년 대 중반 이후 함흥시와 더불어 마약의 제조와 밀거래로 악명 높은 ‘마약도시’의 면모 또한 보이고 있다. 순천시에서 마약의 제조 및 유통은 시장 네트워크와 중첩되면서 시장을 통한 자본 축적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밖에 순천시에는 3개의 군용비행장, 2개의 공군부대, 특수부대 등이 입지하고 있어 군사적으로도 평양을 방어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군사 요충지이기도 하다.

다. 평안남도 평성시

(교육·과학도시에서 시장도시로 변화한 평양의 위성도시)

평성시는 현재 인구 28만 5천 명(2008년 조사)으로 평안남도의 도 소재지이다. 인구 규모로는 28개 북한 도시 중에 12번째에 해당하는 중간 규모의 도시이지만 행정구역상의 도 소재지이자 평양과의 인접성으로 인해 중요도는 인구 규모와 달리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평성시라는 지명은 1965년에 평양시 용성구역과 평안남도 순천군의 일부 지역을 통합하여 새로운 구(區)를 신설하면서 수도 평양을 보위하는 성새(城塞)가 되라는 뜻에서 평양의 ‘평’자와 성새의 ‘성’자를 따서 ‘평성’이라 한 데서 유래한다. 이후 1969년에 평성구가 평성시로 승격되면서 평안남도 소재지로 되었다. 평성은 시가 되기 전까지는 순천시에 속한 리 단위 수준의 시골이었다. 1969년 시로 행정구역을 개편하고 과학과 위생, 문화도시의 이름으로 육성되었다. 이후 평안남도 도(道) 소재지가 도급·시급 기관들이 이전하면서 지금의 평성시가 탄생했다. 도시 전체 인구 중 도급, 시급 당 및 행정기관 종사자들과 그의 가족들이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평성시 행정구역은 20동 14리로 구성되어 있다. 평성시는 평지가 적

은 지대적인 특성으로 인해 사실 도 소재지로는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평야와 산간의 중간에 속하는 중간지대로서 총 영역의 절반이 해발 100~200m 수준에 위치해 있다. 평성시는 평지가 적고 산지 사이의 천을 따라 도시가 들어서 도시의 입지 자체가 확장적일 수 없는 지형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도시화될 수 있는 면적이 매우 제한되어 도심의 인구 밀집도가 높다. 지형은 대체적으로 청룡산줄기가 뻗어 있는 서부지역이 높고 남동부지역으로 가면서 점차 낮아진다. 산림이 평성시 전체면적의 약 53%를 차지하고 있어 도시화 면적을 제외하면 농업용지는 매우 적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지대적 특성이 공업적 기반을 제약하는 요소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대규모 공장이 입지할만한 평지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평성은 내세울만한 큰 공장·기업소도 없다. 공업기반은 매우 초라한 도시라고 할 수 있다. 인근에 있는 순천시만 해도 순천시멘트연합기업소, 순천화학공장, 순천비날론연합기업소, 순천탄광연합기업소 등 대표할만한 특급기업소가 있는데 평성시에는 산업기반이 매우 취약하다. 지대적인 특성 때문에 큰 공장의 입지가 제한적인 측면도 있고 도시 형성 자체가 도 소재지로서 행정도시, 교육도시에 초점이 맞춰진 까닭이기도 하다. 그래서 순전히 시장 유통을 통한 물자와 화폐의 순환을 통해 생존해 가는 도시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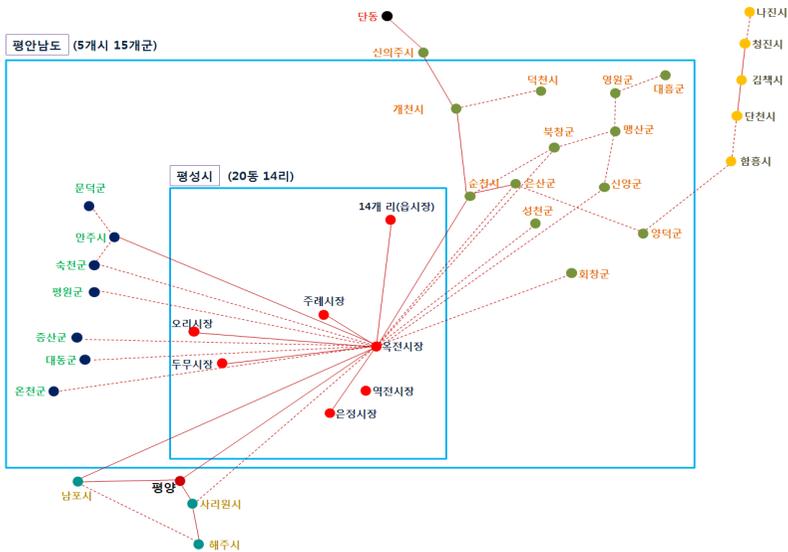
그런 측면에서 평성시의 도시적 특성은 지리적 위치에 강하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리적으로 서쪽과 남쪽을 평야와 접하고 있어 평야로 들어가는 교통의 요충지이다. 평라선(평양~나선) 철길이 남북으로는 순천시, 순안구역, 강동구역, 선천, 평원, 증산을 연결하고 있다. 평양의 위성도시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평성의 도시 역사와 특성은 순천과 마찬가지로 평양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될 수밖에 없는 측

I
II
III
IV
V

면이 있다. 평성 출신 이탈주민 인터뷰를 통해 확인되는 부분은 심리적 인 차원에서도 평성시의 주민들은 평양과 인접하다는 인지적 거리감으로 인해 다른 도시와는 다른 자긍심과 구별 짓기를 한다는 점이다.⁵⁷

한편 평성은 1990년대 이후 ‘시장’으로 전국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다. 평성시장(2008년 하차동에 있던 하차장이 옥전동의 옥전시장으로 이전)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청진시의 수남시장과 함께 북한 최대 도매시장으로 성장하였다. 평성시장(옥전시장, 현재는 ‘덕산농민시장’으로 개명)은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물자들이 모이고 전국으로 나가는 최대의 도매시장이다.

그림 II-6 평성시의 시장 네트워크



출처: 필자가 북한이탈주민 면담을 통해 그래프적으로 재구성.

57. 홍민, “북한연구에서 ‘공간’ 이해와 도시사의 가능성,” 고유환·홍민 외 엮음, 『사회주의 도시와 북한: 도시사연구방법론』, p. 127.

평성시는 함경북도, 강원도, 황해남·북도로 나가는 삼각지대에 해당한다. 이에 비해 평양시는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어 들고나기가 힘들다.⁵⁸ 그런 이유로 평성시로 물자와 사람이 집결될 수밖에 없다. 평양에 있는 무역기관들은 단동을 통해 들어오는 물건들을 평성시장에 나가 신고 평양으로 가지고 들어가거나 평성을 통해 중국 대방과의 거래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평성을 활용한다(사례 3 구술녹취록, 2015 P01). 평성시는 평양에 있는 무역회사들이 중국 대방으로부터 들어오는 다양한 물자를 거래하고 교환하는 필요한 상품을 공급하는 도시다. 평성시장의 경우 2008년 이후 시장 통제와 이전으로 잠시 위축되긴 했지만 현재까지 최대 도매시장의 위상을 자랑하고 있다. 북한 전역의 시장 네트워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평성시의 전국적인 시장 네트워크를 통해 발달한 교통망에 따라 작동한다. 우선 단동시-신의주-개천-순천으로부터 들어오는 상품 유통선뿐만 아니라 남포항로부터 들어오는 유통선이 있다. 순천에서 나오는 물건이 남포항을 통해 중국으로 가기도 하고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물건이 남포항을 통해 평성시와 순천시로 나가기도 한다. 이렇다보니 남포시에는 나가고 들어오는 물건을 받아 평성, 순천 등의 큰 도매시장으로 연결하는 되거리 장사꾼이 많다. 남포시는 항구를 끼고 있어 물품 유통이 빠를 수밖에 없다. 평성시, 순천시 등 도매시장이 있는 도시의 큰 상인들이나 기관에서 남포에 상시적으로 사람들을 파견해 놓

⁵⁸ 평양 시민증 및 평양 임시거주증이 없는 사람들은 거주지역 도인민위원회 2부에서 발급하고 평양시의 승인번호가 찍힌 여행증명서를 지참해야 평양에 들어갈 수 있다. 평양 임시거주증은 지방 출신 대학생, 지방출신 평양1중학교 학생, 평양에 주둔하는 군인, 평양에 파견되는 공무원 및 기업소 일꾼에게 발급되며 재학기간, 복무기간, 업무기간에 따라 유효기간이 다르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금순, 『북한주민의 거주·이동: 실태 및 변화전망』 (서울: 통일연구원, 2007), p. 39 참조.

고 지사를 운영하기도 한다. 남포시에서는 많은 주민들이 일본산 중고 품 되거리 장사를 하거나 신의주 상품을 팔거나 중국에서 수입해오는 기름, 맛내기, 쌀 등을 파는 장사로 살아간다. 전국 각지에서 장사꾼들이 몰려들어 되거리 장사로 사는 집들이 많다.⁵⁹

평성시는 한국전쟁 이후 1960년대 후반 현대적인 과학도시를 평성 지역에 세운다는 취지로 과학단지와 이과대학 등을 건설하기 시작하면서 명실상부 북한의 최고 인재들이 밀집해 있는 국가과학원 단지가 형성되기 시작했다.⁶⁰ 또한 북한의 유일한 조폐창인 ‘평양상표인쇄공장(62호공장)’이 위치해 있다. ‘1977년 건설을 시작하여 1981년 완공된 조폐창은 북한의 인민보안부(치안경찰)에서 직접 관리되고 있으며, 1990년대 들어 달러 위조지폐가 만들어지는 곳으로 지목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⁵⁹ 사단법인 좋은벗들 북한연구소 엮음, 『오늘의 북한소식』, 12호 (2006.10.11.)

⁶⁰ 평성시를 과학·교육도시로 자리매김하게 했던 ‘국가과학원’이 1995년 평양시 은정구역으로 편입됨에 따라 평성시는 실제 과학도시로서의 위상은 위축되었다고 할 수 있다.



Ⅲ. 시장화와 도시 공간구조의 변화

1. 도시구조 기본 패턴과 시장의 유형

가. 도시구조 기본 패턴과 북한의 도시

평성시, 순천시, 청진시의 도시구조에 대한 분석에 앞서 도시구조의 개념과 일반적 패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도시는 다양한 요소들이 상호 관련성을 가지고 유기적으로 조합된 하나의 단위지역이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기능적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갖는 여러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능적 차원에서 지역을 보면 크게 업무지구,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도시는 사실 이러한 기능 지역들의 집합체이자 모자이크라고 할 수 있다. 도시는 그러한 기능 지역의 형성과 배열을 통하여 일정한 공간적 질서를 갖게 된다.⁶¹ 도시구조(urban structure)는 이러한 기능지역들의 위치와 배열의 상호 공간적 관계를 의미한다. 북한 역시 현재 각 도시에는 국가기관 업무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업지역 등의 기능지역들이 일정한 질서를 가지고 배열되어 있다.

첫째, 도심(Central Business District: CBD)이 있다. 도시의 중추적 행정기관, 금융기관, 기업 본사와 같은 업무활동들이 집중돼 있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백화점 등 대형 소매점과 고가 또는 전문적인 상품을 취급하는 전문소매점이 밀집되어 있다. 이 같은 상점들 외에도 도심 활동인구가 요구하는 음식점, 호텔 등 요식업소와 숙박시설이 입지하며 접근도가 다소 떨어지는 주변부로는 도심의 이점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공업 또는 창고업무지구, 주거시설(고밀도 아파트)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⁶²

⁶¹ 최병두, 『인문지리학 개론』, p. 242.

I
II
III
IV
V

북한의 경우에는 유사한 패턴이 나타나면서도 다소의 차이를 보인다. 중심업무지구는 북한에서 주로 김일성 동상(최근에는 김정일 동상 포함)이 있는 광장을 중심으로 시당위원회(또는 도당위원회), 시(도)사적관, 김일성사상연구실이 기본적으로 함께 자리하고 시인민위원회(도인민위원회), 시보안서(도보안국), 시보위부(도보위부), 시(도)검찰소 및 재판소 등 국가기관이 인근에 자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다. 또 여기에 시(도) 통계국, 중앙은행 등과 같은 금융 및 통계기관, 시(도)무역관리국, 5호관리소 등과 같은 무역 관련 기관, 백화점 및 외화상점 등 고가의 대형 소매점과 같은 상업시설과 호텔 등이 자리한다. 그리고 국가기관 종사자들의 사택으로 쓰이는 아파트나 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는 것이 보통이다. 이처럼 북한의 도심 역시 국가기관 업무지구, 무역회사 지사, 호텔 및 백화점, 도심상가, 고층 아파트 주거 지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김일성 동상을 중심으로 광장과 혁명사적관 등이 기본적으로 배치된다는 차이가 있다.

둘째, 주거지대가 있다. 보통 거주인구의 특성에 따라 도시 내 주거 지역이 동질성을 가진 하위지역들로 구분되어가는 과정을 ‘거주지 분화’라고 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사회에서는 거주지 분화가 종종 심화되어 도시 주민들 간에 사회공간적 분리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를 격리(segregation)라고 한다. 다시 말해 소득 수준,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특정 지역에 특정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면서 공간적으로 거주지가 분화되는 현상이다. 주거지 분화 현상을 야기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다. 주요한 것은 소득이나 직업, 교육수준과 같은 사회경제적 지위 등의 요인이 대표적이다. 각 하위지역에서 형성되는 주택가격에 대

⁶² Truman A. Hartshorn, *Interpreting the City: An Urban Geography* (New York: John Wiley & Sons: 1980), p. 216.

한 지불능력이 비슷할 뿐만 아니라 유사한 사회문화적 가치를 갖기 때문이다.⁶³

북한에서도 2000년대 이후 ‘거주지 분화’가 일정하게 나타나고 있다. 과거 1990년대 이전까지 북한에는 ‘거주지 분화’보다는 ‘거주지 구분’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적절한 표현일 것이다. 주로 지위나 직업, 성분 등이 거주지 구분으로 나타나는 측면이 있었다. 가령 주요 권력기관 종사자들이 주로 사는 도심의 주택지구, 특정 공장·기업소에 종사하는 노동자 주택이 밀집한 도심 주변 또는 공장 인근의 주거지구, 도시 내 있는 농촌 지역의 농장원들이 사는 단층 문화주택단지 등이 그것이다. 이런 구분은 표면적으로는 직업에 따른 구분의 성격이 강하고 주로 직업적 편의의 차원에서 구분되는 거주지 구분에 해당하지만, 실제로 지위가 낮거나 성분이 좋지 않은 사람이 중심 주택지구에서 거주할 가능성은 낮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지위적 구분의 성격도 일정 부분 갖고 있다. 사실상 소위 ‘정치자본(political capital, 정치적 지위를 통해 획득되는 공공재화에 대한 점유·활용의 권한과 편의)’⁶⁴에 의한 공간적 구분이 일정 부분 작동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민들이 거주지 구분에 강하게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는 힘들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시장화가 활성화되면서 도시 주민들 사이에 소득 수준에 따라 거주지의 분화가 나타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부분이다. 특히 1990년대 후반부터 주택거래(입사증 거래)가 암암리에 이루어졌고 2000년대 들어와서는 사실상의 주택거래시장이 활발하게 돌아가면서 지역별 집값의 차이가 형성되었다. 이런 지역별·장소별 집값

⁶³ 최병두, 『인문지리학 개론』, p. 262.

⁶⁴ Pierre Bourdieu, *Practical Reason: On the Theory of Action*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8), p. 16.

I
II
III
IV
V

의 형성에 따라, 소위 경제자본(economic capital)의 소유 수준에 따라 거주지의 분화가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점이지대가 있다. 점이지대의 토지이용 특성은 주차장, 터미널, 창고, 도소매점, 유흥시설, 소규모 공장, 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이 혼재하는 특성이 있다. 점이지대라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기능에 다른 기능이 침입하는 과정에서 토지이용의 시·공간적 변화가 심하고 토지이용 패턴이 단일 용도로 일관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⁶⁵

북한에서 이런 점이지대는 과거 1990년대 이전에는 크게 필요하지 않았던 부분이었으나 1990년대 후반 이후 도시시장이 활성화되면서 필요성이 커졌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가령 시장 활동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역전, 버스터미널 등이 활성화되고 각종 물자를 보관하는 창고업, 장사꾼들이 묵는 숙박시설, 시장 상인들과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식당, 숙박, 목욕) 등이 활발하게 등장하고 있다. 또한 도심에서 약간 벗어나 과거에는 버려져 있던 지역(공터)에 아파트와 단층주택들이 활발하게 건설되고 있다. 북한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점이지대의 특징은 시장 또는 장마당과 교통망(철도 역전, 버스터미널) 사이에 주로 형성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⁶⁵ 최병두, 『인문지리학 개론』, p. 263.

나. 도시의 시장 시스템으로 진화

다음으로 도시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개념과 유형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도시 자체가 하나의 시장 시스템이라는 것은 ‘시장’이 단순히 특정 장터(marketplace)의 존재 이상으로 다양한 시장 행위와 이해관계, 물리적 구조, 사회적 관계 등과 결합된 형태로 작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시장 활동이 수행될 수 있는 것은 인간과 비인간적인 것들(장소, 사물, 화폐, 정보, 도시 하부구조, 제도 등)이 결합될 때 가능하다. 이런 결합은 도시 전체가 하나의 시장 시스템으로 기능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의 도시들은 1990년대 이후 지난 20여 년 동안 시장 활동에 맞춰 하나의 시장 시스템으로 진화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위 말해 시장의 ‘수행성(performativity)’을 만들어 내는 도시 내의 사회-기술적 시스템(socio-technical system)이 구축돼 온 것이다.⁶⁶

시장은 기능과 분석 초점에 따라 다양하게 유형화될 수 있다. 시장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지리적 장소: 장터·상점·골목 등, 추상적 장소: 가상공간), 무엇이 교환되고 있는가(거래품목), 얼마나 제도 영역에 귀속되어 있는가(합법, 불법, 회색지대), 유통의 단계(도매, 소매)와 교환의 공간적 범주(지역, 전국, 국제 등)가 어느 정도인가 등에 따라 구분된다. 이런 일반적인 구분 속에서도 ‘시장교환’이 성립하기 위한 기본요소들은 공통적이다. 즉 교환의 대상, 장소, 판매자, 구매자, 제도·관습 등이다. 원시적이든 현대적인 시장 교환이든 모두 이 기본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⁶⁶ Iain Hardie and Donald Mackenzie, “Assembling an Economic Actor: The Agencement of a Hedge Fund,” *The Sociological Review*, vol. 55, iss. 1 (2007), pp. 58~59.

우선 장소로서의 시장이다. 지리적 장소로서 ‘시장’은 구체적인 장소를 지닌 장터(marketplace)와 그렇지 않은 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리적 장소로서의 시장은 가격형성의 기능이 강조된 추상적 개념의 시장이 아니라 구체적인 지리적 공간개념으로서의 시장을 뜻한다. 시간과 공간의 일치를 통해 인간과 인간, 인간과 물자가 만나는 곳이며, 이것들이 유통되는 중심지다. 북한의 시장, 장마당, 상점, 골목, 창고 등 시장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에 비해 지리적 장소를 갖지 않는 시장은 금융계좌상의 주문과 결제나 가치이전, 전자상거래와 같이 거래 자체가 구체적인 지리적 장소가 아닌 법적·제도적 교환장치 또는 기관을 통해 이뤄지는 것을 말한다.

둘째, 거래품목에 따라 형성되는 시장이다. 거래품목은 소비재에서 주택시장까지 다양하다. 기본적으로 시장 거래품목으로는 상품, 자본, 노동, 토지 등이 있다. 이들 거래품목에 따라 상품시장(생산재·소비재), 자본재 시장, 노동시장, 주택 및 토지시장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북한에서는 현재 상품시장, 자본시장, 노동시장, 주택시장 등이 맹아적인 단계부터 보다 진화한 단계까지 비동시적이지만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 각 도시의 도매시장은 주로 공업품, 농수산물 등을 파는 상품시장에 해당한다. 자본재 시장 역시 맹아적이지만 나타나고 있다. 일종의 사금융이 여기에 속한다. 1990년대 이후 일명 ‘돈주’라는 민간자본가가 등장하면서 개인, 개인기업, 국가기관 등에 투자나 대부 형태로 돈을 빌려주는 사금융이 형성돼 있다.⁶⁷ 노동시장 역시 일정한 수준으로 진화하고 있다. 시장 활동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필요할 때 이들에게 임금을 주고 고용하는

⁶⁷ 북한의 사금융 실태에 대해서는, 임을출, “북한 사금융의 형성과 발전: 양태, 함의 및 과제,” 『통일문제연구』, 27권 1호 (2015), pp. 205~242 참조.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북한에서 주택시장은 가장 눈에 띄게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이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 자신이 살던 주택의 입사증을 파는 것으로 시작된 주택 거래는 2000년대 들어 민간자본이 투입된 아파트 건설시장으로 활성화되고 있다.⁶⁸ 생산재 시장의 경우 북한에서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사회주의물자교류시장’을 통해 공장이나 기업소 간에 원자재와 부속품을 교환하도록 허용하는 한편, 물자교류시장을 경유하지 않는 기업 간 현금과 현물을 통한 원자재 구매를 허용하고 있다. 사실상 생산재의 시장교환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소비재의 경우 이미 합법적인 종합시장을 비롯해 불법적인 암시장까지 광범위하게 전국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셋째, 제도 영역의 귀속 여부에 따른 시장 구분이다. 제도 영역의 귀속 여부는 크게 합법적 시장과 불법적 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실 합법과 불법의 구분은 국가가 제시하는 법적 영역을 벗어났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 여기에는 구분의 난점이 있다. 제도화 수준이 기본적인 시장교환의 영역을 포괄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미약할 경우 불법은 자연스럽게 많아지거나 합법과 공생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북한에서 합법과 불법의 제도적 귀속 여부에 따라 시장을 구분하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 현재의 북한 시장이 갖는 성격을 합법과 불법의 구분에 의해 규정짓는 것보다 제도적 상황에 대응한 합법과 불법을 가로지르는 사회적 관계의 양상, 불법과 합법 영역을 넘나들며 사실상 실질적으로 시장교환의 과정을 매개하는 시장의 사회적 인프라 — 관료적 목인체계, 지대추구

⁶⁸ 북한의 아파트 건설시장에 대해서는, 홍민, “북한의 아파트 건설시장과 도시정치,” pp. 35~62 참조.

I
II
III
IV
V

(rent-seeking)의 구조, 정보의 교환체계, 물자 이동의 수단 및 동선 등 — 수준이 얼마나 갖추어져 있는가에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것은 제도적으로 불확실한 시장에 대해 시장의 행위자들이 어떻게 불법과 합법을 넘나들며 그것에 대응하는지를 보는 것이며, 그것의 지속이 가져온 사회적 관계의 양상과 시장을 지탱하는 사회적 구조를 보다 면밀하게 분석해야 함을 의미한다.⁶⁹

넷째, 시장교환의 공간적 범주에 따른 시장의 유형이다. 이것은 시장과 접촉이 이루어지는 지리적 네트워크의 범주가 어디까지인가에 따라 지역시장에서 전국시장까지 시장권역을 구분해 볼 수 있다. 유통(distribution)이란 상품·서비스가 생산자로부터 최종소비자의 손으로 넘어갈 때까지의 일련의 과정이다. 즉 생산과 소비의 양적·질적, 시·공간적 틈을 메우는 모든 움직임이다. 구체적인 실현 형태로는 기능적으로 도매와 소매가 있으며, 그 밖에 창고와 운수 등이 포함된다. 특정 지역 내에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유통의 단위들이 가격을 매개로 상품이동의 일정한 경로를 구성할 때 이것을 ‘지역시장’이라고 하고,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작동할 때는 ‘전국시장’이라고 한다.

북한에는 지역시장과 전국시장 모두 형성돼 있다. 도 소재지 도시를 중심으로 인근 시 및 군(郡)들이 상품의 유통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일종의 도매와 중간도매, 그리고 소매 등의 유통 네트워크가 상품이동의 일정한 경로를 구성하고 있다. 또한 북·중 국경이나 항만을 통해 들어오는 물자가 집중되고 전국의 주요 도시들에 물자를 도

⁶⁹ 홍민, “북한의 시장일상생활연구: 그로테스크와 부조리극 ‘사이’에서,” 북한일상생활연구센터 엮음, 『북한의 일상생활세계: 외침과 속삭임』 (파주: 한울, 2010), pp. 307~308.

매 형태로 유통시키면서 전국적인 차원의 유통 네트워크 역시 작동하고 있다. 가령 청진시의 경우 수남시장을 중심으로 도시 내부의 다른 시장, 인근 군들에 상품을 유통시키는 지역시장이 형성돼 있으며, 한편으로 청진시와 함흥시의 시장들은 함경북도, 함경남도, 강원도 등에 물자를 공급하는 전국시장으로서의 시장권역을 형성하고 있다.

I

II

III

IV

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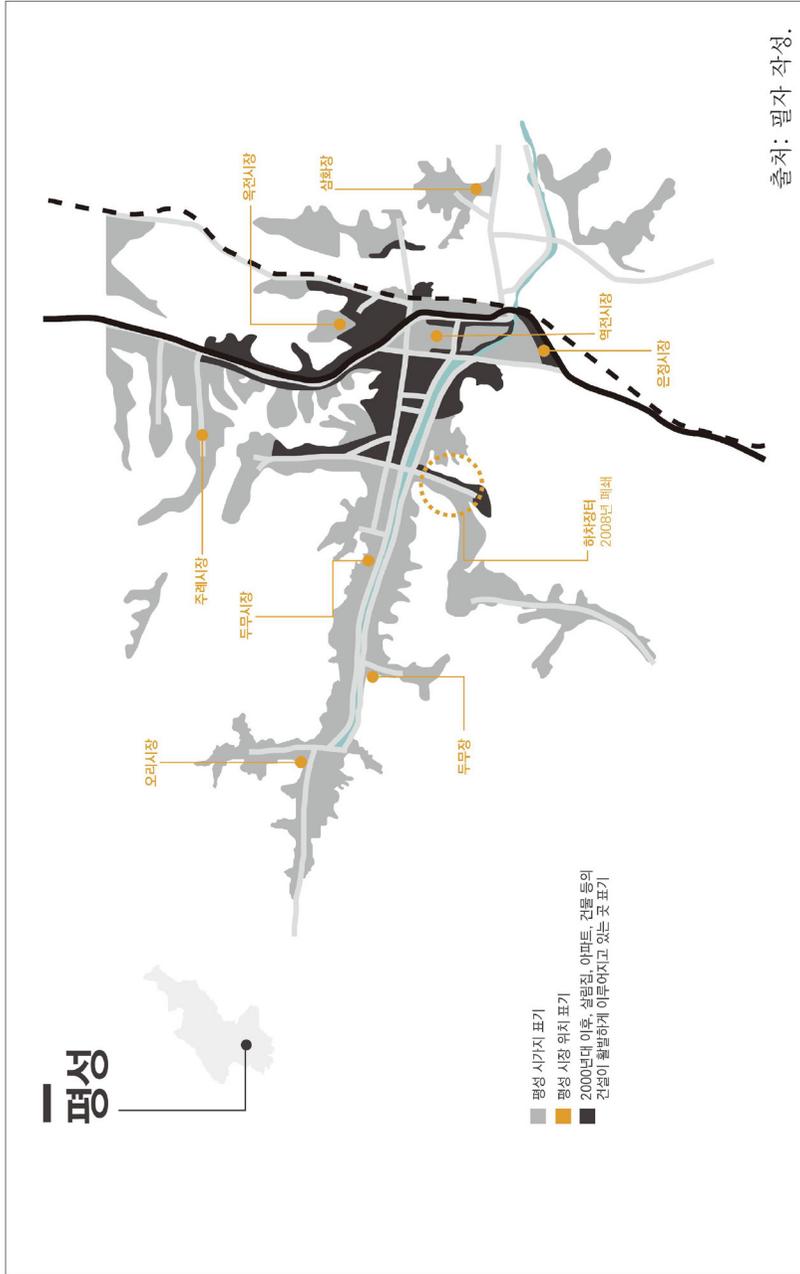
2. 도시시장의 공간적 분포와 입지

가. 평성 도시시장의 공간적 분포와 입지

평성시는 크고 작은 시장 및 장마당이 있으나 그중 대표적인 8개의 합법적 시장(옥전시장, 역전시장, 두무시장, 두무동시장, 은정시장, 주례시장, 오리시장, 삼화장)이 있고 이 중 옥전시장과 역전시장은 도매 시장으로서 전국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다.⁷⁰ 평성 시가지 내 8개의 시장 위치는 <그림 III-1>과 같다.

⁷⁰ 보통 북한의 시장을 ‘장마당’과 구분 없이 사용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장마당’은 공식적으로 허가되지 않은 장터에 해당하며, ‘시장’은 공식적으로 허가된 장터에 해당한다.

그림 III-1 평성시 주요 시장의 위치와 분포



I
II
III
IV
V

(1) 옥전시장 (하차시장→냉천시장→옥전시장으로의 시장 이전)

옥전시장은 주민들 사이에서 ‘옥전장’이란 이름으로 불리며 1990년대 이전부터 있었다. 옥전장, 두무장, 오리장이 소박한 농민시장의 형태로 있었고, 그중에 옥전장이 큰 편에 속했다. 옥전장이 두무장이나 오리장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평성역과 가까워 입지가 좋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장수골 장마당은 ‘하차장’을 부르던 이름으로 도무역국과 장수여관 사이로 난 길을 ‘장수골’로 부르면서 생겨난 시장 이름이다. 장수여관은 모란봉시계공장이나 평성가족공장 때문에 오는 외국 사람들과 타지 사람들의 숙박시설로 지금도 주로 사용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을 겪으며 도당과 행정위원회 차원에서 시장을 허용해 주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했다. 이때 장수골을 장사할 수 있는 공간으로 허용하고 주민들이 장사하도록 허용했다. 낮은 산 위 골짜기를 따라 시장이 점차 확장되어 규모가 커지기 시작했고 사람이 몰리면서 하차장은 전국 최대 도매시장의 위상을 갖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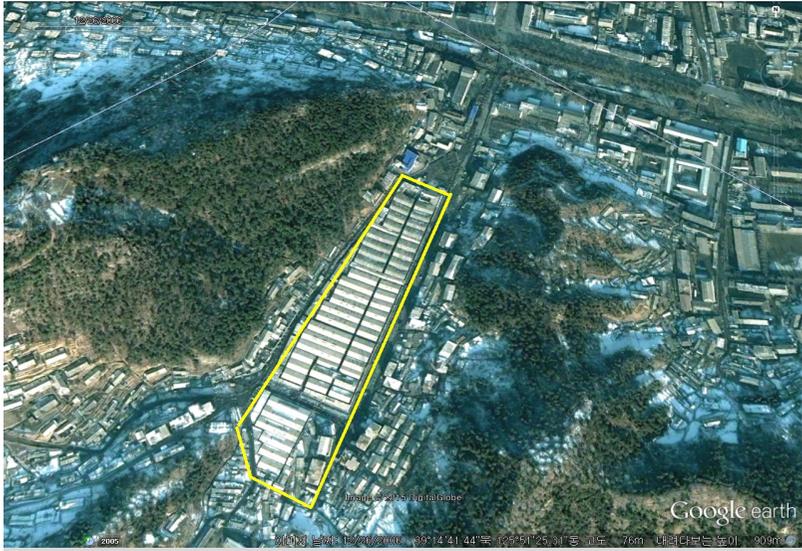
그러나 외국 사람들이나 평양에서 내려온 중앙당 간부들이 주로 묵는 장수여관 뒤편으로 하차시장이 들어서고 규모가 커지면서 미관상 좋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한다. 결국 도당위원회에서 시 동북 방향에 있는 양정사업소 철길 옆 냉천동의 평지로 시장을 옮기도록 조치를 하게 된다. 그런데 냉천동 시장 역시 철길 옆에 있다 보니 김정일이 지나가는 1호 행사시 미관상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다시 옥전장 터로 옮기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자주 시장을 옮기다보니 당시 도당 책임비서였던 리길송을 시중에서는 ‘옮길송’으로 부르기도 했다고 한다(사례 3 구술녹취록 2015 P01).

하차시장을 폐쇄하고 옥전장 터로 옮긴 또 하나의 이유는 시장이 발달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집단적 행동의 가능성이 줄이기 위해서이다. 시장은 많은 주민들이 한 장소에 모여 반복적으로 접촉하는 공간이며 상품과 돈을 따라 정보도 유통된다는 점에서 당국의 입장에서는 불순한 사상의 전파 가능성과 집단적 행동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전통적으로 북한 당국이 주민들을 통제하는 방식은 사람들을 일정 단위로 분리해 감시·관리하는 것인데, 시장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조직적으로 통제하는 것을 힘들게 한다(사례 12, 구술녹취록 2015 P03). 그래서 2009년 폐쇄·이전된 하차시장 터에는 2011년에 대대급 규모의 도보안국 기동타격대가 들어섰다. 기동타격대는 시장 활동을 단속하는 역할도 하지만 그 기본 목적은 주민들의 집단행동이나 시위 등을 진압하기 위한 것이다.⁷¹ 전국 주요 도시에 기동타격대가 2011년 이후 들어서기 시작했는데, 이 시기는 중동에 민주화 바람이 불면서 리비아의 카다피가 시민군에 의해 사살된 시기라 기동타격대의 배치는 북한 당국이 시장에 대해 갖는 고민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71. 북한은 2007년 10월부터 시장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불법적인 골목장사, 매대 장사 나이 제한 등이 이루어졌고 2008년 10월부터는 개장일, 판매품목 통제를 시작했다. 2009년 6월부터는 시장(장터 공간)에 대한 물리적인 폐쇄 및 축소를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각 도시시장을 통해 살아가던 주민들의 반발이 곳곳에서 발생한 바 있다. 특히 청진시의 경우 2008년 3월 수남시장에서 장사하던 여성들의 집단 항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중앙당의 조치와 상관없이 시장국에서 긴급하게 시장 단속을 중단하는 일도 발생한 바 있다. 각 도시에 설치된 도인민보안국 기동순찰대(또는 기동타격대)는 시장 통제에 대한 각 도시에서의 저항과 소요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볼 수 있다. 2008년 시장 통제 당시 청진시, 해주시에서의 주민 항의 사태에 관련한 소식은 다음을 참조. 사단법인 좋은벗들 북한연구소 엮음, 『오늘의 북한소식』, 115호 (2008.3.12.) p. 2.

I
II
III
IV
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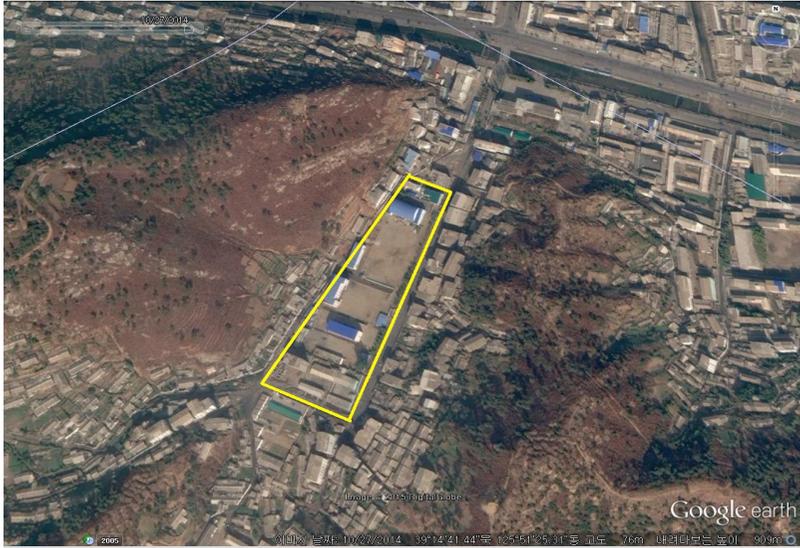
사진 III-1 평성시 하차시장의 철거와 도보안국 기동타격대 입지



평성시 하차시장의 철거 전 모습 (2006.12.26. 촬영)



평성시 하차시장 철거 모습 (2010.3.29. 촬영)



평성시 하차시장 철거 후 들어선 도보안국 기동타격대 (2014.10.27. 촬영)

출처: 구글 어스, <earth.google.com>.

한편 시장의 이전은 도나 시 차원에서 시장 관리와 수익의 측면에서 필요했다고 볼 수도 있다. 행정적 관리 측면에서 시장을 폐쇄하고 이전 하면서 기존에 통제하기 힘들었고 그 규모를 알 수 없었던 창고에 보관 하고 있던 상품의 물량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또한 시장을 이전하여 새로운 시장을 조성하게 되면 매대와 창고들을 새로 이전하는 곳에 만들게 되면 여기서 받는 세금 수익이 생기게 된다. 이런 이전의 비용은 도나 시 당국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장사하는 사람들의 세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당국의 부담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⁷²

I
II
III
IV
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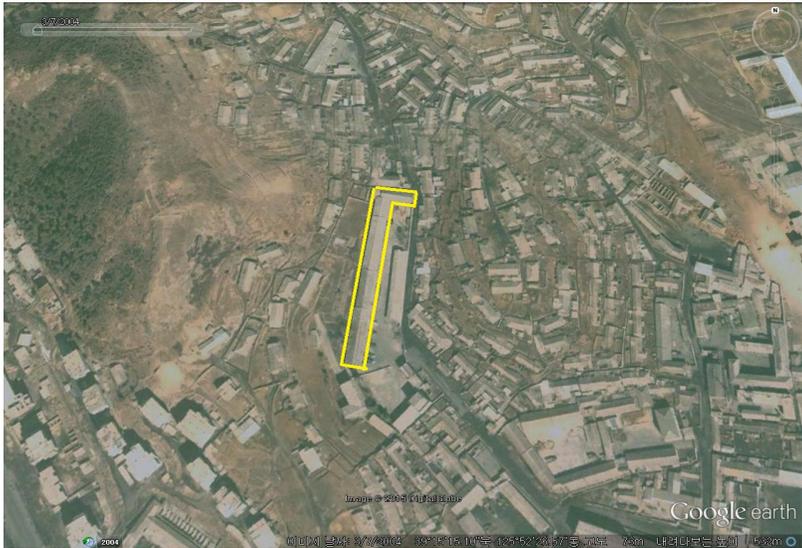
⁷² 이와 유사하게 시장의 폐쇄와 이전을 권력기관의 이권 개입을 원인으로 보는 연구가 있다. 정은이는 새로운 시장이 구축되면 그 주변 부동산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시장의 이동은 ‘자연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시장의 이권을 둘러싼 권력자들의 의도가 반영된 결과라는 것이다. 정은이, “2000년 이후 북한시장

이처럼 다양한 배경과 이유로 2009년 6월 갑자기 하차시장을 없애면서 기존 옥전장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옥전시장이 탄생했다. 하차시장을 폐쇄하기로 결정하자 장사를 할 수 없게 된 주민들이 대거 순천으로 이사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한다. 산 위에 다소 무계획적으로 들어서 있는 단층집들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현재의 옥전시장은 평성역 및 시내 중심가와는 가까운 편에 속하나 지대적인 조건으로 인해 과거에 주민들에게는 매력적인 장소가 아니었다. 낮은 산 언덕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물건을 가지고 올라가기 힘든 지역이다. 1990년대 이후 주택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이후에도 옥전동은 주택가격이 여전히 싼 지역이었다(사례 14, 구술녹취록 2015 P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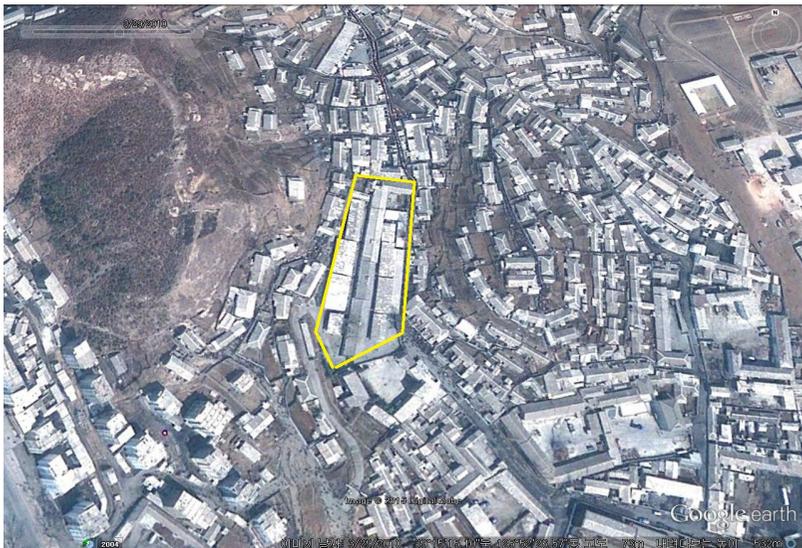
옥전동은 본래 못사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으나 옥전시장이 활성화되고 인근에 사는 사람들이 개인집을 이용하여 집 보관이나 임대업을 하면서 주택가격이 상승한 대표적인 지역이다. 지금의 옥전시장은 하차시장 때보다는 규모가 작을 뿐만 아니라 산 지형에 들어선 살림집들 사이에 자리를 잡고 있어 시장 율타리의 물리적 확장이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시장과 인접해 있는 살림집들을 장사에 활용하고 있다. 이외에 옥전시장 있는 산기슭 위에 올라가 장사를 하는 사람도 많다고 한다. 옥전시장에 자리가 없어서 자연스럽게 줄어든 공간만큼 사람들이 가까운 산기슭으로 올라가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의 발전요인에 관한 분석,” 『비교경제연구』, 19권 1호 (2012), pp. 271~272.

○ 사진 III-2 평성시 하차시장 폐쇄와 옥전시장으로 이전 과정



평성시 하차시장 이전의 옥전장 모습 (2004.3.7. 촬영)



평성시 하차시장이 폐쇄 후 옥전시장으로의 이전이 시작될 때의 모습 (2010.3.29. 촬영)

- I
- II
- III
- IV
- V



현재의 평성시 옥전시장 모습 (2014.10.27. 촬영)

출처: 구글 어스, <earth.google.com>.

한편 하차시장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은 1990년대 후반 또는 2000년대 초반부터 장사를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단골을 이미 다수 확보한 사람들이었다. 옥전시장으로 옮기면서 시장에 나가서 매대를 유지한 경우도 있지만 공간적으로 시장규모가 줄어들면서 장사 장소를 고정된 매대에서 개인 네트워크로 전환한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사례 13, 구술녹취록 2015 P04). 이들은 매대보다는 시장 입구나 자신의 개인 집에 창고를 마련해 놓고 단골들을 데리고 와 거래를 하는 방식을 택했다.

한편 2015년에 옥전시장의 이름이 ‘덕산농민시장’으로 이름이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옥전시장은 공산품을 비롯해 어물과 농산물 등을 도소매하는 북한 최대 규모의 시장으로 평가 받아왔다. 최근에는

‘덕산농민시장’로 탈바꿈해 농산물의 거래가 대폭 늘었다는 것이 소식통의 전언이다.⁷³ 명칭상 농민시장이다 보니 주변의 농촌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물론 축산 매대까지 새로 생겼다고 한다. 이전에는 학생들이 토끼가죽 과제(상납) 때문에 토끼를 사려고 해도 평성시장과 많이 떨어져 있는 문화시장(오리동)으로 가야 했었는데 지금은 먼 곳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⁷⁴

(2) 역전시장

역전시장은 옥전시장에 비해 다소 규모는 작지만 옥전시장과 더불어 평성의 대표적인 시장이다. 평성역은 각 도 및 시·군에서 오는 사람들이 경유하는 통과지점이다. 그런 이유로 역전시장은 각지에서 몰려든 사람들로 항상 만원을 이루는 곳이다. 역전시장은 옥전시장에 비해 규모도 제한돼 있고 품목은 다소 적은 편이지만 평성역을 경유하면서 잠시 체류하는 사람들이나 옥전시장에서 미처 구입하지 못한 것을 빠른 시간 내에 구입하거나 처분하고 가야하는 사람들이 찾는 시장이다. 또 삼화동이나 뱀골 등 평성시에 속한 농촌이나 평성 시외 주변 군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이용한다.

⁷³ “北 최고 규모 평성시장 ‘덕산농민시장’으로 탈바꿈,” 『데일리NK』, 2015.7.2.

⁷⁴ 평성시 주민들은 아이들의 토끼 과제 등으로 토끼를 사려고 해도 평성시 외곽의 삼화동이나 농촌 지역으로 가야 했었는데 지금은 장마당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어서 불편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주로 북한 시장의 가죽매매에는 닭이나 오리, 토끼, 그리고 새끼 돼지 등이 있다. 도시 주변에 살고 있는 농민들이나 개인들이 필요한 식량 및 공업품을 비롯한 생필품을 구매하기 위해 집에서 기르고 있는 가축들(닭, 토끼)을 일부 장마당에 내놓게 된다. 특히 토끼는 북한 전체 학생들이 꼬마과제로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가정을 불문하고 토끼가 필요하다. 이런 주민들의 고민을 가축 매대가 해결해주고 있는 것이다. “北 평성·혜산 장마당서 가죽매대 등장해 주민 반겨,” 『데일리NK』, 2015.7.1.

○ 사진 III-3 평성시 역전시장의 모습



평성시 역전시장 모습 (2014.10.27. 촬영)
 * 노란색은 매대가 늘어선 시장골목, 붉은색 박스 표시는 2000년대 새로 건설된 아파트
 출처: 구글 어스, <earth.google.com>.

<사진 III-3>에서처럼 역전시장은 아파트로 둘러싸인 직사각형의 공간 안에 골목 형태로 형성되어 있다. 아파트로 둘러싸인 직사각형 공간의 크기는 세로 427m, 가로 372m 가량이다. 내부 공간은 중앙에 중덕중학교, 도군사전문학교가 있고 아파트와 건물 사이로 난 직선 골목들이 교차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위의 위성사진상에 노란색 실선으로 표시한 부분이 각종 매대와 장사꾼이 있는 역전시장의 골목을 표시한 것이다. 약 400m의 길게 난 길로 각종 물건을 파는 매대들이 있다. 주로 공업품, 쌀장사, 농수산물 등 품목에 따라 매대가 밀집되어 있다. 역전시장 골목들에 있는 아파트들은 대부분 3층 아파트들이다. 이들 아파트에 딸린 창고는 매장처럼 사용되고 있다. 창고의 문을 열고 물

건을 진열해 놓고 파는 방식이다. 이들 창고는 임대 형태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기도 하고 직접 아파트 창고 주인이 운영하기도 한다(사례 14, 구술녹취록 2015 P05). 대부분의 아파트에서는 개인들이 창고업, 임대업, 숙박업 등을 한다. <사진 III-3>에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새로 건설된 아파트이다. 역전시장 지역 북동쪽 모서리에는 돈주들이 지은 아파트들(대동강수출피복공장 부근)이 들어서 있다. 또 남서쪽 시장 입구 쪽에는 도초모소가 있어 매년 도 내에서 임대하는 병력이 여기에 모여 대기하게 된다. 도초모소는 평성역 부근에 유동인구가 많은 이유 중 하나이다.

역전시장 지역은 아파트로 둘러싸인 직사각형으로 공간이 제약돼 있어 물리적 확장 자체가 불가능하여 항상 포화상태라 매우 혼잡하다고 한다. 또한 골목 사이사이가 포장되어 있지 않아 비가 오면 질척하고 불결하다고 한다. 역전시장은 1990년대 이후 미관에 좋지 않다는 이유로 시 당국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없애려고 여러 번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말았다고 한다. 그래서 도당위원회에서는 통제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장세를 받으며 현재의 형태로 이용하도록 한 것이다. 시장을 없애려면 근본적으로 이 지역을 헐고 재개발을 해야만 하지만 주민들의 이용 수준과 비용 문제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사례 14, 구술녹취록 2015 P05).

그러나 하차시장이 폐쇄되기 전에는 지금과 같이 역전시장이 활발하지 않았다고 한다. 평성의 시장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차시장으로 바로 가기 때문에 역전시장은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못했다고 한다. 평성역에서 하차시장까지는 평지 직선거리로 1.8km 정도밖에 되지 않아 오가기가 쉽고 물건이 많아 하차시장으로 대부분 갔기 때문이다. 그러다 하차시장이 옥전시장으로 이전하면서 역전시장 이용

I
II
III
IV
V

객이 늘고 규모가 커지게 되었다(사례 14, 구술녹취록 2015 P05). 평성역에서 옥전시장까지는 짧게는 1.2km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옥전시장이 산 위에 형성돼 있고 올라가는 길이 언덕이라 이용하는 사람들의 시간과 힘이 더 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옥전시장으로 굳이 가지 않고도 볼 수 있는 일은 역전시장에서 해결하려는 사람이 많아진 것이다. 또한 최근에는 오래 거래하는 단골이 있는 경우 옥전시장까지 가지 않아도 미리 약속을 잡고 직접 만나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역전시장은 기동순찰대 단속이 심한 편이라 순찰대원들이 수시로 와서 매대 없이 불법으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을 쫓곤 한다. 그래서 허용된 매대를 가지고 있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종이(마분지)에 파는 품목을 써서 들고 나와 손님들에게 팔기도 한다. 또한 역전시장 골목 입구에서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을 호객하여 아파트에 꾸러놓은 창고에 데려가 물건을 팔기도 한다. 아파트 밑에 개인 창고들이 조그맣게 있는데 이것을 임대하거나 아예 사서 물건을 보관하기도 하고 물건을 진열해 놓고 장사를 하며 살기도 한다(사례 13, 구술녹취록 2015 P04).

따라서 공식적으로 허가된 매대와 골목장이 들어선 곳 이외에 이런 방식으로 개인 집(아파트)이나 창고를 통해 장사를 하는 사람을 모두 고려하면 평성시의 시장 규모는 단순히 울타리 쳐진 시장의 물리적 면적만으로 온전히 판단하기 힘들 정도로 시장 인근 지역 전반으로 확장돼 있다고 볼 수 있다.

(3) 주례시장

평성시 주례동에 있는 주례시장은 옥전시장이나 두무시장처럼 지붕이 있는 정규화된 시장의 규모를 갖추고 있지 못하고 노상에 간이 매대가 펼쳐져 있는 형태를 띠고 있다. 원래 10일장을 기본으로 신발을 주종으로 하여 장사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장이 열리지 않는 평일에는 인근 산이나 거리 일부에 주민들이 물건을 놓고 판다.

○ 사진 III-4 평성시 주례시장의 모습



평성시 주례동에 있는 주례시장 모습 (2014.10.27. 촬영)
* 노란선은 노상 매대가 늘어서 있는 자리

출처: 구글 어스, <earth.google.com>.

주례동은 시내 중심가와는 멀리 떨어진 외진 동네이다. 주로 단층집으로 이루어져 있고 신발을 제조하는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다.

I
II
III
IV
V

그래서 주례동을 주민들은 ‘신발촌’으로 부르기도 한다. 중국산 신발이 나오면 그대로 모방해서 만든다(사례 8, 구술녹취록 2015 P02). 그래서 주례시장에서는 신발하고 신발 원료들을 주로 판다. 이 밖에 소소한 농산물과 상품들을 가지고 나와서 장사를 하는데 주로 나이든 사람들이 한다. 많은 양의 신발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종이에 판매 품목을 쓴 명판을 들고 손님과 거래하기도 한다. 역시 손님을 집으로 데리고 가서 물건을 파는 방식이다. 이곳 주례동에 사는 사람들은 대체로 못 사는 사람들이 많아 시 당국이 장사를 거의 단속하지 않고 묵인한다고 한다(사례 13, 구술녹취록 2015 P04).

(4) 오리시장

평성시의 오리동은 도시화된 시가지 내에서 역전과 가장 먼 곳에 있는 지역으로 하층민들이 주로 사는 단층주택이 입지해 있는 곳이다. 오리시장은 과거 ‘오리장’이라는 이름의 농민시장으로 평성시에서는 역사가 오래된 장터이다. 주로 농산물이나 가축을 파는 농민시장으로 오리동과 문화동 지역의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시장이다. 평성시에 있는 농촌 지역에서 농산물과 가축을 가져와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주민들이 학생들에게 부과되는 토끼가죽을 주로 구입하는 곳이다. 2000년대 들어 크게 확장하지는 않았지만 주로 과거 농축산물을 위주로 팔았지만 지금은 공업품도 팔고 있다. 공업품과 소비품은 도매시장인 옥전시장으로부터 받아서 소매가격으로 판다. 시장 바로 옆에 평성시 중심도로를 가로지르며 순환하는 무궤도차의 종점이 위치하고 있고 옥전시장으로 가기 위해 문덕군이나 숙천군 등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이곳을 경유하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많은 편이다.

사진 III-5 평성시 오리시장의 모습



출처: 구글 어스, <earth.google.com>.

(5) 은정시장

은정시장은 평성시 은정동에 위치한 시장으로 <사진 III-6>에서처럼 아파트단지 사이에 자리하고 있다. 이 지역 아파트들은 원래 1990년대 인접해 있는 국가과학원 과학자들과 그 가족을 위한 아파트로 건설되었다. 15층 높이의 아파트로 1990년대만 해도 평성시에서 엘리베이터가 있는 가장 최신식의 아파트였다. 그러나 1995년 국가과학원이 평양의 은정구역으로 편입되었고 지금은 행정구역상 은정시장이 있는 아파트와 국가과학원이 분리되었다. 2014년 평양 은정구역에 ‘위성과학자주택지구’가 들어서면서 이 일대의 공간구조가 크게 변하였다. 은정시장은 주로 과거 과학원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는 시장이다.

I
II
III
IV
V

○ 사진 III-6 평성시 은정시장의 모습



출처: 구글 어스, <earth.google.com>.

(6) 두무시장

두무시장은 김일성 동상 인근에 조성된 시장으로 두무동 일대의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장이다. 2004년 이후 크게 확장하지는 않았다. 애초 ‘두무장’이라는 이름의 농민시장이었던 두무시장은 옥전장, 오리장과 함께 평성시에서 오래된 시장 중에 하나이다. 2000년대 들어 종합시장을 공식적으로 개설하면서 지붕을 덮은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 가로 60m, 세로 70m의 직사각형 형태이며 주변 골목으로 골목장 역시 활발하다. 평성시내 대로변의 아파트 뒤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바로 옆으로는 도영화관이 위치하고 있다.

사진 III-7 평성시 두무시장의 모습



출처: 구글 어스, <earth.google.com>.

이상과 같이 위성사진을 통해 살펴본 평성시 시장들은 입지와 분포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현재 북한 최대의 도매시장인 옥전시장은 과거 하차동의 하차시장에서 냉천동의 냉천시장, 그리고 현재의 옥전시장으로 이전을 거듭하면서 물리적인 규모 면에서 많이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과거 하차시장의 경우 길이 약 426m, 너비 최대 약 103m에 달할 만큼 압도적인 크기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시장 양 옆의 길을 따라 형성된 골목 매대만 해도 당시 여타 북한 내 시장과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컸다. 그러나 옥전시장으로 옮기면서 길이 최대 약 200m, 너비 최대 약 67m 정도로 규모가 절반 이상 줄었다. 이와 같은 물리적 규모의 축소는 마치 ‘풍선효과’처럼 시장 매대를 벗어난 인근에 창고나 개인주택을 이용한 장사형태로 변형되었다. 사실상 울타리가 있는 시장 자체의 사이즈는 줄었지만 울타리 밖에서의 장사는 더욱 공간적으로 확장되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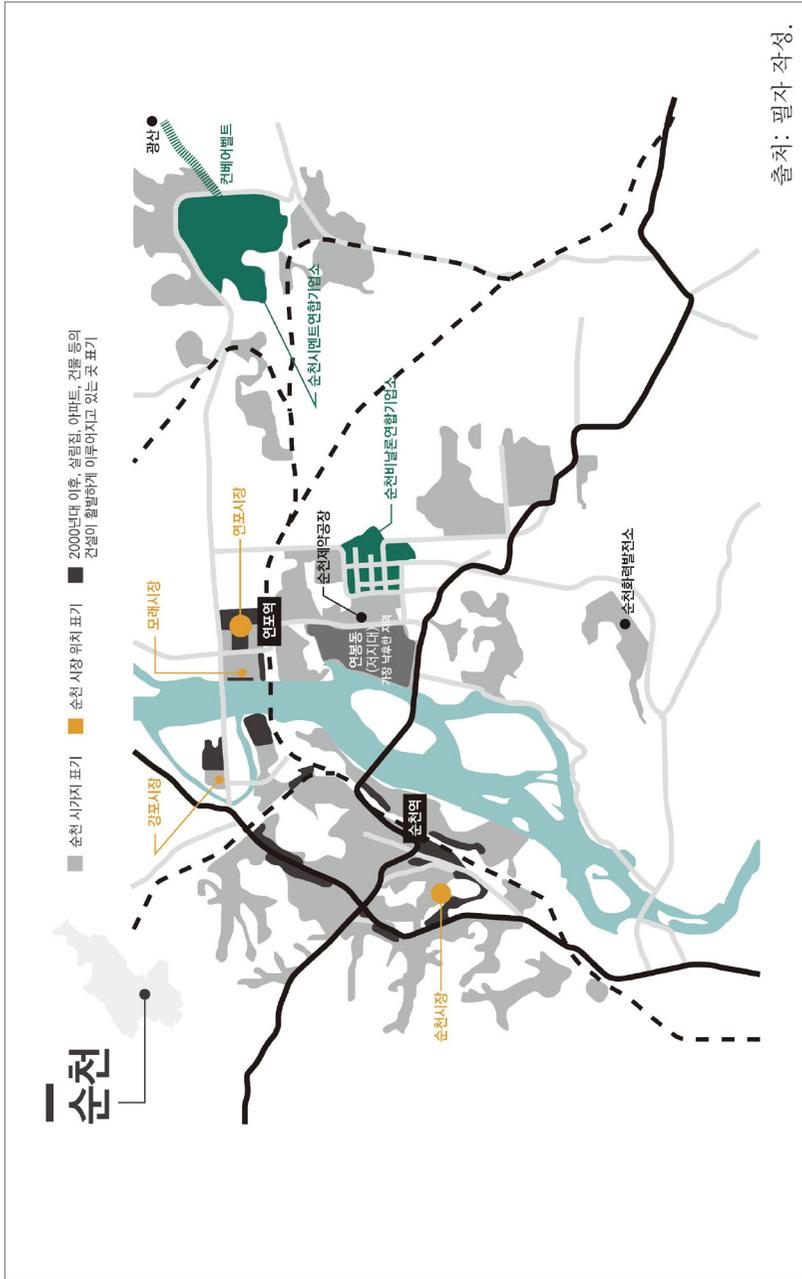
I
II
III
IV
V

둘째, 평성의 시장들은 옥전시장이라는 거대 도매시장과 중간규모의 역전시장을 빼면 나머지 시장들은 대체로 소규모의 시장 규모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워낙 평성시 자체의 도시화된 지역이 제한돼 있어 시장이 넓게 분포할 수 없는 공간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도시 자체의 물리적 공간 규모가 작아 특별히 유사한 품목을 파는 여러 시장이 있을 필요 없이 큰 시장 하나를 중심으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전체 도시화된 지역의 면적이 작으면 작을수록 특정 대형시장 중심으로 집중되고 나머지 시장은 확장의 동기를 갖기 힘들어 중소규모의 시장에 머문다는 점이다. 반면 넓게 평야로 펼쳐진 도시의 경우 도시화 지역이 수평적으로 확장돼 있어 거리상 중간 이상 규모의 시장이 여러 개 입지할 수 있는 동기가 생기게 된다.

나. 순천시 도시시장의 공간적 분포와 입지

순천시에는 4개의 비교적 큰 시장이 있다. 시장들 사이에 뚜렷하게 품목이 특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소 차이가 있다. 강포동에 있는 강포시장은 기본적으로 자동차 부속품을 파는 시장이고 주로 시멘트나 석탄 거간꾼들이 많다. 이곳 강포시장이 자동차 부속품을 주요 품목으로 하는 것은 차를 세워놓을 곳이 많고 인근에 자전거공장이 있기 때문이다. 순천시장은 순천시에서 가장 큰 종합시장으로 공업품, 수산물, 농산물 등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대부분의 물건이 판매된다(사례 1, 구술녹취록 2015 S01). 연포시장은 연포동 연포역 앞에 위치한 시장으로 대동강을 사이에 두고 순천시 동부지역 주민을 상대로 한 시장이다. 마지막으로 시 당국에 의해 공식적으로 허용된 시장은 아니지만 순천시멘트연합기업소 인근에 형성된 시멘트 시장이 있다.

그림 Ⅲ-2 순천시 주요 시장의 위치와 분포



출처: 필자 작성.

I
II
III
IV
V

(1) 순천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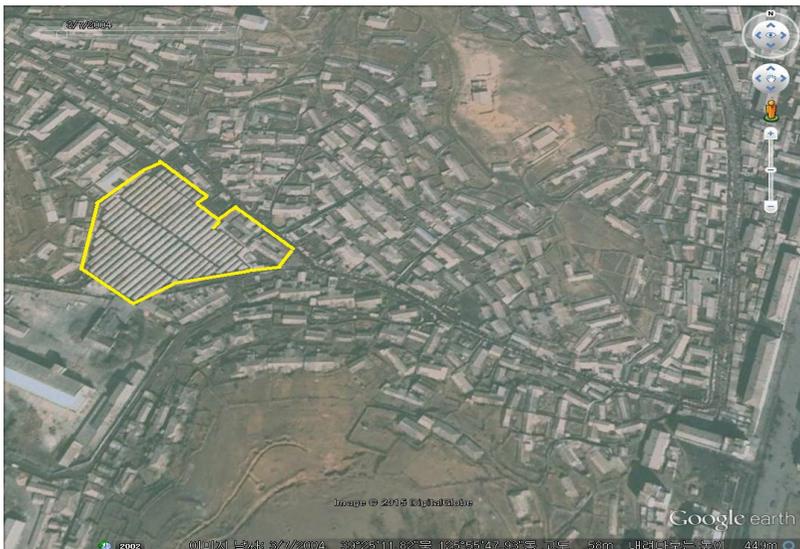
순천시장은 순천시 최대의 도매시장으로 2003년 종합시장 개설 이후 확장·증축되면서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사진 III-8>을 보면, 2002년 이후 2014년까지 변화가 조금씩 발견된다. 우선 2002년 대략 가로 최대 76m, 너비 최대 90m 정도였던 순천시장은 2004년 들어 크게 확장되어 지붕을 새롭게 덮은 모습이 되었다. 규모도 가로 최대 91m, 너비 최대 109m 정도로 확대되었다. 2006년과 2009년 사진에서는 지붕이 새로 바뀌고 약간 사이즈가 커지면서 주변 창고들도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09년 사진에서 시장 규모는 가로 최대 96m, 세로 최대 118m로 2004년 사진 때보다 미세하지만 커졌다. 또한 이곳 출신 북한이탈주민들에 따르면 주변의 창고 형태의 건물과 살림집들이 늘어났다고 한다. 2014년에 오면 가로 최대 139m, 세로 최대 173m로 시장이 더욱 확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역전 도로에서 시장으로 들어오는 폭이 넓은 긴 도로를 따라 길거리 노점상들이 장사를 하고 있으며 시장 주변에 형성된 별집 모양의 단층집 골목 사이로도 골목장이 형성돼 있다.

사진 III-8 순천시장의 변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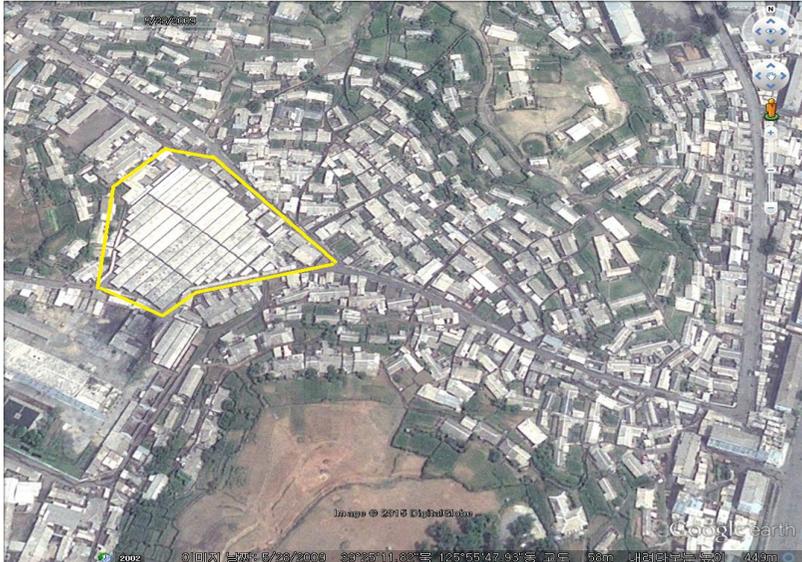


순천시장 모습 (2002.12.10. 촬영)



순천시장 모습 (2004.3.7. 촬영)

- I
- II
- III
- IV
- V



순천시장 모습 (2009.5.26. 촬영)



순천시장 모습 (2014.7.5. 촬영)

출처: 구글 어스, <earth.google.com>.

(2) 강포시장

순천시 강포동에 있는 강포시장은 자동차 부속품을 전문으로 하는 시장이다. 물론 일반 공업품이나 소비품도 팔지만 자동차 부품이 전문화되어 있다. 2002년 12월까지의 위성사진에서는 없었지만 2003년 이후 시장이 형성된 것으로 판독된다. 시기적으로 볼 때, 2003년 종합시장이 전국적으로 개설되면서 들어선 시장으로 보인다.

<사진 III-9>에서 보듯 2004년과 2014년 사이 강포시장의 규모에서 변화가 발견된다. 2004년 막 시장이 들어섰을 때는 지붕을 덮고 율타리를 친 시장의 규모가 가로 길이 176m, 세로 너비 31m 정도였는데, 2014년에는 가로 길이 118m, 세로 너비 28m 정도로 규모가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대신 지붕을 친 시장 주변에 창고가 많이 들어섰다. <사진 III-9>에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지붕이 있는 시장 주변으로 생긴 창고 형태의 건물들이다.

왜 지붕을 친 매대 규모를 줄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장사 형태가 공식 매대 장사 이외에 창고형의 장사로 변화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창고형 장사는 뒤에 언급하겠지만, 물건을 매대에 진열하지 않고 창고에 규모 있게 보관하면서 오는 고객을 창고에서 직접 거래해서 ‘차판’ 형태로 파는 방식이다. 물론 자동차 부품을 전문으로 하는 시장인 만큼 자동차를 직접 수리하거나 부품을 교체하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창고 형태의 독립적 건물로 장사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일 수도 있다. 다른 시장들에 비해 출입구가 네 군데로 많은 점은 이런 가능성에 무게를 두게 한다.

I

II

III

IV

V

○ 사진 III-9 순천시 강포시장의 변화



출처: 구글 어스, <earth.google.com>.

(3) 연포시장

순천시 연포동에 있는 연포시장은 연포역 앞에 위치하고 있다. 원래 연포시장은 연포역 근처 오물장(쓰레기 버리는 공터) 자리에 지붕 없이 간이 매대가 모여있는 형태였는데 2003년 종합시장 개설 이후 2004년에 연포역 앞으로 이전·확장하여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평성시 역전시장처럼 오래된 아파트 건물로 사방이 둘러싸여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사진 III-10>을 보면 다소간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데, 우선 2004년 사진에서는 시장 개설 직후라 지붕을 친 시장과 시장 윗타리 사방으로 창고들이 붙어있는 것을 제외하면 아파트 벽 밖으로는 창고가 많지 않았다. 그러나 2014년 사진을 보면 시장 외부로 창고가 많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이 역시 시장 활동에 필요한 짐을 보관하는 창고나 창고에서 직접 장사하는 창고형 장사가 늘어나면서 나타난 변화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노란색 부분의 공식 매대가 있는 지붕 친 부분 이외에 창고 형태로 장사를 하는 빨간색 부분까지 포함하면 시장이 물리적으로 확장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창고형 확장은 아파트 벽에 둘러싸여 실제 지붕을 친 매대 부분이 물리적으로 확장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I

II

III

IV

V

사진 III-10 순천시 연포동의 연포시장 모습의 변화



순천시 연포동의 연포시장 모습 (2004.3.7. 촬영)



순천시 연포동의 연포시장 모습 (2014.7.5. 촬영)

출처: 구글 어스, <earth.google.com>.

(4) 모래시장

모래시장은 순천시 봉화동이 있는 대동강변에 조성돼 있다. 지붕과 울타리, 매대 등을 가지고 있는 일반 시장과 달리 강가에 모래를 쌓아 두고 파는 곳이다. 이 시장은 2009년까지는 위성사진에서 포착되지 않던 시장으로 2010년 전후에 생긴 것으로 판독된다. 모래는 강변에서 배를 통해 채취하고 있으며 중개인이나 구매자가 직접 이곳을 방문해 필요한 모래를 사서 차에 실어 나가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채취는 공공재를 파는 것인 만큼 시 당국의 허가를 통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 III-11 순천시 대동강변의 모래시장 형성 모습



순천시 대동강변에 모래시장이 들어서기 전 모습 (2009.5.26. 촬영)

- I
- II
- III
- IV
- V



순천시 대동강변에 모래시장이 형성된 모습 (2014.9.20. 촬영)

출처: 구글 어스, <earth.google.com>.

(5) 시멘트 시장

순천시에는 연 300만 톤 생산 능력의 순천시멘트연합기업소가 입지하고 있고 주변으로 시멘트 시장이 형성돼 있다. 주로 공장 부근의 개인주택들이 거의 다 시멘트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외관상 살림집으로 보이는 대부분의 집들이 전문화되고 분업화된 시멘트 장사꾼들의 시설들이다. 시멘트를 전문적으로 보관만 하는 집, 시멘트를 포장하는 집, 시멘트 지대(포장지 인쇄)를 찍는 집, 시멘트 업자들을 위한 편의 봉사집(식당, 숙박) 등 시멘트 거래와 관련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시멘트 시장 마을이라고 할 수 있다(사례 11, 구술녹취록 2015 S05).

사진 III-12 순천시멘트연합기업소 부근 시멘트 시장



순천시 순천시멘트연합기업소 주변에 조성된 살림집 개조 시멘트 장사 시설들
(2014.7.5. 촬영)

출처: 구글 어스, <earth.google.com>.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순천시에 있는 시장들의 공간구조상의 특징은 우선 그 수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물론 순천시 도시화 지역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탄광이나 농촌 지역에 작은 장들이 들어서 있다. 그러나 규모에 있어서는 과거 농민시장 수준에 머물러 있다. 순천시장, 연포시장을 제외하면 큰 규모의 시장이 없다는 특징이 있다. 도시 인구 규모에 비해 시장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순천시에 농업지대 면적이 크다는 점과 큰 연합기업소 주변으로 시장이 작은 규모로 분산되어 있어 실제로 도시화된 도심 지역에는 많은 수의 시장이 필요 없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순천시는 중심업무지구가 있는 도심 측과 낮은 단층 살림집 및

I
II
III
IV
V

공장들이 들어서 있는 지역(봉화동, 연포동, 연봉동)이 대동강을 사이로 크게 구분된다. 양쪽 지역을 순천시장과 연포시장이 양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두 지역은 실질적으로 생활공간이 분리돼 있을 뿐만 아니라 양쪽이 서로의 지역에 대해 갖는 정서도 다른 것으로 보인다. 가령 도심 측에서 볼 때 연봉동이나 제약공장 부근은 낙후한 동네로 인식된다.

셋째, 전문화되고 특화된 품목을 파는 시장이 형성돼 있다는 점이다. 가령 자동차 부속품을 전문적으로 파는 강포시장이나 모래를 노천에서 파는 모래시장, 시멘트 공장 주변의 시멘트 시장 등 특화된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순천시가 시멘트, 석탄, 제약, 항공 유 등이 다른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풍부하기 때문에 특정 품목의 시장이 발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 청진시 도시시장의 공간적 분포와 입지

현재 청진시는 포항구역, 신암구역, 청암구역, 수남구역, 송평구역, 부윤구역, 나남구역 등 총 7개의 구역으로 나뉘어 있다. 그리고 청진시에는 총 82개 동과 16개 리가 있으며, 1개 노동자구가 있다. 청진시에는 약 18개 가량의 공식 시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구역별로 시장의 입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III-1 청진시 구역별 시장

수남구역	포항구역	청암구역	송평구역	신암구역	나남구역	부윤구역
수남시장	포항시장 수원시장 남향시장 산업시장 수목시장 청년공원시장	반죽시장 해방동시장 역전시장 연진시장	송평시장 새거리시장 수성시장	신암시장 신진시장	나남시장 나북시장	-

출처: 필자 작성.

그림 III-3 청진시 주요 시장의 위치와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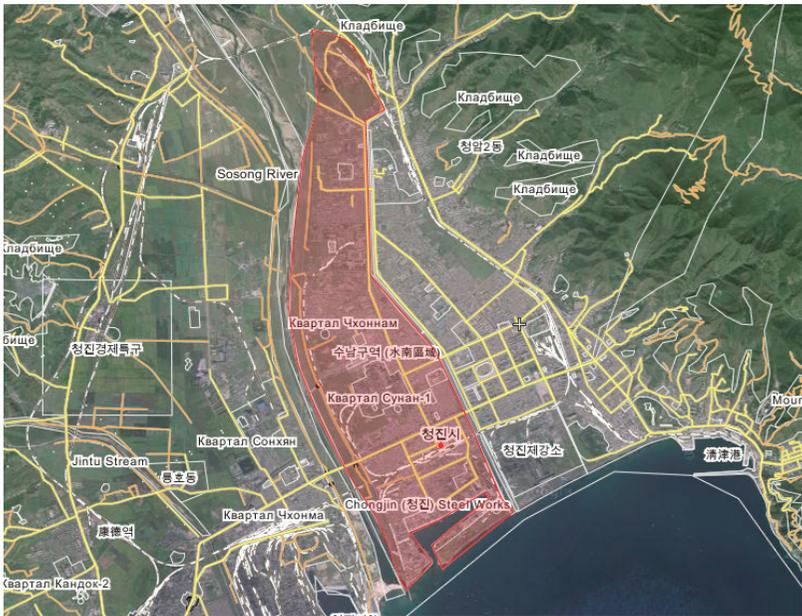


I
II
III
IV
V

(1) 수남구역

수남구역은 9개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역 인구수는 2008년 기준으로 82,765명이다. 농촌 지역 없이 도시화된 지역만 있다. 청진화학공장, 청진조선소 등의 공장·기업소가 입지하고 있다. 북한의 대표적 인 도매시장인 수남시장이 있다.

사진 III-13 청진시 수남구역



출처: 위키매피아, <wikimapia.org>.

수남시장은 도매시장으로 거의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종합’ 시장이다. 일반 생필품, 공업품, 식품, 농수산물, 기계류, 가전제품 등 거의 모든 물품이 있다(사례 7, 구술녹취록 2015 C04). 외국산

물건을 많이 팔고 있는 포항시장과 마찬가지로 수남시장 역시 외국산 물건도 많이 팔고 있다. 수원시장과 남향시장의 상인들은 시외에서 큰 물량을 끌어 올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수남시장에서 도매로 받아서 포항구역에서 다시 도·소매 유통을 한다. 도매로 가져와 소매로 차익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는 수남시장을 가는 것이 청진시 장사꾼들에게는 유리하다(사례 2, 구술녹취록 2015 C01).

○사진 III-14 청진시 수남시장



출처: 구글 어스, <earth.google.com>.

I
II
III
IV
V

수남시장으로 집결된 물건들은 청진시의 각 구역에 있는 17개 시장으로 유통된다. 수남시장에 물건들이 집결하고 여기서 가격경쟁이 이루어지면서 매겨진 가격이 수남시장의 도매가격이고 이것이 기준이 돼 다른 시장의 가격이 매겨진다. 수남시장의 매력은 많은 물건이 모이고 가격경쟁이 이루어지면서 물건 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싸기 때문에 대량으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가령 무산에서 1kg에 5,500원 하는 쌀값이 수남시장에 들어오면 5,000원으로 오히려 떨어진다. 가격경쟁 때문이다.

수남시장은 역사적으로 보면 작은 장마당에 불과했다. 현재의 수남시장 부지는 청진화화섬유공장의 부업지였다. 처음에는 거리에서 잘 눈에 띄지 않는 청진화화공장 뒤편에 시장이 들어섰다. 사람이 몰리면서 확장을 계속했고 1990년대 한참 확장할 때는 매대 수요를 못 따라가 자리가 항상 모자랐다고 한다. 매대가 있는 곳 말고 주변 지역 전체에 비합법적인 장마당이 형성돼 있었다. 수남시장 주변에 불법적으로 노상에 놓고 파는 사람들이 많아져 거리가 지저분하고 시장 관리가 잘 되지 않았다고 한다. 관리를 위해서는 시설 공간을 확장하지 않을 수 없어 계속 크기가 조금씩 늘어났다. 일종의 관리를 위한 확장이었다. 큰 시장일수록 물건 값이 싸다는 인식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몰렸다. 포항시장도 2000년대 이후에나 만들어졌기 때문에 수남시장이 청진 전체에서 시장교환의 우위를 초기부터 선점하고 있었다. 수남시장은 향후에도 계속 확장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확장을 위한 부지도 주변에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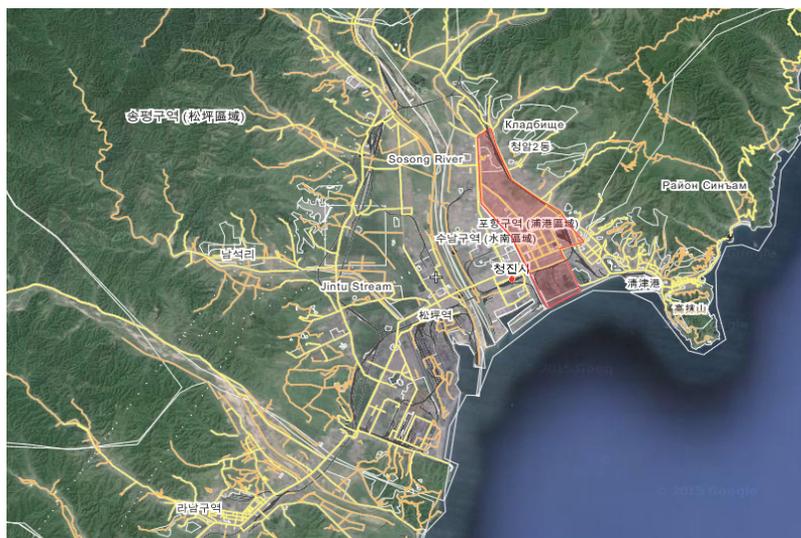
수남시장은 위치상으로 보면 수남역과 1.8km, 청진역과 3.5km, 송평역과 4.3km 떨어져 있다. 수남역 빼고는 철도역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다고 보기 힘들다. 수남시장으로 물건이 들어오는 데 다소 불편할

수 있는데, 요즘은 거의 기차가 아닌 개인 트럭(씨비차)을 이용한다고 한다. 청암구역에 난 도로를 따라 올라가면 무산군, 온성군 등의 북부하고 연결되어 있고 회령, 나선 등과도 연결된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서 들어오는 물건을 트럭으로 운송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수남시장에 들어오는 물건들은 대부분 차를 이용한다.

(2) 포항구역

포항구역은 청진시의 당 및 행정기관이 밀집되어 있는 업무중심지구이다. 총 14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구수는 104,007명이다. 포항구역에는 포항시장, 수원시장, 남향시장, 산업시장, 수북시장, 청년공원시장 등 총 6개의 시장이 입지하고 있다.

사진 III-15 청진시 포항구역



출처: 위키매피아, <wikimapia.org>.

I
II
III
IV
V

포항구역의 포항시장은 현재 수남시장 다음으로 큰 시장이다. 여기서는 주로 외국산 상품을 하는데 중국산, 일본산, 미국산, 러시아산 등 다양하다. 주민들이 주로 외국산 고가의 물건을 살 때 이곳을 이용한다(사례 7, 구술녹취록 2015 C04). 포항시장에 외국산 물건이 많은 이유는 많은 양의 외국산 물건을 들여올 때 교통상 포항시장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포항구역에는 산업시장이 있다. 산업시장은 2000년대만 들어졌다. 이 시장은 이름 그대로 산업과 관련된 원자재를 중심으로 파는 시장이다. 산업시장은 계획경제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으면서 공장·기업소에 필요한 원자재를 조달하는 시장으로 성장하였다. 사실상 청진의 공장·기업소 자재 조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제는 시장이 자재를 공급하는 중요한 조달 창구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사례 7, 구술녹취록 2015 C04).

세 번째로 포항구역에 있는 청년공원시장의 물리적 규모는 포항시장과 비슷하다. 원래는 현재의 형태가 아니라 청년공원에서 음식을 놓고 팔던 장사꾼들이 단속을 피해 장사하던 곳이었다(사례 6, 구술녹취록 2015 C03). 청년공원 인접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한 장마당이였다. 포항구역과 신암구역 경계에 위치하고 있어 단속이 허술한 편이라 단속을 피해 장사하는 사람들이 몰리던 곳이었다. 그것이 2000년대 들어 시장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장마당이 지금과 같이 큰 시장으로 성장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큰 시장으로 성장하면서 신진동과 청암구역에서도 사람들이 와서 시장을 이용하게 되었다. 주로 일반적인 생필품 위주로 판매를 한다고 한다(사례 7, 구술녹취록 2015 C04).

사진 III-16 청진시 포항구역의 시장들



남향시장 (2015.5.23. 촬영)



포항시장 (2015.5.23. 촬영)

- I
- II
- III
- IV
- V



출처: 구글 어스, <earth.google.com>.

(3) 청암구역

청암구역은 총 21개 동 6개 리로 구성되어 있고 인구수는 2008년 기준 136,659명이다. 6개의 리를 포함하고 있어 농촌 지역 비중이 큰 편이다. 농촌 인구는 21,749명이다. 도시화 지역은 주로 산비탈에 위치하고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한 편에 속한다.

사진 III-17 청진시 청암구역



출처: 위키매피아, <wikimapia.org>.

청암지역에는 역전시장, 해방동시장, 반죽시장, 연진시장 등 총 4개의 시장이 입지하고 있다. 청암구역은 도시화된 지역이 크지 않은 편이라 크기에 비해 시장의 수가 많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위의 지도를 보듯 청암지역은 신암구역 일부 해안가를 제외한 청진시 북부 해안지

I
II
III
IV
V

역 전체를 구역 안에 두고 있다. 실제 도심 근처 청암구역에는 역전시장, 해방동시장, 반죽시장 3개가 있고 도심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북부 해안지역 연진동에 연진시장이 위치하고 있다. 도심에 있는 청암구역이 그리 큰 면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3개나 입지하고 있는 것은 이 지역에 사람들이 밀집해서 살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생필품 위주로 판매를 하는 소규모 시장이다(사례 7, 구술녹취록 2015 C04). 이 구역 시장들의 물건은 수남시장으로부터 주로 받아 온다. 이 지역 주민들은 소득 수준이 높지 않아 소비 수준 역시 높지 않다고 한다.

사진 III-18 청진시 청암구역의 시장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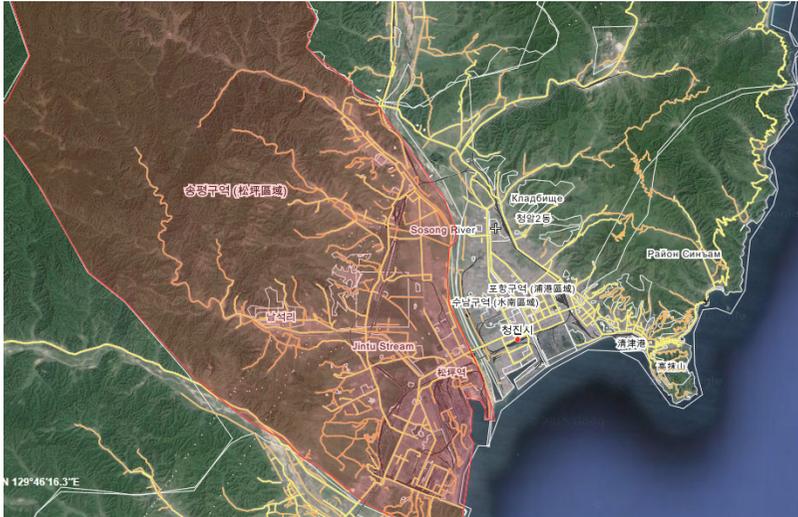
- I
- II
- III
- IV
- V



출처: 구글 어스, <earth.google.com>.

(4) 송평구역

송평구역은 총 13개 동 5개 리로 구성되어 있다. 인구수는 2008년 기준 146,973명이다. 청암구역과 함께 청진시 구역 중 면적이 큰 편에 속한다. 5개의 협동농장을 포함하고 있어 농촌 지역 인구수가 21,799명으로 제일 많다. 송평구역에는 김책제철연합기업소가 있어 인구의 많은 수가 기업소 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최근 북한에서 발표한 청진경제특구로 지정된 지역이 송평구역에 위치하고 있다.



출처: 위키매피아, <wikimapia.org>.

송평구역은 시장이 상대적으로 크게 발달하지 못한 지역이다. 송평구역은 시장의 확장이 힘든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인접한 수남구역과 포항구역이 인구 밀도가 높고 큰 시장이 입지하고 있으며 나남구역 역시 나남시장과 나복시장이 발달해 있는 반면 송평구역은 시장을 확장할 유인 매력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사례 7, 구술녹취록 2015 C04). 2000년대 중반 이후 새거리동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다소 활기를 찾고 있긴 하지만 제철소 입지로 인해 공해가 심각해 거주하기 힘든 지역이라 시장이 확장적으로 발달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I
II
III
IV
V

사진 III-20 청진시 송평구역의 시장들



송평시장 (2015.6.20. 촬영)



새거리시장 (2015.5.26. 촬영)



출처: 구글 어스, <earth.google.com>.

(5) 나남구역

나남구역은 총 19개 동 2개 리로 구성되어 있고 인구는 2008년 기준으로 112,343명이다. 일제 강점기에는 육군 제19사단이 주둔해 있었고 현재에도 미사일 기지 및 반항공 부대, 군수공장들이 자리하고 있다. 협동농장 2개가 있어 농촌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나남탄광연합기업소, 나남제약공장, 5월10일 기계공장, 구덕담공장 등이 입지해 있다.

I
II
III
IV
V

사진 III-21 청진시 나남구역



출처: 위키매피아, <wikimapia.org>.

나남구역에는 나북시장과 나남시장 등 총 2개의 시장이 있다. 나남구역의 시장으로 들어오는 물건들은 수남시장이나 포항시장에서 받아오는 것이 아니라 주로 북·중 접경지역을 통해 직접 들어온다. 수남시장과 포항시장은 워낙 크고 상인들이 많아 가격 경쟁이 심해서 들여온 물건 가격이 많이 떨어져 수지가 맞지 않는다고 한다. 가령 청진으로 들어오는 외국산 물건들은 무산군 교두 칠성세관을 통해서 들어온다. 들여올 때 물건이 100원이었으면 청진시로 들어 와서 유통 마진이 붙어 가격이 올라야 하는데 수남시장으로 가면 가격 경쟁이 붙어 90원으로 떨어져 오히려 들여온 값보다 낮게 가격이 내려가는 현상이 발생하곤 한다. 이런 경쟁으로 인한 가격 하락 현상 때문에 가격 경쟁이 많지 않은 나남구역의 시장으로 물건이 들어온다는 것이다. 나남지역의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이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나남구역 주민들의 소비 수준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비가 왕성하지 않아 대량으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다.

○사진 Ⅲ-22 청진시 나남구역 시장들



출처: 구글 어스, <earth.google.com>.

I
II
III
IV
V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에 따르면, 청진시 시장의 공간적 분포와 입지에서 발견되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청진시 전체적으로 시장이 크게 늘어났다는 특징이 있다. 과거 2004년 이전 공식적으로 허용된 시장이 5개였지만, 지금은 18개까지 늘어났다. 거의 3~4배 가량 수적으로 증가한 것이다(사례 6, 구술녹취록 2015 C03). 이와 같은 시장의 양적 증가는 2003년 종합시장 개설을 허용한 조치가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시기 종합시장 개설로 인해 전국적으로 기존 시장의 확장과 보수, 새로운 시장의 개설이 이루어졌다. 청진시는 인구 규모 면에서 평양, 함흥 다음의 제3의 도시로 인구수에 비례하는 시장의 수요가 기본적으로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주로 산악지역으로 군시설이 입지한 부윤구역을 제외하면 각 구역별로 적게는 1개부터 많게는 6개까지 시장이 입지하고 있다.

둘째, 시장의 확장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현재 시장이 중심이 된 경제생활과 물자 수요로 봤을 때, 시장의 확장 필요성은 충분하다. 대표적으로 수남시장, 청년공원시장은 이후에도 확장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다. 인구 밀도나 소비수준, 주변 활용 가능한 부지 등의 조건으로 보았을 때 확장 가능성이 높다. 반면 포항시장은 지금은 규모가 상당히 작지만 아파트 단지 사이에 큰 골목에 지붕을 치고 만들었기 때문에 확장할 부지를 확보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물리적 확장보다는 질적 차별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포항시장은 주로 외국산 물건을 많이 다루고 있는 특징이 있다. 나남구역과 송평구역 시장은 이후 새로운 주택건설이 대규모로 이루어질 경우 시장의 확장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현재 나남구역의 신규 건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각 구역별 시장의 개수, 규모, 활성화 수준 등은 구역 인구수에

비례하기보다는 소비 수준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인구수로 보면 송평구역, 청암구역이 많지만 실제 시장의 규모는 크지 않다는 점이다. 송평구역과 청암구역은 거주 주민이 주로 노동자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어 소비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반면 수남구역이나 포항구역은 인구수가 많지 않지만 가장 시장이 발달해 있다. 포항구역의 경우 6개의 시장이 있는데 인구수보다는 이 지역 주민들의 소비 수준이 높아 그만큼 상품 수요의 측면에서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시장의 입지와 활성화 수준은 인구수도 일정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소비 수준이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청진시에 있는 시장들로 들어오는 물자들은 주로 무산군, 온성군, 회령시, 나선시 등 북·중 접경지역 도시들을 통해서이다. 청진시의 시장이 양적으로 증가하고 거래 및 유통이 많은 이유는 이들 접경지역 도시와의 도로·철도 연결로 인한 효과로 볼 수 있다. 특히 청진과 회령을 연결하는 청회선, 무산 교두, 온성 교두를 연결하는 도로가 나 있는 부분은 청진시가 시장을 초기부터 활성화할 수 있었던 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3. 도시시장 발달의 경제지리

가. 도시시장 활성화와 도매시장 형성의 경제지리

도시시장은 상품의 생산자나 수입상으로부터 많은 상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상업 활동이 도시 인구를 상대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으로, 그 기능은 도시적이며, 도시를 거점으로 집적한다.⁷⁵ 따라서 도시와 시장은 상호 구성적인 측면이 있으며 시장은 도시의 기능과 성격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소위 말하는 ‘도시성(urbanity)’에 시장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경우 과거에는 계획경제 시스템과 경제노선이 한 도시의 도시성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계획경제 시스템이나 경제 정책에 따라 각 도시의 기능과 역할이 부여되어 왔기 때문이다. 가령 중공업 우선노선으로 인해 각 도시의 산업적·경제적 비중은 중공업 입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측면이 강했다. 또한 중공업 우선 노선은 중공업 부문 투자를 최대화하기 위해 여타 부문과 지방에 대한 투자를 최소화하는 정책을 펼쳤다. 이에 따라 대형 중공업 단지가 입지한 도시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도시들은 각 도시 간 연계성보다는 자족성에 입각해 자력갱생식 지역자립체제로 운영되었다.⁷⁶

그러나 2000년대 초 시장이 공식적으로 허용되고 각 도시에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시장은 도시의 기능과 성격에 보다 많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었다. 시장은 인구가 상대적으로 밀집된 도시를 거점으로 발달하며 도시의 여러 기능과 결합되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성장해가기 마련이다. 시장은 도시와 함께 커 간다고 할 수 있다.⁷⁷ 도시 자체의 생존에서 시장의 중요성이 커졌으며 도시 속으로 시장이 스며들면서 도시 자체가 하나의 시장 시스템화 되어 진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 시장 시스템으로서 도시와 도매시장

북한에서 도시가 하나의 시장 시스템으로 진화하는 데 있어 특히 주

75. 한주성, 『유통지리학』 (파주: 한울아카데미, 2003), pp. 85~86.

76. 김병로, 『북한의 지역자립체계』 (서울: 통일연구원, 1999), pp. 7~10.

77. 페르낭 브로델, 주경철 역,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II-1 - 교환의 세계 상』 (서울: 까치, 1996), p. 27.

목할 부분은 각 도시에 있는 도매시장의 역할이다. 북한 각 도시의 도매시장은 생산자와 수입상으로부터 대량의 상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도매시장의 기능은 다양한 상품 및 물자를 수집하는 집하기능, 이렇게 수집된 상품과 물자를 여러 다른 지역으로 분산시키는 분산기능, 유통 단계별로 상품과 물자의 흐름을 중개하는 중개기능 등을 수행한다. 사실상 도매시장이 상품과 화폐를 빨아들이고 밀어내는 ‘펌프’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북한에 있는 도매시장은 전국적인 시장 네트워크의 형성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심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도매시장은 전국적인 유통망의 핵심적 동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제한적이고 초보적이지만 생산을 유도하고 활성화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런 측면에서 북한에서 도시시장은 이제 일정부분 입지산업이자 지역산업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도시시장의 활성화와 도매시장의 입지는 도시 사이의 계층 및 위계를 만들어 내는 측면이 있다. 도시시장의 활성화 수준과 도매시장의 역할을 통해 형성되는 각 도시 사이의 위계는 도시시장의 연간판매액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다.⁷⁸ 그러나 북한 도시시장의 판매액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북한의 경우 공식적으로 허용된 시장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장세의 총액을 통해 확인하는 간접적인 방법이 있다.⁷⁹ 이를 위해서는 각 시장의 물리적 규모와 매대수를 세고

⁷⁸- 위의 책, p. 87.

⁷⁹- 2007년 12월 부정 축재사건으로 수납시장 시장관리소 소장이 공개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은 바 있는데, 당시 사건을 전했던 소식통은 수납시장 하루 장세 수입을 700만 원 정도로 전한 바 있다. 당시 쌀값 기준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현재는 3배인 2,000만 원 이상의 장세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거칠게나마 추정해 볼 수 있다. 사단법인 좋은벗들 북한연구소 엮음, 『오늘의 북한소식』, 107호 (2008.1.30.) p. 6. 한편 2007년 당시 수납시장 1m 매대의 가격은 100~150만 원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매대수에 따른 장세의 총액을 추정하는 작업을 해야만 한다.

그러나 인공위성 사진을 통해 시장의 크기를 측정하고 매대수를 추정하는 방식만으로는 도시시장의 활성화 수준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합법적 시장의 물리적인 사이즈도 중요하지만 그 주변과 도시 전체가 하나의 시장 시스템을 이루며 어떻게 유기적으로 작동하는가의 측면을 읽어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가령 A시장의 물리적 사이즈가 B시장의 사이즈보다 작음에도 불구하고 A시장이 도매시장으로서의 역할과 전국적인 비중이 큰 경우가 있다. 또한 북한이라는 특성상 시장의 물리적인 사이즈는 제한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장터를 벗어나 주변과 도시 전체로 도매시장 기능이 연장돼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 각종 개인 주택과 창고, 골목, 거리 등으로 연장된 도매시장 기능을 포함하면 한 도시가 갖는 도시시장의 활성화 수준과 도매시장의 역할은 단순히 울타리가 쳐진 시장의 물리적 사이즈만으로는 측정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선 각 도시에 있는 도매시장의 입지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루 장세 수입뿐만 아니라 매대 사용비 수입도 상당한 액수였을 것으로 보인다. 2007년 당시 수납시장 도매장사꾼의 하루 매상이 보통 30~40만 원 정도였기 때문에 수납시장을 통해 움직이는 화폐 유통량도 상당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현재 북한 시장에서의 장세는 상품의 종류나 매대의 크기에 따라 500원, 1,000원, 1,500원으로 구분되고 길에서 장사를 하는 장사꾼들은 상품 종류에 따라 장세를 내고 있다. 너비가 보통 1.5m 정도의 매대를 이용하는 음식 장사나 생선 장사는 500원, 매대가 2.5m로 비교적 큰 매대를 사용하고 있는 공업품 장사나 가전제품 장사는 가장 비싼 1,500원의 장세를 낸다. 음식 매대와 공업품 매대의 중간 크기의 잡화(생필품)나 담배, 쌀 매대는 1,000원을 내야한다. 시장에서 매대가 늘어나면 그 만큼 장세도 많이 걷을 수 있어 당국의 수입이 많아진다. 예전에는 장세가 일괄적으로 동일했지만 현재는 크기뿐 아니라 이익을 많이 내는 매대는 장세를 더 받고 있다. 김정은 정권 들어 지난 몇 년간 시장에서의 장사 통제가 거의 없어서 시장 매대가 늘었고 또 길거리 장사꾼들도 많이 늘어난 상태이다. “北장세, 매대크기·상품에 따라 차등 … 공산품 매대 1500원,” 『데일리NK』, 2015.10.6.

(2) 도매시장의 입지조건과 상권의 구성요소

평성, 순천, 청진의 도시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도매시장의 입지 조건과 상권 구성요소를 파악해 보면, 우선 도시시장의 활성화와 도매시장의 입지는 도시의 인구분포와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인구가 많을수록 도시시장이 활성화되고 도매시장 역할이 클 가능성이 높다. 북한을 대표하는 도매시장이 입지한 청진과 평성은 인구 규모에서 3위(66만 8천 명), 11위(27만 9천 명)에 해당한다. 청진시는 대도시에 속하고 평성시는 중간규모에 속한다. 청진시의 경우 인구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위에서 언급한 도시시장의 활성화 조건에 부합한다. 그런데 중간규모인 평성에 북한 최대의 도매시장이 입지하고 있는 점은 인구 규모와 시장 활성화가 비례한다는 위의 조건에 잘 부합하지 않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고려해야할 점은 평성시가 평양시의 위성도시로 탄생했다는 점이다. 평양시와 경계를 함께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성의 시장들은 사실상 평양시를 비롯한 평안남도 인구의 소비 수요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 자금 조달과 화폐 흐름의 원활함과 용이성이다. 도시시장의 활성화와 도매시장의 입지는 대량의 물자를 들여오는 데 필요한 자금의 조달이 얼마나 원활한가가 중요하다. 그만큼 물자를 생산자 또는 해외로부터 구매해서 들여올 자금 확보가 필요한데, 지속적인 사업자본의 축적과 유통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북한에서는 국가나 금융기관의 담보를 통한 자금 조달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간의 상업자본을 통한 물자 구매가 기본이 된다.⁸⁰ 평성이나 청진 등 도매시장이 발달한

⁸⁰ 금융 관련하여 최근에 북한에서 모종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도 있다. 가령 지방은행의 출현이다. 노동신문은 2015년 12월 14일 제3차 전국재정은행 일꾼대회 소식을 전하면서 “함경북도은행 총재 리광호가 토론자로 나섰다”고 밝힌 바 있다.

도시의 경우 시장이 발달하면서 시중의 민간자본 규모도 점차 증가해 왔다. 민간자본의 축적은 시장을 보다 활성화하고 시장의 활성화는 자본의 축적을 강화하는 선순환을 가져온다고 볼 수 있다. 원도매-중간도매-최종도매-소매-가계 등으로 이어지는 유통 단계에 따라 도시들이 연결되면서 자본축적과 소득분배가 유통망을 따라 확산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각 유통단계에서 발생한 이익은 일정한 자본 형태로 도시의 건설시장, 노동시장, 자본시장 등에 투여되면서 자본 축적을 초보적이거나 안정적으로 유도하는 밑거름 역할을 해 왔다. 이 과정에서 소매업을 통한 수익, 시장 관련 서비스업, 고용을 통한 임금 등이 가계 소득으로 이전되고 소비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시킴으로써 시장을 보다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해 왔다. 북한에 도매시장이 발달한 도시에서는 이런 자금 조달과 화폐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세 번째로, 교통의 편리성이다. 주지하고 있듯이 교통은 시장 네트워크의 기초가 된다. 교통망을 통해 다양한 물자, 에너지, 화폐, 정보가 교환되기 때문이다. 청진과 평성처럼 도매시장이 활성화된 도시들

또한 2016년 1월 4일 북한 평양방송에서 ‘자강도은행’이란 이름이 등장하기도 했다. 보통 조선중앙은행 지방 지점들은 ‘중앙은행 ○○○ 지점’ 등으로 불리는 점을 미뤄볼 때 ‘함경북도은행’은 중앙은행의 지점이 아니라 새로운 지방은행 조직으로 추정된다. 직함 역시 중앙은행 지점 간부들과 달리 ‘총재’라는 직함을 사용하여 상당한 독립성을 인정받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런 지방은행들은 중앙은행으로부터 독립했거나 독립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의 상당 부분을 중앙으로부터 넘겨받아 지방은행의 구색을 갖췄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한편 자유아시아방송(RFA)은 “함경북도 청진에 있는 청진국제호텔에 중국 등 외국과의 금융거래가 가능한, 합영은행을 모체로 하는 지방은행이 세워졌다”고 밝힌 바 있다. 외환거래가 불가능한 일반은행과 달리 외환거래를 할 수 있는 지방은행이 등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방에 외환거래가 가능한 은행창구를 개설해 외화벌이기관이 중국에서 벌어들인 돈을 끌어들이거나 국경도시에서의 비공식적인 환전거래를 당국이 관리하겠다는 취지로도 볼 수 있다. “북한에도 ‘지방은행’ 속속 등장 … 中 개혁개방 초기와 유사,” 『연합뉴스』, 2016.2.9.

은 기본적으로 교통의 요충지이다. 청진의 경우 무산군, 운성군, 회령시, 나선시 등 북·중 접경지역과 내륙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이며, 평성의 경우에도 신의주, 개천, 순천, 평양, 남포, 사리원, 해주 등 서해안 교통축과 동해안 교통축을 연결하는 도시이다. 그런 측면에서 전국적인 상품의 유통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 도매시장은 기본적으로 교통의 편리성을 중요한 입지 조건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당국의 법적 규제와 세금 부과 조건도 도시시장 활성화와 도매시장 입지에서 중요한 조건이 된다. 주지하고 있듯이 북한에서 도시시장이 결정적인 활성화 계기를 갖게 된 것은 2003년 종합시장의 개설이었다. 그전에도 농민시장 또는 장마당이란 이름으로 시장이 운영되고 있었으나 허가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불법으로 간주되었다. 그런데 종합시장 개설과 시장 허용 조치가 단행된 이후 기존 시장의 확장 및 보수, 신규 시장의 건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또한 공장·기업소 생산에 필요한 물자의 거래를 공식적으로 허용함에 따라 시장 거래품목이 보다 확대되어 시장 네트워크가 보다 확산될 수 있었다. 결국 도시시장의 활성화와 도매시장의 입지는 항상 당국의 법적 규제라는 결정적 변수를 통해 확대·강화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도시 내부의 시장들 사이의 기능적 분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권이 형성되는 요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도시 안에 있는 시장들의 상권을 구성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 안에 경쟁하는 시장의 입지 분포에 따라 상권이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 가령 청진시의 경우 부윤구역을 제외한다면 구역별로 시장이 들어서 있는데, 수남시장의 압도적 성장으로 인해 주변 구역의 시장들이 성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수남시장과 나머지 시장들이 도매와 중간도매로 상호의존적으로 연계되면서 하나의 상권을 구성하고 있다. 이런 공

I
II
III
IV
V

생관계를 통해 구역 내 거주인구를 상대로 한 상권이 일정 부분 형성되어 있다.

둘째, 도시 안에 있는 각 시장들의 취급상품 및 상품군에 따라 상권이 일정 부분 형성되는 측면이 있다. 거의 모든 품목의 물건을 파는 중심적인 종합시장과 함께 특정 품목으로 특화된 시장들이 들어서는 경우이다. 가령 평성시의 경우 옥전시장이라는 종합시장 이외에 농축산물을 전문으로 파는 오리시장, 삼화장마당, 신발을 전문으로 파는 주례시장 등으로 분화되어 있다. 순천시의 경우 모든 물건을 파는 종합시장인 순천시장을 중심으로 자동차 부속품을 전문으로 파는 강포시장, 약품이 특화돼 있는 연포시장, 모래를 쌓아 놓고 노천에서 파는 모래시장 등이 있다. 청진시의 경우에도 종합 물품 시장인 수남시장과 더불어 외국산 고가 물건을 주로 파는 포항시장 등이 있다. 이들 품목의 전문화는 차별화를 통한 전략으로 일정한 상권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현재 북한 도시에서는 생산재시장, 소비재시장, 자본재시장 등 품목에 따른 분화가 초보적인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교통체계상의 입지에 따라 상권이 형성되는 측면이다. 철도역과 도로체계와의 거리에 따라 일정한 상권이 구성된다. 가령 순천시의 경우 도시 내부를 원형으로 감싸고 있는 철도를 따라 순천역 앞에 순천시장, 연포역 앞에 연포시장 등이 일정하게 지역 주민들 상대로 상권을 형성하고 있다. 청진시의 경우에도 도시 내부를 순환하는 철도선과 도로선을 따라 청암구역의 3개 시장이, 포항구역의 2개 시장이, 송평구역의 3개 시장이, 나남구역의 2개 시장이 입지하고 있다. 평성시의 경우는 평성역 교차점으로 시내를 가로지르는 주도로와 세로로 난 도로 변으로 시장이 입지하고 있다. 평성역전에서 시작되는 도로와 무궤도차 노선을 따라 역전시장, 두무시장, 오리시장 등이 상권을 구성하고

있고, 세로로 난 도로로는 옥전시장, 역전시장, 은정시장 등이 입지하고 있다.

넷째, 시장 주변의 인구수와 소비 수준에 따라 상권이 구성되는 측면이 있다. 시장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주로 어떤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인가에 따라 이들의 소비 수준과 소비 취향이 일정하게 시장 상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가령 청진시 포항구역의 경우 시장의 수가 6개로 다른 구역에 비해 2~3배 이상 많다. 포항구역은 당·행정 기관이 밀집해 있는 업무중심지구이자 외화상점과 국영상점, 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는 곳이다.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도급·시급 기관에 종사하는 간부들 및 사무원들이나 무역회사 종사자들이다. 따라서 노동자들이 주로 거주하는 다른 구역에 비해 소비 수준이 높아 시장의 수가 많고 한 구역 내 상대적으로 조밀하게 시장이 들어서 있다. 물론 소비 수준이 높은 지역이지만 큰 상권이 특별히 조성되어 있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청진시 신암구역 신진동은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곳이지만 큰 시장이 주변에 없는 경우이다. 오히려 이곳에 사는 간부들이나 돈주들은 시장의 번잡스러움을 피해 쾌적한 동네를 선호하여 이곳을 선택한 경우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시장이 위치한 지역의 산업입지 등이 상권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시장 근처에 큰 공장·기업소가 입지한 경우 그 공장·기업소의 성격에 따라 시장의 상권이 일정하게 형성되는 경우가 있다. 가령 순천시에 유명한 순천시멘트연합기업소가 입지한 주변으로는 대규모의 개인집 군락이 형성돼 있는데, 이것이 거대한 시멘트 시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이다. 사실상 공장에서 유출되는 시멘트에 의존해 형성된 시장 상권으로 순천시는 물론 주변 도시에 시멘트를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공장·기업소의 생산물을 이용



한 시장 상권 형성의 긍정적 사례에 해당한다. 반면 청진시의 경우 송평구역에 들어서 있는 김책제철연합기업소는 대규모의 노동자 거주지와 함께 입지하고 있어 시장의 발달이 예상되지만 예상 외로 중간규모의 송평시장과 소규모의 새거리시장이 입지하고 있을 뿐 크게 상권이 번창하고 있지 못하다. 이 경우에는 주변 공장으로부터 나오는 생산물이 시장 활성화 효과를 낼 수 없는 경우이며, 주로 노동자층으로 구성된 거주 인구의 낮은 소비 수준으로 상권이 크게 번성하지 못한 경우에 속한다.

나. 평성·순천·청진의 도시시장 발달의 특징

(1) 지리적 이점을 이용한 도시의 생존전략

평성시와 청진시가 전국적인 도매시장으로 발달한 배경에는 지리적 이점이 크게 작용했다. 가령 평성은 주변 도시와의 관계라는 위상학적(topological) 관점에서 보면, 주변 주요 도시들을 연결하는 교통의 삼각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이런 지리적 이점은 평성이 전국 시장 유통의 ‘쇼케이스(showcase)’ 역할을 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평양에 있는 많은 무역회사들이 중국과의 무역을 통해 물건을 중국에서 대량으로 들여오면, 물건들이 인도되고 전시·판매·유통되는 공간이 평성시이다.⁸¹ 전국 각지에서 장사꾼들이 물건을 구입하러 오고 자신들의

⁸¹ 평성에 대규모 도시 시장이 발달할 수 있었던 원인 중 하나는 북한의 무역회사 구조와 시장 네트워크가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북한의 대부분의 무역회사는 당, 내각, 군, 인민보안부, 국가안전보위부, 주요 도급기관 등이다. 이들이 외화벌이 회사를 설립하고 자금과 인원을 끌어들이고 무역회사 독점권을 이용하여 장사를 해 수익을 올려 왔다. 이런 무역회사의 기본 구조는 총국(총회사, 평양), ‘지사(판매소, 도소재지)’, ‘출장소(시·군)’, ‘분소(리)’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에서 각 도 소재지에 있는 무역회사의 지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지사(판매소)에 상품이 집중되고 소속 물류

도시에 가져가 판매해 시세차익을 남긴다. 한편으로 자신의 지역에서 가지고 온 물건은 평성시장을 통해 넘기기도 한다. 평성시는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물건과 각지의 물건이 전시·판매되는 상품전본장 같은 역할을 한다(사례 13, 구술녹취록 2015 P04). 대부분의 큰 장사꾼들은 대량의 물건을 받아 줄 수 있는 가장 큰 시장에 물건을 넘기려고 하고 한편으로 자신의 필요한 물건을 가격경쟁이 있는 큰 시장에서 싼 값에 사려고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평성시나 청진시에 더 많은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평성시와 청진시에 전국의 큰 돈주들과 장사꾼들이 다 몰리게 되는 것이다.

몽땅 다 평성에 갖다 뿌리지. 평성이 도매지니까, 큰 거는 거의. 그 다음에 어지간히 그 나머지는 순천에 장마당에 들어오지. 가령 평성은 차 빵통이 한 60톤 들어갔는데, 빵통으로 한 열 개 되더라도 다 소화시킨단 말이야, 근데 순천은 소화 못 시킨다고. 뭐 한 빵통이나 소화시키겠다. 그런데 평성은 열 빵통 주문 받아 가지고 실어와도 그걸 다 소화한다 이거지. 돈 량이 그 전국 각지 돈주들은 다 거기 몰려 있다고(사례 10, 구술녹취록 2015 S04).

이처럼 평성시가 특별한 산업기반 없이 시장을 통해 번성할 수 있었던 요인에는 지리적 요인이 결정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평양은 모든

창고가 생기고 물자교류시장이 생기게 되었다. 전국의 돈주들이 무역회사 물류창고로 몰려들어 물건을 대량으로 도매해 가서 전국 각 시장이 거간에게 넘겨지고 거간은 다시 시장 상인들에게 소매로 넘기면서 소비재 시장이 확대·팽창돼 온 것이다. 즉 무역회사 규모가 커져 외화벌이가 활발해 질수록 물건이 많이 유입되고 거래가 많아지면서 전국의 시장도 활성화돼 왔던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함경북도 청진시 남강판매소를 들 수 있다. 남강판매소에는 전국 각지에서 도매상인들이 모여들어 물건을 대량으로 구입하여 전국 각지의 종합시장 상인들에게 넘긴다. 이와 관련해서는, 정은이, “북한무역회사에 관한 연구: 북중 접경도시 ‘신의주’를 중심으로,” 『2012 통일부 신진연구자 정책과제』 (2012), p. 32.

I

II

III

IV

V

철도와 도로의 중심지이고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한 도시란 점에서 시장 및 소비의 잠재력이 가장 큰 도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평양은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되는 일명 ‘수령 호위 도시’로 시민증을 소지해야만 출입이 가능하고 일반 공민들의 출입이 제한돼 있다. 반면 평성시는 평양과 인접해 있으면서 도시를 출입하는 데 큰 장애가 없다. 평양에 있는 중앙기관 산하 무역회사가 중국으로부터 물건을 평양으로 가져오려면 평양으로 들어오는 초소의 단속이 엄격하고 까다로운 데다 물건을 현금으로 전환시키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인접한 평성시로 물자를 들여오고 거기서 거래를 하여 현금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훨씬 거래비용에서 저렴하고 편리하다고 한다. 평양에 필요한 주요 물자와 돈의 교환을 대행하면서 평성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리적 이점을 학습했다고 볼 수 있다. 평성시는 중요 공장·기업소가 없고 대부분 행정 및 교육기관이 주를 이루는 소비 도시의 성격이 강해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평성 사람들은 일찍 지리적 이점을 이용한 생존에 대해 눈을 뜨기 시작했다. 평양으로 들어는 것이 쉽지 않은 상인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어 터를 잡게 되었고 그 규모가 커지면서 장마당이 들어서고 확장된 경우이다.

평양시에 인접한 평성시장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평양의 물가 및 환율이 평성시장의 시세에 영향을 받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평성시장에서 대량의 자본을 가지고 있는 큰 손들이 외화(달러)를 대량 사들이면 평양시의 외화상점(국영상점)이나 환전상의 환율이 뛰어나는 현상이 나타난다.⁸²

⁸² “북 장마당 ‘큰손’들 시장가격 주도,” 『자유아시아방송』, 2012.10.8.

(2) 시장 네트워크와 운송업의 성장

도매시장 및 시장 네트워크 발달은 운송업의 성장을 동반한다. 운송업은 인간, 상품, 정보 등을 연결하고 실어 나르는 혈관과 같은 역할을 한다. 북한에서 가장 기본적인 운송수단인 철도는 시장의 물자 이동에서 가장 중요한 동맥 역할을 하고 있다. 북·중 국경도시와 내륙의 연결, 주요 대도시 사이를 연결하며 많은 시장 물동량을 처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철도는 철로의 노후, 전력 및 에너지 부족, 시설 관리 미흡 등으로 운영·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효율성이 떨어지는 운송수단이 되었다. 또한 철도는 대체로 과거 계획경제와 중공업 우선 노선에 맞게 구축되어 있어 시장 네트워크 작동이 요구하는 운송능력이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따라서 시장이 요구하는 수요에 따라 사설적인 운송업이 발달하게 되었다.

도시 시장의 네트워크는 크게 도시 내부를 연결하는 교통망과 시외를 연결하는 교통망을 중심으로 발달한다. 순천시와 청진시는 도시 내부에 열차가 순환하고 있고 도로도 열차선을 따라 발달해 있다. 순천시의 경우 순천시장, 강포시장, 모래시장, 연포시장, 시멘트 시장 등이 열차선과 도로선을 따라 위치하고 있다. 청진시도 청암구역, 포항구역, 수남구역, 송평구역, 부윤구역, 나남구역으로 이어지는 열차선과 도로를 따라 도시 내 시장 유통선이 형성돼 있다. 평성은 지형상 도시 내부를 순환하는 열차나 도로선은 없고 순천-평양을 연결하는 수직의 열차 및 도로, 문덕군-안주시로 나가는 수평의 도로선이 T자 형태로 교차하는 형태를 갖고 있다.

평성, 순천, 청진 모두 시외를 연결하는 교통망 역시 철도와 도로를 중심으로 시장 네트워크를 만들어낸다. 가령 평성시의 경우 외부로는 단동으로부터 신의주-개천-순천으로 연결되는 북쪽 시장 네트워크를

I

II

III

IV

V

통해 평성에 물자와 화폐가 열차와 도로를 통해 들고난다. 또한 남쪽으로는 평양시, 남포시를 비롯해 송림시-사리원시-해주시 등으로 연결되는 시장 네트워크가 열차 및 도로로 연결되어 있다. 또 숙천군, 문덕군, 안주시, 정주시 등과는 도로로 연결된다. 평성 외부에 있는 도시에서 사람들이 평성으로 들어와 물건을 도매로 받아 가는 방식이다.

이렇게 평성은 외지의 상인들과 물자를 실어 나르는 운수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다. 주로 열차보다는 도로를 이용한 운송업이 발달했다. 불안정한 열차 운영체계에 비해 비용은 들지만 시간과 효율성의 측면에서 안정적인 개인 운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도 운송업 발달의 주요 요인이다. 물론 주요 도시에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무궤도전차 사업소’와 ‘면(장)거리 차사업소’가 있지만 버스들이 노후화와 자금난, 석유 부족 등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⁸³ 평성의 경우 역전에서 오리동까지 운행되는 무궤도전차가 있지만 느리고 불규칙하고 고장이 잦아 사람들이 잘 이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대신 운송에 대한 시장적 수요를 돈주들이 운영하는 운송회사들이 대체하고 있다.

우선 돈을 투자해서 차량을 구입하는데 주로 중국으로부터 중고차나 폐차 직전의 차(버스, 트럭)를 들여온다. 이렇게 들여 온 차량은 공장·기업소나 국가기관 이름의 차로 등록하여 번호판을 받아 장시를 한다. 보통 개인차라고 하면 단속이 심하기 때문에 국가기관의 차량으로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번호판을 등록할 때, 버스의 경우 도시 인민위원회 운수 담당 부서의 허가는 받아야만 한다. 이런 인허가 과정에서 도시 인프라를 이용한 수익의 창조라는 측면에서 관료들과 민간자본 사이의 도시정치가 펼쳐진다. 버스 운송을 통한 수익의 일정

⁸³ 양문수, “2015년 북한 시장화 동향과 향후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1월호 (2016년 발간예정), p. 22.

부분을 차량이 등록된 기관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버스 돈주가 차지하는 방식이다. 이들 버스들은 시내외를 운행하며 사실상 기존의 국가 운수체계를 대체하고 있다.

평성시의 경우 시외버스 노선이 전국 어느 도시보다 발달해 있다. 2013년 겨울 현재 평성 버스터미널에서 운행하는 시외버스는 무려 49개 노선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⁸⁴ 평성 경기장 옆에 간이로 조성돼 있던 버스사업소는 2013년에 평성백화점 아래 은정동으로 확장·이전하였고 노선도 이때 대폭 확대되었다. 일단 평성시장의 물동량이 많기 때문에 시외버스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다. 또한 교통의 삼각지대로 전국으로 사람과 물자가 뿔어나가는 요충지라 노선이 발달할 수밖에 없다. 수요가 많은 문덕군, 숙천군, 신안주시 등으로 장사꾼들과 물자를 나르는 주요한 역할을 한다. 새벽이면 평성시로 들어오는 도로에는 시외버스들과 물건을 실은 트럭, 딸감을 나르는 수레 등이 긴 행렬을 이루며 장관을 연출한다고 한다. 이와 같이 시장 네트워크의 발달은 곧 시장 수요에 맞게 사람과 물자를 실어 나르는 운송업의 발달을 수반한다.

(3) 도시 내 시장들 사이의 기능적 분화

북한의 도시시장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는 시장의 위치와 규모에 따라 파는 품목에서 기능적인 분화가 일정 부분 나타나고 있는 점이다. 가령 평성시의 경우 역전시장은 주로 소비품이나 음식 위주로 판매한다. 쌀, 수산물, 식료품 등 주로 먹는 소비품, 그리고 간단한 생활필수품, 책(교과서) 등을 판다. 옥전시장은 대부분의 품목을 다 팔고

⁸⁴ 위의 글, p. 23.

I
II
III
IV
V

있지만 도매 형태로 대량의 옷을 팔거나 대형 생활용품, 공업품, 신발, 가전제품 등 품목이 훨씬 다양하고 매대 수도 훨씬 많다. 옥전시장은 기본 도매를 전문으로 한다(사례 14, 구술녹취록 2015 P05).

청진시의 경우에도 도시 내 시장들 사이에 기능적 분화 현상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 가령 수남시장은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해 도매를 전문으로 하는 종합시장이다. 수원시장(포항구역)은 고급 상품을 주로 파는데 중국산이라고 비교적 브랜드가 있고 질이 좋은 것을 판다. 남향시장(포항구역)은 기본이 약재, 의약품, 의료기기 등이 전문화되어 있다. 그 이유는 도(道)병원이 가까이에 있기 때문이다(사례 2, 구술녹취록 2015 C01).

순천시의 경우에는 다양한 물품을 모두 갖춘 종합시장인 순천시장을 중심으로 자동차 부속품을 전문으로 거래하는 강포시장, 의약품이 특화돼 있는 연포시장, 모래를 노천에 쌓아 놓고 파는 모래시장 등이 있다. 이렇게 도시 내부의 시장들 사이에는 파는 품목에 따라 기능적으로 분화하고 있는 현상이 일정 부분 발견되고 있다.

이런 품목의 차별화 또는 전문화를 통한 기능 분화 현상은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도시 내에서 중심이 되는 종합시장과의 차별화 전략에 따라 특정 품목을 전문화하는 것이다. 둘째, 지역의 산업적 특성을 반영하는 경우이다. 가령 도립병원 근처에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품목이 전문화되는 경우, 시멘트 공장 근처로 시멘트 보관·포장·운송 등의 업체들이 밀집해 시멘트로 특화된 경우, 고무줄공장 인근에 고무를 이용한 신발 제조·판매를 주로 하는 시장이 특화되는 경우 등이다. 셋째, 도시 내 구역별 거주 인구가 갖는 소비 수준에 따라 시장의 기능이 분화되는 경우이다. 해당 지역 주민들이 소득 수준 정도에 따라 시장에서 파는 품목의 양적·질적 수준이 다를 수 있다.

가령 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잘사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의 경우 외국 산의 상대적으로 고가의 물품을 전문으로 파는 시장이 발달하는 경우이다.

(4) 다양한 공간과 기술을 이용한 시장의 형태적 진화

평성시에서는 2009년에 기존에 최대 규모의 시장이었던 하차시장이 옥전시장으로 이전하면서 나타난 변화 중 하나는 매대 장사에서 창고형 장사로의 전환이 일반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전체적으로 시장의 공간적 규모가 줄어들면서 시장 매대를 이용하는 장사꾼들이 줄어들었다. 장사 규모가 커지고 전문화되면서 큰 창고를 짓거나 임대해 자신의 창고에서 장사를 하게 된 것이다. 실제 옥전시장에 작은 매대를 형식적으로 가지고 있거나 매대 없이 시장 주변에서 직접 거래하고 자신의 창고에서 물건을 내가는 방식의 장사가 성행하고 있다.⁸⁵

창고로 아파트 건물을 이용해서 장사를 하는 창고형 장사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현상은 비단 평성시 뿐만 아니라 주요 도시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자기 상품을 적재해 둘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놓고 도매를 하는 것이다. 평성의 옥전시장은 과거 하차시장에 비해 규모가 축소되었지만, 장사가 주변에 창고 형태로 확장·분산되어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시장의 이전·축소가 시장 매대를 벗어난 장사 형태의 다양화를 가져오는 기회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⁸⁵ 가령 '기름아파트(평성예술대학 앞에 9층 아파트 2개가 기름 창고로 이용되는 아파트)'라는 것이 있는데, 아파트 전체가 다 같이 기름 장사하는 사람들의 창고로 이루어진 경우가 있다. 기름 공급자가 장사꾼 집집마다 창고에 기름을 넣어준다. 다른 지방에서 기름을 사러 오면 시장이 아닌 곳에서 거래를 성사시키고 창고에 넣어둔 기름을 차로 파는 것이다.

I
II
III
IV
V

한편 이런 창고형 장사는 휴대전화를 활용한 시장 정보의 교환 때문에 더욱 번성하고 있다. 시장 매대에 사람이 나가 있긴 하지만 이들은 호객만하고 주 단골 거래처의 연락을 받고 창고에서 직접 물건을 보내거나 차에 실어 판매를 하는 것이다. 일명 ‘차판장사’이다. 휴대전화가 장사에 일반적으로 이용되면서 창고형의 장사가 활성화되고 있다. 장사꾼들 사이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정보교환이 가능해지면서 어느 지점으로 몇 시에 차를 대라 하면 차를 대고 상품을 실어주고 돈을 주고 받는 장사의 대형화, 신속성, 기동성이 생긴 것이다.⁸⁶ 과거에는 휴대전화가 아닌 유선전화를 통해 거래 정보를 교환했지만, 지금은 보다 실시간으로 거래 및 가격 정보가 교환되고 있다. 이런 휴대전화로 인해 시장 매대 중심의 장사보다는 장터 밖의 다양한 공간을 이용한 장사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제 어떤 현상이 있냐 하면 시장을 이용하는 장사꾼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장사가 규모가 커지고 장사꾼들이 자라면서 이제 바로 창고 큰 거를 하나 가진다든지. 가령 기름아파트라는 것도 있는데, 아파트가 다 같이 기름 장사를 하는 거예요. 평성에 있어요. 기름을 가져다가 매 집집마다 창고에다 넣어주거든요. 넣어줬다가 이제 다른 지방들에서 오면, 큰 창고를 이용하니까 북한식으로 이제 차판장사를 합니다. 일정한 큰 창고나 아파트를 이용해서 자기 상품을 적재해 둘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놓고 도매를 하는 겁니다. 이제 장에 사람이 나가 있긴 나가 있지만, 그게 소, 중, 대로 장사꾼들이 분류가 되는데, 대체로 장마당에 상품 가지고 나가면 도매시장은 도매를 기본으

⁸⁶ 휴대전화를 통해 거래 현장에서 달러환율과 시장가격, 그리고 수출가격의 변동 폭을 실시간으로 알고 대처하는가 하면 시장 단속 정보 역시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다.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의 빠른 유입은 상인들이 보다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광명일, “북한 ‘지역시장’의 형성과 발전에 관한 연구-해주시장 사례를 중심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2), p. 86 참조.

로 사람이 찾아와서 서로 접선할 수 있는 그런 거로 되다가, 아마 지금은 휴대폰이 생겼으니깐 그것도 필요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거의 제 생각에는 옥전장도 지금은 도매시장으로서의 역할이 많이 이제 줄어들지 않았겠는가(사례 14, 구술녹취록 2015 P05).

이렇게 창고 형태의 차판장사가 일반화되면서 도매시장의 위상이 과거와는 달라진 점이 있다. 과거 도매시장은 직접 시장 매대를 찾아 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시장 매대 수의 규모에 따라 도매시장의 위상을 가늠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교환 및 거래가 가능해 반드시 시장 매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옥전시장이라는 특정 시장의 ‘도매 능력’보다는 평성시 자체의 도매 능력이라는 차원에서 시장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장터 형태로 된 특정 지역 시장의 규모로만 이해하는 시장 이해 방식에서 벗어나 도시 자체가 하나의 시장 시스템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5) 유동인구의 증가와 임대 및 창고업의 발달

평성의 인구는 2008년 인구센서스 당시 약 28만 명으로 집계된 바 있다. 그러나 도인민보안국 계통에서 종사했던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도당위원회에서 2005~2006년경 파악한 평성시 인구는 거주 등록을 한 인구 이외에 유동인구를 포함해서 약 50만 명 정도로 추계 되었다고 한다.⁸⁷ 하루에만 평성시에 있는 공식 허용된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의 수와 비공식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의 수, 기타 시장과 관련

⁸⁷ 홍민, “북한연구에서 ‘공간’ 이해와 도시사의 가능성,” 고유환·홍민 외 엮음, 『사회주의 도시와 북한: 도시사연구방법론』, p. 129.



해서 일하는 사람의 수, 그리고 등록된 인구를 합치면 평성시의 인구는 28만 명을 한참 웃돌 것으로 보인다. 유동인구는 장사 때문에 단기간 머무는 사람 이외에 고정적으로 파견이나 상주 형태로 시장 활동을 사람도 포함된다. 평성시의 경우, 현재의 옥전시장 하루 이용객이 3만 명의 종업원을 둔 황해제철소의 출퇴근 규모와 비교하기도 한다. 그래서 대략 2만 5천 명에서 10만 명까지로 추산하기도 한다(사례 3, 구술녹취록 2015 P01). 평성에 시장이 발달하고 시장 활동과 관련된 인구의 출입출이 활발해지면서 평성시 체류 형태도 다양해졌다.

시장 활동 때문에 평성에 체류하는 유형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1~5일 내로 단기 체류하는 형태이다. 주로 공식·비공식 숙박시설이나 개인집에 방 하나를 잠시 빌려 체류하는 형태이다. 둘째, 한 달 이내의 체류를 하는 형태이다. 주로 특정 계절이나 시기에 특정 품목을 구매하거나 팔기 위해 숙박시설이나 개인집 방을 빌려 체류하는 형태이다. 셋째, 몇 달 이상 장기 체류하는 형태이다. 평성에는 거주등록 하지 않고 그냥 임대해서 사는 경우가 많다. 창고를 임대하여 평성시장에서 장사를 하면서 아예 장기 거주하는 것이다. 입사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돈을 주고 대여를 하는 방식이다. 월 얼마씩 내거나 일 년치를 한 번에 주는 방식이다. 평성에는 이들을 위한 주택 임대업이 발달해 있다. 이들은 거주등록을 하지 않은 채 살기 때문에 불법이다(사례 13, 구술녹취록 2015 P04). 마지막으로 평성에 거주등록을 하지 않은 외지인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임대가 아닌 주택구입을 해서 아예 거주하거나 필요할 때 이용하는 방식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평성은 전체 면적에서 도시화 지역이 크지 않고 신규 건설 부지가 매우 제한돼 있다. 따라서 평성시에 유입되는 인구와 물자의 규모에 비해 이들이 체류하거나 물자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임대업이나 창고업이 발달하고 주택의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6) 시장 시스템으로서 도시 진화

평성시에서는 임대업이나 창고업, 주택 거래 등을 통해 돈을 버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건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전국적 유통망을 가진 평성시장의 성장과 부동산 및 건설 시장의 성장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시장화를 단순히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물자의 거래라는 유통 중심의 시장 활동으로만 평가하는 것은 이제 적절하지 않다. 시장 활동의 증가는 인간의 활동이란 측면에서 사회적 인프라와 시스템을 요구한다. 시장 활동을 보다 크고 안정적으로 유지·확장하기 위한 시장 시스템의 진화 차원에서 북한의 도시시장을 하나의 ‘수행적 시스템(performative system)’⁸⁸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런 시장 시스템의 형성은 공간적 현상이기도 하다. 시장 활동은 구체적 공간 안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경제적 활동이기 때문이다. 이제 평성에서 공간은 하나의 상품(부동산)으로서 거래되고 흥정되는 대상이 되었다. 평성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간의 상품화(부동산 거래)는 토지를 상품화 한 자본주의체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주택과 토지의 상품화는 평성에서의 거주나 체류가 곧 시장 활동 자체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거주나 체류를 위해서는 임대료를 지불하거나 사용권을 구매(입사증 구입)해야 하고 이것 자체가 시장 활동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평양에 거주하는 것만큼 평성에 거주하는

⁸⁸ Hans Kjellberg and Claes-Fredrik Helgesson, “Multiple Versions of Markets: Multiplicity and Performativity in Market Practice,” *Industrial Marketing Management*, vol. 35, iss. 7 (2006), pp. 2~6.

I
II
III
IV
V

것도 힘들어졌다고 한다. 돈을 많이 투자해야만 평성 거주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사례 13, 구술녹취록 2015 P04).

아파트에 살지만은 생활이 힘든 사람들은 그렇게 그 자기 사는 방에 같이 사는 사람도 있고 옷방 아랫방 다 빌려주는 사람도 있고. 아파트마다 밑에 조그만 창고들이 다 세대마다 다 있어요. 그런 창고를 집처럼, 방안처럼... 자그만 창고를... 창고가 작죠. 그저 사람 하나 들어가서 이런 석탄 피우는 요런 난로가 또 팔아요. 거기다 그저 밥이나 해먹고. 그렇게 살죠, 뭐(사례 13, 구술녹취록 2015 P04).

사회적 모빌리티 차원에서 보면 거주나 체류 형태가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다고 할 수 있다. 북한에서 특정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도시 공간에 체류하는 사람의 증가는 1990년대 이후, 특히 2000년대 들어와 급격히 증가했다는 점에서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이 주택과 창고 형태의 건물이 상품화되고 매대가 있는 공식 시장을 벗어나 시장이 도시 공간 곳곳으로 확장되면서, 도시는 그 자체로 하나의 시장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도시가 단순히 시장 몇 개를 담고 있는 용기가 아닌 그 자체가 시장의 기능을 수행하는 수행 주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7) 공간을 이용한 민간자본 축적

평성에서 민간자본에 의한 건설이 활발한 이유는 자본 축적이 용이해지고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매대 장사를 해도 대형화해서 운영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가령 신의주, 평양 등에서 큰 물량의 물건을 받아 평성에 있는 시장에 10개 정도 매대를 사서 사람들을 고용해 앉히고 물건을 팔게 하는 대형화 현상이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매대 장사나 창고형 장사로 돈을 번 사람들은 보다 안정적인 곳에 투자를 원하게 되는데, 가령 극장을 건설하면 편의시설이 들어가는데 이런 곳에 투자하는 것이다. 극장 건물에 있는 편의시설 식당 운영권을 받아 보다 합법화되고 공식화된 공간에서 안정적으로 장사를 하는 것이다.⁸⁹

2000년대 들어 시(市)상업관리소에 투자해서 개인이 직접 상점을 운영한다든지(리모델링, 자재 및 물건 투자), 국영식당에 투자해서 월급을 주고 사람을 고용하는 장사로 전환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처음엔 빵과 두부를 만들어 팔던 사람들이 이와 같이 상업관리소 식당주인이 되기도 한다. 점점 장사의 규모를 늘리고 안정적인 시설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시장이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시장에 매대를 두고 파는 초보적인 단계에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전문화, 대형화되어 보다 자본 축적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사례 14, 구술녹취록 2015 P05).

(8) 달러화 현상과 시장가격 및 물가의 안정 효과

북한에서 시장화가 진전되고 확산·심화되는 데서 ‘달러화’의 문제는 중요하다. 특히 최근 들어 급속하게 외국 화폐가 기준 화폐로 통용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다. 북한 화폐는 가치가 워낙 저평가되고 있고 신뢰가 낮기 때문에 사실상 물가 상승을 초래하는 원인 역할을 해왔다. 특히 2009년 화폐교환 조치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이 지속되고 주민

⁸⁹-북한에서 공장, 기업소, 식당, 서비스업체 등을 개인에게 명시적으로 임대하거나 묵시적으로 운영을 맡기는 사례, 즉 개인위탁경영 사례는 2000년대 들어 크게 늘고 있다. 이런 경우는 사실상의 사유화, 특히 소규모 사유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북한에서 소규모 사유화는 식당, 상점 등과 같은 서비스업이 제조업보다 훨씬 더 앞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문수, 『북한의 계획경제와 시장화 현상』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3), p. 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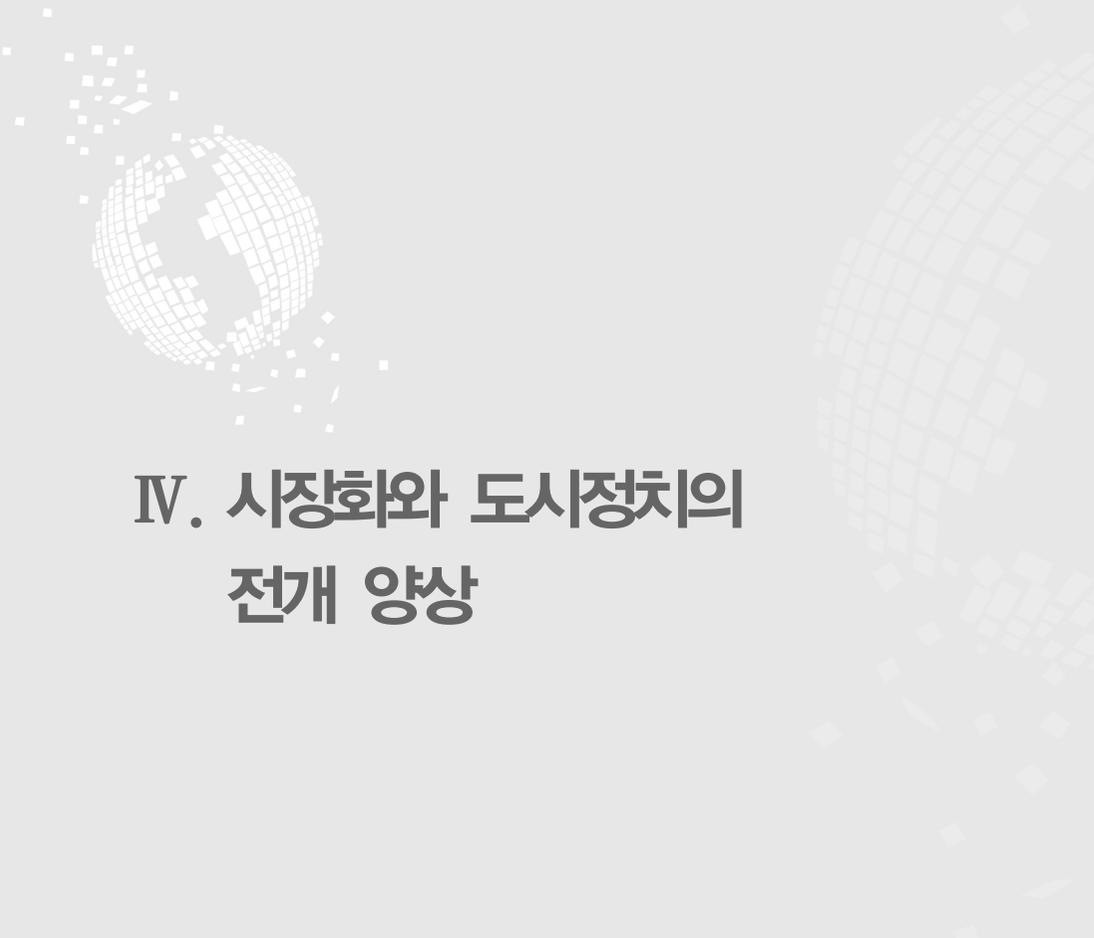
I
II
III
IV
V

들의 북한 화폐에 대한 신뢰가 급격하게 떨어진 것이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했다. 이제 주민들은 시장 활동을 통한 수익의 축적 수단으로 북한 화폐는 안정적이지 않다고 주민들은 보고 있다. 일상적인 소액 거래에서 북한 화폐가 사용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시장 거래에서 북한 화폐는 더 이상 신용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이제 안정적인 자본 축적 수단으로 외국 화폐가 시장 활동 전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 백성들도 무슨 장마당에서 남새 파는 것도 중국돈 받겠다고 그리고 장세도 이제는 중국돈으로 받겠다고 그런대요. 난 거짓말인줄 알았는데, 그리고 혜산에서 온 사람들은 쌀 가격이 얼마나 물어보면 저 국내 돈으로 얼마인지 몰라요. 중국돈으로 3원 50전, 4원이라. … 그건 얼마나 그러니까 제가 계산해서야 말하더라도,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이 이제 뭐 5년 전하고도 또 달라졌다고요(사례 3, 구술녹취록 2015 P01).

시장 교환의 기준 화폐로 달러나 위안화가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것은 지난 20여 년의 시장화 과정 속에서 형성된 시장 교환 시스템의 핵심적인 부분이었다. 시장화의 진전과 민간자본의 성장에서 자본 축적 수단으로서 화폐가 갖는 안정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 달러나 위안화가 거의 모든 공식·비공식 시장 거래에서 교환 화폐로 통용되고 있다. 오히려 북한돈 지불을 꺼려하는 현상이 일반화되고 있다. 심지어 공식적으로 시장관리소에 납부하는 장세도 중국 화폐로 납부할 것으로 요구하기도 한다.⁹⁰ 이런 달러화 현상의 심화는 북한 시장의 대외 시장과의 접점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외경제의 변화에 북한 시장이 반응하는 화폐적 공간상의 연계가 강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⁹⁰ “北당국, 외화 통제하면서 장세는 중국돈으로 받아,” 『데일리NK』, 2015.4.1.



IV. 시장화와 도시정치의 전개 양상

1. 시장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형성과 구도

가. 시장과 국가와의 이해관계: 민간자본과 국가기관의 유착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 시장 활동에 대한 통제가 느슨해지고 시장 및 장마당 매대수도 대폭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과거 김정일 정권 시기 엄격한 시장 통제와 허용을 오가던 것과는 사뭇 다른 정책을 펼치고 있다. 시장을 통제하지 않는 이유로는 주민들에게 인민생활을 많이 생각하는 ‘인민의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심어줘 민심을 사기 위한 목적, 당국은 시장 허용을 통해 수취되는 장세를 챙기기 위한 목적 등을 들 수 있다.⁹¹

국가와 도시시장과의 이해관계에서 핵심적인 것은 민간자본과 국가기관의 유착이다. 북한 시장화 초기에는 시장 활동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의 성장을 제어하는 정치적 견제가 강하게 작동했다. 기존의 법률적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제도적 형태의 견제뿐만 아니라 그때 그때 정치적인 결정에 의해 내려지는 시장 관련 조치 및 포고령 등에 따라 비사회주의 투쟁의 척결 대상으로 일부 돈주들을 표본적으로 처벌하고 재산을 몰수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견제해 왔다. 또한 권력기관의 시장 활동을 견제하기 위해 외화벌이 회사의 통폐합 조치, 고위 엘리트의 처벌 등도 함께 구사했다. 정리하면 김정일 정권 시기에는 기본적으로 시장에 대한 국가의 공격적 통제 통책이 다소의 정도 차이는 있으나 일관되게 유지되었다는 점이다.

⁹¹- 장세로 걸어 들이는 당국의 수입은 상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평성시의 경우 장세 수입으로 도와 시급 기관 종사자들의 월급을 준다고 한다. 보통 시에 있는 공장·기업소 생산을 통한 수익금이 은행으로 들어오고 국가 재정으로 들어와 월급이나 배급으로 나가야 하는데 시장의 장세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사례 3, 구술녹취록 2015 P01).

I
II
III
IV
V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이후 민간의 부와 권력기관 및 관료들과의 유착관계가 보다 긴밀해지면서 정치적 견제 장치가 형식화된 측면이 있다. 또한 2009년 이후 김정은이 본격적으로 집권을 하기 시작하면서 시장 통제보다는 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취한 것이 민간 자본과 권력기관과의 유착을 보다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시장 활동을 단속하고 관리·감독하는 소위 사법기관 및 사법일꾼들은 물론 거의 모든 국가기관 자체가 시장 시스템의 구성요소로서 기능하기 시작한 것이다. 현재 국가기관 및 국가기관 종사자들은 해당 관할 영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시장의 잉여를 수취하는 것으로 상호 연계되어 있다.

가령 도당위원회 내부에서도 인사 평정 권한을 가진 조직부, 간부부는 상대적으로 많은 뇌물 수수 기회가 있다. 공장 및 농촌 지도과는 해당 공장·농장으로부터 생산물과 쌀·고기 등을 뇌물로 받는다. 인민위원회 보건 관련 부서조차 유엔에서 들어오는 약품을 시장에 내다파는 것으로 시장 이익을 취하고 있다. 주민등록과는 등록 관련 업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익을 올린다. 인민보안부 계통의 경제감찰은 그 권한으로 막대한 기관 및 개인 이익을 취한다. 거의 모든 국가기관에서 위와 아래 상관없이 시장과 유착 또는 연계돼 시장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이다.

시장의 영역이 넓어지고 민간자본이 성장하면서 그만큼 국가기관과의 유착과 연계고리도 강하고 밀접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이런 유착과 연계 없이는 돈을 벌기 힘든 구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국가 자체가 위법적 시스템 안에서 작동하고 시장 이해관계에 밀접하게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을 적대적으로 처벌하거나 감시하기는 힘들어진 것이다. 권력기관 및 관료들과의 유착 자체가 시장 시스템의 하나가 된 것이다. 이렇게 유착과 연계를 통해 민간자본이 성장하고 국

가기관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민간자본 축적을 견제할 만한 장치가 사실상 무력해진 측면이 있다. 이러한 시장 시스템을 일반적인 관리·감독기관을 통해 통제하거나 견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사회주의 그루빠’와 같은 특별한 상설·비상설 사찰 조직을 통해서 견제하려고 하지만 이 역시 제한적이다. 부패의 연줄과 연계고리 안에서 자유로운 사찰 조직 활동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오히려 사찰을 명분으로 한 시장 잉여 갈취가 옥상옥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나. 시멘트 도시 순천의 도시정치

도시정치는 다양한 행위자들 사이의 연합과 동맹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것은 기관과 개인의 생존, 그리고 시장을 통한 자본의 축적을 구성하는 과정이다. 순천시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사람, 시장을 통해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사람은 바로 석탄 수출, 시멘트 장사, 평성에서 순천으로 도매를 뛰는 사람, 신의주까지 물건을 운송하는 사람 등이다. 사실상 이들이 순천이라는 도시의 자원을 상품화하고 그 상품을 전국적으로 연결하는 주역들이라고 할 수 있다. 순천은 자신의 자원을 내다 팔고 유통시키는 것을 통해 부를 축적한다면, 평성은 내다팔 보유 자원이 없기 때문에 시 외부에서 들여 올 수 있는 최대한의 상품을 평성에 모아 진열하고 흥정하고 판매하는 것을 통해 유통의 모터, 펌프 역할로 생존해 가는 도시라고 할 수 있다.

순천에서 소득을 챙기는 사람들은 시멘트 장사꾼, 석탄 장사꾼, 약장사, 그리고 기름장사꾼입니다. 원유장사꾼이죠. 순천에는 개인 주유소들이 많아요. 군대를 통한 이익이 뭐가 하면 그 비행장에서 나오는 항공석유를 디젤유하고 경유하고 막 섞어 가지고

I
II
III
IV
V

팔아먹는데, 그게 군대계통이 득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에 탄광이 하나 있어야 되고 의사가 하나 친하면 좋고, 역전에 하나 친하면 좋고, 경찰 하나 친하면 좋고 하는 게 그렇게 필요한 것들이 다 있잖아요(사례 1, 구술녹취록 2015 S01).

위의 북한이탈주민 면접 내용처럼 순천시 도시정치는 돈이 될 수 있는 석탄, 시멘트, 항공유, 약품 등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이해관계 속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순천시에 있는 군부대, 공장·기업소, 치안·보안계통, 일반 주민 모두 시장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이런 시장 이해관계를 놓고 권력기관, 공장·기업소, 주민들 사이에 협력과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대체로 시장으로부터 이익을 얻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공생한다. 가령 탄광연합기업소는 살림집을 건설해야 할 경우 필요한 시멘트를 석탄을 주고 시멘트연합기업소와 교환한다. 순천에서는 시장 네트워크를 통해 이런 교환이 이루어지면서 서로 이익을 보는 공생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순천시를 대표적인 공장·기업소, 국가기관들이 도시가 보유한 자연자원과 산업을 기반으로 어떻게 시장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생존해 가는가를 살펴본다.

(1) 순천시멘트연합기업소와 시멘트 시장의 형성

순천은 시멘트로 먹고 사는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순천시멘트공장(현재의 순천시멘트연합기업소)은 1974년 시운전을 시작했다. 소성로 설비는 덴마크의 1950년대 설비, 전기 및 조종계통은 일본제로 북한 무역성과 일본 오사카에 본사를 둔 종합상사 이토추와의 거래로 실현된 서방 플랜트 첫 수입이었다. 1990년대 초까지 국가계획에 따라 수출품 시멘트를 생산하던 순천시멘트연합기업소는 연 300만 톤 능력에 적어도 연 200만 톤을 생산하는 수준에 있었다. 대부분은 건재충국

의 시멘트 수출을 통해 남포항을 거쳐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비사회주의권으로 수출되었다. 1970년대 서방에 진 채무의 상환을 위해 외화획득 차원에서 수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어선이나 어뢰정 정도가 드나들 수 있는 조그만 남포항에 부두확장 공사와 선박 접안능력 증설을 위해 남포갑문(서해갑문) 건설이 이루어졌다. 순천과 서평양간 간선철도에는 해외수출용 순천 시멘트와 동평양화력발전소 발전용 순천 석탄이 계속 이동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자재, 전기, 자금, 배급 등이 힘들어지면서 생산성이 크게 악화되었다. 고난의 행군은 비공식적인 시멘트 시장이 형성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시멘트가 시장으로 유출되는 방식은 다양하다. 여기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규모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순천시멘트연합기업소 주변 일대가 거대한 시멘트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시멘트 시장이 형성된 원인과 배경은 다양하다. 우선 시멘트를 필요로 하는 건설 수요가 많다는 점이다. 계절적으로 봄이 되면 건설 수요가 증가한다. 겨울 내 얼었던 집들이 녹으면서 동파로 인해 부서진 집들이 속출하기 때문이다. 창고에 시멘트를 1,000톤 씩 쌓아 두었다가 수요가 많아지는 봄에 팔면 5~10배 높은 가격으로 팔 수 있다. 또한 시장이 발달한 평성시와 대규모 건설시장이 있는 평양에서 시멘트 수요가 많은 것도 순천에 시멘트 시장이 발달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개인들이 아파트를 지으려면 시멘트, 강재, 목재 3개가 기본 필수이다. 이 중에 시멘트는 공장에 가서 직접 구입하기 힘들다. 자재과에 가서 전표를 받아가야 하는데 오래 걸리거나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부분 시멘트 구입을 민간에 맡기거나 시멘트 공장 주변 동네에 가서 구입을 한다. 시멘트 공장 주변 동네에 가면 100톤도

I
II
III
IV
V

쉽게 구입할 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비공식적인 시멘트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은 생산된 시멘트가 유출되어 보관, 포장, 중개, 거래, 운송, 소비하는 것까지 하나의 자기 완결적인 시장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멘트가 공장의 출하장을 통과해 후문으로 나오는 입구에 차를 세워놓고 시멘트를 내려 바로 공장 주변에 있는 창고에 넣는 방식이다. 보통 개인집을 개조한 작은 창고 하나에 50~60톤 정도의 시멘트가 들어간다고 한다. 이렇게 시멘트 공장 인근의 개인집들은 대부분 창고로 개조되어 사용된다. 이곳 개인집들에는 아파트 및 살림집 건설에 필요한 자재 구입하려는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한다. 바로 이렇게 시멘트를 보관하고 판매하는 창고를 운영하는 사람들을 ‘시멘트 돈주’라고 부른다.

한편 순천시멘트연합기소는 공장 가동에 필요한 설비 및 자재를 마련하기 위해 생산한 시멘트를 시장에 대량으로 팔기도 한다. 공장의 자재 조달을 담당하는 사람에게 시멘트를 시장에 내다 팔아 자재를 구매하도록 권한을 주는 방식이다. 이들 기업소 자재과 사람들은 시장에 시멘트를 직접 파는 것이 아니라 공장 주변의 장사꾼들에게 시장가격으로 넘긴다. 그렇게 마련된 돈을 가지고 설비나 자재, 부품을 구입한다. 또 다른 유출 경로는 시멘트 공장 종사자들이 개인 도시락통, 장화 등에 시멘트를 몰래 담아 외부로 유출하여 파는 경우이다. 시멘트 공장 종업원들은 최소 1톤에서 10톤 가량의 시멘트를 자신의 집에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어떤 사람의 경우 300톤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아예 창고를 지어 놓고 보관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이렇게 유출되는 시멘트는 제작 공정 중 중간단계에서 석고가 들어가지 않는 것을 그대로 유출하는 경우가 많다. 당연히 품질이 조잡

할 수밖에 없고 이런 시멘트를 아파트 건설 공사에 쓰게 되면 부실공사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⁹²

(시멘트 품질이) 부실하죠. 그런데 그걸 모르고 샀다가는… 아파트 무너지는 것도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중간공정에서 시멘트 도둑질해 내는 거야. 다 만들어 낸 제품 뽑기 힘들니까. 그래서 그, 진품이야 가품이야 물어보는 거야. 그런데 뭐가 틀리냐 하면 가정집에 부뚜막이나 하고 그 보수하는데 그런대로 조금 써요. 그런데 그런 완성품이 아닌 거 아파트 짓는데 하면 고층 올라가는데 되게 위험하죠. 그것도 좋은 거 나쁜 거 가격이 달라요. 예를 들면 수출할 거 사겠다. 딱 포장까지 돼 있어요. 북한 포장 딱 돼 있는 거. 제가 왜냐면 시멘트 가지려 수… 몇 년 동안 다녀서 알죠. 그러니까 이걸 알기 때문에 북한 돈주들은 쪽오면 그 시멘트공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쪽 뒤쪽으로 가요. 가면 그저 짝 사람들 서 있어요. 거기에. 시멘트 얼마 있냐? 얼마 있다. 가 보자(사례 1, 구술녹취록 2015 S01).

(시멘트 시장) 굉장히 잘 형성돼 있죠… 308 베어링 제일 많이 써요. 멈췄어, 왜 돌아 안 가. 베어링이 나갔습니다. 하는 거야. 예를 들면. 그림 끼어라. 베어링 있어요? 그런 거야. 야 개새끼야 빨리 가서 시멘트 퍼주더라도 가서 시장에 가서 사오라 하면, 시장에 가면 다 있는 거야. 이게 북한구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심지어 자동차부속 있잖아요. 가다 착 서면 그거 시장에 가면 자동차부속 있어요. 그게 바로 북한 원리인데… 그 오히려 공장 부지배인은 한 달 생산하면 자기 수십 톤 그거 팔아먹을 수 있는 양을 할당 받아요. 지배인한테. 그걸 가지고, 너 이거 가지고 무조건 갖다 대라… 그놈은 싼고 나가서 신의주 가서 팔기도 해요. 그림 거의 한 1.2배 더 받아요. 그러나 바쁠 때는 이 시멘트공장 장사꾼들 옆에 끌어다가 니 얼마 출하해 주라 하고는 시장가격에 받아서 돈만 챙기죠(사례 1, 구술녹취록 2015 S01).

⁹² 이런 부실공사로 아파트 붕괴사고가 자주 발생해 왔다. 2007년 7월 해산시 아파트 붕괴사고, 2008년 평성시 아파트 붕괴사고, 2014년 5월 평양시 평천구역 아파트 붕괴사고 등 굵직한 대형 붕괴사고들이 있었다.



이와 같이 순천시멘트연합기업소는 공식적인 국영기업으로서의 생산 이면에 비합법적인 시멘트 유출을 통해 유지되고 있다. 순천시 주민들 또한 이런 시멘트 유출로 형성된 시장을 통해 생계 유지와 부의 축적을 하며 생존하고 있다. 순천시멘트연합기업소 일대 부근에 형성된 시멘트 시장이 운영되는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몽당장사

몽당장사는 밀천 없이 밤에 공장 순찰대와 결탁해 공장 내 시멘트 창고에서 등짐으로 시멘트를 절취하여 장사를 하는 것을 뜻한다. 하룻밤 한 무리가 100kg ‘등짐배낭’으로 움직이는 양은 20~40톤 정도까지 된다고 한다. 2008년 시멘트 1kg당 시장 소매단가는 70~100원이었다. kg당 도매가격은 50~80원이다. 시멘트와 입쌀은 각 10:1로 환산돼 시멘트 10kg에 쌀 1kg로 바꿀 수 있는 것이다.⁹³

② 하루별이꾼

‘하루별이’꾼은 시멘트 공장 인입도로와 시멘트 창고 주변, 시멘트를 부리는 철도화차 주변 등에 떨어진 시멘트를 빗자루로 쓸어 모으는 ‘이삭주이’꾼들을 일컫는 말이다. 이삭꾼들은 부지런히 하면 하루 1인당 30kg 정도의 시멘트를 도매가격으로 넘길 수 있다. 순천시멘트연합기업소에 도로의 20여 리 구간에는 새벽부터 밤까지 시멘트를 0.5~1톤 정도 운반하는 ‘구루마(리어카)’와 그 주인들이 줄지어 움직이며 수십 톤을 매일 나른다. 이들은 가는 도중에 넘겨 팔기도 하고 종점인 종합시장의 시멘트 매대까지 가져가 직접 팔기도 한다. 종합시장에서 팔

⁹³ 손혜민, “몽당장사의 등에 업힌 시멘트연합기업,” 『림진강』, 15호 (2012), p. 49.

리고 있는 시멘트는 주로 개인들의 주택보수나 주택건설에 쓰는 것이다.⁹⁴

③ 도매인 또는 되거리 장사

‘도매인’ 혹은 ‘되거리’ 장사는 교통이 편리한 공장마을(순천시멘트 연합기업소 주변 살림집)에 사무실을 내고 시멘트 장사를 한다. 이들은 아직 규모가 크지 않아 국내 수요를 대상으로 시멘트를 군부대와 중소상인들에게 판다. 이들은 공장 산업보위대, 몽당장사 및 이삭꾼 등 원천을 가리지 않고 시멘트를 사들인다. 불법적으로 시멘트가 후문으로 나올 때 부정 초과량 절반을 후문을 지키는 보위대에 주는 관행을 ‘직돈처리’라고 한다. 이렇게 받은 시멘트는 단골 도매인에게 넘겨 보위대 자금과 개인 이익으로 들어간다.⁹⁵

④ 왕데꺼

도매인이나 되거리 장사가 성장하면 소위 ‘왕데꺼’라는 큰 상인이 된다. 국영 시멘트 공장에서 생산된 시멘트를 ‘차판’(철도화차나 대형 트럭)으로 크게 취급하면서 이윤을 챙기는 상인이다. 이들의 고객은 국영(무역)회사들이나 군부대이며 유통 범위도 다른 도나 북·중 접경 지대 등 전국을 다 포괄한다. 무역회사들은 수출을 위해 시멘트를 구입하고, 군부대나 지방에서는 자체 건설을 위해 시멘트가 필요하다. 왕데꺼는 정보교환 및 운송 등에서 협력체계를 가지고 있다. 가령 남포에 있는 회사로부터 시멘트 화통 3개를 요구하는 주문이 들어온다. 국영 무역회사가 국영기업소에서 생산하는 대외 수출용 시멘트를 개인

⁹⁴- 위의 글, pp. 50~51.

⁹⁵- 위의 글, p. 52.

I
II
III
IV
V

상인인 왕데꺼에게 주문한다는 것은 과거 계획경제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현재 무역회사가 시멘트를 비롯한 국영기업 생산물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런 개인 상인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⁹⁶

⑤ 왕초

‘왕초’는 시멘트 공장 후문이나 인근 화물역에 살면서 수백 톤 가량의 재고를 집 주변 개인창고에 보관하고 유통시키는 개인기업에 해당한다. 시장에서 그들을 속칭 ‘왕초’라고 부른다. 왕초는 국영기업 운영에 직접 및 간접적으로 참여한다. 시멘트 공장에 필요한 장비, 부품, 석탄 등을 구해주는 대가, ‘공장 운영자금’을 마련해 주는 대가로 시멘트를 대량으로 받아 이익을 챙기는 것이다.⁹⁷

⁹⁶ 주문을 받은 왕데꺼는 수출 시멘트 화차에 요구하는 시멘트를 신속하게 상차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시멘트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동업자들에게 역까지 운반해서 가져오도록 한다. 이렇게 다른 유통업자들의 시멘트를 팔아 줄 때는 kg당 10원이라는 거간비 및 판매 소개비를 지불한다. 물량을 확보한 후 상차 노동력으로 ‘일공’들을 동원하여 상차작업을 조직한다. 상차공은 역전 부근에 대기하고 있는 ‘일공시장(노동시장)’이 있기 때문에 쉽게 구할 수 있다. 시멘트 상차 노동의 일당은 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시간당 5,000~10,000원 정도이다. 위의 글, pp. 53~54.

⁹⁷ 시멘트 공장에서 소성로 대형선풍기 특수 베어링이 나가면 군수공장에 시멘트 70톤을 주고 베어링을 가져온다. 시멘트 공장에 필요한 자재와 부품을 전담 증개해 주는 역할을 하고 시멘트로 대가를 받아 시장에 유통시키는 사람들도 있다. 공장에서는 ‘운영자금 확보’ 명분으로 시멘트를 철도화차 ‘빵통’으로 뽑아 주기 시작했다. “시멘트 빵통을 까다”라는 시장용어는 “공장에서 시멘트를 공식적으로 판다”는 뜻을 가진 은어였다. 또 어떤 왕초는 시멘트 공장에 주요 원료인 석탄을 보장하는 것을 통해 돈을 번다. 가령 여름에 석탄을 공장에 공급하고 대금을 후불로 받기로 하고 겨울에 가서 그 값에 해당하는 시멘트를 받는 방식이다. 여름에는 석탄이 싸고 겨울에는 시멘트가 싼 가격공간을 이용하여 이익을 챙기는 것이다. 위의 글, p. 57.

⑥ 보관 장사

시멘트 보관을 전문업으로 하는 개인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왕초들에게서 차로 사들여 보관한 다음 그 시멘트를 한 계절이 지난 다음 값이 오르는 계절에 팔아 이윤을 남긴다. 겨울과 장마철을 이용하여 시멘트를 사면 봄이나 가을보다 가격이 절반가량 싸기 때문이다. 보관창고로는 도로 옆에 있고 쓸모없어진 공공건물을 임대하거나 개인들이 짓고 임대를 주는 것이 기본 형태이다.

⑦ 포장공

개인 보관업자가 고용하여 시멘트를 전문 포장하는 일공(일용 노동자)을 포장공이라고 한다. 한 개인기업에 고용되는 포장공들은 보통 3~5명이다. 작업공정은 분업이 잘 조직되어 거의 흐름식으로 능률적으로 진행된다. 삽질 전문공, 계량공, 코바늘로 지대를 봉조하는 일공, 옥내 운반공, 생산수량을 집계하는 입고원 등이다. 포장시멘트는 ‘정포장’이기 때문에 양질품으로 인식되고 kg수 조절로 이윤도 챙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⁹⁸

⑧ 지대장사

지대장사는 종이로 된 지대와 폴리마대 등 포장용기를 판매하는 개인기업이다. 종합시장에서 ‘시멘트 종이(그래프트지)’를 사서 규격대로 재단하고 등사기로 상품명을 찍은 다음 재봉으로 누벼 완성하여 보관업자에게 직접 혹은 시장에서 판매한다. 지대는 수출용 포장에 쓰이고 국내유통용 시멘트는 쌀 마대나 밀가루 마대를 수매하여 재이용한다.

⁹⁸ 위의 글, p. 58.

쌀 및 밀가루 마대는 제과업자들에게 선불하여 회수하거나 장마당에서 사는 방법으로 구매한다. 쌀 마대로는 주로 남한에서 들어온 것을 양질로 치며 장당 400원에, 중국에서 들어온 밀가루 마대는 저질로 장당 200원에 구매 받는다.⁹⁹

⑨ 시멘트 상인을 위한 봉사업

시멘트 공장은 공공의 밑천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큰 유통업자들을 위한 식당여관을 꾸리는 것이다. 외지에서 출장 온 유통업자들의 숙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대기집은 공장 주변에 중소 시멘트업자들을 위한 편의봉사업이다. 대기집에서는 돈주들의 지갑을 열게 하는 고급음식 접대, 거래 상담 장소 등으로 활용된다. 대기집은 신용거래가 돼 숙식비를 나중에 시멘트로 줄 수 있다.

(2) 군부대와 도시의 공생관계

순천에는 비행부대가 2개, 헬기부대가 1개, 탱크부대 4개 등이 입지하고 있다. 비행장만 3개, 군단급 병원 2개가 있다(사례 1, 구술녹취록 2015 S01). 평양 수도권 방어 차원에서 부대가 많이 입지하고 있다. 군사적으로 중요한 도시이며 요충지라는 것을 의미한다. 부대가 많이 입지하고 있다 보니 부대에서 유출되는 항공유가 다른 곳에 비해 많을 수밖에 없다. 특히 공군부대로부터 유출되는 항공유를 거래하는 시장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 부대의 간부부터 병사들까지 가능한 수준에서 부대의 항공유를 불법적으로 시장으로 유출하고 있다.

순천에 입지한 부대들로부터 석유가 시장으로 유출되는 방식은 다

⁹⁹- 위의 글, p. 59.

양하다. 부대에서 연유(항공유)를 담당하는 연유부장을 통해 시장으로 유출되기도 하고 부대 운영에 필요한 물자를 마련하기 위해 부대장의 직간접적인 묵인 아래 유출하기도 한다. 한편으로 많은 경우 군인들이 훔쳐 가지고 나오는 경우도 있다. 가령 일반 병사들의 경우 유류창고를 담당이 허술한 틈을 타 2kg 정도 들어가는 통에 항공유를 몰래 담아 나와 부대 주변에 있는 군인 가족들이 사는 사택에 가서 항공유를 주고 빵으로 바꾸기도 한다. 군인 사택에 있는 장교 부인들이 유출되는 항공유를 받아 시장에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가령 1kg당 2,000원에 사서 시장에 2,500원에 내다 파는 방식이다. 병사 이외에 중대급 부대 장교들은 부하를 연유창고로 보내 고무배낭에 20~30kg 정도 항공유를 몰래 담아 나온다. 항공유를 유출하여 마련한 돈으로 순천 시장에 가서 중대에 필요한 물품이나 뇌물용으로 필요한 담배를 마련한다.

그 위로 연대장급 간부들은 공식적인 비행훈련 횟수를 속여 항공유를 따로 비축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항공유를 판다. 가령 20회 비행훈련 명령이 떨어지면 15회 정도를 진짜 훈련을 하고 나머지 5회는 실제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항공유를 비축해 두었다가 시장에 판다. 이렇게 마련한 돈은 부대 정치위원, 연대장, 보위부장 등과 함께 나뉘 갖는다. 계급이 올라갈수록 항공유를 빼돌리는 양이 커진다. 빼돌린 항공유는 부대 트럭을 이용하여 항공유 거래만을 전문적으로 중개하는 브로커(거간꾼)의 집으로 운반된다. 대체로 브로커의 집에서 바로 가격 흥정이 이루어지고 그 자리에서 현금 거래가 이루어진다. 심지어 이런 거래가 연대장 운전기사를 통해 이루어지기도 한다. 부대 연유소장(대위급)이 연대장이나 정치위원에게 잘 보이기 위해 연대장 운전기사를 이용해 항공유를 돈으로 바꾸게 하고 연대장에게 돈이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다(사례 4, 구술녹취록 2015 S02).

I
II
III
IV
V

이렇게 부대에서 유출된 항공유는 시장으로 유통되어 순천뿐만 아니라 평성과 같은 인근 도시들에 공급된다. 이렇게 유출된 항공유의 양만큼 부대 연유탱크에는 물을 타서 연유의 보유량을 유지한다. 한 증언에 따르면 연유탱크의 약 20%만 진짜 항공유이며 나머지는 다 물로 채워져 있다고 한다. 이렇게 물과 섞인 항공유를 실제 비행기에 주유하게 되면 고장이 나기 때문에 물에 섞이지 않고 위에 뜬 기름만 사용한다고 한다(사례 9, 구술녹취록 2015 S03).

또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연유 소대급에는 소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소장이 연유를 다 이렇게 나가는 걸 다 체크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특히 연대장한테 잘 보이겠다 하면 200킬로 석유를 줘요. 기사한테. 그럼 그 기사는 팔아다가 연대장에게 돈을 갖다 줘요. 어떻게 또 정치위원한테 더 잘 보여야 된다. 그럼 400킬로를 내보내요. 급마다 약간씩 다르고 몰래 인사하는 급이 또 달라요. 그러니까 기본 하는 거는 연유소장이예요. 이 연유소장으로 해서 나가야되잖아요. 이 연유소장도 이 사람들한테 뇌물을 줄 땐, 나도 뜯어 먹었으니까 너네도 먹고 입을 봉인 해라 이거죠(사례 4, 구술녹취록 2015 S02).

항공유가 유출돼 시장에서 유통되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 순천시에서 군부대와 시장은 나름대로 긴밀한 공생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대 내 다양한 필요와 이해관계에서 시장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군부대와 시장의 유착 고리가 없다면 부대의 운영·유지가 힘든 상황이다. 군부대와 시장의 긴밀한 유착관계의 형성은 부대 운영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가령 상급부대인 사단에서 하급부대로 수시로 검열을 내려오면 뇌물로 담배를 일상적으로 요구하는데 이런 뇌물용 담배는 시장에 나가지 않으면 구하기 힘들다. 또한 위로부터 부대에 공급되는 부식만으로는

양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시장을 통해 부식을 조달할 수밖에 없다. 공식적으로 공급되는 피복도 품질이 좋지 않아 쉽게 찢어지고 상해서 부대에서 자체적으로 교체해 주어야만 한다. 따라서 시장에서 천을 사다가 군복을 자체 제작해 입어야 한다. 각종 훈련 때 필요한 노트 역시 분대장들이 자체적으로 시장에서 구입을 해야만 한다. 기본적인 부대 운영에 시장이 없으면 힘든 것이다(사례 4, 구술 녹취록 2015 S02).

(3) 국가기관의 시장교환 대행 현상: 순천시 상업관리소 사례

도시의 상업관리소는 도시 주민들이 먹고 입고 쓰는 기본적인 물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¹⁰⁰ 국가의 공식적인 상업 유통망인 이 상업관리소의 운영 실태를 통해 도시정치에 한 양상을 단면적으로 볼 수 있다. 순천시 상업관리소 산하의 상점은 식료상점, 건재상점 등 총 70개가 있다.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만 약 1,000~1,500명 정도 된다. 상업관리소장 밑에 지배인 7명, 각 상점 책임자 70명이 있다. 순천시 상업관리소는 인구 약 28만 명, 약 7만 세대에게 1차 소비품인 간장, 된장, 학용품, 교복과 2.16(김정일 생일), 4.15(김일성 생일) 명절 배급용 사

¹⁰⁰ 인민위원회 상업과(부)와 상업관리소는 모두 '상업' 관련 일을 보지만 기본적으로 역할에서 차이가 있다. 상업관리소는 국가에서 생산한 것, 유엔과 같은 국제사회 지원 물자 등을 주민들에게 공급하는 역할이라면, 인민위원회 상업부는 중앙당이나 상업성으로부터 내려온 상업 관련 정책을 집행하고 그것이 잘 집행되고 있는가를 감시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인민위원회 상업부는 상업관리소, 급양관리소, 편의관리소(사우나, 찜질방) 등 상업부문에 대한 관리정책 집행, 김정은 말씀 전달 집행 등을 하고 실제 물자들을 가지고 수행하는 건 없다. 반면 상업관리소는 실제 물자를 가지고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가령 농장에서 남새 100톤 생산했다면 이것을 수매하여 식료상점을 통해 주민들한테 국정가격에 팔고 공급하는 일을 한다. 인민위원회 상업부는 상업관리소 및 산하 상점들이 제대로 일을 집행하고 있는가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I
II
III
IV
V

탕가루 공급 등을 기본적으로 한다.

상업관리소의 직속 상급기관은 도지구도매소, 평양에 있는 중앙도매소, 그리고 더 위로는 내각의 상업성이다. 시에 구역이 있는 경우 구역별로도 상업관리소가 있다. 운영체제는 다음과 같다. 전국의 각 공장·기업소에 만든 옷, 비누, 화장품, 구두 등을 중앙도매소가 관리한다. 중앙도매소는 전국에서 생산된 것을 중앙도매소 창고에 들여다 놓고 전국으로 배분하여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이때 중앙도매소에 들어가는 물건을 만드는 공장이 있는 해당 도시에서는 중앙도매소의 지령에 따라 공장으로부터 직접 물건을 받는다. 중앙도매소는 상업성으로부터 지표별 지령을 받아 그 지령에 따라 분배하고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기본 공급체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매우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었다고 한다. 면담에 응한 순천시 출신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남북관계가 좋았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시기에 북한으로 물자가 많이 들어 올 때, 한국에서 들어온 물자는 평양에 있는 중앙도매소를 통해 순천시 상업관리소와 산하 70개 상점을 통해 주민들에게 공급되지 않았다고 한다. 중앙도매소로부터 내려온 한국의 지원 물자들은 순천시 상업관리소에서 70%는 장마당에 내다 팔고 30%는 간부들에게 주었다고 한다(사례 10, 구술녹취록 2015 S04).

중앙도매소를 통해 공급되는 북한에서 생산한 물자의 경우에도 주민들에게 공급되지 않은 채 시장으로 유통되고 있다고 한다. 가령 중앙도매소에서 공급 물자가 내려와도 시장관리소 산하 각 상점에서 주민들한테 공급하기 위한 운수기지(차량)가 따로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차를 사고 운행에 드는 경유를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주민들에게 공급할 물건 일부를 장마당에 내다 팔아 공급에 드는 비용을 마련한다고 한다. 예를 들면 순천시 용악상점에 상업관리소로부터 10,000장

의 비누가 들어오면, 여기서 1,000장 정도를 상점 책임자가 장마당에 내다 팔아 경비를 마련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공급에 필요한 경비 마련에 대해서는 검찰소에서 검열이 나와도 문제 삼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공급에 드는 경비 마련 이외에 상점 책임자가 자기 개인 이익을 위해 시장에 물자를 파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 이런 물자들은 시장가격으로 거래돼 팔리게 된다. 시장에 나오는 물건의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국가에서 시산업관리소로 공급한 상품이 나온다. 시산업관리소 산하 국영상점에서 파는 비누의 국정가격은 1원 정도로 거의 공짜나 다름없지만, 시장에 가면 40원 정도 한다. 거의 40배의 차이가 나는 것이다. 국정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 때문에 상업관리소는 공식적인 공급 물품을 시장으로 유통하여 수익을 올리는 데 열중하게 된다. 가령 한 세대 당 1개월에 4장씩 비누가 공급될 수 있도록 내려오지만, 실제로 2장 정도만 공급한다. 나머지 2장은 상업관리소에서 주민들에게 공급하지 않고 시장에 내다 팔아 수익을 올린다.

신발도 주고 비누도 주고 된장도 주고 간장도 주고, 이거는 무조건 (국가에서 나오는대로) 공급됩니다. 북한이 암만 폐쇄됐어도. 그런데 그거를 무조건 어느 정도는 (시장에) 판다 말입니다. 그런데 검찰소에서도 검열 나오는데, 그 정도는 이렇게 자기가 먹지 않고 판 거는 봐준다 말입니다. 그런데 상점 책임자가 해서 자기 안 먹을 수가 없지, 부정축재. 그렇게 한 게 장마당으로 나가자, 말하자면. 사실 장마당에서는 나올 데가 없잖아요. 물건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중국에서 밀수 들어 온 거하고, 그 다음엔 상업관리소 ... 이제 뭐 70개 상점 책임자들이 다 장사꾼이니깐, 상점 다 끼고 하거든요. 신발, 비누 이런 거 다 장마당으로 흘러 나가자. 뭐 일체 다 천으로부터 시작해서 장마당치는 상업관리소에서 다 나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사례 10, 구술녹취록 2015 S04).

I
II
III
IV
V

이렇게 상점에 들어온 물건 중 실제 주민들에게 공급하는 것은 약 20% 불과하고 나머지는 상업관리소와 상점 책임자가 재량껏 장마당에 팔아 기관에 필요한 경비 마련, 자기 이익을 챙기는 것이다. 문건상으로는 주민들에게 공급한 것으로 처리한다. 물론 검찰소를 비롯해 여러 기관에서 수시로 검열이 나오지만 실제 검열보다는 오히려 뇌물을 받기 위해 나오는 경우가 많다. 상업관리소 및 국영상점은 이들에게 뇌물을 주고 주민들에게 국정가격으로 공급해야 할 상품을 시장에 팔아 수익을 올리는 것을 묵인 받는 것이다. 일종의 시상업관리소와 검찰 및 사법기관의 공생관계가 법적·제도적 공급체계를 사실상 형해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상업관리소의 불법적인 물자 유출로 형성된 이런 시장 이해관계와 이를 둘러싼 도시정치는 시상업관리소와 산하 상점들 사이의 관계에서도 나타난다. 시상업관리소 산하에 있는 각 상점의 책임자들은 다양한 권력기관의 배경과 연줄을 보유하고 있다. 상업관리소의 일방적인 지시·감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상점 책임자가 도시 권력기관과의 다양한 연줄을 통해 자체의 세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상점 책임자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인사권한을 가진 시상업관리소장에게 뇌물을 바치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다. 여기에 시당위원회 책임비서, 시검찰소장, 시보안서장 등 주요 권력기관 간부들도 뇌물을 통해 관리한다. 그리고 대체로 상업관리소 일꾼 및 상점 책임자들은 시 권력기관 주요 간부들의 부인이나 친척들이 거의 차지하고 있다. 사실상 상업관리소의 물자 유통을 둘러싼 이해관계는 시 권력기관들 사이의 이해관계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시 권력기관이 상업관리소와 국영상점 책임자들과 연결돼 있고 협력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상업관리소 운영과 관련하여 2000년대 이후 나타난 특징 중 가장 주

목할 부분은 국영상점의 자율성과 개인 소유화이다. 대부분 상업관리소 산하 상점의 책임자는 상업관리소장이 투자 능력이나 연줄을 많이 가진 사람을 임명한다. 이렇게 임명된 상점 책임자는 자신의 돈으로 인테리어, 물건 구입, 진열 및 판매 등을 한다. 따라서 상업관리소장이 상점 책임자를 해임하게 되면, 상점 책임자가 상점에 투자했던 것을 그대로 다 돌려주어야만 한다. 사실상 상업관리소장이 인사권한을 가지고 상점 책임자를 임명은 하지만, 상점의 운영과 관련한 모든 것은 상점 책임자가 개인 투자를 통해 독자성과 자율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상업관리소 산하 상점들이 일정 부분 개인 소유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순천시 상업관리소 산하 70개 상점 중 30%는 이런 형태의 개인 소유라고 한다. 명목과 형식은 국영상점이지만 사실상 개인화된 상점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상점을 다른 사람에게 팔수도 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상점 책임자의 자리와 투자한 것만큼을 돈으로 사고 팔수 있다는 것이다(사례 10, 구술녹취록 2015 S04).

시상업관리소는 시장화가 심화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국영상점의 자율성과 개인 소유화를 이용하면서 국가와 시장을 연결하고 시장 네트워크를 확장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가령 순천시 상업관리소장은 자기 산하 상점들을 통제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매주 회의를 개최하여 산하 70개 상점 책임자와 지배인을 모이게 한다. 회의를 통해 소장은 여러 명목으로 돈 상납을 요구한다. 예를 들면 어떤 일로 필요하니 1,000달러씩 내라고 요구한다. 70개 상점 책임자들은 해임되지 않기 위해 달러로 상납을 한다(사례 10, 구술녹취록 2015 S04). 보통 상업관리소는 국가기관 이름으로 허가된 상업 활동을 하기 때문에 시당국 차원에서 검열이나 단속을 하기 쉽지 않다. 중앙은행 지점에서도 필요한 만큼 대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확보된 자금을 가지고 상업관리

I
II
III
IV
V

소는 북중접경을 통해 보다 큰 규모의 시장 거래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행한다. 상업관리소를 통해 들어오는 물자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들이 시장으로 유통시키는 물자의 양도 많을 수밖에 없다. 국내 시장 유통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작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시장화가 심화되면서 사실상 시상업관리소가 공인된 시장세력으로 시장 활성화를 주도하는 주요한 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시상업관리소가 도시 시장과 시장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기본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다. 상업관리소는 중앙도매소에서 공급받는 몇 가지 물품 이외에 대부분의 물품을 중국을 통해 들여온다. 지방공장은 거의 가동이 중단돼 선물 생산에 필요한 공장 정도만 전기가 공급돼 돌아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상업관리소 공급 물품은 중국 대방과의 직접 거래를 통해 들여온다. 이렇게 중국에서 들어 온 물품은 시장가격으로 상점에서 판다. 중앙도매소에서 공급하는 신발이나 학습장 같은 국내 생산 물건의 경우 상점에서 국정가격에 팔지만 중국에서 들여 온 물건은 시장가격으로 파는 것이다. 중국 시장가격으로 달러로 지불하고 들여 온 것이기 때문에 국정가격으로 팔 수가 없는 것이다. 시상업관리소는 신의주나 중국에 나가서 대방과 직접 거래해서 필요한 물건들 사와서 시장에 바로 내놓기도 하고 상업관리소 상점을 통해 시장가격으로 팔기도 한다. 상업관리소를 통해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건은 식료품부터 냉장고, TV, 오토바이 등 거의 모든 품목이 해당된다(사례 10, 구술녹취록 2015 S04). 심지어 식용 기름을 10톤을 들여오는데 중국 무기공장에서 무기 열처리에 쓰였던 기름을 구입해 식용으로 팔아 유통시키기도 한다.

중국 대방과의 거래시 필요한 달러는 다양한 방식으로 조성한다. 가령 상업관리소장이 시장에 물건을 팔아 마련한 돈으로 중앙은행을 통

해 달러로 환전을 하기도 한다(사례 10, 구술녹취록 2015 S04). 그러나 대부분 국내 시장에서 마련한 북한돈을 신의주로 가져가서 중국 화교를 통해 약 40대 1 정도로 달러 환전한다. 북한 돈을 받은 화교들은 중국으로 가지고 들어가 팔 잣, 약초, 동, 철 등과 같은 북한 물품을 북한에서 구입하는 용도로 북한돈을 사용한다.

상업관리소는 국내 시장 및 중국 대방과의 시장 거래를 통해 확보한 자금을 우선 기본적인 운영자금으로 사용한다. 명절에 주민들에게 공급할 술 마련, 상업관리소 보유 농장의 농사에 필요한 비료 구입, 상업관리소 활동에 필요한 차량의 구입, 도당 책임비서, 도인민위원장, 중앙검찰소 등 주요 권력기관 간부들에게 바칠 뇌물 비용, 중앙당에 상납할 몇 천 달러의 상납용 자금 등을 위해 다양한 시장 거래를 한다(사례 10, 구술녹취록 2015 S04). 물론 상업관리소장 및 상점 책임자의 개인적인 이익 용도로도 쓰인다.

한편 상업관리소의 최근 시장 활동 중 주목할 부분은 민간의 시장교환을 대행하는 역할이다. 상업관리소는 대부분 민간 장사꾼들의 의뢰를 받아 대방과의 거래를 대행하는 역할을 한다. 그 대행 과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장사꾼들이 상업관리소에 다양한 품목의 물건을 중국을 통해 구입해 줄 것으로 부탁한다. 이렇게 상업관리소에 장사꾼들이 부탁하는 이유는 필요한 물건을 신의주와 같은 북·중 접경도시까지 가서 중국 대방과 거래하여 일일이 구입하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들어 수지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 장사꾼들이 필요로 하는 여러 품목의 물건을 한꺼번에 상업관리소에서 의뢰를 받아 거래를 대행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상업관리소나 산하 상점 책임자에게 부탁한 물건들이 모이면 큰 규모가 된다. 상업관리소는 컨테이너 차를 가지고 국경으로 장사 대행을 위해 떠난다. 사실상 국가 공식 상업기관이 민간 장

I
II
III
IV
V

사꾼들의 국경무역과 시장 거래를 대행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평성시, 순천시, 청진시 모두에서 장사꾼들이 국가 상업기관을 이용해 장사를 대행하는 현상이 발견된다.

(4) 마약도시의 시장 메커니즘

기존에 마약으로 악명이 높았던 도시는 함흥시였다. 2000년대 들어서는 순천시가 마약으로 유명세를 치르고 있다. 순천이 마약으로 유명해진 것은 순천의 제약공장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순천제약공장은 북한에서 유일하게 페니실린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순천제약공장에서 종사했던 사람들이 이 공장에서 나오는 화학재료를 가지고 페니실린을 만들어 전국의 시장에 유통시킨다. 또한 이들은 ‘빙두(마약)’ 제조법을 터득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 제조법을 팔아 전수하여 마약 확산의 핵심적 역할을 했다. 마약장사를 통해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마약장사가 보다 활성화되었다고 한다. 순천시 주민들의 소비 수준이 높아진 데는 이런 마약장사의 수익 덕분이란 얘기도 있다(사례 10, 구술녹취록 2015 S04).

순천시에서 마약은 순천제약공장이 위치한 순천시 연봉동 일대 개인집들에서 주로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약은 냄새 때문에 개인이 제조할 경우 숨기기 힘들다고 한다. 어디서 제조하든 발각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 마약 제조를 보호해 주는 비호기관을 끼고 조직적으로 생산할 수밖에 없다. 검찰소, 보안부 등 사법기관의 비호가 없으면 제조가 불가능하다. 그만큼 비호세력이 탄탄하지 않으면 위험을 감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국 차원에서 마약 단속을 위한 ‘비사회주의검열 그루빠’를 조직해도 이런 비호세력과의 결탁으로 인해 마약 제조는 근절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개인 마약 제조자, 판매·유통

브로커, 비호기관 등 일종의 단단한 ‘마약 커넥션’이 도시 내부에서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생산자, 유통자, 비호자 등이 결합한 커넥션이 고수익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형성된 자금은 시장의 화폐와 물자 흐름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마약은 위험도가 높은 만큼 수익성 역시 높다고 할 수 있다. 순천시에서 생산된 마약은 대부분 중국으로 밀수출된다. 이 밀수출 과정에 개인부터 국가기관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연루된 커넥션이 은밀하게 작동한다. 가령 상업관리소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중국 대방의 거래에 마약이 끼워져 밀수출되는 방식이다. 상업관리소라는 국가기관의 거래에는 대체로 단속이 약하거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 오다 이제 단속돼요. 초소에서. 마약장사 하는 것도 있거든요. 내가 나선다고 가서, 놔 줘라. 그러니까 북한은 마약장사도 막 되는 거야. 도중에 국가 장사하는 거니까 거기다 마약도 실거든. 마약 1kg 하게 되면 뭐 얼마 되지 않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한 2kg 실거든. 이렇게 되면 그게 뭐 물자 한 차 실어온 거보다 더 많은 돈 되니까(사례 10, 구술녹취록 2015 S04).

다. 도시 기동타격대의 등장과 도시정치

도보안국 기동타격대는 도시 소요 및 폭동 진압, 그리고 비법적 행위 및 비사회주의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2009년 전후 각 도시에 설치되었다. 현재 인민보안부 조선인민내무군 산하에 편재되어 있으며, 김정은 후계자 시절인 2009년 4월에 기동타격대가 처음 조직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2011년 2월에 인민보안부 조선인민내무군 산하로 정규 편성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 ‘기동타격대’라는 명칭이 처음 등장한 것은 거슬러 올라가

I
II
III
IV
V

면 2005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에 걸쳐 김정일과 중앙당 특별지시를 받은 인민보안부 검찰국에서 인민보안부 산하 정치대학 검찰반 졸업생들을 동원하여 비상검열 기동타격대를 편성하여 개성시에 파견하면서부터이다. 이 당시 기동타격대는 상설조직이 아닌 3개월 가량 비상검열을 위한 한시적인 조직으로 운영되었다.¹⁰¹ 원래 특정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조직되었던 기동타격대가 정규 편성되면서 각 도 인민보안국 산하에 조직되었다. 기동타격대가 도시 전반에 대한 치안체제의 하나로 등장한 것이다.

이런 기동타격대의 신설 배치는 인민보안부의 위상을 격상하는 과정과 동시에 볼 필요가 있다. 원래 내각 소속이었던 인민보안성이 2010년 4월 인민보안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인민무력부, 국가안전보위부와 함께 국방위원회 직속으로 편제되면서 격상된 바 있다. 조선인민내무군 역시 2010년 4월 인민보안성 조선인민경비대에서 인민보안부 조선인민내무군으로 개편하면서 나온 조직이다. 인민보안부의 격상, 조선인민내무군으로의 개편, 그리고 기동타격대의 정규 편성이라는 일련의 과정은 사회 치안 조직 강화 차원에서 보았을 때, 김정은 정권 들어 나타난 변화 중 가장 주목해 보아야 할 대목이다.

도시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소요나 폭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2011년 전후로 대대 규모의 정규적인 기동타격대 형태로 조직한 것으로 보인다. 폭동 진압을 할 수 있도록 중무기로 무장을 하도록 했다.

¹⁰¹ 중앙당 특별지시를 통해 이 당시 기동타격대에게 부여된 임무는 개성 소재 옛날 모들을 도굴하여 각종 국보급 문화유산인 골동품을 해외로 파는 범죄 행위를 색출하여 체포하는 것이었다. 한편 인민보안부가 직접 투입되지 않고 정치대학을 졸업하고 아직 배치되지 않은 학생들로 기동타격대를 편성하여 파견한 것은 아직 부패와 뇌물에 길들여지지 않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 비상검열에서 공을 세우면 졸업할 때 중위 계급을 주고 표창으로 상위 군사칭호를 주고 평양시에 배치한다고 공포하고 파견했다.

기존에 각 도시의 치안을 담당하는 현역 보안원들이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아 도시 전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 활동에 대한 관리·통제를 수행하는 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도심 한 가운데 중무장한 젊은 군인들로 조직된 대대급 기동타격대를 설치한 것은 도시에 대한 통치상의 정치행정적 관리에서 일대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기동타격대는 특정 지역이나 장소에서 주민들의 소요가 일어날 경우, 군의 개입에 앞서 1차적으로 주민들을 저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직된 상설적인 전투경찰의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기동타격대는 이외에도 도시 전반에 대한 물리적 통제·관리 측면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주로 폭동이나 소요가 발생하면 주모를 색출·제거하거나 중심을 와해시키는 임무를 수행한다.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일반 보안원과 달리 젊은 제대군인, 정치대학 졸업반 학생들로 주로 구성돼 있어 충성도, 기동성, 무장력 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주민 도시생활 공간에 대한 물리적 통제력 측면에서 기존 보안서 체계보다 훨씬 강력해졌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시장에 대한 통제에 동원되고 있다. 주로 매해 주요 정치행사에 맞춰 시장 운영시간을 축소 운영할 때 이에 대한 통제 업무에 동원된다. 가령 2015년 10월 10일 당창건 70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건설현장에 필요한 노력 동원을 위해 새벽시장을 폐쇄하고 시장을 오후 4~9시까지만 운영하라는 지시가 내려진 바 있다. 도보안국 기동타격대가 동원돼 청진 새벽시장에서 거래되던 농수산물들을 차량을 모두 몰수하기도 했다.¹⁰² 시장 및 장마당과 같이 사람들이 왕래가 잦은 곳을 집중 순찰하고 검문도 벌인다. 이런 기동타격대의 활동은

¹⁰² “북, 당창건 행사 위해 장마당 축소운영 지시한 듯,” 『뉴시스』, 2015.8.10.

기존 시·군·구역의 검열과 단속 등을 담당하는 인민보안서 내 순찰대 등의 임무와 겹치면서 조직간 알력 다툼도 발생하고 있다. 둘째, 국경 도시에 있는 기동타격대의 경우 당창건 기념일을 앞두고 필요시 국경 경비에도 동원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셋째, 마약, 매음, 숙박검열 등 비 사회주의 행위 및 사회 풍속에 대한 단속 활동을 한다. 종합그루빠(합동검열반)와 함께 시장 주변 야간 숙박검열, 몸수색, 가택수색 등을 한다.¹⁰³ 평시에는 밤낮으로 역전이나 골목길 등 사람들의 유동이 많은 곳을 찾아 불시에 증명서 확인, 몸수색, 짐 검열 등을 하고 있다. 특히 밤 9시 이후 야간 유동 인구에 대해 모두 검열하고 있다. 넷째, 김일성, 김정일 동상 및 초상화에 대한 보호 안전 임무도 수행한다. 소유나 유사시 동상이나 초상화를 안전하게 대피시키기 위해 기동타격대원들로 ‘결사대’를 조직해 실전을 가상한 훈련도 실시한다.¹⁰⁴

이런 내용을 종합하면, 기동타격대의 창설 배경은 우선 당국이 시장화에 따른 도시 소요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07년부터 당국에 의해 시장 통제가 강력하게 이루어지면서 주요 도시시장에서 이에 항의하는 주민들과 보안원 사이에 마찰이 발생한 바 있다. 특히 2009년 화폐교환 조치를 전격적으로 단행하면서 전국 각지에서 집단적 소요는 아니지만 화폐 몰수와 시장 단속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된 바 있다. 당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위협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다. 기동타격대는 이런 만약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폭동 진압용으로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1년 초 청진시 전 보안서장이 괴한들에 의해 살해당하는 사건, 함경북도 연사군에서 주민 땀감을 회수하던 산림감독원 3명이 살해당하는 사건¹⁰⁵이 연

103- “북, ‘사회불만, 마약, 매음’ 등 3대 범죄 집중단속,” 『노컷뉴스』, 2011.1.16.

104- “북, 김부자 모자이크 벽화는 어찌라고?,” 『코나스』, 2013.3.15.

이어 터지면서 공권력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로, 2010~2011년 중동에 불었던 ‘자스민 혁명’과 리비아의 독재자 카다피의 사살이 기동타격대 창설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로 확산·심화되어 온 시장화 및 시장 의존적 국가 경제운영을 거스르거나 탈피해서는 통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시장에 대한 물리적 통제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김정은으로의 후계체제 수립 과정에서 나타날 사회적 동요에 대비한 포석으로 볼 수 있다. 국방위원회 산하로 인민보안부를 편입시키고 당적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격상된 위상만큼 사회에 대한 물리적 통제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2011년 정규 편성 이후 기동타격대의 규모와 위상은 빠르게 커지고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동타격대는 도보안국 산하로 대대급 수준으로 조직되어 있다. 북한의 인민보안부는 도급 인민보안국, 시·군·구역 인민보안서, 동 인민보안서 등으로 편재돼 있다. 기동타격대는 도의 인민보안국까지만 국한돼 있다.¹⁰⁶ 따라서 주요 도 소재지급 도시를 일단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각 도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양강도 해산시의 경우 2015년에 기동타격대 대원이 600명 가량 되며, 주로 제대군인들과 인민보안부 정치대학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 해산시의 경우 2015년 초부터 무장 수준을 높여 최근에는 오토바이 10대와 기관총, 박격포 수십문, 장갑차 4대 등이 새로 배치되었다고 한다. 한편 2015년 기동타격대 대원들에게 얼룩무늬로 된 전투복과 철갑모를 새로 지급하여 인민보안부 일반 보안원과 복장이 차별화가 이루어졌다. 무장 수준도 초기엔 자동소총과 발사관(무반동포) 같

¹⁰⁵- “북 폭동진압 특수기동대 이달초 설치,” 『동아일보』, 2011.2.24.

¹⁰⁶- “북, 김정일 지시로 폭동진압 기구 발족,” 『데일리NK』, 2011.2.23.

I
II
III
IV
V

은 기초 무기로 무장했지만, 2010년 4월부터 중국산 무선전화기와 곤봉, 전기충격기 같은 시위진압장비들을 갖추고 야간경비 임무에 투입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기동타격대는 순찰과, 경비과, 대열과, 조사과 등과 같은 부서들이 있고 조사과에는 따로 감옥이 있다고 한다. 또한 매 주마다 단위와 월별로 각 구역, 공장·기업소의 동향자료를 작성해 중앙에 보고하고 있다.¹⁰⁷

청진시의 경우 기동타격대를 조직할 당시 포항구역 청송동 도보안국 건물에 배치되었으며 인원은 160명으로 시작했다. 2011년에는 600여 명으로 병력을 거의 4배 가량 대폭 늘렸으며, 2014년에는 1,100명으로 다시 2배 가량 확대 증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⁰⁸ 건물도 2014년 청진시 수남구역 수남시장 옆에 새롭게 3층으로 건물을 지으면서 인민보안부 건물로부터 독립했다. 독립 건물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은 기동타격대가 임시적인 조직이 아니라 상설적인 조직으로 고유의 역할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동타격대 건물에는 야외훈련장, 병기고, 장비창고 등도 딸려 있다.

평성시의 경우 2010년까지만 해도 기동순찰대란 이름으로 버스터미널 부근에 상주하던 순찰 조직이 있었다. 주야간에 2~3명씩 조를 짜서 순찰을 돌다가 상황이 발생하면 순찰대가 출동하는 방식이었다(사례 14, 구술녹취록 2015 P05). 2010년 하차시장이 폐쇄되고 옥전시장으로 이전하면서 2011년 하차시장 자리에 기동타격대의 주둔지가 들어섰다. 현재는 허가된 장사 이외에 불법적으로 행해지는 장사의 단속, 공장·기업소의 장비·시설 및 생산물에 대한 무단 절취 행위 적발·단속은 물론 주민 소요나 주민 통제 관련 업무 등 시장 및 도시 전반

¹⁰⁷-“북, 인민보안성 ‘기동타격대’ 조직 대폭 강화,” 『노컷뉴스』, 2011.9.26.

¹⁰⁸-“북, ‘반정부투쟁’ 막을 기동타격대 강화,” 『자유아시아방송』, 2015.3.6.

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을 사전 예방하고 통제하는 일을 하고 있다(사례 3, 구술녹취록 2015 P01). 기동타격대의 등장은 도시 전체가 하나의 시장 시스템으로 진화하면서 도시 전체를 관리하는 치안 및 안전 체계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기동타격대가 2009년 각 주요 도시에 등장한 것은 도시 정치의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2003년 종합시장 개설 이후 북한 당국의 시장관리는 시장에 울타리를 치고 시장관리소를 통해 물리적·제도적으로 통제하는 것이었다. 공식적인 시장 이외의 불법적인 장사에 대해서는 거리 규찰대나 보안원 등이 단속하거나 쫓는 방식으로 관리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주기적으로 ‘비사회주의 투쟁 그루뻑’을 조직해 시장과 관련한 부패를 적발·단속했다. 다시 말해 국가가 도시 내부의 시장적 공간과 비시장적 공간을 구분하고 시장 공간을 일정하게 격리하여 관리하겠다는 의도가 명확했다. 소위 시장을 여전히 도시 내부의 ‘오염’적 요소로 보고 통제적으로 관리·감독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동타격대의 등장은 당국의 시장 관리에 대한 기본 인식이 크게 변화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에 도시 내 시장적 공간과 비시장적 공간의 구분을 통한 관리·감독의 개념이 변화한 것이다. 도심에 기동타격대를 상설 배치한 것은 도시 전체를 시장 영역으로 보고 통제·관리하고자 하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도시 전체가 하나의 시장 시스템으로 진화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이제 도시정치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도시라는 시장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여 잉여를 추출해 내면서 체제에 부정적이지 않도록 어떻게 물리적·제도적으로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되었다. 다시 말해 도시 시장을 통한 국가의 축적, 민간자본의 형성, 주민 경제생활의 이해관계 등 도시 전체

I
II
III
IV
V

가 국가의 중요한 관리 대상이 된 것이다. 북한에서 이제 도시정치는 도시라는 시장 시스템과 자본 축적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복잡한 구도를 총칭하는 의미가 되었다.

2. 도시 공간구조의 변화와 건설시장

가. 평성시 공간구조의 변화와 건설시장

평성시의 공간구조 변화를 보기 위해 임의로 총 8개 지역을 나눠 살펴보면 다음 <그림 IV-1>과 같다. 지역 1은 당·행정기관이 밀집한 도당아파트 거리이고, 지역 2는 역전시장을 중심으로 은정동 과학원아파트 일대이고, 지역 3은 옥전시장을 중심으로 한 양지동 일대이고, 지역 4는 과거 하차시장이 있던 일대이고, 지역 5는 오리동과 문화동 일대이고, 지역 6은 주례동 일대, 지역 7은 권총공장 일대, 지역 8은 평성상표인쇄공장 일대이다. 그리고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평성시 전체 도시화된 시가지를 표시한 것이고 검정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평성시에서 아파트, 단층주택, 건물 등이 활발하게 건설되는 지역을 표시한 것이다.

(1) 시장 발달로 나타난 도시경관의 변화

평성시 출신 북한이탈주민들은 시장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도시 경관상 나타난 큰 변화로 도시가 “고급스러워졌다”는 것을 들었다. 건물 창틀과 도색 등 외관상의 변화가 나타났다.¹⁰⁹ 2009~2010년에는 주도로의 보도블록을 다시 깔았다. 2011년에는 평성시 주도로에 가로등과 도로 펜스가 설치되었다. 실제로 인공위성 사진을 통해 이런 변화가 확인된다. 대체로 이런 변화는 김정은이 등장한 시기와 겹치는데 김정은이 2010년부터 도시미화를 강조하면서 이뤄진 조치로 볼 수 있다.

사실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장식, 포장, 인테리어는 지양되거나 불필요한 것으로 취급되었다. 그것은 자본주의체제에서 이윤을 얻기 위해 자본가들이나 하는 행위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장식, 포장, 인테리어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의 중요성을 알기 시작했다는 것은 소유의 관념, 판매와 이윤이라는 마케팅 개념에 대해 눈을 떴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지금은 평성시 건물에서 사람들을 끌기 위해 꾸민다고 생각이 드는 여러 인테리어 장식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두 번째로 주목할 만한 경관상의 변화는 거리에 사람이 많아진 점이다. 거리에 유동하는 인구가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대부분의 주민들이 직장에 머무는 시간보다는 시장 활동을 포함한 개별적인 경제생활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으로 평성시에 실제 거주등록 한 인구 이외의 시장 활동을 하는 타지의 인

¹⁰⁹ 과거 평성시 거리의 건물은 주로 저렴하고 낙후한 국산자재를 썼는데, 시장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중국산이긴 하지만 수입자재들을 사용하여 건물의 외부와 내부를 장식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시장화가 본격화되기 이전에는 국영상점의 경우 그냥 일반규정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장식을 했는데, 시장 활동을 하면서 개인들이 상점이나 식당을 독점하면서 사람들을 끌기 위해 꾸미기 시작했다. 소위 인테리어 개념을 알게 된 것인데, 이것은 시장 활동이 가져온 놀라운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구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세 번째로 경관상 주택(살림집)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평성시 구석구석까지 주택이 다 들어 차 있다는 느낌보다는 공간적 여백이 많다는 느낌이 강했다고 한다. 실제로 도시화된 지역은 주도로 양쪽으로 형성된 1970년대 건설된 아파트와 오래된 단층 주택이 대부분이었다. 산비탈로 이루어진 곳에는 드문드문 살림집이 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시장 활동이 활발해 지고 평성시에 물자와 화폐가 모이면서 민간자본에 의한 건설 바람이 불어 주택건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아파트들이 중심가에 화려하게 들어서기 시작했고 빈 여백으로 있던 언덕이나 산비탈에도 아파트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지금은 이런 공간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느라고 산비탈 지형에 위치한 양지동, 주례동, 냉천동은 물론 심지어 농토가 대부분인 삼화동에도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다. 좋은 위치를 확보하면 그만큼 집값이 비싸고 쉽게 오르는 효과를 알게 된 것이다(사례 14, 구술녹취록 2015 P05).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경관상의 변화는 국가 재정에 의한 건설의 결과가 아니라 시장화를 통해 도시에 형성된 민간자본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제4장 제2절에서는 평성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간적 변화를 주요 장소를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I

II

III

IV

V

(2) 평성시 공간구조의 변화 양상

① 지역 1: 도당아파트 거리 - 당·행정기관 밀집 중심업무지구의 변화

1970년대에 주로 도당위원회 앞 광장을 중심으로 주변에 녹지구, 김일성 동상, 김일성혁명역사연구소 등이 들어서면서 간부들의 사택들이 도당위원회 옆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이후에 도안전부, 도보위부, 도인민위원회, 시인민위원회, 도통계국, 도검찰소, 시검찰소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간부아파트들이 들어섰다. 평성시 주민들은 이 거리를 보통 ‘도당아파트 거리’라고 부른다. (김일성·김정일) 동상으로부터 도당아파트 거리를 지나 청년공원까지 이어지는 약 1.3km의 거리, 그리고 위로는 시인민위원회부터 평성고무줄공장까지가 약 1km가 소위 ‘도당아파트 거리’로 통칭할 수 있는 지역이다.

1970년대 이후 도당아파트가 크게 들어서면서 이 지역은 평성시 도급·시급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줄곧 살아 왔다는 점에서 도시에서 가장 정치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밀집한 곳이었다. 도시가 형성된 이후 전통적으로 권력과 지위 등에서 상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주로 살아 왔다는 점에서 주민들에게는 선망과 경외의 장소였다고 볼 수 있다. 이 지역은 공간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면적이 제한되어 있어 향후 확장에는 한계가 있지만 2000년대 중반 들어 전반적으로 건설이 활발한 지역이다. 인공위성 사진을 판독한 결과 면적이 제한된 상태에서 2000년대 중반 이후 시가지 빈 공간에 틈틈이 새로운 아파트와 주택이 들어서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시인민위원회가 있는 삼각지대를 중심으로 산비탈 부근에 대규모 신규 아파트들이 건설되고 있다.



평성고무줄공장 부근 (2014.10.27. 촬영)

* 노란색 부분 2004년 이후 건설된 아파트 및 주택

출처: 구글 어스, <earth.google.com>.

I

II

III

IV

V

② 지역 2: 시당위원회 앞 청년공원 및 환전상 거리 일대

□ 청년공원 일대: 공원조성으로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아파트 건설지

시당위원회 앞은 최근 2000년대 후반부터 급격하게 변화한 대표적인 장소이다. 평성시 시당위원회 앞 청년공원은 2011년경 건설이 시작돼 2012년경 완공된 것으로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된다. 애초 광장 용도로 쓰이던 곳이 간이 버스터미널(2005) → 주택지(2006) → 주택철거(2010) → 공원 건설(2011~2012) 등으로 용도가 빈번하게 변화되었다.

현재 공원이 들어선 자리는 원래 평성시 광장이었다. 이 광장은 북한 주요 명절마다 도로를 막고 정치행사나 집회를 하는 장소였다. 정치행사를 할 때는 주석단이 만들어졌었다. 공원 위로는 시당위원회와 도립열사 묘지가 산언덕 위로 자리하고 있었다. 어떤 면에서 평성시에서 가장 정치적인 상징성이 강한 장소 중 하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장소가 2010년 들어 극적으로 변화를 하게 된다. 2010년에 이곳에 있던 도립열사묘지를 오리동 지나서 시 외곽에 있는 청룡산 기슭으로 이전하고 동시에 평성학생소년궁전이 건설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앞으로 2011년부터 기초공사를 시작해 청년공원 조성에 들어갔다. 과거 간이 버스터미널이나 주택지로 쓰이던 광장을 청년공원으로 완벽하게 용도 변경한 것이다(사례 14, 구술녹취록 2015 P05). 평성학생소년궁전은 2014년에 지금의 웅장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또한 정치행사용 넓은 광장에서 간이버스터미널, 주택지 등 용도상의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시당위원회 앞 광장이 청년공원으로 바뀌면서 도시의 경관에도 크게 변화가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가장 돈이 많고 변화한 중덕동의 경관을 개선함과 동시에 집값이 상승하는 배경이 된 것이다.

○ 사진 IV-2 평성시 시당위원회 앞 청년공원 건설 과정



(2004.3.7. 촬영)



(2005.8.6. 촬영)

- I
- II
- III
- IV
- V



(2006.12.18. 촬영)



(2010.3.29. 촬영)



(2011.4.11. 촬영)



(2014.4.6. 촬영)

출처: 구글 어스, <earth.google.com>.

I
II
III
IV
V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학생소년궁전 건설 계획이 나오고 청년공원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과 동시에 소년궁전 뒤편으로 아파트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학생소년궁전이 완공된 현재에도 아파트 공사가 이곳에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 자리는 기존의 도립열사묘지가 있던 터이다. 정치적 상징성 측면에서 중요한 도립열사묘지를 이전시키고 아파트를 건설하도록 허가해 준 시 당국이나 주택 부지가 부족한 평성시에서 새로운 건설 부지를 이런 방식으로 확보한 민간의 자본이나 모두 도시정치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행위자들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는 학생소년궁전과 청년공원이 새롭게 건설되면서 도심 개발 효과가 나타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개선된 경관이 중덕동의 집값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 사진 IV-3 평성시 학생소년궁전 변화 모습





출처: 구글 어스, <earth.google.com>.

□ 도립열사묘지의 이전과 조성

도립열사묘지는 평안남도 차원에서 한국전쟁 때 희생된 사람들과 같은 도내 열사를 안치한 곳이다. 시당위원회 뒤로 있던 묘지를 도보로 2시간 가량 떨어진 문덕군 가능 방향의 외진 청룡산 산기슭으로 옮긴 것이다. 보통 열사묘지는 시내에 두고 사람들이 쉽게 참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외진 곳으로 이전한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이전 직후 새로운 아파트들이 묘지터에 들어서기 시작했다는 점은 여러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I
II
III
IV
V

○ 사진 IV-4 오리동 방면 문덕군으로 가는 길 도립열사묘지 이전



도립열사묘지 이전 전 (2011.4.11. 촬영)



도립열사묘지 이전 후 (2014.10.27. 촬영)

출처: 구글 어스, <earth.google.com>.

□ 환전상 거리: 평성의 '윌스트리트' 또는 '명동' - 최고가 아파트 입지

평성시의 환전상 거리는 평성백화점과 태양상이 있는 사거리에서 은정원(목욕사우나) 방면으로 가는 대로변에 있는 외화상점, 식당, 아파트가 늘어선 가장 변화한 거리를 일컫는다. 이 환전상 거리는 소위 평성의 '윌스트리트' 또는 '명동'라고 할 수 있는 금융의 중심이다. 북한 원화, 미국 달러, 중국 위안화 모두 서로 바꿀 수 있다. 갑자기 내화(북한 원화)가 필요하거나 거래 대금으로 받은 외국돈을 환전해야 할 경우 환전상 거리를 이용한다. 대부분 아줌마들이 서서 돈이 많아 보이는 사람이 지나가면 “돈 안 바꾸나?” 물어보는 방식으로 고객을 하는 곳이다. 평성시 환전상의 환율시세는 전국의 환율시세를 좌우하는 온도계와도 같다(사례 14, 구술녹취록 2015 P05).

환전상 거리는 소위 돈이 많은 사람들이 사는 가장 집값이 비싼 곳이다. 위성사진으로 확인하면 2004년 이후 2014년까지 거의 신규 건설 부지가 없는 좁은 면적에도 가장 활발하게 아파트 건설이 이루어졌고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의 창고나 단층주택을 헐고 고층 아파트가 신규로 건설되었다. 특히 청년공원이 들어서면서 공원쪽 신규 아파트는 크게 가격이 올랐다고 한다. 이곳에 있는 아파트들은 1970년대 이후 오래 전에 지어진 아파트이지만 평성시의 주요 상점들과 외화상점이 위치해 있고 주요 도급·시급 기관과도 가깝고 주요 환전상 거리가 있어 값이 비싸다. 하지만 더 이상 건설할 부지가 없어 개발이 제한돼 있다는 한계가 있다.

사진 IV-5 평성의 환전상 거리 신규 아파트 건설 변화



평성의 환전상 거리 아파트 모습 (2004.3.7. 촬영)



환전상 거리 아파트 신규 건설 (2014.10.27. 촬영)

출처: 구글 어스, <earth.google.com>.

□ 입체울동영화관: 김정은식 도시미화의 사례

지역 2에서 주목할 부분은 현재 입체울동영화관이 들어서면서 최근 극적으로 변화한 곳이다. 2013년 10월 사진을 보면 공원이 건설 중이 었지만, 1년 뒤인 2014년 10월에는 같은 장소에 ‘입체울동영화관’을 짓고 있다. 이 자리는 원래 도극장 건설 부지였으나 중간에 용도가 갑자기 빙상경기장 또는 스케이트 공원으로 바뀌었다가 지금과 같이 영화관으로 건설 중이다. 김정은 정권 들어 과시적인 도시미화나 위락시설 건설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입체울동영화관 건설도 그런 차원에서 볼 수 있다.

○ 사진 IV-6 중덕동 부근 공원 터 변화 모습



공원터 (2012.4.5. 촬영)

I

II

III

IV

V



빙상경기장, 스케이트 공원 건설 (2013.11.5. 촬영)



입체울동영화관 건설 중 (2014.10.27. 촬영)

출처: 구글 어스, <earth.google.com>.

□ 평성 경기장 주변: 새로운 상점 입지로 주목 받는 지역

평성 경기장이 있는 일대는 최근 몇 년 사이 새로운 상점들이 입지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경기장은 원래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사실상 버려진 상태로 있었다. 2010년 들어 주변을 시멘트로 포장하기 시작했고 버스사업소로 경기장 주변이 사용되었다. 2011년 경기장 앞 도로변에 새로운 상점 건물들이 들어서기 시작했고 경기장 뒤편으로는 새로운 아파트도 들어섰다. 버스사업소도 2013년 평성아파트 거리 아래 천변으로 이전을 했다. 이곳이 정비된 데에는 가장 변화한 환전상 거리가 맞은편에 있기 때문에 상점 입지에 유리하고 땅값이 비싸기 때문으로 보인다.

I

II

III

IV

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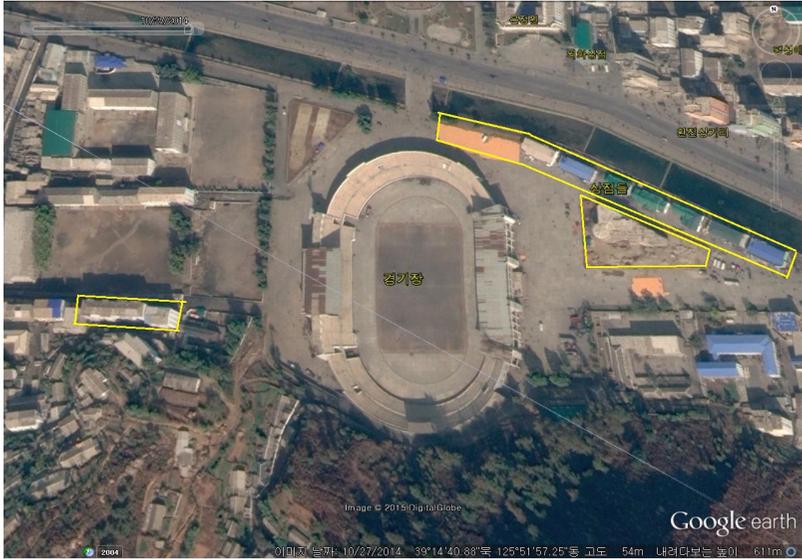
사진 IV-7 평성 경기장 일대의 모습



경기장 주변 (포장 안 된 상태, 경기장 방치) (2004.3.7. 촬영)



경기장 주변 (버스사업소 사용, 주변 시멘트 포장) (2010.3.29. 촬영)



경기장 주변 (도로변 상점 건설, 후방 아파트 건설) (2014.10.27. 촬영)



경기장 옆에 있던 버스사업소는 은정동으로 이전 (2014.10.27. 촬영)

출처: 구글 어스, <earth.google.com>.

- I
- II
- III
- IV
- V

□ 역전시장 일대: 시장 입지에서 가장 탁월한 장소

평성시에서 집값이 비싼 지역 중 하나다.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는 블록에는 1년 내내 역전시장이 서고, 평성역을 통해 들어오는 장사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으며, 이곳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장사꾼들이 맡기는 짐을 보관하는 것으로 “앉아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다. 또한 인민군대 초모소가 아파트들에 붙어 있어 1년에 1~2회 이루어지는 도내 인민군 초모병사들이 여기에 집결한 후 따라온 가족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낼 장소로 이들 아파트를 숙박시설로 사용하기도 한다. 이들 역전의 초기 아파트들은 이후 노후화되어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 개인들의 자본으로 일부 증축 및 개축이 이루어졌다. 또한 이 역전에 있는 아파트들은 평성의과대학병원과 가까워 입지 면에서 가장 탁월하다고 할 수 있다.

○ 사진 IV-8 평성시 역전시장



역전시장 (2014.10.27. 촬영)

* 붉은색 표시 2000년대 이후 새로 지어진 아파트, 노란선 시장골목

출처: 구글 어스, <earth.google.com>.

I

II

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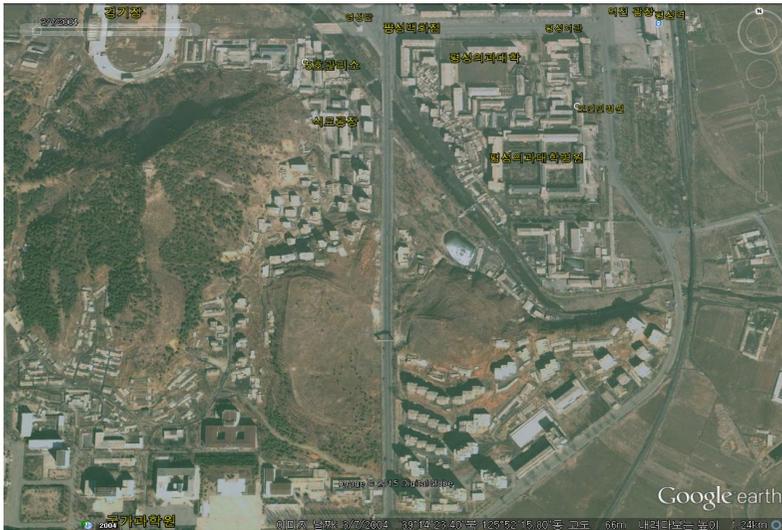
IV

V

□ 평성의과대학 부근: 현대식 아파트의 표본

1985년 무렵부터 1990년대 초까지 국가과학원 종사자들을 위해 꾸려진 과학원아파트 단지다. 이 아파트는 12~15층 규모로 건설 당시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평성에서 가장 잘 꾸려진 아파트로 꼽히고 있다. 평성시 주민들이 동경하는 아파트에 해당한다. 과학자들을 우대하는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잘 지은 것도 있지만 평양시 광복거리 꾸리기 운동을 본받아 심혈을 기울인 측면도 있다. 세대 당 평수나 내·외장재가 기존의 아파트들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다. 그러나 15층에 가까운 고층에 식수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전력난으로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아 걸어서 올라 다녀야 하는 부담 때문에 시세에서는 다른 곳에 밀리는 편이다. 지금은 국가과학원이 평양시로 편입돼 있지만 아직도 평성시 주민들은 이 아파트를 평성시에서 가장 좋은 현대식 아파트로 보는 경향이 있다. 그만큼 완공 당시에 평성 주민들에게 준 충격이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 사진 IV-9 평성의과대학 부근 변화 모습



평성의과대학 부근 (2004.3.7. 촬영)



평성의과대학 (2014.10.27. 촬영)

출처: 구글 어스, <earth.googl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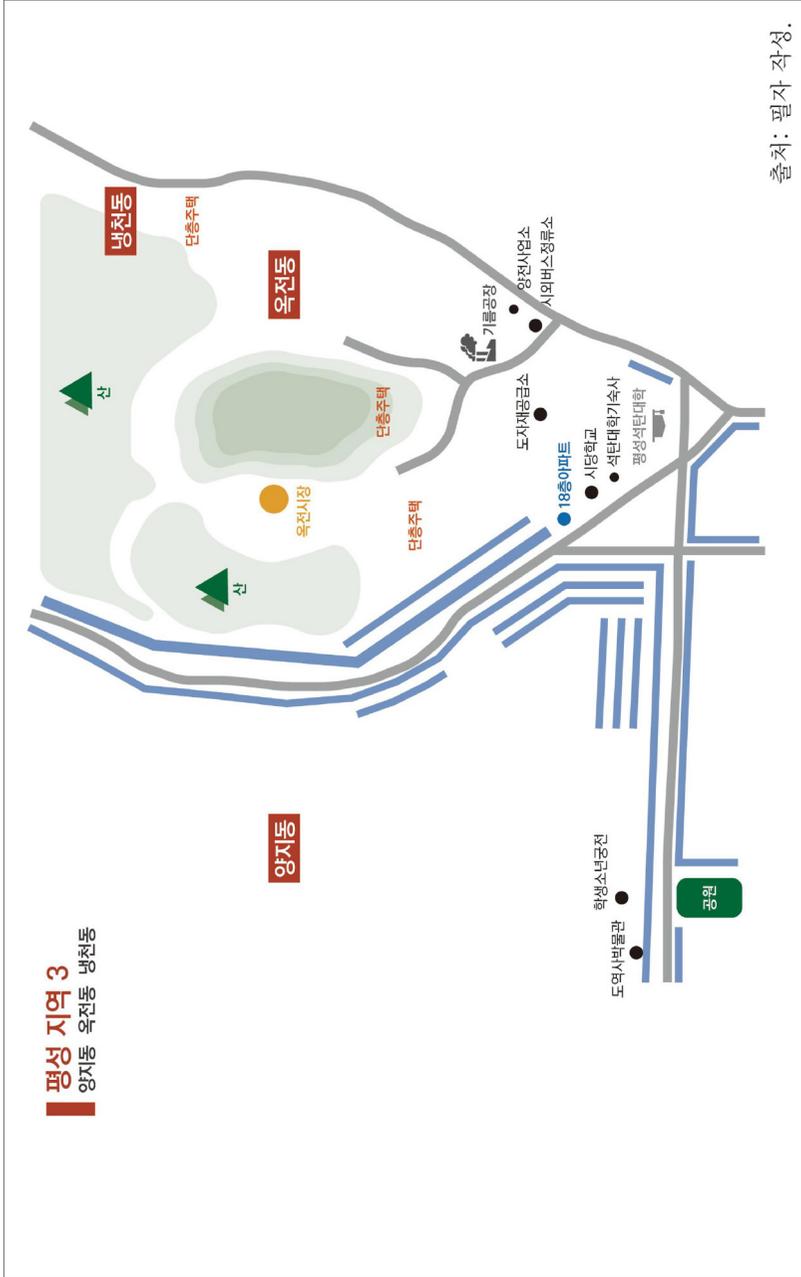
I
II
III
IV
V

③ 지역 3: 옥전시장 일대 - 북한 최대 도매시장 입지와 신규 아파트 건설지

□ 옥전시장 부근: 창고업·보관업·임대업의 발달

현재 대규모 시장이 들어선 옥전동 아파트들이 공간구조상 가장 눈에 띄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옥전시장 주위에는 2000년대 중반부터 5층 내외의 아파트들이 빠르게 들어서고 있다. 옥전시장은 북한 최대 도매시장이었던 하차시장이 폐쇄되면서 이전의 형태로 만들어진 시장이다. 과거와 같은 규모는 아니지만 평성을 경유하는 거의 모든 소비재 물자들과 각종 공업품들이 여기를 경유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시장과 가깝다는 장점으로 옥전시장 부근에 개인들에 의한 새로운 아파트 건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위성사진 판독 결과 다음 <사진 IV-10>에서처럼 2004년 이후 아파트 및 주택 건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많은 변화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옥전시장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18층 아파트는 2000년대 건설된 아파트들 중 가장 고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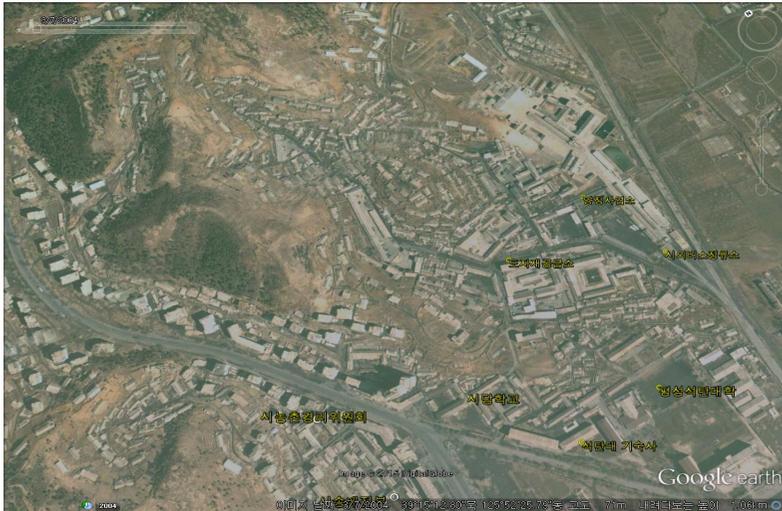
그림 IV-4 평성 지역 3: 양지동·옥전동·냉천동·냉천동 일대



출처: 필자 작성.

I
II
III
IV
V

사진 IV-10 옥전시장 부근 아파트 건설로 인한 변화 모습



옥전시장 부근 (2004.3.7. 촬영)



옥전시장 부근 (2014.10.27. 촬영)

* 노란색 부분 옥전시장, 파란색 부분 신규 아파트 및 살림집

출처: 구글 어스, <earth.google.com>.

④ 지역 4: 도보안국 기동타격대 일대(옛 하차시장터)

1990년대 이후 북한 최대의 도매시장이었던 하차시장(평성종합시장)이 있던 자리이다. 하차시장은 2008년 이후로 시장 통제 정책으로 폐쇄되었고 냉천동으로 옮겨졌다가 옥전시장에 2009년 이후 자리를 잡았다. 이 하차시장이 있던 자리는 현재 도보안국 기동타격대가 들어섰다. 북한 최대의 도매시장을 자랑하던 하차시장이 폐쇄되고 도보안국 기동타격대가 자리하면서 이 지역 역시 최근 몇 년 사이에 극적으로 변화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하차시장이 있을 당시 2000년대 중반부터 3~5층의 빌라형 현대식 아파트들이 개인들의 투자로 들어서면서 각광을 받았으나 지금은 건설이 다소 주춤한 지역이다.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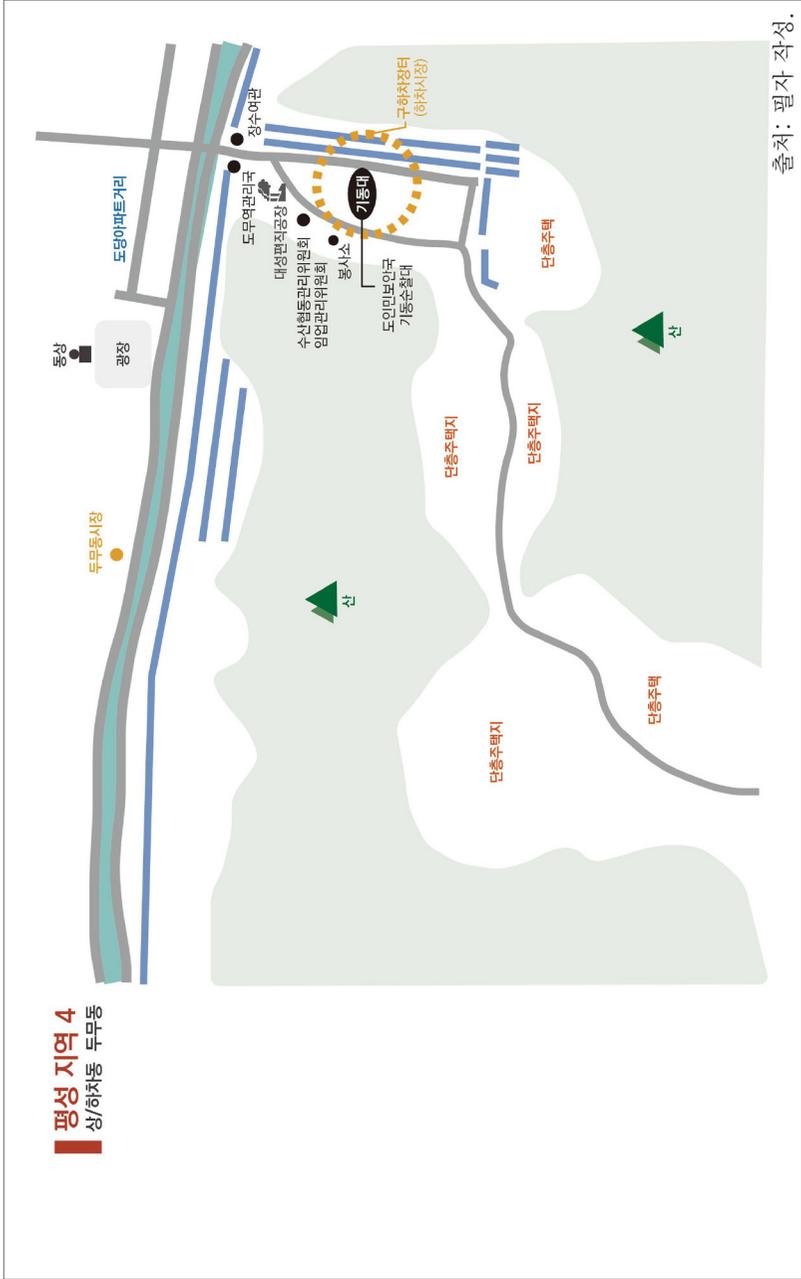
II

III

IV

V

그림 IV-5 평성 지역 4: 도보안국 기동타격대 일대



출처: 필자 작성.

⑤ 지역 5: 오리동·문화동 일대 - 가장 낙후한 단층주택 지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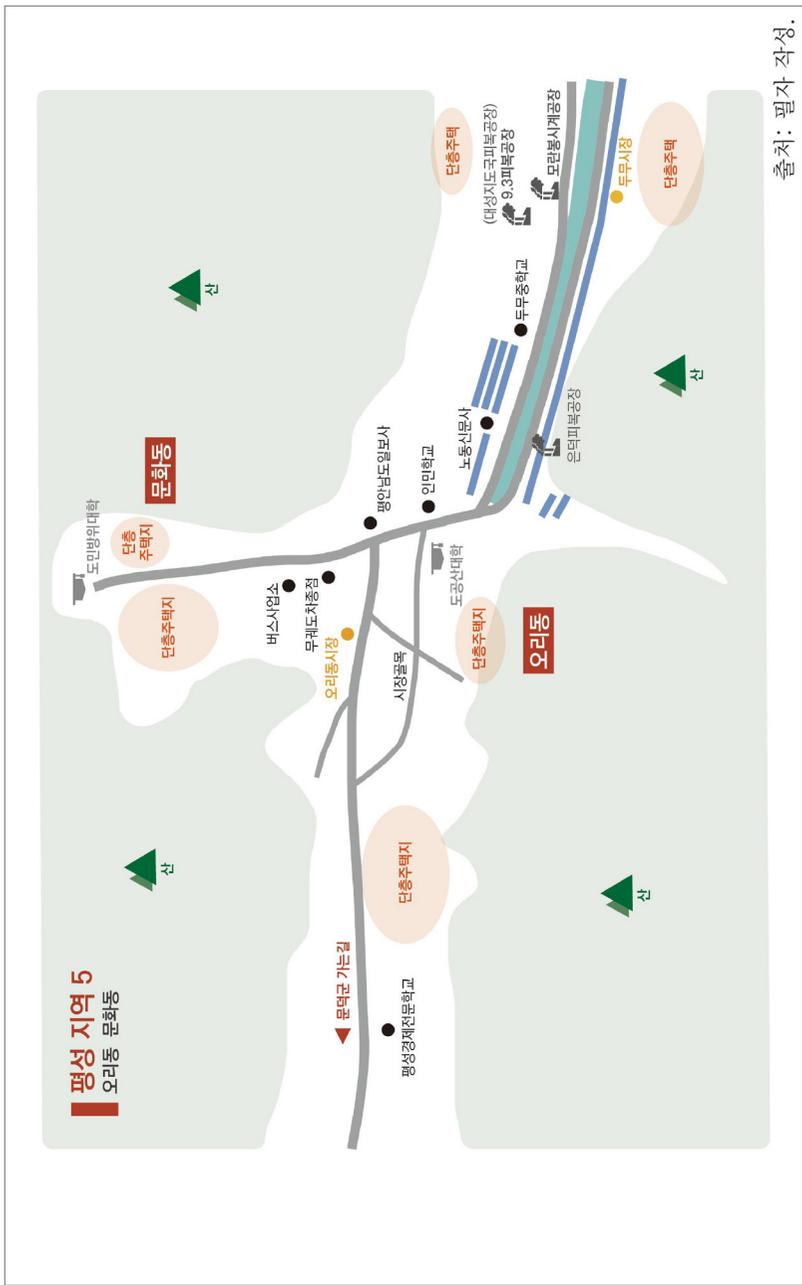
□ 오리동 시장 일대

평성시내 모란봉시계공장 지나서 있는 문화동은 과거부터 도심 및 평성역과 멀고 주로 하층민들이 사는 단층집들이 입지해 있다. 도공산 대학교, 도민방위대학교 주변으로 1985년 새로 지은 아파트 일부 있긴 하지만 문화동 자체가 시 전체에서 소외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곳은 단층집들이 밀집한 북쪽의 주례동과 함께 평성시에서 가장 낙후한 지역이고 계층적으로도 가장 하위계층이 거주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오리시장은 과거부터 농민시장 형태로 있어 왔다. 주로 농축산물을 파는 곳으로 현재까지도 이 지역 주민들의 소비품과 농수산물을 주로 공급하고 있다.

□ 두무동 거리의 오래된 국가아파트

1970년대 초중반 전국적으로 김정일 주도로 살림집 건설 열풍이 불었던 적이 있다. 평성시 중덕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모란봉시계공장까지 대로변 양쪽에 3~5층의 아파트들이 줄지어 들어선 것이 이때다. 당시 평성시 주도로변에 들어선 아파트들은 크게는 사회주의 우월성과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성과를 과시적으로 보여주는 차원에서 도로변에 전시되듯 건설되었다. 북한에서 ‘도시미화’는 대체로 북한체제의 우월성이나 지도자의 치적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기획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김정일 시대도 그랬지만 김정은 시대에도 아파트나 고층 건물은 일종의 도시미화 차원에서 도시의 문명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처럼 건설되고 있다. 이들 아파트는 일부를 제외하면 1970년대 이후 개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금도 노후한 상태 그대로 있다. 그러나 두무동 거리는 향후 증개축, 신축 등을 통해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그림 IV-6 평성 지역 5: 오리동·문화동 일대



출처: 필자 작성.

□ 모란봉시계공장

평성시를 대표하는 큰 공장·기업소로는 모란봉시계공장(현재 가동 중단), 평성인조가죽공장, 평성상표인쇄공장(926공장, 조폐창), 봉화화학공장(맥주공장), 평성고무줄공장(가동 중), 9·19공장(군수공장, 가동 중), 갱생자동차공장(현재 가동 중단) 등이 있다. 그중 모란봉시계공장은 현재 가동이 중단된 상태이다. 모란봉시계공장은 1980년대 중반 김정일의 직접 지시로 건설된 공장이다. 해마다 막대한 당 자금(외화)을 들여 스위스 산 손목시계에 ‘김일성’이란 명함까지 새겨 넣고 수입해서 당, 군, 정 기득권에 선물로 하사해 왔는데 이를 국내 생산으로 대체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김정일은 제2경제위원회에 지시하였고 제2경제위원회는 루마니아로부터 폐기처분되는 손목시계공장을 수입했다. 적은 비용으로 공장을 들여오면서 생산라인의 문짝을 떼고 들여왔는데 자동온습도조절장치 역할이 없어 조잡한 시계 생산을 하게 되었다.¹¹⁰ 처음 생산된 손목시계에 김정일이 ‘모란봉’이라는 이름을 부여해 모란봉시계공장이 되었다. 현재 공장은 시계 생산은 하지 못하고 일본에서 설비를 들여와 변압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하여 팔고 있다. 시계공장이지만 시계는 생산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시계공장 뒤편으로는 낙후하다는 인상이 강하다(사례14, 구술녹취록 2015 P05).

I

II

III

IV

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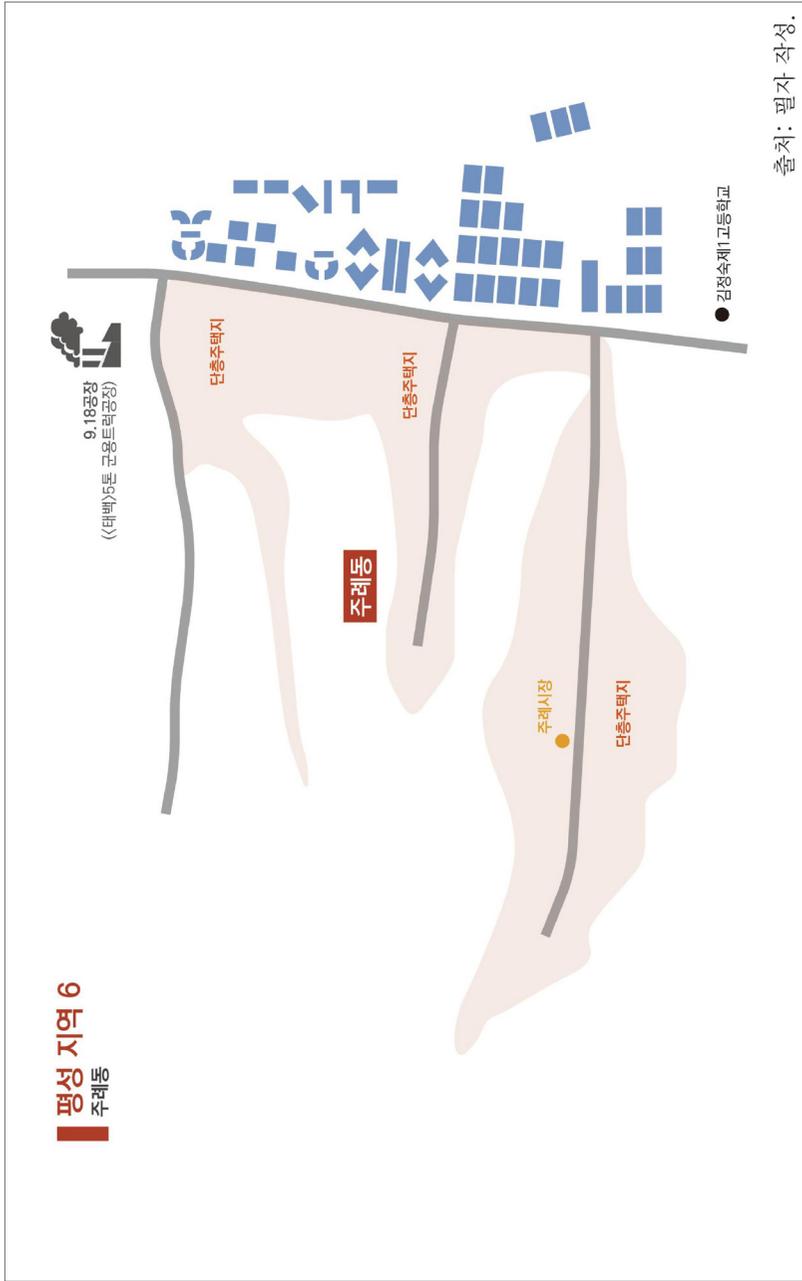
¹¹⁰- 김덕홍, 『나는 자유주의자이다』 (서울: 집사재, 2015), pp. 175~176.

⑥ 지역 6: 주례동 일대 - 가장 아파트 건설이 활발한 지역

□ 평성합성가죽공장 주례동 고개 일대: 급부상한 최고의 아파트 건설지

평성합성가죽공장이 입지하고 있는 주례동 고개는 평성에서 가장 많은 변화가 극적으로 나타난 지역이다. 김정숙 제1고등학교가 위치한 양지동에서 주례동으로 넘어가는 고개지역은 일정하게 가파른 지형을 가지고 있다. 기존에는 단층주택들이 평성합성가죽공장 인근에 들어서 있었을 뿐 사실상 시내와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멀고 긴 고개라 주택건설지로는 주목받지 못했던 지역이다. 2009년 전까지만 해도 변화가 없던 지역에 2010년부터 4~5층의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2014년 9월 현재 대규모 아파트 군락이 형성되었다. 2010년을 기점으로 아파트 건설 붐이 이곳에 불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는 김정은의 등장 시기와 맞물린다는 점, 기존 하차장이 폐쇄되면서 옥전시장으로 도시시장의 중심이 옮겨가는 시점과 맞아 떨어진다. 이 지역에 건설되고 있는 아파트들은 주로 4~5층이 대부분이다. 아파트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전후로 특징이 있다. 고난의 행군 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8~18층 등으로 층수가 높은 편이다. 고난의 행군 시기에 지방 도시들에서 5층 이상 짓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 생겼다고 한다. 그래서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지은 아파트들은 대체로 5층 아파트들이 많다. 평양만 제외하고 지방도시에는 대부분 비슷하다.

그림 IV-7 평성 지역 6: 주례동 고개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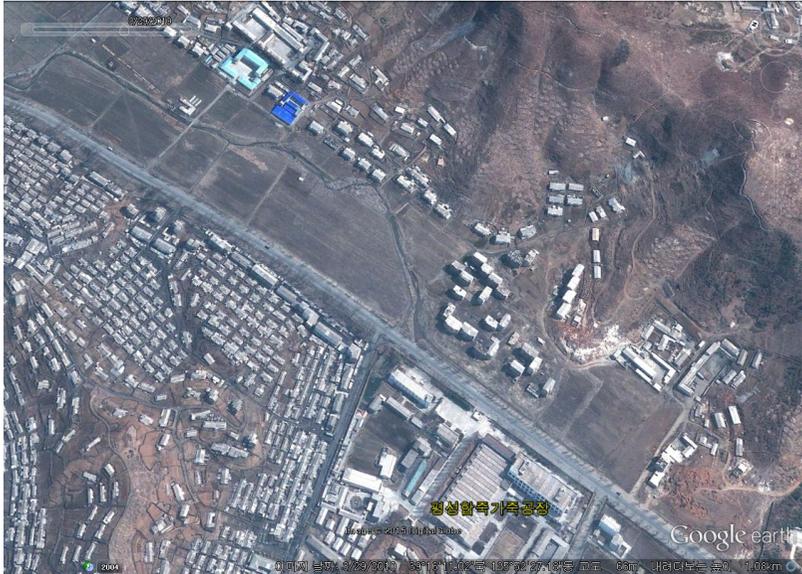
I
II
III
IV
V

이 지역에 새롭게 들어선 아파트들은 100% 개인들의 자본으로 지어진 아파트들이다. 이곳은 상대적으로 높은 구릉지역으로 경치가 뛰어나고 주요 도급·시급 기관과 가까워 주민들에게 각광을 받는 곳이다. 평성시 자체에 주택이 들어설 자리가 제한돼 있어 도당인민위원회 차원에서 개인의 투자라도 좋으니 이곳에 집을 지으라고 개인들에게 자리를 내주었다고 한다(사례 3, 구술녹취록 2015 P01). 이곳에 지은 아파트들은 시설 면에서 가장 뛰어나고 최신식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있는 아파트에만 별도로 식수를 공급하는 물탱크를 가지고 있을 정도다. 3~4층 빌라형 아파트 형태인데 평성시의 모든 아파트들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않고 고층 아파트 건설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저층으로 건설되었다. 이곳은 현재 냉천동과 함께 집값 시세가 가장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지역이다.

● 사진 IV-11 평성시 주례동 고개 부근 새로운 아파트 건설 모습



주례동 고개 (2004.3.7. 촬영)



주례동 고개 (2010.3.29. 촬영)



주례동 고개 (2011.9.22. 촬영)

- I
- II
- III
- IV
- V



출처: 구글 어스, <earth.google.com>.

□ 9·18(9·19) 군수공장

9·18군수공장은 ‘태백’이라는 이름의 군수용 5톤 트럭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엔진, 본체, 조립공장 등이 있다. 평성에는 국가과학원 옆에 갱생자동차 공장이 있는데 여기서는 ‘갱생’이라는 이름의 자동차가 생산된다. 외부의 사람들이 와 보고 대장간 같은 공장이라고 평가했을 만큼 낙후한 시설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 현재 도색을 새롭게 하고 일부 공장의 증축이 확인된다.

사진 IV-12 9·18 군수공장 변화 모습



9·18 군수공장 (2005.8.6. 촬영)



9·18 군수공장 일부 증축 (2014.9.22. 촬영)

출처: 구글 어스, <earth.googl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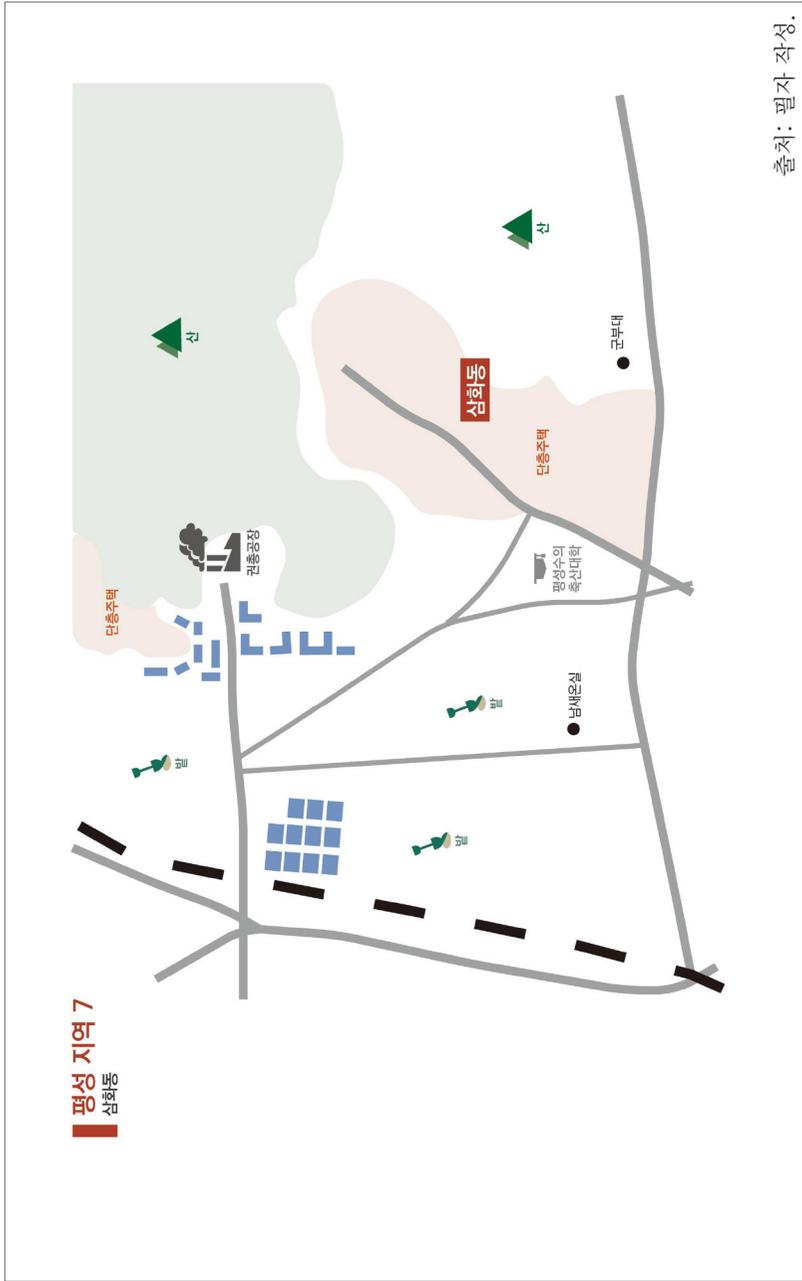
I
II
III
IV
V

⑦ 지역 7: 삼화동 권총공장 일대 - 농업용지에 들어선 신규 아파트 개발지

□ 삼화동 권총공장 부근

권총공장 근처에 나무가 있던 공원을 밀어버리고 현재는 아파트가 새롭게 들어서고 있다. 농장부지니까 농장에 준 아파트일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평지가 많지 않은 북한에서는 농지를 쉽게 주택지로 변경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관행이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경우에 비취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아마도 농지에서 주택지로 변경하는 데 부패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중요한 것은 위성사진에서 좌측 하단에 2004~2010년 사이 새롭게 조성된 아파트 단지는 철길을 사이에 두고 바로 건너편에 평성역이 있다는 것이다. 이 아파트는 입지로 보았을 때 평성역으로 들어오는 물자와 관련해서 장사꾼들에게 선호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는 점이다.

그림 IV-8 평성 지역 7: 삼화동 권총공장 일대



출처: 필자 작성.

I
II
III
IV
V

사진 IV-13 삼화동 권총공장 부근 신규 아파트 건설 모습



권총공장 (2004.3.7.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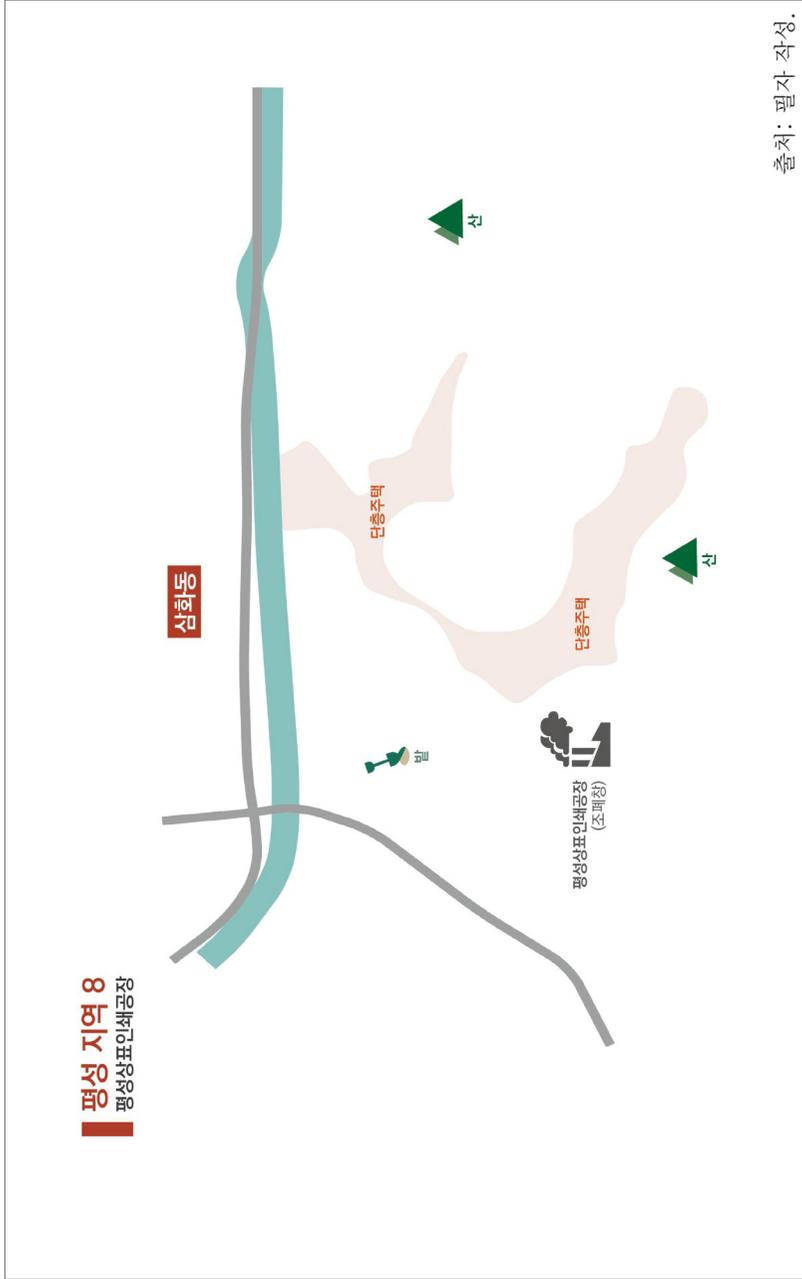
권총공장 (2014.10.27. 촬영)

출처: 구글 어스, <earth.google.com>.

⑧ 지역 8: 평성상표인쇄공장

평성상표인쇄공장(62호공장)은 북한의 유일한 조폐창이다. 1977년 건설을 시작하여 1981년 완공된 이 조폐창은 북한의 인민보안부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다. 1990년대 들어 달러 위조지폐가 만들어진 곳으로 지목되고 있는 곳이다.

그림 IV-9 평성 지역 8: 평성상표인쇄공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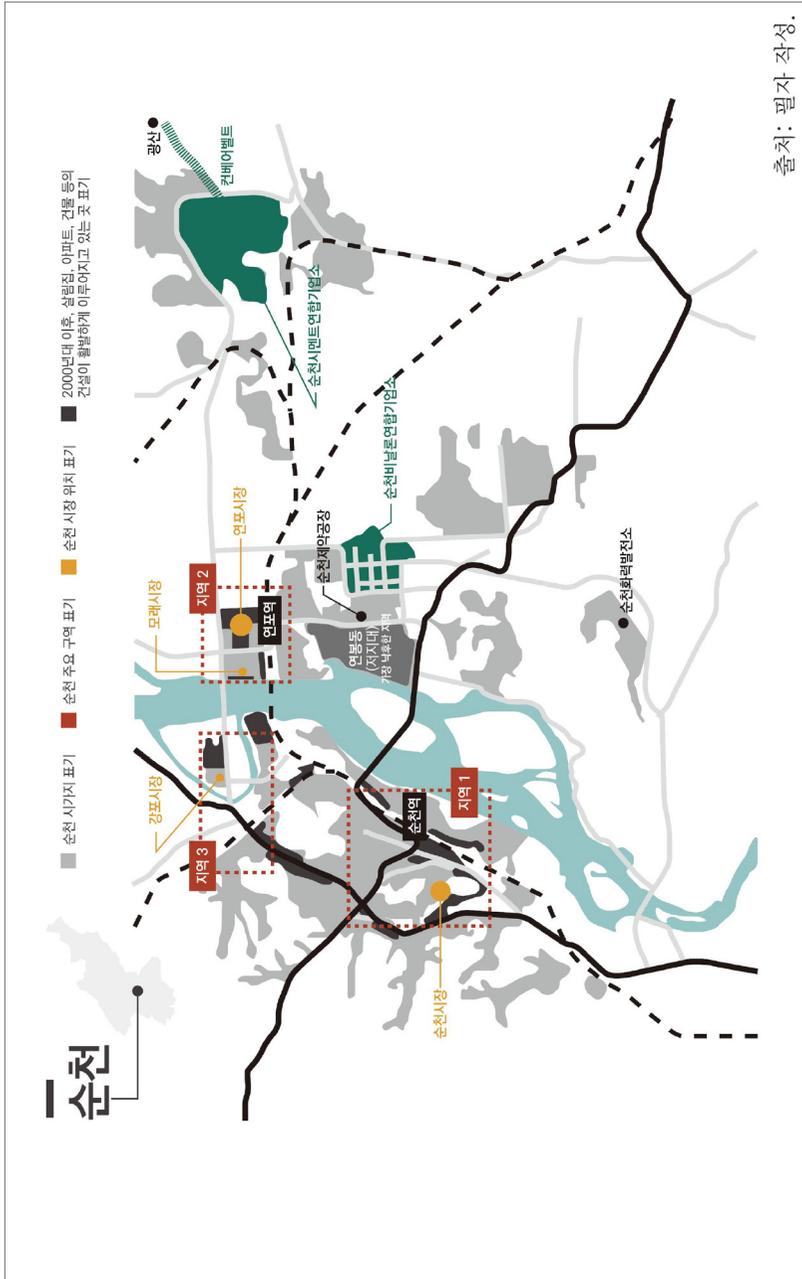
출처: 필자 작성.

I
II
III
IV
V

나. 순천시 공간구조의 변화

순천시의 공간구조 변화를 보기 위해 임의로 총 3개 지역을 나눠 살펴보면 <그림 IV-10>과 같다. 지역 1은 순천역과 순천시장, 상점, 그리고 당·행정기관이 밀집한 거리이고, 지역 2는 연포역전을 중심으로 연포시장과 단층주택 단지가 있는 일대이고, 지역 3은 강포시장이 위치한 강포동 일대이다. 그리고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순천시 전체 도시화된 시가지를 표시한 것이고 검정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순천시에서 아파트, 단층주택, 건물 등이 활발하게 건설되는 지역을, 초록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순천비날론연합기업소 터와 순천시멘트연합기업소 등 대형 기업소를 표시한 것이다.

그림 IV-10 순천시 시가지와 건설 활성화 지역 표시



(1) 폐허가 된 순천비날론연합기업소의 도시

순천은 평성과 위치상으로 인접해 있다. 두 도시 모두 1990년대 이후 시장이 대표적으로 발달한 도시라고 할 수 있다. 순천은 1983년 시로 승격된 도시로 도시로서는 약 30여 년이 조금 넘는 매우 짧은 역사를 지니고 있다. 순천은 상대적으로 넓은 평지를 확보하고 있어 도시화 지역이 평성에 비해 넓게 분포한다. 농업이 전통적으로 발달하였지만, 이후 공업도시의 성격이 강해진 도시라고 할 수 있다.

순천은 석탄(직동, 천성, 령대, 송남 등), 시멘트(순천시멘트연합기업소), 순천비날론연합기업소, 화력발전소(12화력연합기업소), 석회질 소비료공장, 프락또르공장, 순천제약공장 등이 입지하여 공업기반이 상대적으로 다른 도시에 비해 유리한 조건에 있는 도시로 알려져 있다.

북한에서 국가적인 인민경제 차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공장은 대체로 철강, 석탄, 시멘트 부문의 공장이다. 모든 건설과 산업의 기초가 되는 자재와 에너지를 생산해 내기 때문이다. 철강의 경우 전국적으로 현재 강선제강연합기업소, 황해제철연합기업소, 김책제철연합기업소 등이 가동 중인 공장이다. 석탄의 경우 순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 개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 북창지구탄광연합기업소, 덕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 등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시멘트의 경우 순천시멘트연합기업소, 상원시멘트연합기업소, 2·8시멘트연합기업소, 해주시멘트연합기업소가 북한의 4대 시멘트 공장이다. 순천시는 이 중에 두 개의 중요 핵심공장(순천지구탄광연합소, 순천시멘트연합소)을 보유하고 있는 도시이다. 보통 한 개 도시에 하나의 핵심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쉽지 않은데 두 개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순천시는 기본적으로 지하자원을 채굴·가공하는 공장을 중심으로 여기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도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순천은 함흥의 2·8비날론연합기업소와 함께 북한의 양대 비날론 공장인 순천비날론연합기업소로도 유명했다. 김일성의 직접 지시로 북한의 막대한 자금과 기술력이 총동원돼 건설된 순천의 비날론 공장으로 인해 순천은 북한이 자랑하는 ‘비날론 도시’로 명성을 날렸다. 이곳의 지배인을 했던 사람들은 내각의 수장이나 고위직으로 갈만큼 상징성과 중요도가 높았던 공장이다. 이처럼 공업도시로서 상당히 매력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던 순천시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맞은 이후 도시가 쇠락해 왔다. 그 쇠락의 대표적인 모습이 순천비날론연합기업소가 가동 중지되고 지금은 폐허가 돼 자연 해체의 과정에 있는 것이다. 아마도 순천시 공간구조 변화에서 가장 극적인 부분은 순천비날론연합기업소의 폐쇄와 해체일 것이다.

앞으로 비날론은 없애야 되니까 결국은 폭파해 없애야 되잖아요. 뭐 아무 쓸모도 없잖아요. 이거 뭐 폭파해서 없애자 해도 그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대요. 이때까지 땅을 그 해서 그 부지만 해서 알곡 생산한 돈만 해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그 없애지 못한다는 거야. 그 뭐야 기초파고 이렇게 한 게, 그 폭파해도 뭐 좌우간 뭐 야단이지 (함흥) 2·8비날론은 돌아가는데 강짜로 (억지로). 순천은 이거는 아예 안 돌아가니까(사례 9, 구술녹취록 2015 S03).

I

II

III

IV

V

사진 IV-14 순천시멘트연합기업소의 모습



순천비날론연합기업소 터 (2004.3.7. 촬영)



순천비날론연합기업소 터 (2014.7.5. 촬영)

출처: 구글 어스, <earth.google.com>.

이렇게 폐허가 된 순천비날론연합기업소의 모습처럼 순천시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공간상 주목할 만한 변화 없이 정체된 모습을 보여 왔다.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부 건설이 있었지만 눈에 띄는 경관상의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우선 건설 수요가 많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만큼 시중에 건설로 투자될 자본이 없거나 자본이 순천시 건설로 투자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순천시는 시멘트, 항공유, 석탄 등 보유 자원이 다른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아 이것을 시장에 유통시키며 발생하는 수익이 적지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자본이 없어 도시 건설부문이 위축되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결국 순천시 건설부문에 자본이 의도적으로 투자되지 않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것은 투자의 매력이 없다는 얘기가 된다.

둘째, 투자의 매력이 없다는 것은 주택을 건설해도 이익이 크게 남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신규 주택에 대한 주민 수요가 많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렇게 신규 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다는 이유는 대규모 공장들이 입지해 있어 도시 주민 대다수가 노동자 계층이고 이들의 소득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순천에 대형 시장이 순천시장 이외에는 크게 조성돼 있지 않다는 점도 이와 연관돼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도 소재지인 평성시와 같이 중앙의 관심이 높고 대규모 건설 승인이 날 수 있는 조건이 아니기 때문일 수도 있다. 평성시의 경우 도 소재지로서 위상을 가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건설 계획이 내려오는 반면, 순천시는 상대적으로 적거나 소외돼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가령 김정일이 생존해 있는 동안 순천을 단 한 번도 현지도 하지 않았다는 순천 출신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은 순천 주민들이 느끼는 도시 인식에도 일정하게 당국의 무관심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I
II
III
IV
V

(2) 순천시 공간구조의 변화

① 지역 1: 순천역 앞 중심가와 순천시장 일대

지역 1은 순천역 앞 주도로를 따라 형성된 당·행정기관, 환전상거리, 상점, 그리고 순천시장 등이 입지하고 있는 순천에서 가장 변화한 중심 지역이다. <그림 IV-11>을 보면 역 광장 앞으로 난 주도로(1호 도로)를 따라 오른쪽으로 은행, 시검찰소, 시보안서, 시당위원회, 김일성혁명사상연구실 등 시 주요 국가기관들이 배열되어 있다. 왼쪽으로는 태양상을 시작으로 상업관리소, 5호관리소, 환전상골목 그리고 순천시장으로 들어가는 골목 입구 등 주로 상업, 무역, 시장 관련 건물들이 입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공간구조 변화와 관련하여 2000년대 들어 신규 건설이 이루어진 부분을 살펴보면 순천시는 평성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설이 활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천시장 인근 일대를 중심으로 2000년대 중반 이후 새로운 건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발견된다. 시장의 입지가 주변의 주택 건설 활성화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 볼 부분이다.

□ 순천시장 인근 서쪽 일대 새로운 아파트 건설지

가장 주목할 부분은 순천시장 서쪽 인근 순천시차사업소 길을 따라 2000년대 중반 이후 아파트 건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다. 이 일대에 아파트가 활발하게 건설되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순천시장과 가까운 거리라는 지리적 이점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순천시장으로부터 반경 500m 안에 새로운 아파트가 활발하게 건설되고 있다는 것은 시장 활동에 유리하다는 점, 시장과의 인접성이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지역 역시 상대적으로 신규 건설을 할 수 있는 부지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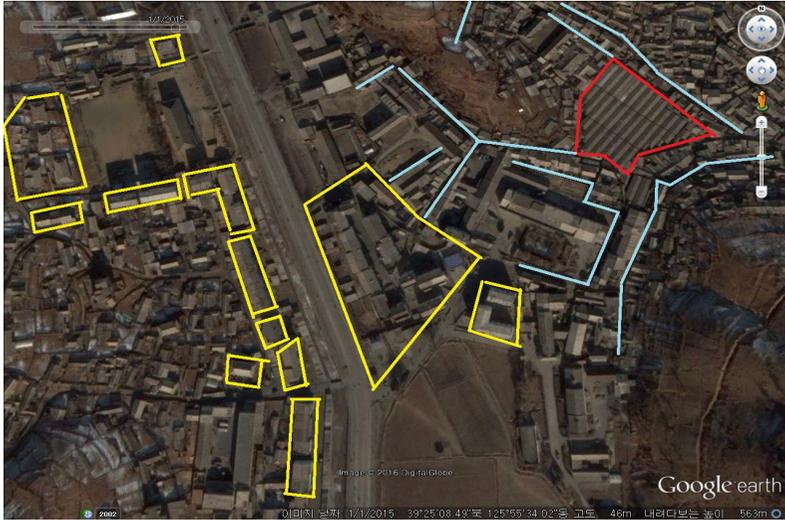
○ 사진 IV-15 순천시장 인근에 새롭게 들어선 아파트 모습



순천시장 인근 일대,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 모습 (2002.12.10. 촬영)
* 빨간색 표시 부분은 순천시장



순천시장 부근 일대,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한 모습 (2004.3.7. 촬영)
 * 빨간색 표시 부분은 순천시장, 노란색 표시 부분 아파트 신규 건설



순천시장 인근에 새롭게 들어선 아파트 모습 (2015.1.1. 촬영)
 * 빨간색 표시 부분은 순천시장, 노란색 표시 부분 아파트 신규 건설
 * 파란색 부분은 순천시장 인근 골목에 형성된 골목장과 창고

출처: 구글 어스, <earth.google.com>.

I
II
III
IV
V

□ 순천시장 동쪽 대동강타일공장 분공장 일대 아파트 건설지

최근 들어 각광을 받고 있고 향후에도 건설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대동강타일공장 분공장 철길 건너 강변 지역이다. 2009년 몇 동의 아파트들이 지어지면서 새로운 건설지로 부각되고 있다. 이 일대 새롭게 건설된 아파트들은 원래 높이 있던 곳이었으나 이를 메우고 건설되었다. 순천시장과 400~500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입지하고 있어 시장 접근성도 뛰어나고 순천역은 물론 환전상 거리 및 도심 상점지역과도 직선 거리로 400~600m 안에 있어 시장 활동에 용이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에도 이 일대는 건설 부지들이 많은 점에서 향후에도 새로운 건설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 IV-16 순천시장 서쪽 대동강타일공장 분공장 부근 신규 아파트 건설





순천시장 동쪽 대동강타일공장 분장 부근 일대 새롭게 건설된 아파트 (2011.9.22. 촬영)
 * 노란색 부분은 새롭게 건설된 아파트 표시



순천시장 동쪽 대동강타일공장 분장 부근 일대 새롭게 건설된 아파트 (2015.10.27. 촬영)
 * 노란색 부분은 새롭게 건설된 아파트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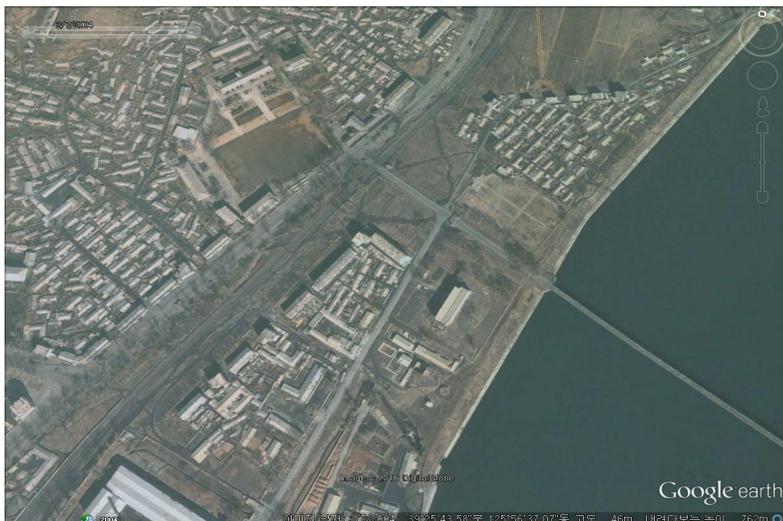
출처: 구글 어스, <earth.google.com>.

I
II
III
IV
V

□ 이수복단과대학 부근 새로운 아파트 건설지

이수복단과대학 부근 인민위원장 사택이 있는 단층주택지에 2005년 건설된 8층 아파트 인근도 새로운 아파트 건설지로 떠오르고 있는 지역이다. 이 아파트는 강변을 끼고 있어 풍광이 좋고 시내 업무중심지구와도 가까워 값이 비싸다고 한다. 지역 1에서 가장 집값이 비싼 곳은 역 앞의 태양상 뒤편과 주요 국가기관이 있는 아파트 거리, 환전상 골목 등이다. 다음으로는 순천시차사업소가 있는 도로에 2000년대 중반 이후 건설된 아파트들이다. 이들 아파트들은 순천시장과 가깝고 건설 부지가 상대적으로 풍부해 이후 개발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건설이 활발한 지역은 순천구두공장 부근의 아파트들이다. 이밖에 순천시장 지역 단층주택들은 주로 창고업, 보관업 등의 용도로 집값이 비싼 편에 속한다.

사진 IV-17 이수복단과대학 부근 새로운 아파트 건설



이수복단과대학 부근 일대 (2004.3.7. 촬영)



이수복단과대학 부근 일대 새로운 아파트 건설 (2015.10.27. 촬영)

* 노란색 부분은 2011년 새로 건설된 아파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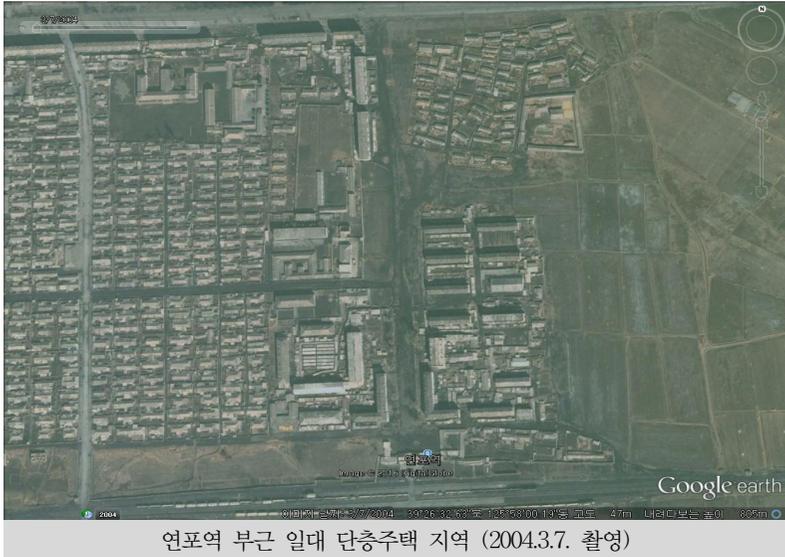
출처: 구글 어스, <earth.google.com>.

I
II
III
IV
V

② 지역 2: 연포동과 봉화동 일대

지역 2에 해당하는 봉화동과 연포동은 순천시 중심에서 대동강 건너편에 위치한 지역이다. 봉화동은 과거 노동자구로 노동자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다. 이 지역에서는 신규 건설이 크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2000년대 초반 연포역 앞뒤로 있던 오래된 단층주택을 철거하고 현재는 빈터로 남아 있다. 연포역전 뒤로 무질서하게 개인들이 지은 단층집들이 많았다. 2003년경에 전부 철거시킨 것이다. 이 집들은 국가가 지은 집들이 아니라 주민들이 무계획적으로 건설한 집이었다. 이를 철거시킨 이유는 연포역 철길에 무계획적인 단층주택이 난립해 있는 모습이 도시 미관에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갑작스러운 철거 배경에는 김정일의 1호 행사가 지나는 철도역 근처에 있어 미관상 좋지 않다는 판단에서 이루어졌다고 한다. 철거 결정을 하고 주민들의 원성이 높았다고 한다. 그래서 이들을 이주시킬 부지를 허가 받았는데, 시 당국은 철거 주민이 이주할 부지에 살림집을 공장·기업소에게 할당했다. 그러나 공장·기업소들은 이때 철거 주민들에게 할당된 부지를 돈주에게 팔고 철거 주민들에게는 자신이 살던 현 집을 주거나 돈을 일부 주고 샀다고 한다. 이렇게 돈주들은 허가가 난 부지를 쉽게 살 수 있었다고 한다(사례 11, 구술녹취록 2015 S05).

사진 IV-18 연포역 부근 단층주택 신규 건설



출처: 구글 어스, <earth.google.com>.

연포동 일대에서 그나마 건설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곳은 다리를 건너 들어오는 도로가에 있는 외국인 숙소와 금강무역회사 건물 부근이다. 여기에는 2004년 이후 건설된 아파트 한 동과 무역회사나 돈주들을 상대로 한 편의봉사시설들이 들어와 있다. 연포동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곳은 대동강 주변에 들어선 아파트들이다. 이 아파트들은 1990년대 초반 건설된 것으로 풍광이 좋고 다리와 가까워 순천 도심으로 나가기 쉽고 연포역과도 멀지 않아 교통에서 유리한 곳이라고 할 수 있다. 다리를 건너 들어오는 초입에 있는 금천강무역회사와 외국인 숙소 부근은 최근 몇 년 사이 무역회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해 각광받는 곳이기도 하다. 특히 이 부근은 순천시 돈주들이 주로 사는 곳이기도 하다. 이들 돈주들은 주로 무역회사 관련 일로 돈을 번 사람들이라고 한다. 금천강 무역회사 건물은 지하 1층, 2층 목욕탕, 안마 봉사소 등이 있어 돈주들이나 무역회사 사람들이 주로 이용한다고 한다. 지금 관광시설로 변화하고 있는 지역이다. 연포동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과거 1970~1990년대 건설된 것들이다. 연포동은 도심보다는 낙후해 있으나 연포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활기를 찾아 연포 역전 일대를 중심으로 단층주택 단지 쪽으로 새로운 건설 가능성이 높다.

 I

 II

 III

 IV

 V

사진 IV-19 외국인숙소 인근 지역 변화



외국인숙소 인근 지역 모습 (2004.3.7. 촬영)



외국인숙소 인근 변화 모습 (2015.1.1. 촬영)

- * 파란색 부분은 외국인 숙소
- * 흰색 부분은 순천시멘트연합기업소 노동자 주택 (삼백만톤아파트)
- * 초록색 부분은 금강무역회사 자리, 현재는 시 기동타격대 건물 사용
- * 노란색 부분은 2004~2005년 건설한 돈주들이 주로 사는 신규 아파트

출처: 구글 어스, <earth.google.com>.

I

II

III

IV

V

③ 지역 3: 강포동 및 자전거 마을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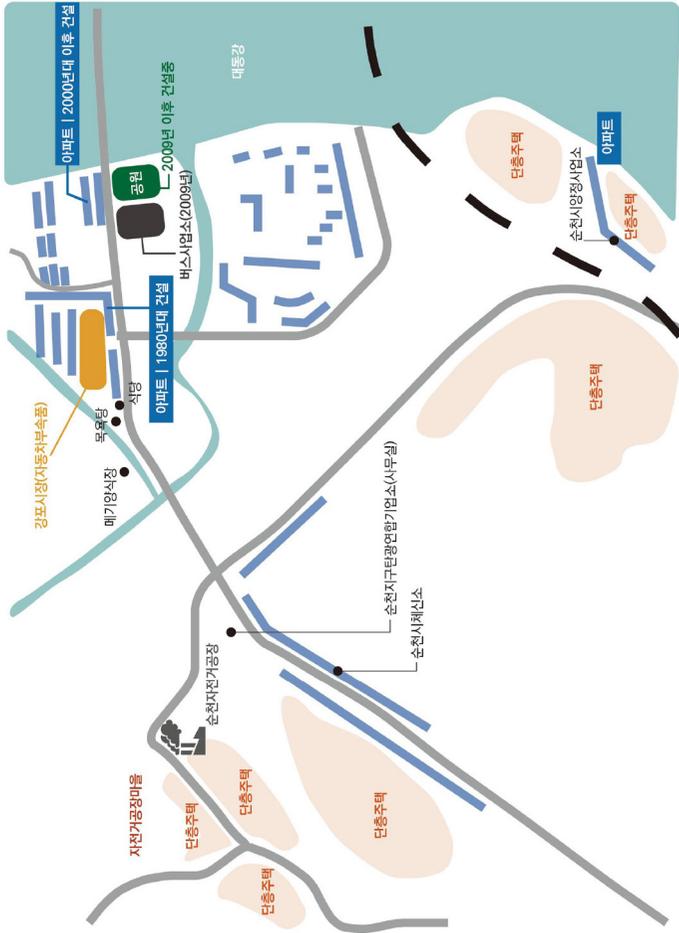
강포동 일대는 최근 들어 가장 주목받고 있는 지역이다. 2000년대 초부터 아파트 건설이 시작되어 2015년 현재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지역이다. 일단 이곳은 건설 부지가 풍부하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강을 끼고 있어 풍광이 좋고 도심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어 직선 거리로 순천역까지 약 2km에 불과하다. 특히 바로 인근에 강포시장이 있다는 점도 이점이다. 물론 강포시장은 자동차 부품을 주로 거래하는 시장이긴 하지만 일반적인 소비품 역시 팔고 있어 일상적인 소비에서는 편리하다고 할 수 있다. 향후에도 이 일대 부지에는 새로운 아파트들이 추가적으로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강포동 일대가 주목받고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다리 입구에 큰 놀이시설이 건설 중이라는 점이다. <사진 IV-21>에서처럼 현재 건설 중인 놀이시설은 중앙당 재정경리부 산하 ‘능라88무역회사’가 투자해 공사가 시작된 체육·오락·유흥시설로 알려졌다.¹¹¹ 최근 완공단계에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면에는 건설 과정에서 돈주들의 투자를 받아 시설 내 있는 식당이나 편의시설을 돈을 받고 분양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 대부분의 건설은 국가 재정이 아닌 민간자본에 의해 지어지는데, 건설 이후 투자한 만큼 편의시설이나 건물 일부를 배분해주는 방식으로 건설된다. 이 시설도 마찬가지로 민간의 건설 투자를 받아 짓고 완공 후 일부 시설의 사용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건설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¹¹¹- “북, 7차 당대회 자금 마련 순천시에 호화 유흥시설 건설,” 『데일리NK』, 2015.11.19.

그림 IV-13 순천 지역 3: 강포동 및 자전거 마을 일대

순천 지역 3
강포동



출처: 필자 작성.

사진 IV-20 강포시장 일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 모습



강포시장 일대 2000년대 초반 이후 아파트 건설 중인 모습 (2004.3.7. 촬영)



강포시장 일대 대규모 아파트가 조성되고 있는 모습 (2015.10.27. 촬영)

출처: 구글 어스, <earth.google.com>.

사진 IV-21 강포동 일대 건설하고 있는 유흥시설



강포동 일대 유흥시설 들어서기 전 (2004.3.7. 촬영)



강포동 일대 유흥시설이 건설 중인 모습 (2014.9.20. 촬영)

출처: 구글 어스, <earth.google.com>.

I
II
III
IV
V

④ 그 밖의 지역

□ 순천시멘트연합기업소 일대: 거대 시멘트 시장 마을의 형성

순천시가 자랑하는 순천시멘트연합기업소는 평양의 상원시멘트연합기업소, 황해북도 봉산군의 2·8시멘트연합기업소, 해주시멘트연합기업소 등과 더불어 북한의 4대 시멘트 공장 중 하나이다. 현재도 가동 중이며 여기서 나오는 시멘트의 많은 부분이 평양시 건설 사업에 들어가고 있다. 현재 순천시멘트연합기업소 인근 일대는 시멘트 공장으로부터 나오는 시멘트를 시장에 유통시키는 거대한 시멘트 시장 마을로 변했다. 2000년대 들어 이 일대에 단층집들이 밀집하기 시작해 지금은 유출된 시멘트를 보관하거나 포장하고 판매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변했다.

○사진 IV-22 순천시멘트연합기업소 인근 일대에 조성된 시멘트 시장 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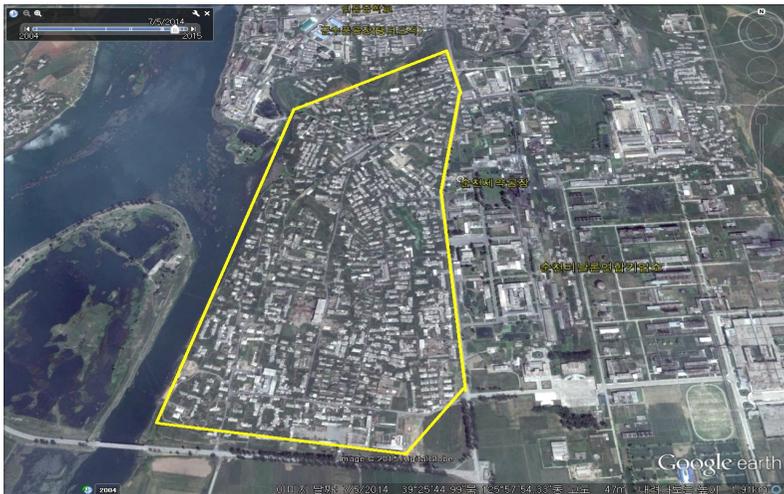
시멘트 시장이 형성된 순천시멘트연합기업소 일대 모습 (2014.7.5. 촬영)

출처: 구글 어스, <earth.google.com>.

□ 용봉동 마약 제조 지역

제약공장과 비닐론연합기업소 가는 길에 있는 용봉동은 순천시에서 가장 낙후한 느낌을 주는 지역이다. 전체적으로 저지대여서 ‘물웅덩이’ 지역이라고도 불리며, 장마철이면 홍수가 나기 일쑤이다. 그래서 집값이 제일 싼 지역이고 개발이나 신규 건설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정체된 지역이다. 그러나 이 가난한 지역은 역설적이게도 돈주들이 선호하는 지역이다. 그 이유는 이 지역이 전국적인 마약 생산지역이기 때문이다. 국내 유일의 페니실린을 제작하는 순천제약공장을 끼고 있어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의해 마약 제조 기술이 확산돼 이 용봉동 일대 개인 살림집에서 마약이 만들어지고 있다(사례 11, 구술녹취록 2015 S05). 그래서 마약 제조·유통에 관여하는 돈주들이 이곳을 선호한다고 한다.

○사진 IV-23 순천시 용봉동 저지대 일대 모습



마약 제조가 주로 이루어지는 용봉동 일대 (2014.7.5. 촬영)

출처: 구글 어스, <earth.google.com>.

I
II
III
IV
V

다. 청진시 건설시장과 공간구조 변화

청진시의 공간구조 변화를 보기 위해 임의로 총 4개 지역을 나눠 살펴보면 <그림 IV-14>와 같다. 지역 1은 포항구역 일대로 동상과 경기장, 도당위원회, 도당학교, 시당위원회, 시인민위원회, 도보안국, 도당학교, 도철도안전국, 도 도서관 등 도급·시급 국가기관이 밀집한 지역이고, 지역 2는 수남구역의 수남시장 일대이고, 지역 3은 역시 포항구역으로 남향시장이 입지해 있는 지역이고, 지역 4는 나남구역 일대 등이다.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청진시 전체 도시화된 시가지를 표시한 것이고 검정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순천시에서 아파트, 단층주택, 건물 등이 활발하게 건설되는 지역을, 주황색의 글자는 청진시에 있는 공식적으로 허가된 시장 중 16개의 시장을 표시한 것이다.

(1) 내륙과 접경을 연결하는 시장 네트워크의 거점 도시

청진시는 과거에 가졌던 중공업 도시로서의 면모가 위축된 반면 1990년대 이후 시장의 변성으로 인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현재 청진시에는 공식적인 시장만 18개에 이를 만큼 다른 도시에 비해 그 수와 비중에서 압도적인 시장의 위상을 자랑하고 있다. 또한 수남구역에 위치한 수남시장은 전국적인 유통망을 가진 도매시장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북·중 접경도시(혜산, 회령, 온성)와 동해안 도시축(나선-김책-함흥-월산)을 연결하는 북한 내 시장 네트워크에서 중요 거점 도시의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과 북한을 연결하는 대외 시장 네트워크상에서도 중요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 일본의 대북경제 제재가 있기 전인 2000년대 중반까지는 일본과 중국을 연결하는 중계무역기지로써 명성을 날린 바 있다. 이렇게 시장이 변성하면서 청진시는 경제난의 여파로 퇴색해 가던 중공업 도시에서 시장을 통해 새롭게 도시의 역동성을 만들어 내고 있다.

(2) 청진시 공간구조의 변화

① 지역 1: 포항구역 일대 - 청진제강소의 해체와 재개발

지역 1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공간구조 변화는 청진제강소 일대의 재개발이라고 할 수 있다. 청진제강소는 2012년 찍은 위성사진에서 공장 일부가 철거된 것이 확인되었다. 이후 2015년 사실상 완전 해체 과정에 들어갔고 주변 지역이 대대적으로 재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진제강소(3월10일 제강소)는 성진제강소,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등과 함께 북한을 대표하는 제강소 중 하나로 꼽혀 왔다. 종업원만 5천 명이 넘는 특급기업소로 청진시 포항구역 남강동에 위치해 있었다. 청진제강소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겪으며 공장 가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해왔고 2000년대 들어 거의 가동을 중지하게 되었다. 생산 시설이 낡은 데다 전력을 공급하지 못해 사실상 오래 생산을 중단한 상태로 방치되어왔다. 노동자들이 주요 설비와 부품을 절취하여 사실상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2015년 폭파를 통한 해체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나마 남아 있던 설비들은 김책제철소와 성진제강소 등지로 이관되었다고 한다.¹¹²

● 사진 IV-24 청진제강소 해체·철거와 재개발 모습



청진제강소 공장과 전체 부지 (2006.8.30. 촬영)

* 노란색 부분 공장 전체 부지

112- “북, ‘3월10일 제강소’ 완전 해체,” 『자유아시아방송』, 2015.4.14.



청진제강소 일부 철거와 부지 용도 변경 (2012.11.18. 촬영)
 * 빨간색 부분 공장 일부 철거 모습
 * 파란색 실선은 공장 부지 용도 변경하여 정리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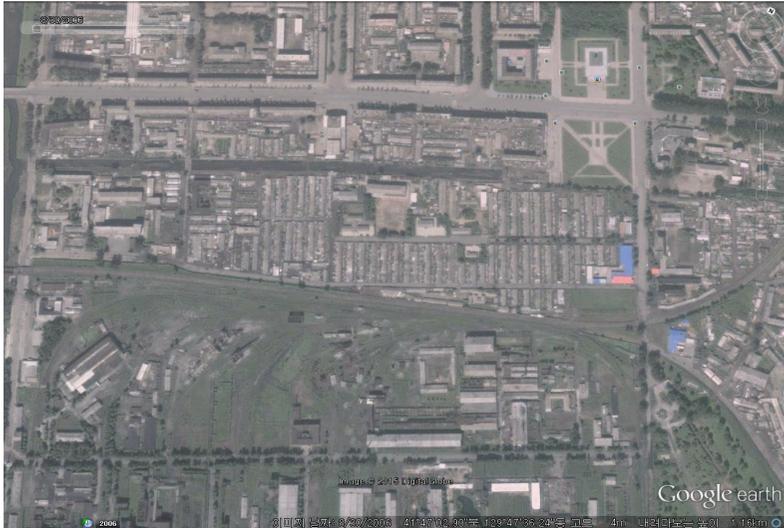


청진제강소터 재개발 모습 (2015.9.21. 촬영)
 * 노란색 부분은 남아 있는 공장 부지
 * 빨간색 부분은 철거된 공장 부지
 * 파란색 부분은 광장, 공원, 아파트, 외국인 숙소, 콘도 등으로 개발 중인 부지

출처: 구글 어스, <earth.google.com>.

I
II
III
IV
V

사진 IV-25 청진시 동상구역 일대 변화된 모습



동상 앞 광장 주변 (2006.8.30. 촬영)



동상 앞 광장 주변 (2015.9.21. 촬영)

출처: 구글 어스, <earth.google.com>.

<사진 IV-24>와 <사진 IV-25>에서 보듯 2012년부터 김일성·김정일 동상에서부터 해안가까지 청진제강소 부지를 정리하고 넓은 폭의 도로와 공원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중앙도로와 공원 옆으로는 대규모 고층아파트와 외국인 및 내국인들을 위한 숙소(콘도), ‘청진편의종합사업소(상점 및 편의시설)’ 등이 건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런 재개발을 통한 변화 역시 시장 논리가 일정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건설 과정에서 화교자본을 비롯하여 민간의 자본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규모 공원, 편의시설, 콘도 등이 들어서면서 새로 건설되는 고층아파트의 집값이 크게 오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급·시급의 정치·행정기관들과 고급상점, 큰 시장 등이 밀집해 있어 기존에도 이미 집값이 비쌌던 지역이라 재개발로 더욱 집값시세가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역 1에서 청진조선소 역시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장소라고 할 수 있다. 청진시 수남구역 어항동에 위치한 청진조선소는 북한의 3대 조선소 중 하나이며 동해안의 최대 선박 건조기지로 꼽혀 왔다. 해방 후 수산성 산하 선박수리공장으로 운영되었던 청진조선소는 공장 내부에 철길과 자동차도로가 구비되고 총 부지면적은 60여만㎡로 북한의 최대 조선소의 하나였다. 종업원이 2만 명에 이르던 모체 기업인 ‘함북청진조선소연합기업소’는 1984년까지 소형 어선에서부터 배수량 1만 4천 톤 급의 대형 화물선, 준설선, 여객선, 함정에 이르는 다양한 선박을 건조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난의 행군’ 이후 2만 명의 종업원들을 가지고 있던 ‘함경북도 조선소 연합’이 해체되고 청진조선소는 독립적인 기업으로 개편되어 종업원은 5천 명으로 명맥을 이어왔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설비를 절취하여 팔면서 가동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그동안 러시아의 주문을 받아 간신히 생산되던 ‘꼰떼나(컨테이

I
II
III
IV
V

너’ 제작도 철판을 공급받지 못해 중단되었다.

2013년 청진시에 입지하고 있는 다른 군수공장들과 통합해 군수산업기지로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¹¹³ 기존에 군함을 건조하던 ‘일용분공장’, ‘129호 공장’과 합쳐져 북한 국방위원회 산하 제2경제위원회 군수공장으로 이관된 것이다. 노동당 대남연락소(신진동, 선박제조) 배수리공장과 나란히 위치한 청진조선소 ‘일용분공장’은 경비정과 어뢰정, 초고속정(공기부양정)을 생산했고 ‘129호 공장’은 알루미늄 강판과 어뢰 부품을 생산해 왔다. 국방위원회 산하 군수공장으로 넘어가면서 청진조선소의 인원은 1천 명 정도로 축소되었다고 한다. 청진조선소는 제2경제위원회 4총국(군수선박건조) 소속인 것으로 전해진다. 군수공장으로 전환된 뒤 청진조선소는 일부 경비정 생산과 함께 현재 6인승 침투용 반잠수정을 기본으로 제작하고 있다.

② 지역 2: 수남시장 일대 - 전국적 유통망과 무역회사 입지

지역 2에 해당하는 수남시장 일대는 원래 단층주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다. 수남시장이 전국적인 도매시장으로 성장하면서 유동인구가 증가하고 물자의 이동이 많아지면서 수남시장 일대의 단층주택들이 대부분 시장 관련 용도로 쓰이고 있다. 기존 단층주택들의 용도변경 이외에 공간구조상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수남시장 바로 위쪽 평지에 2012년 전후로 무역회사들이 들어서기 시작한 부분이다. 수남시장이 워낙 전국적인 유통망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물건들이 북·중 국경무역을 통해 수남시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무역회사의 입지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¹¹³- “북, 청진조선소 군수공장으로 전환,” 『자유아시아방송』, 2015.4.20.

사진 IV-26 수남시장 일대 변화 모습



수남시장 일대 모습 (2006.8.30. 촬영)



수남시장 일대 변화 모습 (2015.9.21. 촬영)

- * 노란색 부분은 수남시장
- * 파란색 부분은 2000년대 중반 이후 들어서기 시작한 외화별이 무역회사들

출처: 구글 어스, <earth.google.com>.

<사진 IV-26>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2012년 이후 들어서기 시작한 무역회사들이다. 수남시장 왼쪽으로 수성천까지 아직 많은 여유 부지가 있어 이후에도 시장의 확장이나 무역회사의 입지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③ 지역 3: 포항구역 북부 일대 - 공간구조상의 변화는 없지만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

지역 3은 포항구역 북쪽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청진외과대학, 함경북도병원, 청진철도총국, 청진철도병원과 단층주택들이 밀집한 지역이다. 대체로 개발이 정체되어 있는 지역으로 2004~2015년 사이 공간구조상의 큰 변화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 다만 남향시장 인근에 새로운 단층주택 단지가 2006~2012년 사이 조성된 것이 그나마 눈에 띄는 공간구조상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포항구역 남쪽 지대가 새로운 개발이나 건설에 필요한 부지가 제한적이란 점에서 향후 이 지역 일대의 개발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I

II

III

IV

V

사진 IV-27 남향시장 인근 주택단지 조성



남향시장 인근 지역 (2006.8.30. 촬영)



남향시장 인근 단층주택 단지 건설 (2015.9.21. 촬영)

출처: 구글 어스, <earth.googl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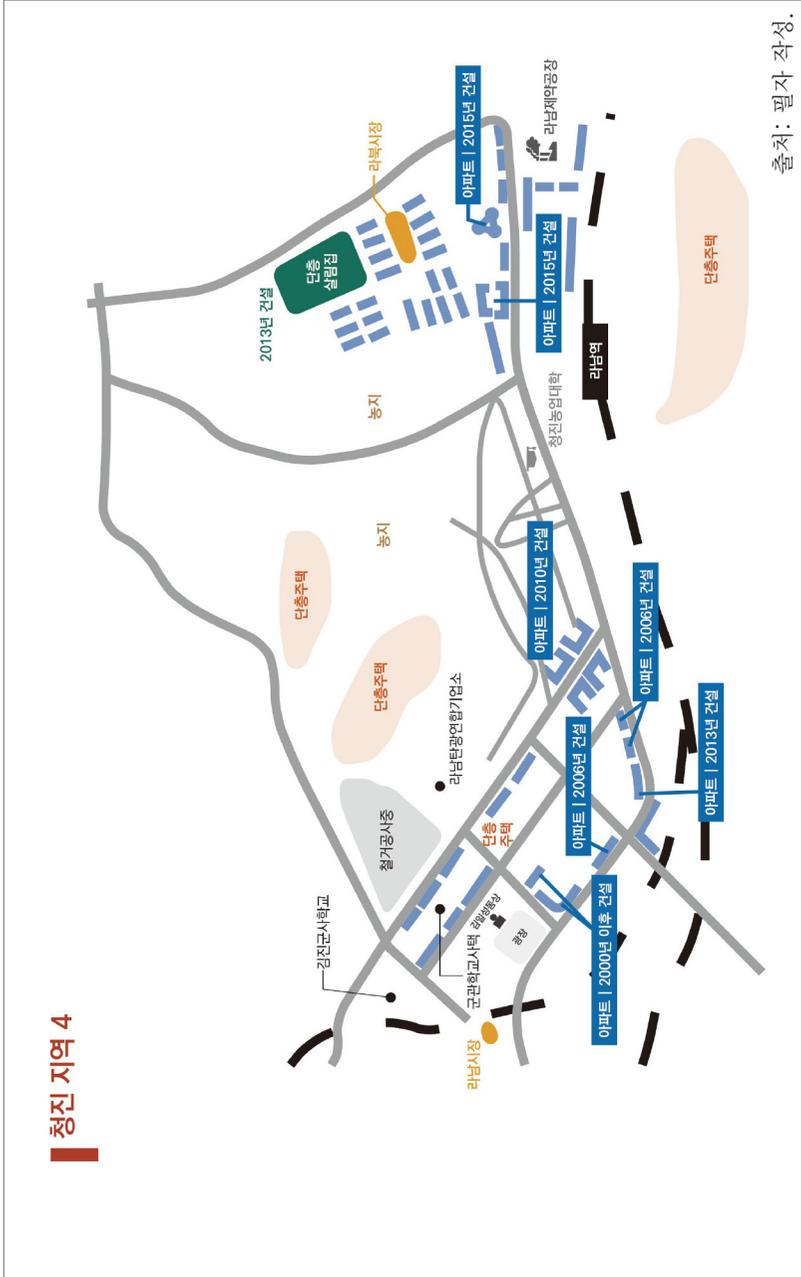
- I
- II
- III
- IV
- V

④ 지역 4: 나남구역 일대 - 시장을 주변으로 대규모 아파트 및 주택 단지 조성

나남구역에는 나북시장과 나남시장 2개가 있다. 이 두 시장을 중심으로 새로운 건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청진시에서 포항구역과 더불어 공간구조상의 변화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나남탄광기계연합기업소의 일부 철거와 재개발이 주목할 부분이다. <사진 IV-28>의 위성사진 판독 결과 2015년 5월 사진에서는 큰 변화가 없던 기업소 부지가 2015년 9월 사진에서는 기업소 일부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운 건설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건물 자체를 헐어냈다는 점에서 나남탄광연합기업소의 개건이나 재건축으로는 보기 힘들고 다른 용도의 건물을 건설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또 하나 이 일대 공간구조상의 변화로는 나남탄광연합기업소로 들어오는 주도로 초입에 2010년부터 고층아파트들이 건설되기 시작한 부분이다. 한편 나남구역에서 가장 큰 공간구조상의 변화가 나타난 지역은 <사진 IV-29>에서 보듯 나북시장과 나남제약공장 주변이다. 농업용지로 쓰였던 넓은 평지 위에 2010년 이후 대규모 주택단지와 고층아파트를 조성한 것이다. 농업지역을 훼손하여 개발하는 것을 가급적 허용하지 않는 북한의 일반적인 관행상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나남구역 중심가와 김책제철연합기업소 중간 위치에 이 지역 신규 아파트와 주택단지는 나남구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돈주들이나 주변 공장·기업소의 노동자들에게 공급되는 용도로 보인다.

그림 IV-18 청진 지역 4: 나남구역 일대

청진 지역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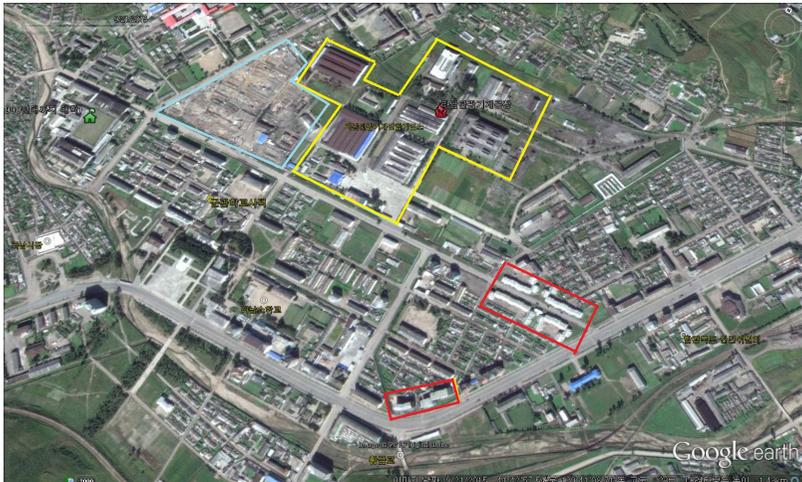


출처: 필자 작성.

사진 IV-28 나남탄광연합기업소 부근 재개발 모습



나남탄광연합기업소 부지와 그 일대 (2015.5.23. 촬영)



나남탄광연합기업소 부지 일부 철거와 재개발 (2015.9.21. 촬영)

- * 파란색은 철거된 부지
- * 빨간색은 2010~2012년 건설된 아파트

출처: 구글 어스, <earth.google.com>.

사진 IV-29 나남구역 나북시장 주변 대규모 주택단지 및 아파트 건설



나남구역 나북시장 주변 일대 모습 (2000.9.25. 촬영)



나남구역 나북시장 주변 대규모 주택단지 및 아파트 건설 (2015.9.21. 촬영)

출처: 구글 어스, <earth.google.com>.

I
II
III
IV
V

3. 도시 건설시장의 동학과 도시정치

3장 2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평성, 순천, 청진에 대한 위성사진 판독 결과 2004~2015년 사이 3개 도시에서는 도시마다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건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평성에서는 아파트 건설이 일종의 ‘붐’처럼 조성돼 있다. 청진 역시 2000년대 후반 들어 아파트 건설이 활기를 띠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런 위성사진 판독을 통해 나타난 변화는 북한이탈주민 면담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었다.

이와 같은 도시 건설의 활기는 시장화의 확대 및 심화 과정과 맥을 같이 해왔다고 볼 수 있다. 시장화가 심화되면서 시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자본을 둘러싸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했고 도시 ‘건설시장’은 그런 이해관계의 결과물이란 점이다. 소위 말해 건설시장을 둘러싼 권력엘리트, 도시 관료, 민간자본 사이의 ‘동맹’ 또는 ‘제휴’가 시장화의 새로운 국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것은 최고 지도자의 통치전략, 권력기관의 특권화, 도시 관료의 생존전략, 민간자본의 축적전략, 주민들의 소비욕구 등이 맞물리는 지점에 ‘건설시장’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20여 년 넘게 진행된 시장화는 과거 계획경제 시기와는 다른 ‘도시정치(urban politics)’¹¹⁴의 새로운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본 절에서는 도시 건설시장을 둘러싼 국가와 시장의 이해관계와 동학을 ‘도시정치’ 차원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2000년대 들어 도시 건설시장이 활성화된 계기와 원인을 국가와 시장의 관계 차원에서 살

¹¹⁴ ‘도시정치’와 관련한 개념사적 논의로는, Kevin Ward and David Imbroscio, “Urban Politics: An Interdisciplinary Dialogue,” pp. 853~871 참조.

펴보고자 한다. 또한 평성, 순천, 청진에서 도시 건설시장의 활성화 수준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원인을 파악해 본다. 둘째, 도시 건설시장이 구체적으로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평성시의 사례를 통해 세부적으로 살펴본다. 이를 통해 국가-관료-자본의 결합으로 형성된 ‘아파트 건설동맹’의 실재를 보여주고자 한다. 셋째, 북한의 도시 건설시장을 통해 ‘도시정치’ 특징을 도출하고자 한다.

가. 시장화와 도시 건설시장의 형성

(1) 도시 건설시장 활성화의 원인과 배경

1970년대와 1980년대는 북한에서 건설의 ‘최고조’ 시기라고 할만하다. 대형 건축물과 주택 및 시가지 건설이 평양을 중심으로 주요 대도시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특히 대규모 고층아파트가 등장한 시기도 이때부터이며 이들 아파트들이 본격적으로 건설되면서 도시의 경관을 크게 바꾸기 시작했다. 이 당시 건설된 건설물들은 마치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을 과시하고 선전하기 위한 것처럼 대부분 도시의 중심가에 시각적으로 진열되듯 건설되었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주로 도시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김일성 동상과 도당위원회 앞을 지나는 주도로(1호 행사 도로)를 따라 도로변에 일렬로 건설되었다. 그리고 아파트 뒤편으로는 낮은 단층주택들이 밀집해 들어서 아파트 벽에 의해 가려지는 구조였다. 마치 아파트를 도로 전면에 내세워 과시하면서 전시하고 단층집들은 아파트로 가리는 모양새였다. 이런 구조의 아파트 건설 경향은 거의 모든 도시에서 정형화된 패턴으로 1970~1980년대 지은 아파트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 시기 지어진 아파트를 요즘 주민들은 ‘국가아파트’라고 부른다. 국가가 건설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I
II
III
IV
V

것이다.

이 당시 건설의 활성화는 정치적 차원에서 기획된 결과물이었다. 김정일이 1974년 당내에서 후계자로 공식화된 시기와 맞물려 후계자로서의 업적 쌓기와 아버지 김일성으로부터 확실한 인정을 받기 위한 정치적 기획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김일성의 60세 생일(1972년)과 70세 생일(1982년)에 맞춘 대규모 살림집 건설 계획이 무리하게 수립되어 진행되었다. 새로운 지도자의 능력과 치적을 가장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차원에서 ‘평양시 꾸리기 운동’과 같은 도시미화 사업이 전개되었다. 평양시를 중심으로 아파트 건설 열풍이 불었다. ‘기와집에 이밥과 고깃국’으로 표현되는 김일성의 이상적 사회주의적 삶의 실현에서 아파트는 ‘기와집’에 해당했다. 주민들의 주택난을 해결한다는 명분 때문에 반대하기 힘든 사업이었다.¹¹⁵

그러나 대규모 살림집 건설사업은 큰 재정과 인력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었다. 또한 중장기 경제계획과 그 해 기본계획의 큰 조정을 통해서만 가능했고 결국 중장기 경제계획은 파행을 거듭하고 매년 수행해야 하는 기본 계획도 뒤로 밀리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당, 근로단체, 군부 등 특권기관들에 의해 자원이 무계획적으로 전용되면서 공식 경제 기구를 무력화시켰다.¹¹⁶ 건설 인력 역시 김정일의 의해 발기된 ‘속도

¹¹⁵ 홍민, “북한의 아파트 건설시장과 도시정치,” p. 38.

¹¹⁶ 자재위원회가 보유한 국가 예비물자가 거덜나기 시작했고, 1970년대부터 당원돌격대, 속도전청년돌격대, 건설군부대 등이 건설위원회의 업무를 가로채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과거 주택으로부터 시작하여 공공시설 및 지구 개발에 이르는 건설 업무를 집중 관리하였던 건설위원회의 권위가 크게 약화되었다. 특히 도시 주택건설 업무는 소멸되다시피 하였다. 이런 특권기관들은 1980년대에는 중앙 단위의 대규모 건설보다는 평양시 아파트 등을 자체적인 방법으로 건설한다거나 자기기관의 예산을 자체로 해결하겠다는 내용의 제의서를 제출하여 워크를 받아갔다. 박형중·최사현, 『북한에서 국가재정의 분열과 조세 및 재정체계』 (서울: 통일연구원, 2013), p. 66. 이 건설 ‘워크’가 1990년대 후반에 들어 특권기관이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권한이

전’ 아래 각종 ‘전투’의 이름으로 동원되었다. 특히 평양시 아파트 건설에 ‘속도전청년돌격대(1975)’¹¹⁷가 무상으로 동원되었다.¹¹⁸

이와 같이 1990년대 이전까지 아파트 건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수행되었지만, 인민경제 차원에서 합리적 의사결정에 의해 기획된 것이 아닌 지도자의 치적을 쌓고 유일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정략적 판단 아래 전시적으로 무리하게 이루어진 측면이 강하다. 이렇게 건설된 아파트는 역시 주민들에게 공평하게 배분되지 않고 지위나 성분에 따라 차별적으로 배분되었다. 이와 같이 1990년대 이전까지 건설된 대부분의 대규모 살림집 건설은 사회주의체제 우월성의 과시, 지도자로서의 입지 강화라는 정략적 목적, 계획경제의 파행, 특권계급에 대한 차별적 배분 등이 총체적으로 결합된 산물이었다.¹¹⁹

그러나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겪으며 국가 차원에서 기획된 아파트 건설은 침체될 수밖에 없었다.¹²⁰ 1990년대 후반 들어서부터 국가가 아닌 민간의 개인들에 의한 아파트 건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북송교포와 같이 해외로부터 송금을 받아 자금을 가지게 된 초기 ‘돈주’들이 국가기관 명의를 빌려 건설자금과 인력을 동원하여 건설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시기를 통해 ‘건설은 곧 국가가 한다’는 상식이 깨지고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개인도 건설을 할 수 있다는 사고의 전환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홍민, “북한의 아파트 건설시장과 도시정치,” p. 38.

117- 속도전청년돌격대는 1970년대 중반 창설 이래 1990년까지 창광거리, 문수거리, 통일거리, 광복거리 등 수많은 주요 아파트 건설에 동원되었다.

118- 홍민, “북한의 아파트 건설시장과 도시정치,” p. 38.

119- 위의 글, p. 39.

120- 소위 ‘고난의 행군’이 끝나는 1998년 이후 1999년에 잠시 신규 아파트 건설(약 5만 호 추정)이 있었으나 공식적인 국가예산 투입의 비중은 낮고 민간자본의 유입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김근용, “북한의 주거실태와 주택투자 소요 추정,” 『건설경제』, 57권 (2008), p. 36.

나타난 것이다. 특히 ‘고난의 행군’ 시기 식량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사는 주택의 입사증을 팔기 시작했고 원시적인 형태이지만 주택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했던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¹²¹ 이 인식의 전환은 큰 변화를 가져왔다. 바로 주택을 상품으로 보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북한의 시장화는 곧 주택의 상품화 과정이기도 했다고 볼 수 있다. 2000년대 들어 주택은 시장을 통해 축적된 민간자본을 통해 건설되고 거래되는 상품이 되었다.¹²² 북한에서 주택은 이제 자본 축적 수단, 부와 지위의 과시 수단, 소비 욕망의 대상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아파트 건설과 거래를 둘러싼 이해관계도 한층 복잡하고 다양해졌다. 많은 사람들이 건설시장을 통한 이윤 창출에 관심을 갖고 관여하기 시작했다. 국가 역시 건설시장을 이용해 다양한 방식으로 이익을 쟁취하기 시작했다. 기본적으로 ‘건설’은 구체적인 토지 위에 실체화된다는 점에서 국가의 개입이나 승인, 방조, 묵인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¹²³ 국가는 민간자본과 결탁하여 건설

¹²¹-북한의 경우 주택에 대한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국가소유이다. 북한은 한국전쟁 이후 도시와 공장지대들을 복구 건설하는 사업을 지도하기 위하여 내각의 도시건설성을 도시경영성으로 개편하고 국가건설위원회를 조직하여 주택정비사업에 돌입하였다. 이에 따라 계층과 직위에 따라서 주민들에게 주택을 배정하였으며, 그 관리 및 입주권 배정은 시, 군 인민위원회 도시경영사업소에서 담당하였다. 입주절차는 결혼 등록을 하고 주택을 신청하면 ‘입사증’을 발급해 주는데, 이를 동사무소와 분주소(파출소)에 제출하여 등록한 뒤에 입주를 하게 되며, 일단 입주를 하게 되면 전기세나 물세 등을 내고 전직이나 이주 명령이 없는 한 평생을 살 수 있다. 대형 공장과 기업소의 경우는 자체적으로 자재를 구입해서 주택을 스스로 건축하여 소속 노동자나 사무원들에게 공급해 주었다. 이 경우 공장이나 기업소의 지배인 또는 당비서가 발급한 ‘주택입사승인서’를 가지고 거주지, 시, 군 행정경제위원회 도시경영과에 제출하면 ‘주택입사증’을 교부해 주는데, 이를 도시 동사무소와 분주소에 신고한 뒤에 입주할 수 있다. 장병일, “북한 주민의 주택 이용관계와 민법상의 임대차계약,” 『통일정책연구』, 20권 2호 (2011), pp. 87~88.

¹²²-홍민, “북한의 아파트 건설시장과 도시정치,” p. 42.

¹²³-큰 자금이 투자된 경우에는 권력기관의 확실한 담보가 보장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당기관의 경우 현실에서 법보다 더 우위에 있고 만약 법에 해당 규정이 있어도

실적과 기관이익을 챙겨왔다.

한편 민간자본이 투자된 건설시장이 새로운 투자처이자 자본 축적 장소가 되면서 돈이 몰리기 시작했고 건설 시세가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물론 북한의 다른 모든 상품들이 마찬가지로지만 북한에서 주택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다. 주택 거래 가격의 변화는 곡물 값이나 환율 등과 민감하게 연동돼 있다. 아파트 건설 과정에 소요되는 철근, 시멘트, 인력 등의 많은 부분이 시장에 의존해 왔으며, 건설 수요가 많을수록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전반적인 물가에도 영향을 미쳐 왔다. 좋은 위치에 새롭게 건설된 아파트들이 속속 나와 고가에 거래되면서 집값 상승을 부추긴 측면이 있고 계층 간 소득 격차를 벌리고 위화감을 조성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한편 2000년대 중반 이후 활기를 찾은 건설시장은 김정은 정권 들어 국가 차원의 장려에 의해 활성화되고 있다. 특히 김정은 정권 들어 평양시를 중심으로 고층아파트 건설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2012년 6월 완공한 만수대지구 45층 초고층 아파트 단지, 2013년 완공된 은하과학자거리와 김일성종합대학 과학자아파트, 2014년 당 창건 기념일에 맞춰 완공된 위성과학자거리와 김책공업대학 교육자아파트, 2015년 11월 준공된 미래과학자거리 53층 초고층 아파트 등 지나치게 과열돼 보이는 건설 붐이 일고 있다.¹²⁴

이와 같이 2000년대 들어 조성된 건설 붐은 국가권력, 민간자본, 시

당적 사업의 명목으로 가능하다. 현재 국가주택이라도 매매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허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주택의 건설, 매매 등에는 이를 매개하는 중개인, 인민위원회 산하 주택담당 실무자, 보안부 담당 보안원, 당적으로 담보해 주는 당일군 등의 네트워크를 통해 작동한다. 손희두, 『북한의 부동산관리법제와 남북한 협력방안 연구』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2012), p. 106.

¹²⁴ “북, 평양 53층 아파트 어떻게 지어졌길래…‘최고수준’ 자찬,” 『연합뉴스』, 2015.11.17.

장, 도시 관료들이 결합한 일정한 시장 메커니즘을 형성하고 있다.¹²⁵ 특히 아파트 건설은 새로운 지도자의 능력을 과시하려는 정치적 동기, 기관 및 개인 이익을 챙기려는 국가 권력기관들 사이의 경쟁, 할당된 계획실적을 달성하고 이익을 내려는 기관·기업소의 생존논리, 부를 축적하려는 민간자본의 경제적 동기, 그리고 건설에 필요한 목재, 철근, 시멘트, 장비, 인력 등의 수요를 만들어내려는 시장의 유인 등이 결합해 이루어지고 있다.

(2) 평성·순천·청진의 건설시장 차이

평양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건설 붐이 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도시별로 건설시장의 활성화 열기는 온도차가 있다. 평성, 순천, 청진 3개 도시 중 가장 건설 열기가 뜨거운 도시는 단연 평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청진 역시 최근 몇 년 사이 도시 경관에서 새로운 아파트와 건물들이 많이 포착되고 있다. 특히 가장 중심이 되는 도심 한 복판의 동상 부근에는 최근 몇 년 사이 기존의 오래된 주택이 정리되고 새로운 아파트와 건물들이 들어서 큰 경관상의 변화를 연출하고 있다. 반면 순천시는 이 두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설이 침체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10년 사이 간헐적으로 새로운 건물들이 도시에 들어서고 있는 것이 위성사진을 통해 포착되고 있지만 10년이란 기간을 생각한다면 변화 속도가 매우 느리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순천시는 북한에서는 대표적인 공업도시로 꼽히고 시멘트, 석탄, 항공유, 약품 등이 다른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풍부해 시장을 통한 유통도 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대부분 농경지이긴 하지만

¹²⁵ 홍민, “북한의 아파트 건설시장과 도시정치,” p. 44.

순천평야가 펼쳐져 있어 도시를 확장하고 건설을 할 수 있는 부지가 풍부하다. 민간에서 자본을 축적할 수 있고 도시가 건설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경제적 조건과 지리적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 건설 부문이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가 궁금할 수밖에 없다.

우선 건설 계획과 승인이 날 수 있는 조건의 제약을 들 수 있다. 평성시의 경우 보통 건설계획이 중앙당, 도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건설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 중앙이나 도 차원에서 내려오는 건설은 대부분 큰 규모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개입하게 되고 서로 연합을 해서 이익을 나눠 갖는 식으로 건설 협업 구조가 발달할 수밖에 없다. 도 소재지이기 때문에 내려오는 크게 할당된 건설 허가권을 이용해 명목만 국가 건설로 하고 사실상 민간이 건설을 하는 방식으로 대규모 건설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평성시는 건설을 할만한 부지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로부터 할당량이 떨어지면 건설한 부지를 도에서 정해 허가해 주기 때문에 민간자본(돈주)들에게는 절호의 투자 기회가 된다는 것이다. 도 소재지가 갖는 도시체계상의 우위로 인해 조직화된 건설시장이 작동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순천시는 중앙당이나 도 차원에서 따로 건설계획이 크게 잘 내려오지 않는다고 한다. 도 소재지도 아니고 중요 국가기관이 입지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도시 건설과 관련해서 스케일이 아무래도 작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로 건설계획이 내려오지 않게 되면 신규 건설을 위한 부지를 따로 허가 받기 힘들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건설이 도심 빈 공터나 기존 건물을 재건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순천시는 건설에 필요한 시중의 돈이 없어 못 짓는 것

I
II
III
IV
V

이 아니라 건설계획이 내려오지 않아 못 짓는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그래서 풍부한 시멘트, 석탄, 항공유, 약품 등에도 불구하고 도시 건설과 관련한 조직화된 네트워크가 발달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파트) 들어서는 거는 국가가 계획을 줘야 되거든. 평성처럼 이번에 평성에 1만 세대 세워라. 중앙당으로부터 정책적으로 순천은 그런 게 안 내려 왔다고 왜, (예전에) 순천비달론에 아파트를 엄청 많이 지었거든요. 비달론 안에.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이렇게 내려 온 거 없어서 그래요. 그건 개인이 못 하거든. 인민위원장, 책임비서 그거 아파트 뭐 맹탕 무슨 1만 세대 못 짓는다고. 그런데 평성은 도 소재지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내려온 거라고. 이제처럼 순천에 인민위원장 집 비법으로 해서 1층을 2층으로 복층하고 그런 건 하지만 건설은 못 한다는 거야(사례 10, 구술녹취록 2015 S04).

둘째, 평성의 경우 도 소재지이기 때문에 도당 책임비서가 평성시내에 상주하고 있고 권한이 세기 때문에 건설계획을 평성에 주는 것을 선호할 수 있다. 여기에는 보다 정치적인 판단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데, 도당 책임비서 입장에서는 건설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가급적 지도부나 중앙당에 건설 성과를 잘 보여줄 수 있는 곳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 성과를 보다 빨리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곳을 선호할 수밖에 없고 평성은 이런 측면에서는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보통 평양과 인접한 도 소재지에 건설계획을 주려고 하지 크게 효과가 나지 않는 지방도시에는 잘 주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중앙당에서 시찰을 나와도 주로 도 소재지급 도시에 오지 지방도시에는 잘 오지 않게 된다. 중앙당 간부들이나 도 간부들은 건설 실적이 잘 전시될 수 있는 도 소재지급 도시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김정일이 살아 있는 동안 순천시에 현지도도를 한 번도 가지 않

있다는 것은 중앙당이나 도당 차원에서는 정치적 관심도가 떨어지는 도시로 순천시를 보게 만들었을 수도 있다(사례 4, 구술녹취록 2015 S02).

순천은 비날론도 다 폭파해 치울 형편이고, 돌아 안 가잖아. 뭐 완전히 그 연구한 게 다 수포로 돌아갔으니까. 그러니까 순천에 200개 공장기업소 있거든요. 다 돌아 안 가요 전기가 없어서. 그런데 (평성 같은) 도 소재지는 뭐 그래도 활성화 되는 게 많거든요. 뭐 이리저리하게. 도배전부도 있고, 거긴 전기도 주고 있고 자모산도 있고 호텔도 있고 한데, 순천은 뭐 (김정일) 별장도 없고… 역대 김정일이가 순천만은 현지지도 안 했더라고(사례 10, 구술녹취록 2015 S04).

셋째, 평성시는 건설 관련해서 법적·행정적 규제가 다른 도시에 비해 엄격하다. 평성의 경우 승인을 받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한다. 그만큼 지을 부지가 많지 않은 것도 있고 도 소재지인 이유로 도시 건설과 관련한 규제가 강하기 때문이다. 규제가 강한만큼 역설적으로 평성은 건설 승인이 위로부터 한 번 나면 몇 동씩 크게 건설하게 된다. 거주 인구수에 비해 도시화 면적이 워낙 작아 주택에 대한 수요가 항상 있고 전국 최대의 도매시장이 입지해 있어 이용하는 인구가 많고 주택을 살 수 있는 구매력도 있기 때문에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

(개인 주택 건설) 평성은 승인 안 해주거든요. 순천은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승인 받아요. 평성은 승인이 안돼요. 그러니까 평성은 이렇게 하더라고. 내가 도당에도 회의 가보니까. 야, 도체신소 도배전부 아파트 1동은 도배전소가 맡아라. 2동은 체신소다 하면 이렇게 돈 모은다고 이렇게. 모아서 개별적으로 모아서 껍데기까지 세운다고. 안에는 너희가 하라. 부지를 노나(나누어) 지으라. 이만한 부지에서 너희 체신소 지어라. 그런데는 언제까지 지으라고는 무조건 그런다고. 뭐 당창건 10월 10일까지 지

I
II
III
IV
V

어라. 그때까지 껍데기 세워야 돼. 이제 체신소에서 건설 할당량 2동 받았어요. 그러면 이거 장사꾼 낀다고. 장사꾼이 부지 받기 힘들잖아요. 장사꾼들 꺼가지고서 돈 모아가지고서 시멘트, 철근도 사오고 뭐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집을 장사꾼한테 투자한 만큼 주지(사례 9, 구술녹취록 2015 S03).

평성시가 다른 도시와 비교했을 때 두드러진 차이점은 그 어느 도시보다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과 도시 건설이 활발하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건설 수요가 꾸준히 많기 때문이다. 그만큼 시장화를 통해 축적된 민간자본의 규모가 크고 주민들의 소득 수준이 다른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구매력이 뒷받침되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 단층주택, 아파트, 상점, 창고 및 보관시설, 공공건물, 공원 및 문화시설 등 건설 수요의 유형도 다양하다. 시장 활동에 필요한 상점, 창고를 비롯해 중장기 체류 장사꾼을 위한 임대 주택, 투자용 아파트 등에 대한 건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풍부한 장세 수익으로 인해 도당위원회나 시당국 역시 공공건물이나 공원 조성에 적극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점도 건설시장 활성화의 요인이 된다. 결국 건설시장의 활성화는 시장효과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넷째, 건설에 투여할 수 있는 자본이 평성시에는 풍부하다는 점이다. 건설 투자 자본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도시 내부에 자본이 풍부하거나 외부의 자본을 유인할 매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건설에 투자한 자본의 회수 및 이익이 충분히 보장되어야만 한다. 평성시는 전국 최대 도매시장이기 때문에 유통되고 순환되는 물자와 화폐의 양이 그 어느 도시보다 많다. 그만큼 전국의 돈주들이 몰려들고 물자와 화폐량이 그 어느 도시보다 풍부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평성시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자본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 사람들에게

도 평성은 건설 투자에 매력적인 곳이라고 할 수 있다. 평성시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기점으로 전과 후에 건설의 양적 증가가 확연하게 다르다. 시장이 번성하면서 2000년대 이후 건설이 양적으로 크게 늘어났다. 그만큼 시장을 통한 부의 축적이 건설 자본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평성시의 건설 중 가장 활발한 것은 개인집 건설이다. 개인집 건설이 활발한 이유는 평성이 시장을 통해 축적한 부가 많아 민간자본이 투자해서 팔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개인집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수익을 올리게 되면서 평성시에 살지 않는 외지인들도 평성에 돈을 투자하여 집을 지어 팔기 시작한 것이다. 주택건설이 ‘돈장사’로 활성화된 것이다. 반면 다른 도시들은 시멘트나 강재 등의 유통이 원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민간자본의 축적이 많지 않아 건설이 상대적으로 침체될 수밖에 없다. 가령 신의주의 경우 대부분 40년 이상 지난 아파트들만 있고 신규 건설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민간자본의 축적이 평성에 미치지 못해 투자와 거래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한 것이다(사례 14, 구술녹취록 2015 P04).

북한에 있는 27개의 도시들은 대부분 도시의 수를 남한과의 경쟁 차원에서 늘리면서 승격된 측면도 있다. 남북한의 체제경쟁이 한창이던 1970~1990년대에만 무려 10개의 도시가 생겼다는 점은 이런 맥락에서 해석해 볼 수 있다. 도시로서의 기반시설이나 위상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상 시로 승격을 함에 따라 도시의 수는 많지만 도시의 재정능력이나 주민들의 소득수준이나 지불능력은 높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도시의 경우 도시 내 있는 몇몇 공장·기업소에 의존하는 노동자 계층의 인구수가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중앙의 지원이 아니라면 특별한 재정적 원천을 갖기는 매우 힘

I
II
III
IV
V

들다. 이런 상황에서 ‘고난의 행군’ 이후 계획경제가 유명무실해지면서 공장마저 가동이 멈춤에 따라 가계의 소득을 창출할 수단이 원천적으로 부재한 상황이 된 것이다.

바로 이 때 주민들의 소득 창출의 창구가 된 것이 시장이었다. 그러나 모두가 시장에서 돈을 번 것은 아니다. 권력과의 유착과 기민한 상술과 능력이 아니면 대다수 주민들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초보적인 시장 활동에 머물러 있다. 이런 차이는 곧 주민들의 소득, 구매력, 소비 수준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아파트를 건설해도 살 사람이 없는 것이다. 이 중 장사를 통해 부를 축적하게 된 사람들은 보다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게 되는데 주로 아파트나 개인 살림집, 보관창고 건물, 상점 등을 지어 수익을 올리려고 한다. 평성은 그런 소득과 구매력이 있지만 다른 도시는 힘들다고 볼 수 있다(사례 3, 구술녹취록 2015 P01).

다섯째, 건설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정책, 시 당국의 행정 등이 기본적으로 중요하다. 사실 평성시는 뚜렷한 산업적 기반이 없는 도시이다. 소위 대표적인 공장·기업소나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 도 소재지로서 행정과 교육기관이 많이 입지하고 있다는 것 이외에는 먹고 살 산업적 기반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고난의 행군’ 이후 평성시가 먹고 사는 출구로 삼은 것이 시장 활동이었다. 다행히 시장 활동에 편리한 교통 입지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평양과의 인접성은 시장이 성장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현재 시 당국은 시장을 통해 형성되는 막대한 민간자본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다. 따라서 시 당국에서는 민간자본에 의한 건설을 통해 건설 실적을 챙기고 시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데 이해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도 소재지이기 때문에 건설 계획이 다른 도시에 비해 활발하게 내려온다는 이점을 활용해 건설 활성화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시 차원에 이익이라

고 볼 수밖에 없다.

여섯째, 시멘트와 강재, 목재, 인력 등이 상대적으로 풍부하게 조달되고 유통되어야 한다. 평성시는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시멘트, 강재, 목재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멘트가 풍부한 순천, 강재가 풍부한 황해제철소, 강선제강소 등을 통해 자재를 풍부하게 유통할 수 있는 시장 유인의 힘을 지니고 있다. 오히려 순천과 같은 공업도시에 비해 자재의 다양한 유통 측면에서는 훨씬 월등하다고 할 수 있다. 평성시장을 통해 형성된 전국적인 상품 유통망과 풍부한 자본으로 인해 기본적으로 건설에 필요한 자재의 공급이 활발하다는 점이 건설 활성화의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도시시장의 발달은 기본적으로 건설 수요를 창출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시장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시장에서 거래하는 물량이 많아지고 유동하는 인구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이들을 위한 공간의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평성에서 아파트를 창고로 이용하는 장사가 발달한 이유는 시장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물자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처음에 시장 주변 단층주택 집 한 칸에서 물건을 보관해주고 임대해 주던 데서 아예 아파트를 사거나 짓고 창고로 쓰는 장사꾼이 생겨난 것이다. 이제 평성시에서 새로 지어지는 신규 아파트들은 대체로 이런 창고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값이 분양 때부터 비싸다고 한다(사례 13, 구술녹취록 2015 P04).

북한의 아파트는 애초 설계 단계부터 창고가 있어야만 시공과 준공 검사에 승인이 난다(사례 14, 구술녹취록 2015 P05). 이런 독특한 북한식 아파트 설계 규정이 시장화에 적극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아파트나 살림집을 활용한 창고업의 발달은 시장의 거래 규모를 확장시키

I
II
III
IV
V

는 역할을 하고 있다. 매대 수준에서 물건을 파는 것보다 보다 물량적으로 큰 규모로 장사가 가능해졌고 창고에 바로 차를 대고 물건을 팔 수 있기 때문에 기동성과 시간도 단축되는 효과를 갖는다. 그런 측면에서 창고형 장사로의 진화는 시장화 수준을 더욱 가속화하고 자본 축적을 대형화하는 효과를 갖는다.

나. 도시 건설시장을 둘러싼 도시정치

(1) 아파트 건설시장의 작동 메커니즘

평양을 제외한 도(道)나 시(市) 차원에서 아파트가 건설되는 과정을 평성시의 사례를 통해 재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건설이 시작되는 동기는 중앙당이나 도 차원에서의 건설계획이 떨어지면서부터라고 볼 수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위로부터 얼마나 건설계획이 내려오고 승인이 나는가에 따라 도시의 건설 규모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가령 평성시에 500세대를 지으라는 중앙당의 지령이 내려오는 경우이다. 최고지도자나 정책 지도부의 직접 지시에 의한 경우 중앙당을 통해 도당위원회 책임비서에게 직접 지령이 내려간다고 한다. 지령을 받게 되면 도당위원회 책임비서는 도인민위원장에게 500세대 건설을 도내 공장·기업소에 할당하는 작전계획을 명령한다. 건설 할당 계획(작전계획)이 수립되면, 도당 책임비서는 도내에 있는 모든 기관·기업소의 지배인과 당비서를 평성시 도당위원회로 소집한다. 회의 석상에서 도당 책임비서는 건설 계획의 취지를 형식적으로 설명한다. “장군님께서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150일 전투 과업을 지시하셨으니 무조건 해야 한다”는 식이다. 각 공장·기업소 등급에 따라 해당 지배인과 당비

서를 하나하나 일으켜 세워 아파트 건설계획을 작전계획에 따라 할당 지시한다. 50명 미만의 7급 기업소는 제외시키고 3급 기업소는 할당량이 떨어진다. 평성시의 1급 기업소에 해당하는 모란봉시계공장, 평성 종합가죽공장, 평성강생공장들은 공장이 거의 돌아가지 않지만 건설 계획은 다 할당 받는다.¹²⁶

건설계획을 할당받은 각 기관·기업소들은 건설에 필요한 자금과 자재를 구하기 위해 혈안이 된다. 자체적인 자금과 자재가 없기 때문이다. 시멘트, 철근, 목재 등 건설에 필요한 자재를 댈 수 있는 개인들을 수소문해 모은다. 투자 여력이 있는 개인에게 완공 이후 대가로 아파트 몇 채를 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한다. 기관 명의만 빌려주고 건설은 개인들이 맡는 것이다. 건설이 끝나고 준공검사 승인을 받으면 투자했던 개인들은 할당받은 아파트를 중개인(브로커)들을 통해 입사증을 판다. 아파트는 유리창도 인테리어도 없이 뼈대만 지으면 판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애초 건설 계획이 내려올 때 할당량만 내려왔지 누가 거기서 살아야 한다는 것까지 지령이 내려 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민간에 분양하고 팔아도 문제는 되지 않는다. 다만 형식적으로 명의를 빌려준 기관 소속의 사람들이 일부 들어가 살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기관·기업소는 할당량을 달성했다는 실적을 챙기고 민간자본은 투자한 만큼 아파트를 팔아 이윤을 남기게 된다. 사실상 국가와 민간자본의 공생구조가 아파트 건설시장을 통해 만들어져 있는 것이다.

한편 국가의 할당량에 의해 건설하는 것이 아닌 개인들이 투자를 목적으로 짓는 아파트가 최근 많아졌다. 우선 자본이 있거나 끌어 들일 수 있는 돈주들이 건설 계획과 일정을 수립한다. 건설 부지는 도시건

¹²⁶- 위의 글, p. 50.

I
II
III
IV
V

설사업소를 통해 가능한 부지를 확인하다. 해당 건설부지를 가지고 있는 공장·기업소에 건설 계획을 설명하면, 대부분의 공장·기업소는 노동자 주택건설 실적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계획을 받아들인다. 공장에서는 인민위원회 관련 부서를 찾아가 종업원 주택을 건설해 줄 것으로 요청하면 인민위원회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한다. 이것 자체가 건설 승인이라고 볼 수 있다. 공장은 돈을 투자하는 돈주들과 예산서를 작성해 도시설계사업소에 가서 건설 허가를 요청한다. 승인을 받으면 시공에 들어가게 된다. 투자 돈주들이 필요한 시멘트, 철근, 목재, 노력 등을 조달한다. 평성시에는 건설에 필요한 자재 조달을 위한 네트워크가 가동 중에 있다. 순천의 시멘트 업자, 강선의 철근 업자 등과 전화 연락망이 가동된다. 규격에 따라 철근만 파는 강선의 업자들이 있고 시멘트, 골재, 목재만 전문으로 하는 업자들이 따로 있다. 이들에게 필요한 규격을 요청하면 조달해 주는 방식이다(사례 3, 구술녹취록 2015 P01). 업자들은 직접 창고에 자재를 가지고 차로 실어다주기도 하지만 필요한 자재를 다른 하청업자나 시장을 통해 조달해 주는 브로커(중개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다 전문화 돼 있어요. 내가 건설한다 그러면은 여기처럼 다 자기 네끼리 전화번호가 있어요. 전문 철근만, 8밀리 철근, 10밀리 철근만 팔아먹는 강선의 그 업자들 있고. 시멘트 팔아먹는 놈들이 또 업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 전화하는데 시멘트 이거 상판 치려고 그러니까 마르까 200마력짜리 이거는 좀 약해도 되는데, 상판 잘못해서 아파트가 허물어져서 사람 죽은 적도 있어요. 하루아침에 5층까지 올라갔다가... 아 그저 폭삭하고(사례 3, 구술녹취록 2015 P01).

또 건설에 필요한 인부는 역전 인력시장에서 구해 온다. 벽돌공, 미장공, 전기수리공, 철근 다루는 사람 등 대부분 인력시장에서 쉽게 구

할 수 있다. 건설 관련 노동력 시장이 가동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준공검사는 검사하는 사람에게 뇌물을 주고 승인을 받는다. 이렇게 건설이 끝나면 명의를 빌려준 공장에게 몇 세대 분을 준다. 나머지는 투자한 돈주들에게 분배된다. 기관 명의를 빌려준 공장은 실적만 챙기게 된다. 투자한 돈주들은 투자 금액에 따라 아파트를 분배해 갖는다. 아파트 판매는 부동산 ‘데커(중개인)’를 통해 이루어진다. 구매자가 나오면 중개인은 인민위원회 주택부에 가서 지도원에게 돈을 주고 입사증을 발급받아 구매자에게 준다.

(2) 아파트 건설 동맹과 도시정치

위와 같이 도시 건설시장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과 공생을 통해 작동하고 있다. 일종의 국가, 도시 관료, 시장 민간자본, 주민 사이에는 아파트 건설을 둘러싼 일종의 ‘건설 동맹’ 또는 ‘건설 제휴’가 형성돼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들 행위자들은 모두 아파트 건설을 통해 각자의 목표를 달성한다는 서로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아파트 건설 동맹’을 통해 민간자본이 시장에서 자본을 증식하는 방식, 관료들이 시장을 통해 기관을 운영하는 방식, 도시가 시장을 통해 생존하는 방식, 국가가 시장을 통해 유지되는 방식을 엿볼 수 있다.

도시의 관료들은 기본적으로 유명무실하지만 계획경제의 틀 안에서 거대한 관료적 조정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이들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계획 지령과 정치적 평가에 직면하게 되면 도시 내 민간자본들을 동원하여 이에 대응한다. 도시시장을 통해 성장한 민간자본은 도시 내 인맥과 네트워크를 통해 같은 돈주들 사이에서 시장 정보를 공유하면서 자본을 증식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모색하고 상호 협력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들은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 법적·

I

II

III

IV

V

행정적 제약을 우회하고 돌파하면서 시장을 전유(appropriation)해 내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1990년대 이후 20여 년이 넘는 시장화 과정 속에서 시장을 체험적으로 학습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의 자본 증식 방법은 당·정·군 산하 무역회사에 이름을 걸고 무역을 통해 이윤을 챙기는 방식, 또는 주택 거래를 통해 부를 축적하는 방식이다. 이들의 시장 활동은 시장으로 인해 형성된 민간자본을 통해 국가계획을 대행해 준다는 점에서 ‘동맹’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결국 북한 도시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주택건설은 도시시장을 통해 자본의 증식을 추구하는 민간자본가와 관료들의 결합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의 결합은 다양한 영역에서 시장 이해관계의 공유와 제휴로 확대되면서 시장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사실상 아파트 또는 주택건설은 국가와 시장, 국가와 민간자본, 국가와 도시가 결합한 시장화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전통적인 구분법인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의 영역적 구분은 모호하거나 의미가 없다. 북한의 시장화는 그런 전통적 구분을 넘어 다면적이고 다중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다중성은 국가의 계획 수행 실적, 민간자본가들의 투자를 통한 이윤, 건설에 동원된 사람들은 임금, 각종 건설 자재를 공급한 사람들은 이익을 챙기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파트 건설 및 거래시장은 국가계획, 각종 참여자들, 각 자재시장 등과 연동돼 북한 경제를 작동시키는 하나의 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얽히고설킨 아파트 시장은 시장의 사회-기술적 네트워크와 관료들의 위계적 구조가 결합된 형태이며, 이런 결합은 곧 ‘아파트 건설 동맹’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¹²⁷

¹²⁷- 위의 글, p. 52.

다. 도시정치의 특징: 시장세력, 시장연합, 그리고 도시위기

북한에서 도시는 ‘통치’ 공간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통치 집단은 공간의 배열과 통제를 통해 주민들을 일정한 공간에 배치시킴으로써 특정한 사회질서를 수립하려고 한다. 도시를 통치 공간으로 보고 그것을 조직화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는 지배집단의 권력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정치적 지배구조의 도시 공간으로의 미시화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가 물질적 자원을 장악·통제함으로써 생산과 재분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경제운용체계를 도시 생산단위에 미시화하는 것이다. 지배 권력을 도시 공간으로 미시화하는 것은 말단 세포까지 뻗어 있는 당적 지도체계와 국가의 독점적 재분배 시스템에 기초해 이루어졌다.

당적 지배체계는 최고지도자와 중앙당의 의지가 효과적으로 관철될 수 있도록 하는 통치의 효율성을 제공해 왔지만 또 한편으로 도시 내부에 ‘권력의 소우주’가 형성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왔다. 당적 지도가 갖는 초법적 권한과 모호한 책임 영역, 자의성이 결합되면서 도시의 정치적 과정은 예외적 상황과 관행을 낳았다. 또한 항상적으로 제기되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불확실성에 대응해 도시는 중앙과의 관계, 도시 내부의 권력관계를 통해 이를 돌파하거나 우회하는 다양한 전략들을 펼치게 된다. 한편 국가는 자원과 생산물의 중앙 독점과 재분배를 위해서 전국을 세세하게 통제·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바로 전국을 물자의 취합과 배급에 적합한 단위로 분할하고 거점화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계획경제는 항상적으로 불확실성을 지니고 있었고 이런 불확실성에 대응해 도시는 자원배분의 우선권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과의 정치적 충성과 타협을 하게 된다. 국가의 독점적 재분배 체계에 입각한

I
II
III
IV
V

도시로의 자원 배분은 고도의 정치적 과정을 수반하는 것이었다. 경제적 합리성이나 효율성보다는 정치적 능력과 연줄이 중요했다.

1990년대 이전까지 북한에서 도시정치는 당과 정부에 대한 충성과 헌신적인 복종이라는 정치적 관계를 통해 정치적 불확실성을 최소화 하면서 최대한 많은 자원배분을 이끌어 내는 ‘정치’를 의미했다. 그러나 계획경제를 통해 지역단위의 생산과 물적 이동을 관장하던 체계가 경제난을 겪으며 사실상 기능적으로 많은 부분 손상되었으며, 중앙정부에서도 지역의 자립적 해결을 요구하였다. 정치적 충성과 복종에 대한 대가로 마땅히 배분되어야 할 자원이 더 이상 오지 않게 된 것이다. 이런 지방 자체의 자력갱생 차원에서 시장화가 진행되면서 도시정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여기서는 시장화 이후 도시 내부에서 전개되고 있는 시장을 둘러싼 이해관계와 정치적 관계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도시정치(urban politics)’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도시정치’ 이론은 크게는 도시를 구성하는 정치적 과정에 대한 관심이다. 1960년대 중반 마르크스주의 사회이론가들이 도시의 정치적 과정을 이해하려는 이론적 시도가 도시정치 이론의 맹아 역할을 했다. 그러나 도시정치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우선 매뉴엘 카스텔(Manuel Castells)은 도시정치를 집합적 소비의 문제와 관련하여 설명한 바 있다. 그는 도시정치를 노동력 재생산과 밀접히 관련된 주택, 교통, 의료 등과 같은 ‘집합적 소비수단(collective consumption)’의 공급 문제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중앙 혹은 지방정부의 정책과 사회적 갈등, 그리고 정치적 과정으로 보았다.¹²⁸ 이런 카스

¹²⁸- Manuel Castells, *The Urban Question: A Marxist Approach* (London: Edward Arnold, 1977), pp. 245~275.

텔의 관점에서 보면,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체제의 경우 주택과 같은 집합적 소비수단을 원칙적으로는 국가가 전적으로 관장한다는 점에서 도시정치는 국가가 도시의 집합적 소비수단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결정을 하는지, 국가가 공공 서비스의 공급에 어떻게 개입하는지, 국가를 둘러싼 여러 사회적 행위자들의 전략적 판단, 정치적 상호작용, 권력관계 등이 어떠한지와 같은 복잡한 내용을 의미할 수 있다.¹²⁹

반면 데이비드 하비(David Harvey)는 생산과 소비를 양분하지 않고 ‘구조화된 결합(structured coherence)’이라는 개념을 통해 어떤 도시에서 주요 생산 활동과 관련된 특정의 (하드웨어와 조직적 측면에서의) 기술적 조합이 그 도시에서 지배적인 사회적 관계, 소비패턴, 노동과정 등과 서로 조응하여 사회적이고 제도적으로 결합된 시스템을 만든다고 보았다. 도시경제에서 형성된 ‘구조화된 결합’의 상황은 일부 자본가와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생산, 소비, 교환의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도시 지역에서 형성된 특정의 사회, 물리적 하부구조에 — 예를 들면 도로, 학교, 공장, 병원, 쇼핑몰, 노사관계, 사회적 관습, 기업 간 관계 등 — 깊이 의존하도록 만든다. 하비는 이처럼 도시경제에 의존적인 자본가들과 노동자들이 이러한 위기의 국면에 대응하는 과정 속에서 도시정치가 만들어진다고 주장한다. 자본가들과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의존하고 있는 ‘구조화된 결합’의 경향을 보호하고 지켜내어, 도시경제 내에서 자본의 순환과 축적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 과정은 고도의 정치적인 과정을 수반하게 된다. 도시정치의 결과로 각 도시와 지역에서는 ‘지역화된 계급연합(regional class alliance)’이

¹²⁹- Bob Jessop, *State Theory: Putting Capitalist States in Its Place* (Cambridge: Polity Press, 1990), p. 270.

I
II
III
IV
V

형성된다고 본다.

계급연합은 새로운 자본이나 투자, 기술 등을 자신의 도시로 끌어들이므로써 자신들이 의존하고 있는 도시의 ‘구조화된 결합’의 상황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로 경쟁, 갈등하게 된다.¹³⁰ 주목할 점은 끊임없이 야기되는 새로운 기술, 조직, 제도의 도입, 계급 간의 갈등, 공간관계의 변화 등은 불균형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이로 인해 특정 도시 지역 내에서 결합된 구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쉽지 않게 된다는 점이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주어지는 불균형과 그로 인한 끊임없는 (사회적이고 공간적인) 변화와 재구조화의 압력은 도시 및 지역의 경제를 항상적으로 위기에 노출되어 있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하비의 도시정치 논의는 현재 북한의 도시시장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착안점을 준다. 물론 하비의 논의는 자본주의가 고도화된 세계를 대상으로 한 논의이지만 도시라는 사회적 관계의 맥락 속에서 원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 주목할 설명 개념은 ‘구조화된 결합’, ‘지역화된 계급연합’이다. 북한의 경우 계획경제가 그나마 정상적으로 작동하던 시기에 도시는 그 지역의 주력 산업과 도시의 사회적 관계를 조용하면서 하나의 시스템을 형성한 측면이 있다.

시장화는 새로운 구조화된 결합을 탄생시켰다. 도시가 시장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시장은 기존 계획경제와는 질적으로 다른 경제활동이자 조직, 기술을 요구한다. 여기에 조용하여 노동과 소비의 패턴이 변하면서 지배적인 사회적 관계에도 균열이

¹³⁰-David Harvey, “The Geopolitics of Capitalism,” in *Social Relations and Spatial Structures*, eds., Derek Gregory and John Urry (Oxford: Blackwell, 1985) 참조.

오고 새로운 변화의 지점을 맞게 된다. 그것은 시장의 이해를 중심으로 사회적 관계가 재구조화되는 것이다. 이러한 시장화를 통해 형성된 ‘구조화된 결합’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많다. 도시 관료, 민간 자본, 소규모 상인, 주민들 모두 시장 시스템이 지속되고 더욱 확장되길 바란다. 도시의 시장 시스템은 기존의 계획경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자본의 순환과 축적을 만들어냈다. 이런 도시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도시연합’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고도의 정치적 과정을 수반하는 것이다. 그것은 하비의 설명처럼 새로운 자본이나 투자, 기술 등을 도입하여 도시경제의 지속성을 강화하는 방식이 된다.

이렇게 시장 시스템 유지에 이해관계가 있는 대다수의 도시 구성원이 ‘도시연합’을 갖지만, 새로운 기술, 조직, 제도의 도입, 계급 간의 갈등, 공간관계의 변화 등은 도시의 긴장을 점증적으로 증가시키면서 끊임없는 재구조화의 압력을 받게 된다. 결국 ‘도시연합’은 한시적인 이해를 넘어서서 지속성을 갖기 힘들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1990년대 이후 시장을 통한 ‘구조화된 결합’이 형성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도시정치, 즉 ‘연합’의 형성, 그리고 조직, 제도, 기술의 도입에 따른 계급갈등, 공간변화 등 불안정성의 증대, 이로 인한 도시 ‘위기’는 현재의 북한 시장화의 현실을 파악하고 이후를 예측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정리하면 II, III, IV장을 통해 강조했듯이 현재 북한의 도시는 하나의 시장 시스템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 시장 시스템은 ‘구조화된 결합’의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또 한편 더 나아가 이 시스템의 유지를 바라는 사람들의 ‘연합’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의 지속성을 위해 다양한 기술, 제도, 조직이 도입되면서 이 시스템에도 불균형과 불안정성이 증대될 가능성이 높다.

I
II
III
IV
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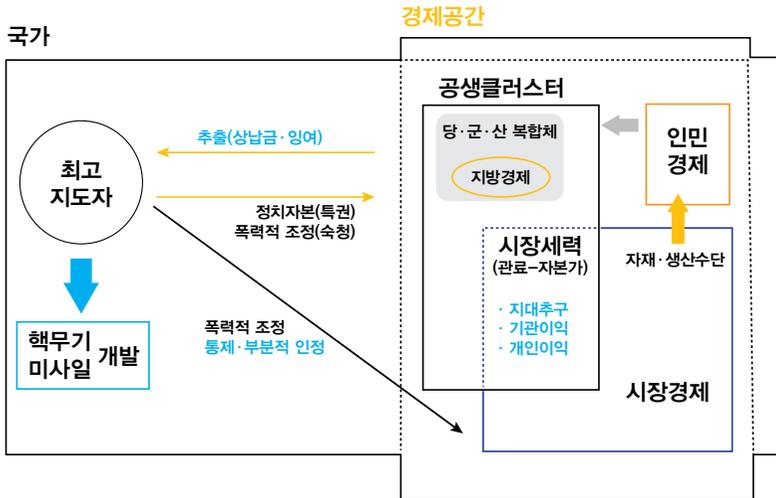
한편 하비 몰로치(Harvey Molotch)와 존 로건(John Logan) 등은 ‘성장연합론(Growth Coalition)’을 제시한다. 이들의 핵심적인 주장은 토지에 기반을 둔 지역의 기업 및 엘리트 집단이 정치적 연대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도시정치를 지배하면서 도시정부의 정책이 경제의 성장과 부의 축적에 치중하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성장지향적 엘리트 집단은 토지나 부동산의 교환으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얻는 개발업자, 부동산업자, 은행 등이 핵심적인 구성원이고, 이와 더불어 지역의 언론, 대학, 전기나 수도 등을 공급하는 업체, 지역에 연고를 둔 프로 스포츠팀, 상공회의소 등과 같이 지역 경제의 전반적 성장으로부터 이득을 얻는 행위자들도 이러한 성장지향적 엘리트 집단의 중요한 구성원이다. 이런 친기업적 정책 결정과 예산 집행은 도시 공간의 왜곡, 도시에서 공급되는 공공 서비스의 약화, 복지 정책의 쇠퇴, 빈부 격차의 심화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여 도시 내에서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킨다.¹³¹

몰로치와 로건의 논의는 현재의 북한 도시정치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영감을 제공한다. 앞서 북한 도시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건설시장을 둘러싼 ‘아파트 건설 동맹’은 이들이 제시한 ‘성장연합론’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도시시장으로부터 많은 이익과 기득권을 획득할 수 있는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시장세력’이라고 정의하자. 이들 시장세력은 시장을 기반으로 시장으로부터 부를 축적하고 자신의 정치적 지위나 경제적 지위를 시장을 통해 보호받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¹³² 이들은 상호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도시정치를 지배한다.

131- 박배균, “도시와 정치,” 김인·박수진 엮음, 『도시해석』 (서울: 푸른길, 2006), pp. 164~165.

132- 홍민, “북한의 국가와 시장 관계: 위상학적 이해의 가능성,” 『북한연구학회보』, 16권 2호 (2012), p. 95.

●그림 IV-19 국가와 시장의 상호구성과 시장세력



출처: 필자 작성.

이 시장 시스템을 유지하고 확장하기 위해 중앙 당국과 끊임없이 교섭과 흥정을 하며 정책을 유리한 방향을 유도하고자 정치를 펼친다. 북한의 도시에서는 당·행정 관료, 주택시장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는 개발업자, 중개인, 민간자본가 등이 있고 건설시장에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연합’에 동참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연합은 공공 서비스의 약화나 빈부 격차의 심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면서 도시 사회적 갈등을 낳을 가능성이 높다.

가령 국가가 주민들에게 마땅히 제공되어야 할 주택이 시장과 민간 자본에 의해 건설되고 있다는 점이다. 주택건설에 드는 비용을 사회에 전가하는 한다면 측면에서 비용의 사회화, 주택건설시장을 통해 만들어진 잉여가 자본화된다는 측면에서 주택건설 이익의 자본화 및 국가화가 나타나고 있다. 국가가 주택건설에 드는 비용을 사회와 시장에

- I
- II
- III
- IV
- V

부담 — 세금, 노력, 헌물 — 시키고 이윤은 시장과 국가가 챙기는 방식인 것이다. 국가가 마땅히 제공해야 할 서비스를 시장이 대체하면서 갈등 계급과 소득 격차의 문제로 나타난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도시정치는 일반 주민들에게는 돌아올 게 없는 빈곤의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4. 사회계층의 공간적 분화와 위계화

가. 시장화에 따른 계층별 거주지 분화

계층별 거주지 분화는 시장화를 통한 자본 형성과 밀접하게 연동된 현상이다. 북한에서 시장을 통한 민간자본의 형성은 자본 소유 수준, 소득 수준에 따른 계층의 분화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도시시장이 발달하고 시장 활동이 활발한 지역일수록 국가권력과 시장의 결탁을 통한 민간자본의 형성이 보다 활성화되어 있다. 이런 권력과 시장의 결탁을 통한 민간자본의 형성은 도시 공간을 자본의 증식에 적합하도록 재구성하는 측면이 있다. 자본의 형성 수준과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제도적 특성상 극단적인 거주지 분화가 현재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시장화의 진전에 따른 도시 내 계층별 거주지 분화는 보다 뚜렷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계층별 거주지 분화는 사회계층에 따라 주민들이 사는 거주지가 계층별로 일정하게 구분되면서 공간적 위계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¹³³ 여기서 사회계층이란 직업, 학력, 소득 등에 따라 일정하게 동

¹³³ 주택과 같은 공공재의 배분에서 차지하는 지위가 도시공간 내에 계층적 지위를 결정하며, 도시내의 계층 간 불평등은 바로 소비영역에서 형성되는 계층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조명래, 『현대사회의 도시론』 (파주: 한울아카데미, 2002), p. 106.

질적 집단으로 구분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계층별 거주지 분화는 그 정도에 따라 계층적 갈등의 배경이 된다. 거주지가 소득이나 지위에 따라 분화하면서 주민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느끼는 공간적 박탈감과 계층적 소외감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계층 간 거주 공간 분화가 보다 명료해질수록 거주지가 갖는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동반 상승하면서 거주지 자체가 자본 증식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북한의 사회계층별 거주지 분화 및 공간적 위계의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볼 수 있다. 우선 소득에 따른 분화 요인이다. 대체로 소득이 계층의 거주지 분화에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지역별 주택의 가격과 소득 수준에 따른 거주지 선호가 긴밀하게 연동돼 있기 때문이다. 한편 소득의 수준은 대체로 직업, 학력 등과도 일정한 상관관계를 갖는다. 소득에 따른 계층 분화를 알기 위해서는 도시내 지역별 주민들의 소득 자료가 있어야 하지만 북한의 경우 파악이 불가능하다. 공식적인 직장 월급보다는 대부분이 시장 활동 또는 직위를 이용한 비공식적인 수입으로 사는 경우가 많아 소득이 집계되기 힘들기 때문이다.

둘째, 정치적 요인이다. 국가가 특정 지위, 성분, 직종의 사람들을 계획적 배치를 통해 거주지를 구분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극단적인 예로 기존에 계획경제 아래서 정치적·산업적 필요에 따라 집단적으로 거주지를 조성하고 배치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도시 내에 특정 지역에서 국가기관들을 밀집하도록 하거나 대규모 노동자 또는 농장원 거주지를 조성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셋째, 경제적 요인이다. 주민들의 경제생활에 필요한 자원이나 소득이 창출되는 직장이나 일터 등에 따라 거주지가 분화되는 경우이다. 북한의 경우 시장이 경제생활에 필요한 주요 자원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주민 소득의 주요 출처이기 때문에 시장 활동에 용이한 지역에

I
II
III
IV
V

거주하고자 하는 경쟁이 나타나게 된다. 시장 활동에 대한 의존도와 시장 활동 편리성 수준에 따라 거주지가 분화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상징적 요인이다. 이는 소득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특정 지역을 선호하여 모여 사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과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공간적으로 과시하려는 상징적 욕구의 차원에 해당한다. 소득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위생에서 쾌적한 지역, 교육환경이 좋은 지역, 상류계층이 많이 사는 지역 등을 선호하면서 특정 지역에 군집을 이루는 경우이다.

북한 도시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거주지의 공간적 분포는 동상, 도당위원회를 중심으로 동원심원 형태를 보인다. 대체로 동상, 도당위원회 부근은 위생이나 도시 환경적 측면에서 쾌적하다. 그만큼 위생적으로 관리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동상이 갖는 정치적 상징성과 중요성, 그리고 최고지도자와 중앙당의 현지시찰이 이루어질 때 필수적인 경유지이기 때문이다. 반면 시장이 있는 부근에는 주로 단층집들이 밀집해있고 2000년대 이후 연립주택이나 아파트가 새롭게 건설되는 경우가 많다. 주로 시장을 근거지로 시장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거주 목적, 시장 활동에 필수적인 물건 보관이나 창고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시장 부근은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대체로 위생의 측면에서 열악한 편이다. 주거지 분화와 관련해 주목할 부분은 도시 내에서 고소득자일수록 시장과의 인접성보다는 동상이나 도당위원회와 같이 쾌적한 환경을 선호한다는 점이다.

한편 동심원 구조와 배열 형태는 도시의 지형적 패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순천시와 청진시는 동심원 형태이지만, 평성시는 도시화 지역이 T자형이기 때문에 다중심원 형태를 보인다. 평성의 경우 도당위원회의 하나의 축이며, 평성역 부근, 옥전시장 부근 등이 또 다른 축을

이루면 동심원을 형성하고 있다. 제1동심원은 동상과 도당위원회, 시당위원회, 공원, 고급상점, 백화점, 환전상 거리 등 중심업무지구와 고급 상업지구에 해당한다. 주거 형태는 1990년대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 새로 지어진 아파트가 병존하고 있으며, 아파트 뒤로는 단층주택들이 밀집해 있다. 제2동심원은 대학, 아파트 주거지역 등이 있다. 제3동심원은 공장·기업소, 단층주택 지대로 보통 구성되어 있다. 지가, 부동산 가격은 중심에서 주변으로 갈수록 값이 내려간다.

나. 지역별 주택가격 형성과 신규 주택건설 지역의 특징:

도(시)당-시장-역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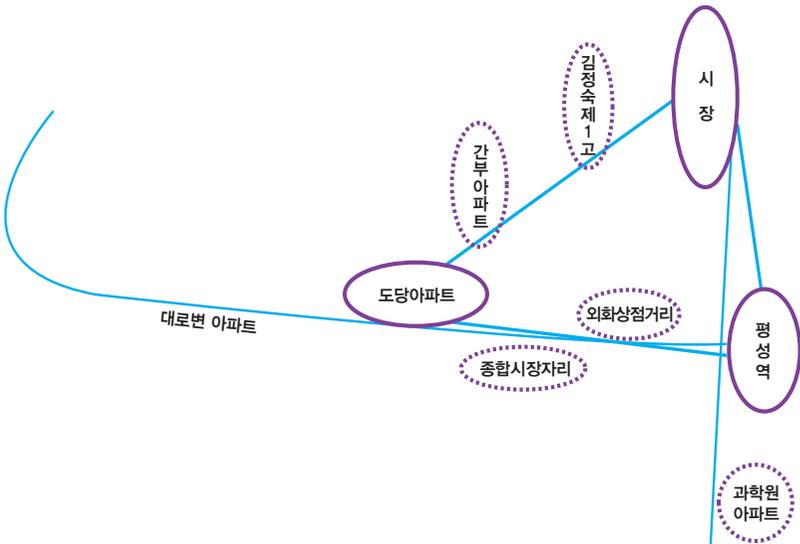
평성, 순천, 청진에서 주택 가격이 높고 신규 주택건설이 활발한 지역을 살펴보면, 각 도시의 지형적 특성과 도시 위상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첫째, 도시 중심역과의 인접성이다. 평성의 경우 평양시와 전국의 도시를 연결하는 결절점으로서 평성역은 모든 시장 네트워크와 물류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시장을 통한 경제생활이 주민 생활에서 중요해지면서 시장 활동에 용이한 평성역과 가까운 지역에 거주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역과의 거리가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순천시도 동일하다. 순천역을 중심으로 외화상점 거리와 순천시장이 입지를 하고 있고 이 일대의 주택 가격이 순천시에서 가장 높게 형성돼 있으며 새로운 아파트 건설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청진시 역시 청진역과 도당위원회 일대를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높게 형성돼 있으며 신규 건설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I
II
III
IV
V

둘째, 도급, 시급 등 중요 국가기관과의 인접성 역시 주택 가격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시장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중요 국가기관들과 가깝게 사는 것을 선호하는데, 그 이유는 각종 시장 활동과 관련한 인허가 문제, 물건이 압수되었을 때 회수하는 데 편리하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기관 밀집 지역은 대체로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중심에 있고 위생이나 청결 상태가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좋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쾌적한 주거 공간으로 선호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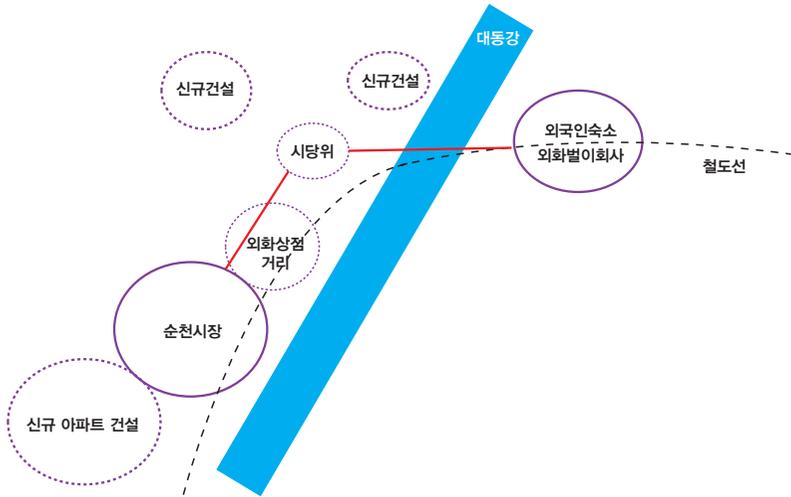
셋째, 시장의 위치이다. 시장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비재부터 장사를 위한 물자 이동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장에 가까울수록 일상생활에서의 편리성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역 광장에 밤이면 연중 서는 ‘야시장(夜市場)’도 주변 아파트 시세에 크게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그림 IV-20 평성시 도시 건설이 활발한 지역: 도당-시장-역전 삼각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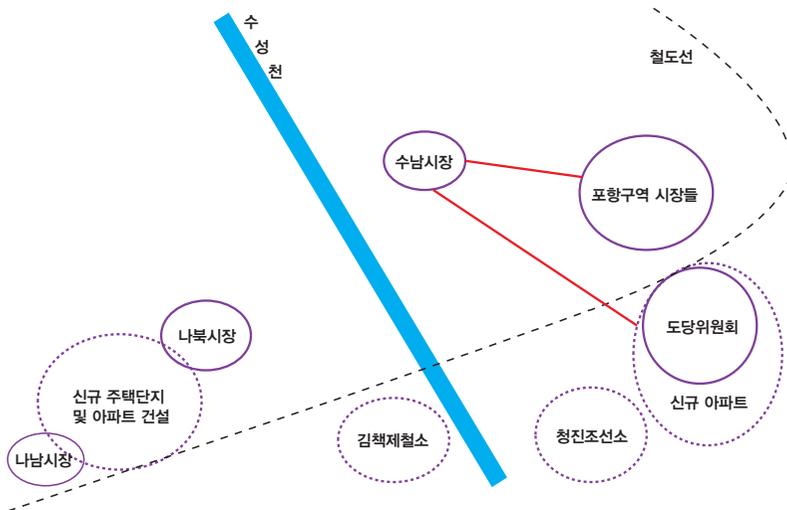
출처: 필자 작성.

●그림 IV-21 순천시 도시 건설이 활발한 지역: 시장-시당-외국인숙소



출처: 필자 작성.

●그림 IV-22 청진시 도시 건설이 활발한 지역: 도당-시장-나남구역



출처: 필자 작성.

I
II
III
IV
V

이상을 종합했을 때, ① 도(시)당위원회, ② 역전, ③ 시장을 각각 축으로 하는 삼각축을 중심으로 아파트의 입지와 주택가격 시세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삼각축 내에 있는 아파트나 주택의 가격은 다른 곳의 주택보다 많게는 3~10배까지 비싸게 형성되기도 한다. 또한 이 삼각축은 상호 기능적으로 맞물려 있다. 시장 중심의 생활방식은 각종 국가기관의 인허가와 관련된 활동을 요구하고 한편으로 물자들의 이동이 용이한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성시, 순천시, 청진시의 경우 공통적으로 이 삼각축을 중심으로 도시 공간의 계층적 위계가 형성되어 있고 계층적으로 공간이 분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¹³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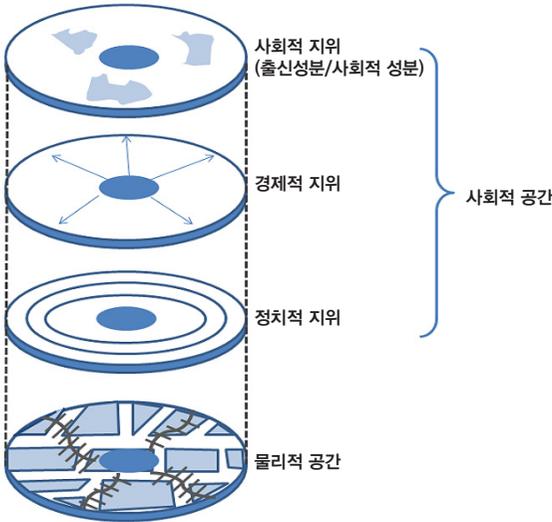
다. ‘자본’ 소유 수준에 따른 공간의 분화

사회적 공간은 물리적 공간에 기입(inscription)되고 퇴적된다. 다시 말해 한 사람에 의해 점거된 장소와 획득된 물리적 공간은 사회적 공간 속에서 그 행위자가 처해 있는 위치에 대한 훌륭한 ‘지표’인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회적 공간은 물리적 공간에 반영되고 그 물리적 공간 속에서의 행위를 통해 다시 사회적 공간을 재생산하는 방식이 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물리적 공간 구조로부터 사회적 구조를 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그것은 어느 개인이나 집단이 취하고 있는 물리적 공간을 통해 표현되는 권력관계를 읽는 것이기도 하다. 공간 지배는 지배력 행사의 가장 특권화된 형식 중 하나다. 공간 전유의 가능성을 정하는 것은 어떤 자본을 가지느냐에 달려 있다. 지리적

¹³⁴ 한편 함경북도 무산지역 주택시장을 연구한 정은이는 주택거래가격 결정요인으로 ① 상수도체계, ② 하수도체계, ③ 물자운반, ④ 시장과의 인접성, ⑤ 편의시설과의 접근성, ⑥ 쾌적성 등을 들고 있다. 정은이, “북한의 주택시장에 관한 연구: 함경북도 무산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KDI 북한경제리뷰』, 7월호 (2012), pp. 91~97.

(물리적) 공간에 대한 처분권(이용권, 점유권)은 사회적 공간 내에서 차지한 자리에 영향을 주며, 마찬가지로 사회적 공간 내 각 입장이 지리적 공간에 영향을 미친다.

○그림 IV-23 도시구조의 공간적 차원 - 거주 모자이크¹³⁵



출처: Robert A. Murdie, “Factorial Ecology of Metropolitan Toronto, 1951~1961,” (University of Chicago, Department of Geography Research Paper no. 116, 1969); 정은진, “도시와 주거,” 김인·박수진 엮음, 『도시해석』 (서울: 푸른길, 2006), p. 211의 그림을 복한 사회에 맞게 필자가 재구성.

위의 도(시)당, 역전, 시장의 삼각축을 거주 모자이크(residential mosaic) 차원에서 보면, 북한 평성시의 도시의 물리적 공간은 정치적

¹³⁵ 머디(Robert A. Murdie)는 도시는 경제적 지위, 가족 지위, 인종적 지위의 세 변수에 따라 분화된 특징적인 거주지역을 형성하게 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토론토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로 거주 모자이크 모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북한 현실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I
II
III
IV
V

지위, 경제적 지위, 사회적 지위 차원의 공간으로 구조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물리적 공간이 사회적 공간과 상호 구성적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의 ‘자본’을 통한 사회적 공간의 분화 논의를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정치적 지위 차원의 공간은 ‘정치자본(political capital)’을 많이 소유한 사람들의 거주 공간으로 볼 수 있다. 정치자본은 정치적 지위를 통한 물질적인 것을 점유, 활용, 이용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자원을 의미한다. 정치자본의 우위는 도시의 물리적 공간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정치적 지위가 높은 개인이나 기관이 밀집된 지역은 곧 ‘좋은 곳’, ‘잘 사는 곳’, ‘힘 있는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인식된다. 평성, 순천, 청진에서 도급·시급 국가기관이 밀집한 곳, 국가기관 종사자들이 거주하는 일명 ‘간부아파트’가 입지한 곳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정치자본 소유 정도에 따라 물리적 공간상의 구분과 위계가 일차적으로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이 위계의 정점(core)은 정치자본이 밀집된 지역이다. 이곳은 세 도시에서 계층적 위계를 형성하는 가장 중심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정치자본의 소유 수준에 따른 공간적 구분과 위계는 1990년대 전부터 강하게 작동해 왔고 1990년대 이후에도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다. 그것은 경제자본이나 여타의 자본이 아직도 이 정치자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경제적 지위 차원의 공간 분화는 ‘경제자본(economic capital)’의 소유 수준에 따른 공간적 분화에 해당한다. 세 도시에서 경제자본이 공간적 분화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1980년대 중반을 기준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물론 1980년대 이전에 경제자본이 공간적 분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수행되어야 하지만, 가설적인 차원에서 보면 1980년대 이전에 경제자본은 주민들 사이의 계층 구분에 크게 영

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1990년대 이후 시장화가 본격화되면서 경제자본이 주택의 구매와 주거형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커졌다고 볼 수 있다. 특히 2000년대 들어와 시장이 본격적으로 공식화되고 2012년 이후 시장 활동에 대한 허용 폭이 커지면서 경제자본과 주택 구매 및 주거형태와의 상관관계는 밀접해 졌다고 할 수 있다.

주목해 볼 부분은 이 세 도시에서 1990년대 이후 시장 활동을 통해 경제자본을 획득한 사람들이 시의 중심 공간으로 투입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일명 ‘돈주’라고 호칭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경제적 능력으로 ‘정치자본을 가진 사람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구역의 거주권을 획득하기 시작했다. 도(시)당아파트 일부를 비롯해 도급·시급 국가기관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자신들의 돈을 투자하여 아파트를 짓고 거주하기 시작한 것이다. 물리적 공간 점유의 측면에서 본다면, 북한 사회 내 계급의 사다리에서 ‘정치자본을 가진 사람’들과 동일한 거주 공간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다. 경제자본이 일정부분 기존 정치자본 중심의 공간 위계로 올라갈 수 있는 수단이 된 것이다. 그러나 경제자본이 기존의 공간 구분과 위계를 재설정하거나 재편하는 것으로 보기는 아직까지 힘든 부분이 있다. 오히려 기존의 공간 구분과 위계를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

세 번째로는, 사회적 지위 차원의 공간 분화가 있다. 사회적 지위는 부르디외 자본 논의에서 ‘사회자본(social capital)’과 ‘문화자본(cultural capital)’을 포괄한다고 할 수 있다. 사회자본은 사회적 연줄의 동원 능력이나 자원을 의미하고, 문화자본은 학력자본이나 교양자본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두 자본의 소유 수준은 사실상 북한에서 출신성분과 사회적 성분에 의해 결정되는 측면이 있다. 이 출신성분과 사회적 성분에 따라 사회적 연줄의 범위와 동원 능력, 그리고 직업과

I
II
III
IV
V

직위 이동이 제약받기도 한다. 따라서 출신성분과 사회적 성분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대체로 계층 이동에 심각한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들은 주로 도시 공간 내 주변부에 집단적으로 고립되는 경향이 강하다. 평성시의 경우 주례동과 문화동, 순천시의 경우 봉화동, 청진시의 경우 송평구역이나 청암구역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라. 기득권과 아웃사이드: 구별짓기와 공간 분화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에게 아파트는 욕망의 대상이었다. 딱딱한 질감에 곧은 직사각의 규칙화된 패턴으로 도로에 들어서서 위용을 자랑하는 아파트는 농촌과 구분되는 도시성(urbanity)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인공물(artifact)이라고 할 수 있다. 토피(흙벽돌)로 마감한 단층 초가의 지평선에 익숙했던 주민들에게 직각의 우뚝 선 아파트 스카이라인은 경이로움에 가까운 것이었다. 그런 측면에서 아파트는 농촌 사람들에게는 농촌과 도시를 가르는 심리적·물리적 경계선이이기도 했다. 또한 아파트는 줄곧 ‘영웅적’ 인민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물질적 포상의 형태로서 그 직각의 수직성만큼 신분적 상승을 의미했고, 세련되고 현대적인 도시적 삶을 표현하는 상징이었다. 북한에서 주택은 성분(출신성분·사회적 성분) 중심의 사회적 위계에 따라 배정되고 아파트에 산다는 것은 그런 위계의 상층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¹³⁶ 한편으로

¹³⁶ 국가주택이 주민에게 배정될 때 인민위원회 도시경영국 주택배정과에서 ‘국가살림 집리용허용증(입사증)’을 발급하는데, 입사증의 발급은 주택 이용자의 자격으로 출신성분, 거주등록 자격, 직업, 혼인관계, 가정형명화 정도, 정치조직 책별관계 및 전과 등의 심사를 통과하여야만 이루어지게 되어있다. 류경원, “주택거래와 그 부정부패의 내막,” 『립진강』, 3호 (2008), p. 13.

생활상의 편리성도 아파트에 대한 욕망을 자극하는 요인 중 하나이다. 1970~1980년대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지어지면서 주민들 사이에서는 “오르자 아파트!”라는 얘기가 돌았다. 이 말은 아파트가 그들 삶과 생활에 주는 편리성과 신분 상승 욕구를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었다.

1990년대 후반 이후 아파트 거래 가격은 그 상승 속도만큼 북한 사회의 인플레이션과 빈부의 차를 넓혀 놓은 측면이 있다. 현재 빈부의 차, 지위의 차, 권력의 차이는 주거 형태의 차이로 보다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아파트는 경제적 부와 정치적 지위를 가진 자가 자신의 지위를 표현하는 신분적 경제재(經濟財)가 되었다. 그런 측면에서 아파트는 계층 사다리의 위 칸으로 올라서고자 하는 신분 상승 욕망을 만들어내는 ‘상징적 공간’이자 북한사회의 가파른 계층적 위계를 물리적으로 보여주는 도시적 리얼리티(realities)라고 할 수 있다.¹³⁷ 그런 측면에서 최근 들어 조성된 아파트 건설 ‘붐’은 통치전략, 정치권력, 시장 사이에 형성된 사회적 결합(social configuration)의 차원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도시 내부는 정치적 구획선, 문화의 경계선, 계급의 구분선을 만들어 내는 ‘도시정치’가 펼쳐지는 사회적·물리적 공간이다. 다시 말해 도시는 고정된 물리적 공간이라기보다는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부단한 구별짓기, 경계짓기 전략에 의해 만들어지는 사회적 공간이기도 한 것이다. 시기를 달리하며 이들 ‘선들’의 윤곽과 이들 선들이 만들어 내는 공간적 장벽의 높이도 달라진다.

1990년대 이후 북한의 도시들에서는 이들 정치적 구획선, 계급의 구

¹³⁷ 북한 소설을 통해 북한에서 아파트가 중산층의 계급 과시적 욕망과 권력의 소유를 보여주는 공간이 되었음을 분석한 논문으로는, 이명자, “<우리집 문제>를 통해서 읽은 북한 중산층의 제2사회,” 『통일문제연구』, 19권 2호 (2007), pp. 409~414.

분선, 문화의 경계선이 보다 뚜렷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진다. 계획경제가 멈추고 시장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경제자본이 갖는 위상이 높아졌다. 이 경제자본을 가지고 행정적, 관료적 편의와 인허가권을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주택시장’이 활발하게 작동하면서 경제자본을 통해 공간을 점유하거나 소유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런 상황은 경제적 부와 정치적 힘이 결합된 계층적·계급적 경계선이 보다 강하게 그어지고 있음을 뜻한다.

경제력이나 개인들이 동원할 수 있는 정치자본, 사회적 자본의 크기에 따라 도시 내 물리적 공간을 주택시장을 통해 소유 또는 점유할 수 있게 된 상황은 공간적 구분선을 다양하게 분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분화’는 기존 ‘정치자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공간의 경계를 허물거나 재편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것은 더욱 강화하지만 이외의 지역을 계층적·계급적으로 다양하게 분화시키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딘가에 거주한다는 것이 곧 계급의 징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 속에는 정치적 힘, 경제적 능력, 문화적 구별짓기 욕망 등이 교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과거에도 주민들 내면에는 심상적 경계선들이 그어져 있었고 그것이 일상 실천이나 행동 반경에 영향을 미쳐왔다. 그러나 이런 심상적 경계선들이 보다 분화되고 또한 뚜렷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어디에 거주하느냐하는 것이 자신의 계급적 위치를 드러내고 확인하는 것이기도 한 것이다.

한편 기존의 ‘정치자본’을 소유한 사람들이 밀집한 지역에 경제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투입해 들어오면서 이들 공간 내부에서도 구별짓기는 작동하기 시작했다. 정치자본(또는 상징자본, 문화자본)을 가진 사람들은 근본 없는 장사치와 함께 산다고 불평을 하기 시작했다. 장사로 성공한 돈주들에 대한 구별짓기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이들 ‘장사치’들은 정치자본을 소유한 사람들의 힘을 등에 업거나 그들과의 협력을 통해 성장해 온 사람들이기도 하다. 이들의 일부는 더 큰 정치자본(시급을 넘어 도급, 중앙급)과 연줄을 맺고 움직일 수 있는 세력으로 성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런 이들의 ‘성장’은 언젠가 ‘정치자본’에 쉽게 무너질 수 있다. 결국 ‘정치자본’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계급의 경계선을 넘기 힘들다.

I

II

III

IV

V



V. 결론



북한에서 시장화는 다양한 정치적·사회적·경제적 변화를 가져왔다. 시장화를 통해 특정한 경제적, 사회적 행동양식이 만들어졌고, 이러한 행동양식은 일정한 시간을 경과하면서 지속적으로 삶의 패턴을 변화시켜 왔으며, 이것은 공간과정의 변화로 나타나며 그 결과 새로운 공간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다.¹³⁸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시장화가 사회적 모빌리티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를 공간구조, 도시정치, 계층변화의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북한의 평성, 순천, 청진 등 3개 도시를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우선 공간구조 차원에서 북한 도시들 사이의 관계에 주목하는 도시체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1990년대 이전까지 북한 도시는 도시 간 상호의존적인 네트워크보다는 지역자립이라는 고립성에 기초해 있었다. 도시 간 인구이동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을 통한 평양 중심의 종주도시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시장화가 본격화되면서 도시체계에서도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시장의 물자, 화폐, 정보의 거래가 중하위 도시들을 통해 연결되면서 기존 인구 규모상의 도시 순위에는 변화가 거의 없는 가운데 시장 네트워크상의 위상에 따라 도시의 중요도가 재구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연구대상이었던 평성, 순천, 청진 모두 이런 시장 네트워크의 중요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기존 인구 규모로 평가된 도시체계의 순위와 달리 시장 네트워크상의 중요도에 따라 도시의 중요도와 도시 간 관계가 새롭게 구성되고 있었다.

두 번째로, 평성, 순천, 청진을 대상으로 도시구조가 어떻게 변화되

¹³⁸ 베노 베를렌-안영진 역, 『사회공간론: 사회지리학 이론 발달사』 (파주: 한울아카데미, 2003), p. 173.

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했다. 그 결과 북한의 시장은 2000년대 들어 도시시장을 중심으로 진화해 왔다. 현재 북한에 있는 27개의 도시들은 도시 내 여러 개의 공식 시장 및 비공식적 장마당의 형태로 ‘시장터 (marketplace)’로 존재하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의 비공식 장마당, 골목장, 창고, 개인집 등을 통해 유통망을 확장하고 미세화하고 있었다. 이런 유통망에는 다양한 형태의 시장 행위를 하는 사람들로 채워져 있으며 그 형태가 계속 다양화되면서 진화하고 있다. 또한 각 도시의 중심 시장은 상품과 화폐, 사람과 정보 등이 모이는 수준과 규모에 따라 위계화 되어 상호의존적인 체계로 네트워크화 되어 있었다. 그런 측면에서 시장은 이제 북한에서 도시 물리적 공간 안에 다양한 형태와 활동을 통해 시스템화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도시 자체가 하나의 시장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시장은 기본적으로 인구가 상대적으로 밀집된 도시를 거점으로 발달하며 도시의 여러 기능과 결합되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성장해가기 마련이다. 1990년대 시장 활동이 본격화된 이후 북한의 시장은 도시의 기능과 성격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었다. 도시 자체의 생존에서 시장의 중요성이 커졌으며 도시 속으로 시장이 스며들면서 도시 자체가 하나의 시장 시스템화 되어 진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에서 도시 자체가 하나의 시장 시스템으로 진화하는 데 있어 특히 주목할 부분은 각 도시에 있는 도매시장의 역할이다. 상품과 화폐를 뺏아들이고 밀어내는 ‘펌프’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북한에 있는 도매시장은 전국적인 시장 네트워크의 형성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심장’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의 도매시장은 전국적인 유통망의 핵심적 동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생산을 유도하고 활성화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런 측면에서 북한에서 도시시장은 이제 입지산업

이자 지역산업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3개 도시의 비교를 통해 발견된 점은 도시 사이에 시장을 전유하는 방식과 시장의 활성화 수준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시장 입지의 경제지리적 특징을 살펴본 결과, 교통의 입지가 매우 중요하게 시장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평성시와 청진시에 전국적인 도매시장이 발달한 원인과 배경 중에는 위에서 언급한 교통의 입지가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평성시가 특별한 산업기반 없이 시장을 통해 번성할 수 있었던 요인에는 지리적 요인이 결정적이었다. 둘째, 도매시장 및 시장 네트워크 발달은 운수업의 성장과 함께 한다는 점이다. 운수업은 시장과 사람을 연결하면서 물자를 실어나르는 혈관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3개 도시 모두에서 시장은 운수업과 동시에 발달하고 있었다. 셋째, 시장의 위치와 규모에 따라 파는 품목에서 기능적인 분화가 일정 부분 나타나고 있었다. 시장 사이의 전문화와 차별화 전략이 나타나고 있었다. 넷째, 다양한 공간과 기술을 이용한 시장의 형태적 진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다섯째, 유동인구가 증가하면서 임대업 및 창고업이 발달하고 있었다. 여섯째, 시장 매대를 벗어나 다양한 공간을 이용한 시장 활동이 많아지면서 도시 전체가 하나의 시장 시스템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민간자본의 수준이 과거 소규모 돈주의 수준을 넘어서 권력과 유착 고리를 확대하면서 그 자본 축적의 규모를 다양한 방식을 통해 늘리고 있었다.

다섯째, 도시 건설시장을 통해 어떻게 국가, 도시 관료, 민간자본, 주민들이 결합한 건설동맹이 형성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북한의 시장화는 곧 주택의 상품화 과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000년대 들어 주택은 시장을 통해 축적된 민간자본을 통해 건설되고 거래되는 상품이 되었다. 북한에서 주택은 이제 자본 축적 수단, 부와 지위의

I
II
III
IV
V

과시 수단, 소비 욕망의 대상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아파트 건설과 거래를 둘러싼 이해관계도 한층 복잡하고 다양해졌다. 많은 사람들이 건설시장을 통한 이윤 창출에 관심을 갖고 관여하기 시작했다. 국가 역시 건설시장을 이용해 다양한 방식으로 이익을 쟁취하기 시작했다. 기본적으로 ‘건설’은 구체적인 토지 위에 실체화된다는 점에서 국가의 개입이나 승인, 방조, 묵인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국가는 민간자본과 결탁하여 건설 실적과 기관 이익을 챙겨왔다.

이와 같이 2000년대 들어 조성된 건설 붐은 국가권력, 민간자본, 시장, 도시 관료들이 결합한 일정한 시장 메커니즘을 형성하고 있다.¹³⁹ 특히 아파트 건설은 새로운 지도자의 능력을 과시하려는 정치적 동기, 기관 및 개인 이익을 챙기려는 국가 권력기관들 사이의 경쟁, 할당된 계획실적을 달성하고 이익을 내려는 기관·기업소의 생존논리, 부를 축적하려는 민간자본의 경제적 동기, 그리고 건설에 필요한 목재, 철근, 시멘트, 장비, 인력 등의 수요를 만들어내려는 시장의 유인 등이 결합해 이루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도시정치 논의를 통해 북한의 시장화와 사회적 모빌리티를 해석해 보고자 했다. 그 결과 북한에서 건설시장을 둘러싼 ‘아파트 건설 동맹’은 도시정치론이 제시하고 있는 ‘성장연합론’과 유사한 측면이 있었다. 도시시장으로부터 많은 이익과 기득권을 획득할 수 있는 사람들을 ‘시장세력’이라고 정의한다면, 이들 시장세력은 상호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도시정치를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시장 시스템을 유지하고 확장하기 위해 중앙 당국과 끊임없이 교섭과 흥정을 하며 정책을 유리한 방향을 유도하고자 정치를 펼치는 것이다. 북한의

¹³⁹ 홍민, “북한의 아파트 건설시장과 도시정치,” p. 44.

도시에서는 당·행정 관료, 주택시장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는 개발업자, 중개인, 민간자본가 등이 있고 건설시장에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연합’에 동참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합은 공공 서비스의 약화나 빈부 격차의 심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면서 도시 사회적 갈등을 낳을 가능성이 높다.

가령 국가가 주민들에게 마땅히 제공해야 할 주택이 시장과 민간자본에 의해 건설되고 있다는 점이다. 주택건설에 드는 비용을 사회에 전가하는 한다는 측면에서 비용의 사회화, 주택건설시장을 통해 만들어진 잉여가 자본화된다는 측면에서 주택건설 이익의 자본화 및 국가화가 나타나고 있다. 국가가 주택건설에 드는 비용을 사회와 시장에 부담 — 세금, 노력, 현물 — 시키고 이윤은 시장과 국가가 챙기는 방식인 것이다. 국가는 명분과 계획을 시장이 대체하면서 시장은 계급과 소득 격차의 문제로 나타난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도시정치는 일반 주민들에게는 돌아올 것이 없는 빈곤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시장화가 가져온 사회계층의 공간적 분화와 위계화 현상을 파악해 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시장화에 따른 계층별 거주지 분화, 지역별 주택가격 형성과 신규 주택건설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 지역의 특징, ‘자본’ 소유 수준에 따른 공간의 분화가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고자 했다. 분석 결과 소득, 정치적 요인, 시장 활동 편의, 그리고 상징적 요인 등에 의해 과거와는 다른 일정한 계층별 거주지 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연구 대상이었던 평성, 순천, 청진에서는 도(시)당위원회-시장-역전이라는 삼각축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의 시세 차이가 발생하고 새로운 주택건설지가 결정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본 소유 수준에 따른 공

I
II
III
IV
V

간의 분화 현상도 나타나고 있었다. 과거 정치자본의 압도적 우위 속에서 정치행정기관 입지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돼 있던 도시 공간 내 위계가 경제자본을 통해 일정한 균열이 나타나고 있었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고유환·박희진. 『북한도시 함흥·평성 자료해제집』. 서울: 선인, 2013.
- _____. 『북한도시 함흥·평성 자료해제집2』. 서울: 선인, 2014.
- 고유환·홍민 외. 『사회주의 도시와 북한: 도시사연구방법론』. 파주: 한울아카데미, 2013.
- _____. 『함흥과 평성: 공간·일상·정치의 도시사』. 파주: 한울아카데미, 2014.
- 김덕홍. 『나는 자유주의자이다』. 서울: 집사재, 2015.
- 김두섭 외. 『북한 인구조사와 인구센서스』. 대전: 통계청, 2011.
- 김병로. 『북한의 지역자립체계』. 서울: 통일연구원, 1999.
- 김 원. 『사회주의 도시계획』. 서울: 보성각, 2004.
- 김익성 외. 『조선지리지전서: 공업지리』.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89.
- 김필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생산력 배치에 관한 탁월한 리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
- 노형석. 『한국 근대사의 풍경』. 서울: 생각의 나무, 2005.
- 대한토목학회 엮음. 『북한의 도시 및 지역개발』. 서울: 보성각, 2009.
- 동국대학교 분단/탈분단연구센터 엮음. 『분단의 행위자-네트워크와 수형성』. 파주: 한울아카데미, 2015.
- 박배균. “도시와 정치.” 김인·박수진 엮음. 『도시해석』. 서울: 푸른길, 2006.
- 박형중·최사현. 『북한에서 국가재정의 분열과 조세 및 재정체계』. 서울: 통일연구원, 2013.

- 베노 베를렌·안영진 역. 『사회공간론: 사회지리학 이론 발달사』. 파주: 한울아카데미, 2003.
- 손희두. 『북한의 부동산관리법제와 남북한 협력방안 연구』.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2012.
- 수태관 권철, 이기홍 역. 『토폴로지』. 서울: 에코리브르, 2010.
- 양문수. 『북한의 계획경제와 시장화 현상』.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3.
- 윤정섭. 『도시계획사 개론』. 서울: 문우당, 1987.
- 이금순. 『북한주민의 거주·이동: 실태 및 변화전망』. 서울: 통일연구원, 2007.
- 이 석. 『1994~2000년 북한 기근: 발생, 충격 그리고 특징』. 서울: 통일연구원, 2004.
- 이우영. 『북한 도시주민의 사적 영역 연구』. 파주: 한울아카데미, 2008.
- 임동우. 『평양 그리고 평양 이후: 평양 도시 공간에 대한 또 다른 시각』. 파주: 효형출판, 2011.
- 임동우·라파엘 루나. 『북한 도시 읽기』. 서울: 담디, 2014.
- 전종한 외. 『인문지리학의 시선』. 서울: 논형, 2008.
- 정은진. “도시와 주거.” 김인·박수진 엮음. 『도시해석』. 서울: 푸른길, 2006.
- 조명래. 『현대사회의 도시론』. 파주: 한울아카데미, 2002.
- 존 어리, 강현수 외 역. 『모빌리티』. 파주: 아카넷, 2014.
- 존 어리, 윤여일 역. 『사회를 넘어선 사회학: 이동과 하이브리드로 사유하는 열린 사회학』. 서울: 휴머니스트, 2012.
- 최병두. 『인문지리학 개론』. 파주: 한울, 2008.
- 최완규. 『북한 도시의 형성과 발전』. 파주: 한울아카데미, 2004.

- _____. 『북한도시의 위기와 변화』. 파주: 한울아카데미, 2006.
- _____. 『북한 ‘도시정치’의 발전과 체제 변화-2000년대 청진·신의주·혜산』. 파주: 한울아카데미, 2007.
- 통일연구원. 『2015 북한인권백서』. 서울: 통일연구원, 2015.
- 페르낭 브로델. 주경철 역.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I -1 - 일상생활의 구조 上』. 서울: 까치, 1995.
- _____.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II-1 - 교환의 세계 上』. 서울: 까치, 1996.
- 한주성. 『유통지리학』. 파주: 한울아카데미, 2003.
- 홍 민. “북한의 시장일상생활연구: 그로테스크와 부조리극 ‘사이’에서.” 북한일상생활연구센터 엮음. 『북한의 일상생활세계: 외침과 속삭임』. 파주: 한울, 2010.

- Andrusz, Gregory, Michael Harloe, and Ivan Szelenyi. eds. *Cities After Socialism: Urban and Regional Change and Conflict in Post-Socialism Societies*. Oxford: Blackwell, 1996.
- Bourdieu, Pierre. *Practical Reason: On the Theory of Action*.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8.
- Callon, Michel et al. eds. *Market Devices*. New Jersey: Wiley Blackwell, 2007.
- Castells, Manuel. *The Urban Question: A Marxist Approach*. London: Edward Arnold, 1977.
- Dormels, Rainer. *North Korea's Cities: Industrial Facilities, Internal Structures and Typification*. Paju: Jimoondang, 2014.
- Farias, Ignacio and Thomas Bender. eds. *Urban Assemblages: How Actor-Network Theory Changes Urban Studies*.

- Abingdon: Routledge, 2010.
- French, R. A. and F. E. Ian Hamilton. *The Socialist City: Spatial Structure and Urban Policy*. New York: John Wiley & Son, 1979.
- Hartshon, Truman A. *Interpreting the City: An Urban Geography*. New York: John Wiley & Sons, 1980.
- Harvey, David. "The Geopolitics of Capitalism." In *Social Relations and Spatial Structures*. edited by Derek Gregory and John Urry. Oxford: Blackwell, 1985.
- Jessop, Bob. *State Theory: Putting Capitalist States in Its Place*. Cambridge: Polity Press, 1990.
- Johnston, Ron J. et al. eds. *The Dictionary of Human Geography*. Oxford: Blackwell, 2000.
- Natsios, Andrew S. *The Great North Korean Famine*. Washington, D.C.: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Press, 2001.
- Zipf, George. K. *Human Behavior and the Principle of Least Effort: An Introduction to Human Ecology*. Massachusetts: Addison-Wesley, 1949.

2. 논문

- 고성호. "북한의 도시화 과정과 특징." 『통일문제연구』. 8권 1호, 1996.
- 곽명일. "북한 '지역시장'의 형성과 발전에 관한 연구-해주시장 사례를 중심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2.
- 김근용. "북한의 주거실태와 주택투자 소요 추정." 『건설경제』. 57권, 2008.

- 류경원. “주택거래와 그 부정부패의 내막.” 『림진강』. 3호, 2008.
- 손혜민. “몽당장사의 등에 업힌 세멘트련합기업.” 『림진강』. 15호, 2012.
- 안재섭. “도시지리학의 주요 연구방법과 도시사.” 동국대 북한도시사연구팀 북한도시사세미나 발표문, 2012.7.25.
- 양문수. “2015년 북한 시장화 동향과 향후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1월호, 2016년 발간예정.
- 이명자. “<우리집 문제>를 통해서 읽은 북한 중산층의 제2사회.” 『통일문제연구』. 19권 2호, 2007.
- 이 석. “현 단계 북한경제의 특징과 설명 가설들.” 『KDI 북한경제리뷰』. 11권 1호, 2009.
- 임을출. “북한 시금음의 형성과 발전: 양태, 함의 및 과제.” 『통일문제연구』. 27권 1호, 2015.
- 장병일. “북한 주민의 주택 이용관계와 민법상의 임대차계약.” 『통일정책연구』. 20권 2호, 2011.
- 정은이. “2000년 이후 북한시장의 발전요인에 관한 분석.” 『비교경제연구』. 19권 1호, 2012.
- _____. “북한무역회사에 관한 연구: 북중 접경도시 ‘신의주’를 중심으로,” 『2012 통일부 신진연구자 정책과제』. 2012.
- _____. “북한의 주택시장에 관한 연구: 함경북도 무산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KDI 북한경제리뷰』. 7월호, 2012.
- 조현숙. “중소도시의 계획적 형성은 도시어로 인구집중을 막기 위한 합리적인 도시형성방식.” 『경제연구』. 1호, 2004.
- 한기범. “북한 정책결정과정의 조직행태와 관료정치: 경제개혁 확대 및 후퇴를 중심으로(2000~2009).”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2009.
- 홍 민. “북한의 아파트 건설시장과 도시정치.” 『KDI 북한경제리뷰』.

8월호, 2014.

_____. “행위자-연결망 이론과 분단연구: 분단 번역의 정치와 ‘일상으로의 전환’.” 『동향과 전망』. 83호, 2011.

_____. “북한의 국가와 시장 관계: 위상학적 이해의 가능성.” 『북한연구학회보』. 16권 2호, 2012.

Hardie, Iain and Donald Mackenzie. “Assembling an Economic Actor: The Agencement of a Hedge Fund.” *The Sociological Review*. vol. 55, iss. 1. 2007.

Jefferson, Mark. “The Law of the Primate City.” *Geographical Review*. vol. 29. 1939.

Kjellberg, Hans and Claes-Fredrik Helgesson. “Multiple Versions of Markets: Multiplicity and Performativity in Market Practice.” *Industrial Marketing Management*. vol. 35, iss. 7. 2006.

Macleod, Gordon and Martin Jones. “Renewing Urban Politics.” *Urban Studies*. vol. 48, no. 12. 2011.

Murdie, Robert A. “Factorial Ecology of Metropolitan Toronto, 1951~1961.” University of Chicago, Department of Geography Research Paper no. 116. 1969.

Ward, Kevin and David Imbroscio. “Urban Politics: An Interdisciplinary Dialogue.”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vol. 35, no. 4. 2011.

3. 기타자료

『노동신문』.

『노컷뉴스』.

『뉴시스』.

『동아일보』.

『데일리NK』.

『산케이신문』.

『연합뉴스』.

『자유아시아방송』.

『조선신보』.

『코나스』.

구글 어스. <earth.google.com>.

국가통계포털. <kosis.kr>.

위키매피아. <wikimapia.org>.

사단법인 좋은벗들 북한연구소 엮음. 『오늘의 북한소식』. 12호. 2006.10.11.

_____. 『오늘의 북한소식』. 115호. 2008.1.30

_____. 『오늘의 북한소식』. 107호. 2008.3.12.

북한이탈주민 면담. 2015.7.10.; 2015.7.13.; 2015.7.14.; 2015.7.15.; 2015.

7.16.; 2015.7.23.; 2015.7.24.; 2015.7.26.; 2015.7.29.; 2015.7.30.;

2015.8.7.; 2015.8.11.; 2015.8.28.

Siberstein, Benjamin Katzeff. "Growth and Geography of Markets
in North Korea: New Evidence from Satellite Imagery."
US·KOREA Institute at SAIS, October 2015.

KINU 통일포럼 시리즈

2014-01 제1차 KINU 통일포럼: 『드레스덴 구상』과 ‘행복한 통일’	통일연구원
2014-02 제2차 KINU 통일포럼: 김정은 시대 북한의 핵보유 및 대남정책	통일연구원
2014-03 제3차 KINU 통일포럼: 북일 스톡홀름 합의와 동북아정세	통일연구원
2014-04 제4차 KINU 통일포럼: 통일준비를 위한 과제와 전략	통일연구원
2014-05 제5차 KINU 통일포럼: 동북아 전략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향	통일연구원
2014-06 제6차 KINU 통일포럼: 북한인권정책 추진전략	통일연구원
2015-01 제7차 KINU 통일포럼: 동북아 국제질서 전환기 한국의 전략적 딜레마와 통일·외교정책 방향	통일연구원
2015-03 제9차 KINU 통일포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업그레이드 전략 - 8·25남북합의 평가와 박근혜정부 후반기 대북·통일정책 방향 -	통일연구원
2015-04 제10차 KINU 통일포럼: 통일담론 3.0과 북한 변화 전략	통일연구원
2015-05 제11차 KINU 통일포럼: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대내외 정책 평가와 전망	통일연구원

통일나침반(통일정세분석)

■ 통일정세분석 ■

2013-01 2013년 북한 신년사 집중분석	전성훈 외
2013-02 3차 핵실험 이후 김정은 정권의 대내외 정책	전성훈 외
2013-03 시진핑 체제의 출범과 대내외정책 방향: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결과분석	전병근 외
2013-04 북한 3차 핵실험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 논의 동향	박형중 외
2013-05 대북경제제재에 대한 북한의 반응과 대북정책에의 함의	임강택
2013-06 한미정상회담 결과 분석	김규륜 외
2013-07 한중정상회담 결과 분석	이기현
2013-08 김정은 정권의 대내외 정책평가와 우리의 대응방향	박영자
2014-01 2014년 북한 신년사 분석	박형중 외
2014-02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1차 회의결과 분석과 전망	박영자 외
2014-03 한미 정상회담 결과 분석	김규륜

■ 통일나침반 ■

2015-01 2015년 북한 신년사 분석	북한연구센터 신년사 분석팀
2015-02 최근 2년 간 미·일·중·러 4개국 정상외교 분석 및 한국 통일외교에 대한 시사점	김진하 외
2015-03 북한인권정책 추진전략과 실천과제	한동호, 도경옥
2015-04 북한 외화벌이 추세와 전망	김석진

2015-05 연해주 지역 북한 노동자의 실태와 인권	이애리아, 이창호
2016-01 효율적 대북제재: 데이터 분석과 함의	이 석
2016-02 2016년 북한 신년사 분석	김갑식 외
2016-03 4차 북핵실험 이후 대북정책	통일연구원 현안대책팀

통일플러스

2015-01 KINU 통일 플러스 Vol.1 No. 1 (봄호)	통일연구원
2015-02 KINU 통일 플러스 Vol.1 No. 2 (여름호)	통일연구원
2015-03 KINU 통일 플러스 Vol.1 No. 3 (가을호)	통일연구원
2015-04 KINU 통일 플러스 Vol.1 No. 4 (겨울호)	통일연구원
2016-01 KINU 통일 + Vol.2 No. 1 (봄호)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12	김수암 외	19,5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2</i>	손기웅 외	23,500원
북한인권백서 2013	조정현 외	24,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3</i>	조정현 외	23,000원
북한인권백서 2014	한동호 외	24,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4</i>	한동호 외	23,000원
북한인권백서 2015	도경욱 외	19,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5</i>	도경욱 외	23,000원

연구보고서

2013년도 연구보고서

■ 연구총서 ■

2013-01 남북러 가스관과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지정학	이기현 외	6,000원
2013-02 한국의 FTA전략과 한반도	김규륜 외	8,500원
2013-03 김정은 체제의 변화 전망과 우리의 대책	박중철 외	10,000원
2013-04 EC/EU사례분석을 통한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추진방안 - EC기 분석을 중심으로 -	손기웅 외	12,000원
2013-05 오바마-시진핑 시대의 동북아 국가들의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과 한국의 대북 및 통일외교	배정호 외	11,000원
2013-06 북한사회 위기구조와 사회변동전망: 비교사회론적 관점	조한범, 황선영	6,000원
2013-07 인도적 지원을 통한 북한 취약계층 인권 증진 방안 연구	이규창 외	12,500원

2013-08 새로운 세대의 탄생: 북한 청소년의 세대경험과 특성	조정아 외	15,000원
2013-09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책 연구	홍우택	6,000원
2013-10 북한에서 국가재정의 분열과 조세 및 재정체계	박형중, 최사현	7,000원
2013-11 북한경제의 비공식(시장)부문 실태 분석: 기업활동을 중심으로	임강택	11,000원
2013 유엔 인권메커니즘과 북한인권	북한인권사회연구센터 편	18,000원
2013 중국 시진핑 지도부의 구성 및 특징 연구 (중국 지도부의 리더십 분석과 한중정책협력방안 2013)	전병곤 외	9,000원
2013 통일 이후 통합을 위한 갈등해소 방안: 사례연구 및 분야별 갈등해소의 기본방향	박종철 외	13,000원
2013 한반도 통일에 대한 동북아 4국의 인식 (통일외교 컨텐츠 생산(1))	배정호 외	16,500원
2013 알기 쉬운 통일교육III: 북한이탈주민용	조정아 외	11,000원
2013 알기 쉬운 통일교육III: 북한이탈주민용 수업지침서	조정아 외	6,000원
2013 민주화 및 양질의 거버넌스 수립: 북한 변화와 통일을 위한 시사점 (통일대계연구 13-01)	박형중 외	13,500원
2013 시장화 및 빈곤감소형 경제질서 수립: 북한 변화와 통일을 위한 시사점 (통일대계연구 13-02)	임강택 외	12,500원
2013 통일대계연구: 4년 연구 종합논의 (통일대계연구 13-04)	박형중 외	8,000원
2013 정치·사회·경제 분야 통일 비용·편익 연구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3-1)	조한범 외	17,500원
2013 The Attraction of Korean Unification: Inter-Korean and International Costs and Benefits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3-2)	김규륜 외	15,500원
2013 한반도 통일의 미래와 주변 4국의 기대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3-3)	김규륜 외	10,500원
2013 전환기 중국의 정치경제 (통일대비 중국에 대한 종합적 전략 연구: 통일시대 한중관계 전망 2013-1)	배정호 외	15,500원
2013 China's Internal and External Relations and Lessons for Korea and Asia (통일대비 중국에 대한 종합적 전략 연구: 통일시대 한중관계 전망 2013-2)	Bae Jung-Ho, Ku Jae H.	17,500원
2013 중국의 대내외 관계와 한국의 전략적 교훈 (통일대비 중국에 대한 종합적 전략 연구: 통일시대 한중관계 전망 2013-3)	배정호, 구재희 편	16,500원

■ 정책연구시리즈 ■

2013-01 북한 지하자원을 활용한 DMZ/접경지역 남북 산업단지 조성방안	손기웅 외
2013-02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방향	최진욱 외
2013-03 박근혜정부의 통일외교안보 비전과 추진 과제	최진욱 외
2013-04 유엔조사위원회(COI) 운영 사례 연구	김수암 외
2013-05 Trustpolitik: 박근혜정부의 국가안보전략 - 이론과 실제 탐색연구 -	박형중 외
2013-06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	안지호 외
2013-07 2013년 북한 정책 논조 분석과 평가	박형중 외
2013-09 김정은 정권의 대남 긴장조성: 2013년과 향후 전망	박영자 외
2013-10 국내불안과 대외도발: 북한에 대한 적용 가능성 탐색	정성철
2013-11 2013년 북한 핵프로그램 및 능력 평가	김동수 외

■ 협동연구총서 ■

2013-26-01	한반도 통일 공공외교 추진전략(II) - 한국의 주변4국 통일공공외교의 실태 연구 (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4,000원
2013-26-02	한국의 對미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박영호 외	8,000원
2013-26-03	한국의 對중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전병곤 외	7,500원
2013-26-04	한국의 對일본 통일 공공외교 실태	이기태 외	8,000원
2013-26-05	한국의 對러시아 통일 공공외교 실태	조한범 외	6,000원

■ Study Series ■

2013-01	Study on the Power Elite of the Kim Jong Un Regim	Lee Kyo Duk et al.
2013-02	Relations between Corruption and Human Rights in North Korea	Kim Soo Am et al.
2013-03	Easing International Concerns over a Unified Korea and Regional Benefits of Korean Unification	Park Jong Chul et al.
2013-04	'Peaceful Utilization of the DMZ' as a National Strategy	Son Gi Woong et al.
2013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8권 1호	이금순 외
2013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8권 2호	이금순 외

2014년도 연구보고서

■ 연구총서 ■

2014-01	북-중 간 인적 교류 및 네트워크 연구	이교덕 외	7,500원
2014-02	북한변화 촉진 및 남북친화성 증대: 이론발굴과 적용모색	박형중, 박영자	7,500원
2014-03	북한 비공식 경제 성장요인 연구	김석진, 양문수	9,000원
2014-04	신동북아질서 시대의 중장기 통일전략	성기영 외	7,000원
2014-05	'행복한 통일'로 가는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형성을 위한 통합정책: EC/EU 사례 분석을 통한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추진방안	손기웅 외	6,000원
2014-06	탈북청소년의 경제 경험과 정체성 재구성	조정아, 홍민, 이희영, 이항규, 조영주	14,000원
2014-07	한국의 대북 인권정책 연구	한동호	6,000원
2014-08	법치지원과 인권 증진: 이론과 실제	이금순, 도경옥	8,000원
2014-09	신뢰정책의 과제와 추진전략	박영호, 정성철 외	11,000원
2014-10	대미(對美)·대중(對中) 조화외교: 국내 및 해외 사례연구	김규륜 외	10,500원
2014-11	북한의 핵전략과 한국의 대응전략	정영태, 홍우택 외	12,000원
2014-12	중국의 주변외교 전략 연구: 중국의 대북정책 결정에 대한 함의	이기현, 김애경, 이영학	7,000원
2014-13	한반도에 있어서 과도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	김수암 외	
2014	The Trust-building Process and Korean Unification (통일대계연구 13-03)	최진욱 편저	8,000원
2014	중국 권력엘리트와 한중교류 네트워크 분석 및 DB화 (중국 지도부의 리더십 분석과 한중 정책협력방안 2014)	전병곤, 홍우택, 신중호 외	9,000원
2014	북한의 시장화와 인권의 상관성 (북한인권정책연구 2014)	북한인권연구센터	11,000원
2014	동북아 4국의 대외전략 및 대북전략과 한국의 통일외교 전략		

	배정호, 봉영식, 한석희 외	9,500원
2014	2014년 통일에측시계	박영호, 김형기 9,500원
2014	통일한국의 국가상과 한중협력 (통일대비 중국에 대한 종합적 전략 연구 2014-01)	배정호 외 15,500원
2014	China's Strategic Environment and External Relations in the Transition Period (A Comprehensive Strategic Study on China in Preparation for Korean Unification 2014-02)	Bae, Jung-Ho et al. 18,000원
2014	Global Expectations for Korean Unification (Research on Unification Costs and Benefits 2014-01)	Kyuryoon Kim et al. 19,000원
2014	Lessons of Transformation for Korean Unification (Research on Unification Costs and Benefits 2014-02)	Kyuryoon Kim et al. 15,500원
2014	한반도 통일의 효과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4-3)	김규륜 외 4,500원
2014	2014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박종철, 허문영, 송영훈, 김갑식, 이상신, 조원빈 12,000원
2014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IV(1)	조정아 외 7,000원
2014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IV(2)	조정아 외 22,000원
2014	신통일대계 구현을 위한 구조분석	허문영 외 12,000원
2014	Law and Policy on Korean Unification: Analysis and Implications	박종철 외 11,000원
2014	'그린 데탕트' 실천전략: 환경공동체 형성과 접경지역-DMZ 평화생태적 이용방안	손기웅 외 17,000원

■ 정책연구시리즈 ■

2014-01	농업분야의 지속가능한 대북지원 및 남북 협력방안 모색	임강택, 권태진
---------	-------------------------------	----------

■ Study Series ■

2014-01	Korea's FTA Strategy and the Korean Peninsula	Kim, Kyuroon et al.
2014-02	The Perceptions of Northeast Asia's Four States on Korean Unification	Bae, Jung-Ho et al.
2014-03	The Emergence of a New Generation: The Generational Experience and Characteristics of Young North Koreans	Cho, Jeong-ah et al.
2014-04	Geopolitics of the Russo-Korean Gas Pipeline Project and Energ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Lee, Kihyun et al.
2014-05	Fiscal Segmentation and Economic Changes in North Korea	Park Hyeong Jung, Choi Sahyun
2014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9권 1호	이금순 외

2015년도 연구보고서

■ 연구총서 ■

2015-01	김정은 정권의 정치체제: 수령제, 당·정·군 관계, 권력엘리트의 지속성과 변화	김갑식 외 9,000원
2015-02	북한의 시장화와 사회적 모빌리티: 공간구조·도시정치·계층변화	홍민 13,000원

2015-03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교육정책·교육과정·교과서	조정아 외	13,500원
2015-04	2015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인식, 요인, 범주, 유형	박종철 외	16,500원
2015-05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유라시아 협력 추진을 위한 다자주의적 접근	현승수 외	8,000원
2015-06	북한주민의 임파워먼트: 주체의 동력	박영자 외	10,500원
2015-08	인권개선을 위한 기술협력	한동호 외	6,500원
2015-09	중국의 주변외교 전략과 대북정책: 사례와 적용	이기현 외	7,500원
2015-10	한반도 중장기 정세 변동 및 정책 도전 관련 요인의 식별(2015~2030)	박형중 외	16,500원
2015	'그린 데탕트' 실천전략: 환경공동체 및 경제공동체 동시 형성방안	손기웅 외	10,500원
2015	2015년 통일예측시계	홍석훈 외	10,000원
2015	남북한 통합과 북한의 수용력: 제도 및 인식 측면	김수암 외	15,500원
2015	북한에 의한 납치 및 강제실종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10,000원
2015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이규창 외	8,000원
2015	통일외교 콘텐츠 개발	김진하 외	9,000원
2015	통일 이후 국가정체성 형성방안: 이론과 사례연구 중심	박종철 외	10,000원
2015	통일 이후 사회보장제도 분리 운영방안: 경제적 및 법적 분석	김석진 외	8,000원
2015	한반도 통일의 비용과 편익: 정치·사회·경제분야	조한범 외	11,500원
2015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와 역할: 주변 4국과 G20	조한범 외	14,000원
2015	북한 접경지역에서의 남·북·중 협력방향 모색(종합요약보고서)	전병곤 외	10,000원
2015	길립성의 대북경제협력 실태 분석: 대북투자를 중심으로	배종렬 외	13,000원

■ 정책연구시리즈 ■

2015-01	전환기 쿠바와 북한 비교: 정책적 함의	박영자 외
---------	-----------------------	-------

■ Study Series ■

2015-01	Tasks and Implementing Strategies of the "Trust-Building" Policy	Park, Young-Ho
2015-02	The Growth of the Informal Economy in North Korea	Kim, Suk-Jin
2015-03	The Experiences of Crossing Boundaries and Reconstruction of North Korean Adolescent Refugees' Identities	Cho, Jeong-ah et al.
2015-04	Implementation Strategies for Policies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KINU Center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Studies

연례정보보고서

2013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3~2014	7,000원
2014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4~2015	6,000원
2015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5~2016	8,000원

논문총

통일정책연구, 제22권 1호 (2013)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2, No. 1 (201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2권 2호 (2013)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2, No. 2 (201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3권 1호 (2014)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3, No. 1 (201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3권 2호 (2014)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3, No. 2 (201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4권 1호 (201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4, No. 1 (201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4권 2호 (201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4, No. 2 (201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4, No. 3 (2015)	10,000원

학술회의총서

비매품

2013-01 유엔 인권메커니즘과 북한인권 증진방안	20,000원
2013-02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추진전략	19,000원

기타

2014 북핵일지 1955~2014	조민, 김진하
---------------------	---------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학술회의 총서, 협동연구총서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통일연구원 발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경영지원실 지식정보팀 도서회원 담당자
- 나)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9, E-Mail: books@kinu.or.kr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가입기간 중 주소 변경 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한국의 내일,
우리에게는 오늘입니다



북한의 시장화와
사회적 모빌리티:
공간구조·도시정치·계층변화

KINU 통일연구원

www.kinu.or.kr



9 788984 798212

ISBN 978-89-8479-821-2

ISBN 978-89-8479-815-1 (세트)